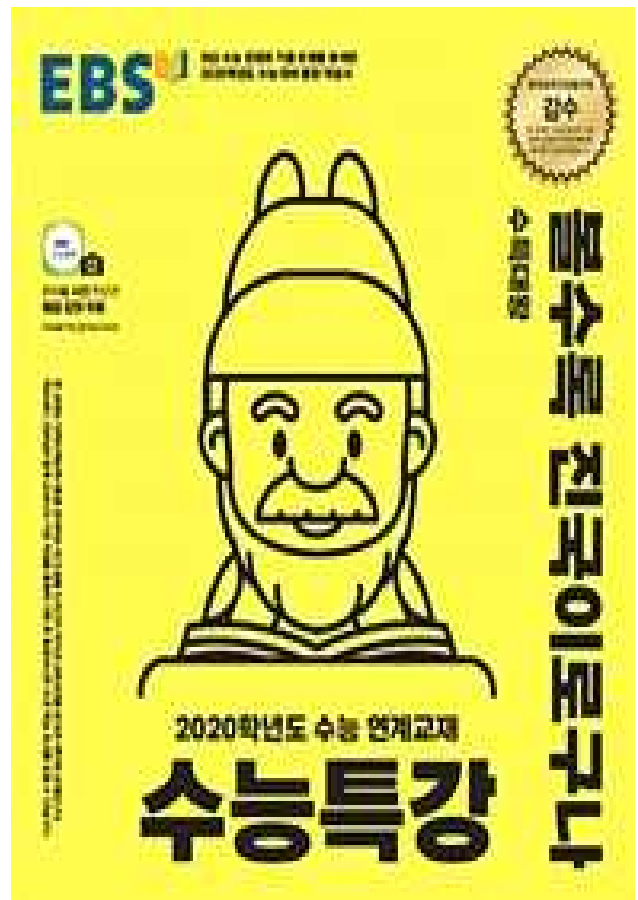


2020 대비 EBS 수능 특강
45문제 모의고사로 변형

수능

특강

모의고사



[독서+문학+화작문] 통합 수록
(총 14회분)

www.chongmangug.co.kr(풀버전)

<차례>

1차	-----	1쪽
2차	-----	19쪽
3차	-----	38쪽
4차	-----	57쪽
5차	-----	76쪽
6차	-----	95쪽
7차	-----	115쪽
8차	-----	133쪽
9차	-----	150쪽
10차	-----	169쪽
11차	-----	187쪽
12차	-----	206쪽
13차	-----	224쪽
14차	-----	242쪽

1차 정답

1.⑤ 2.⑤ 3.④ 4.③ 5.③ 6.④ 7.④ 8.② 9.⑤ 10.② 11.③ 12.⑤
13.④ 14.⑤ 15.① 16.① 17.③ 18.③ 19.③ 20.① 21.② 22.③ 23.
⑤ 24.⑤ 25.④ 26.④ 27.④ 28.④ 29.④ 30.④ 31.⑤ 32.③ 33.②
34.④ 35.④ 36.⑤ 37.⑤ 38.③ 39.⑤ 40.② 41.④ 42.③ 43.④ 44.
③ 45.⑤

2차 정답

1.③ 2.③ 3.③ 4.④ 5.④ 6.⑤ 7.④ 8.① 9.③ 10.② 11.③ 12.③
13.③ 14.⑤ 15.② 16.⑤ 17.③ 18.③ 19.④ 20.② 21.④ 22.③ 23.
④ 24.⑤ 25.④ 26.③ 27.③ 28.③ 29.① 30.⑤ 31.④ 32.② 33.④
34.② 35.② 36.② 37.③ 38.⑤ 39.④ 40.② 41.④ 42.④ 43.② 44.
⑤ 45.⑤

3차 정답

1.② 2.③ 3.③ 4.④ 5.④ 6.② 7.③ 8.③ 9.① 10.④ 11.② 12.①
13.② 14.④ 15.② 16.④ 17.⑤ 18.② 19.⑤ 20.③ 21.⑤ 22.⑤ 23.
③ 24.② 25.⑤ 26.⑤ 27.② 28.② 29.③ 30.③ 31.② 32.③ 33.⑤
34.② 35.⑤ 36.③ 37.③ 38.① 39.③ 40.① 41.⑤ 42.③ 43.① 44.
④ 45.④

4차 정답

1.③ 2.④ 3.④ 4.⑤ 5.① 6.⑤ 7.⑤ 8.④ 9.③ 10.⑤ 11.④ 12.①
13.③ 14.③ 15.③ 16.③ 17.④ 18.③ 19.② 20.④ 21.⑤ 22.④ 23.
⑤ 24.② 25.④ 26.⑤ 27.② 28.① 29.⑤ 30.③ 31.⑤ 32.④ 33.③
34.④ 35.③ 36.② 37.⑤ 38.⑤ 39.① 40.④ 41.⑤ 42.④ 43.⑤ 44.
⑤ 45.②

5차 정답

1.④ 2.① 3.③ 4.③ 5.⑤ 6.④ 7.⑤ 8.⑤ 9.③ 10.③ 11.② 12.⑤
13.② 14.② 15.① 16.② 17.⑤ 18.③ 19.⑤ 20.④ 21.② 22.② 23.
④ 24.④ 25.⑤ 26.⑤ 27.① 28.③ 29.⑤ 30.④ 31.② 32.① 33.①
34.② 35.④ 36.④ 37.② 38.⑤ 39.④ 40.② 41.⑤ 42.④ 43.④ 44.
⑤ 45.④

6차 정답

1.③ 2.③ 3.⑤ 4.① 5.④ 6.③ 7.⑤ 8.① 9.④ 10.③ 11.② 12.①
13.② 14.② 15.③ 16.① 17.① 18.④ 19.① 20.⑤ 21.⑤ 22.④ 23.
① 24.⑤ 25.② 26.③ 27.② 28.③ 29.⑤ 30.① 31.② 32.④ 33.①
34.⑤ 35.⑤ 36.④ 37.① 38.③ 39.⑤ 40.③ 41.④ 42.① 43.② 44.

③ 45.②

7차 정답

1.⑤ 2.③ 3.⑤ 4.⑤ 5.④ 6.② 7.⑤ 8.⑤ 9.② 10.② 11.③ 12.④
13.③ 14.⑤ 15.② 16.② 17.④ 18.④ 19.④ 20.② 21.① 22.④ 23.
③ 24.⑤ 25.⑤ 26.③ 27.① 28.① 29.④ 30.③ 31.④ 32.④ 33.③
34.③ 35.③ 36.③ 37.② 38.① 39.② 40.① 41.④ 42.② 43.⑤ 44.
⑤ 45.③

8차 정답

1.③ 2.② 3.③ 4.④ 5.② 6.② 7.④ 8.④ 9.④ 10.⑤ 11.② 12.②
13.④ 14.③ 15.② 16.④ 17.③ 18.④ 19.② 20.② 21.⑤ 22.⑤ 23.
⑤ 24.④ 25.⑤ 26.① 27.② 28.③ 29.② 30.③ 31.② 32.② 33.④
34.③ 35.③ 36.③ 37.③ 38.② 39.④ 40.④ 41.③ 42.③ 43.⑤ 44.
④ 45.②

9차 정답

1.④ 2.② 3.④ 4.④ 5.③ 6.⑤ 7.④ 8.⑤ 9.⑤ 10.③ 11.③ 12.④
13.⑤ 14.② 15.③ 16.⑤ 17.① 18.③ 19.③ 20.③ 21.④ 22.⑤ 23.
④ 24.③ 25.① 26.⑤ 27.② 28.① 29.② 30.⑤ 31.① 32.⑤ 33.②
34.④ 35.② 36.⑤ 37.④ 38.② 39.⑤ 40.④ 41.④ 42.③ 43.⑤ 44.
③ 45.②

10차 정답

1.① 2.⑤ 3.④ 4.⑤ 5.③ 6.③ 7.② 8.④ 9.② 10.① 11.② 12.③
13.② 14.④ 15.③ 16.⑤ 17.② 18.① 19.④ 20.④ 21.③ 22.② 23.
⑤ 24.② 25.① 26.① 27.⑤ 28.① 29.③ 30.⑤ 31.④ 32.⑤ 33.④
34.① 35.④ 36.③ 37.② 38.④ 39.⑤ 40.④ 41.① 42.③ 43.④ 44.
③ 45.⑤

11차 정답

1.③ 2.④ 3.④ 4.② 5.⑤ 6.④ 7.③ 8.⑤ 9.⑤ 10.② 11.④ 12.①
13.④ 14.④ 15.④ 16.③ 17.③ 18.④ 19.③ 20.③ 21.⑤ 22.① 23.
④ 24.④ 25.① 26.③ 27.③ 28.③ 29.⑤ 30.③ 31.④ 32.② 33.②
34.⑤ 35.④ 36.④ 37.② 38.② 39.④ 40.⑤ 41.⑤ 42.③ 43.⑤ 44.⑤
45.③

12차 정답

1.⑤ 2.④ 3.③ 4.④ 5.③ 6.⑤ 7.③ 8.⑤ 9.② 10.④ 11.③ 12.①
13.② 14.① 15.③ 16.② 17.③ 18.③ 19.⑤ 20.④ 21.④ 22.① 23.
④ 24.⑤ 25.⑤ 26.① 27.⑤ 28.② 29.④ 30.③ 31.② 32.생략 33.①
34.④ 35.④ 36.④ 37.④ 38.④ 39.④ 40.① 41.④ 42.③ 43.③ 44.
④ 45.②

13차 정답

1.⑤ 2.⑤ 3.④ 4.② 5.⑤ 6.① 7.④ 8.② 9.⑤ 10.③ 11.④ 12.⑤
13.① 14.③ 15.④ 16.④ 17.② 18.③ 19.⑤ 20.④ 21.④ 22.③ 23.
⑤ 24.③ 25.⑤ 26.③ 27.② 28.① 29.④ 30.③ 31.⑤ 32.⑤ 33.⑤
34.④ 35.④ 36.③ 37.④ 38.⑤ 39.④ 40.② 41.① 42.④ 43.③ 44.
② 45.⑤

14차 정답

1.⑤ 2.③ 3.⑤ 4.⑤ 5.② 6.② 7.③ 8.④ 9.③ 10.③ 11.③ 12.③
13.② 14.② 15.① 16.⑤ 17.② 18.⑤ 19.④ 20.② 21.③ 22.④ 23.
⑤ 24.① 25.④ 26.④ 27.③ 28.④ 29.⑤ 30.④ 31.④ 32.② 33.①
34.④ 35.① 36.⑤ 37.④ 38.④ 39.② 40.② 41.③ 42.④ 43.② 44.
③ 45.③

[1~3] 다음은 안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전통 건축 부재 보존 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안내를 맡은 A입니다. 전통 건축 부재 보존 센터라는 이름부터가 생소하시죠? 이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 전 송례문 화재로 국보 1호가 거대한 화마에 휩싸인 장면을 기억하시는지요? 송례문 2층 상부의 90%가 불타 버린 이 가슴 아픈 사고를 교훈 삼아 전통 건축 수리 기술진흥 재단이 설립되었고, 우리 재단에서 전통 건축 부재보존 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부재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의미가 궁금하셨을 텐데요, 부재는 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여러 가지 재료를 의미합니다. 우리 전통 건축에 사용된 기와에서부터 목재류, 못과 같은 철물 등이 이에 해당하며 송례문 화재 당시 수습한 부재만 해도 총 3,800여 점 정도가 됩니다. 이러한 부재들을 지키고 연구하여 우리 전통 건축 문화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이는 일을 하는 곳이 전통 건축 부재 보존 센터입니다.

여러분, 방문하시기 전 이곳이 어떻게 생긴 건물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대답을 들은 후) 네. 전통 한옥 모양의 건축물로 생각하였군요. (웃으며) 많이들 그렇게 상상하고 오십니다. 그런데 첫 느낌은 어떠셨나요? (대답을 들은 후) 생각보다 규모가 큰 현대식 건물이라 놀라셨다고요? 아직 놀라시긴 이릅니다. 현대식 건물의 모습만큼이나 최첨단 기술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곳 전통 건축 부재 보존 센터입니다. 사실 이 건물은 이미 설계 당시부터 이 지역의 주변 지형과 바람길까지 분석하여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 지상 1층 강의실입니다.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인 이곳의 지상 1층에는 전통건축 부재, 수리 도구, 전통 건축물 모형, 수리 기법 등에 대한 전시 및 각종 기획 전시가 상시 진행되는 전시실, 전통 건축 기술을 체험하는 목공실, 전통 건축 부재에 대해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연구 및 보존처리를 하는 보존 과학실, 그리고 세미나실 및 강의실이 있습니다. 안내가 끝난 후 자유 시간에 천천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1층과 2층에 걸쳐서는 이 센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수장고가 있습니다. 다양한 전통 부재를 크기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수장고와 향온 향습 수장고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바람길을 고려하여 이 건물을 지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통해 부재를 보관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환기라는 점을 눈치채셨지요?

그렇다면 이제 전통 건축 부재 보존 센터의 핵심인 수장고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이 수장고입니다.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크지요? 길이 50m, 폭이 20m쯤 되는 이 거대한 수장고는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 건축 부재가 이곳에 오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먼저 현장에서 보존할 부재를 선정하고 운반 시 파손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운반합니다. 부재에 따라 무진동 트럭을 사용하여 보존 센터로 안전하게 이동하며, 보존 센터 도착 후 수장고로 이동, 건식 세척과 훈증 처리를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전자 태그를 부착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세 단계, 건식 세척과 훈증, 태그 부착 단계를 매우 흥미로워하시는데요, 세척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물로 무엇인가를 깨끗하게 씻는 것을 상상하시죠? 그런데 건식 세척이라니 의아하실 겁니다. 붓과 흡입기로 오래된 부재의 먼지를 털어내는 단계입

니다. 특히 송진과 같은 것이 묻어 있는 경우 나무를 썩게 만드는 세균의 먹이가 될 수 있기에 이 단계의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단계인 훈증은 벌레나 균으로부터 부재가 상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소독 과정입니다. 부재를 두꺼운 비닐로 밀봉하고 그 안에 소독 가스를 일정 농도로 넣어 72시간 동안 유지하는데 이때 시험용 공시충과 공시균으로 바구미와 검은곰팡이를 넣습니다. 아, 공시충은 시험용 곤충, 공시균은 시험용 세균을 의미합니다. 여러 위치의 공시충과 공시균이 활성을 띠지 않아야 훈증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훈증을 마친 부재들은 최종적으로 수종이 무엇인지, 연대가 언제인지, 단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도구를 사용해 제작한 부재인지 등에 대한 꼼꼼한 조사 단계를 거친 후 전자 태그 'RFID'를 달고 수장고에 배치됩니다. 전자 태그에는 부재 종류, 현황, 위치 등의 정보가 들어가며 전자 태그 덕분에 우리는 원하는 부재를 검색하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시스템 같죠?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책을 찾을 때 사용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 가며 손상된 전통 건축 부재들을 왜 보관하고 연구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지만 이렇게 잘 보존된 부재는 전통 건축물 보수에 재사용하기도 하고, 전통 건축 연구자들은 전통 건축 부재를 연구하며 일반적으로는 볼 수 없는 부분들까지 더욱 깊이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전통 건축 부재 연구를 통해 당대의 생활상과 축조 기술, 건축 기법 등을 연구하여 선조의 얼과 역사가 깃들여 있는 전통 건축의 가치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에는 우리 민족의 찬란했던 어제와 밝은 내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의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고 새로운 역사를 향한 힘찬 도약을 약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전통 건축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벅차니 여러분들도 앞으로 전통 건축에 대해 더 많이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내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위 안내를 준비하며 안내자가 세운 계획 중 안내 내용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 ① 전통 건축 부재를 연구해야 하는 의의에 대해 알려 줘야겠어.
- ② 방문객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개념에 대해 설명해 줘야겠어.
- ③ 전통 건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길 당부하는 말로 마무리해야겠어.
- ④ 전통 건축 부재 보존 센터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관련된 실제 사건을 알려 줘야겠어.
- ⑤ 전통 건축 부재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통념을 먼저 제시한 후 정확한 내용을 제시해 줘야겠어.

2. 위 안내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 건축 부재 보존 방법에 적용된 최첨단 기술의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기존의 문화재 보존 기술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② 전통 건축 부재 보존 센터의 역사와 현재까지의 연구 현황을 구체적 수치를 통해 전달하여 방문객이 문화재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③ 전통 건축 부재 보존 센터의 내부를 안내할 때에는 방문객이 질문하는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 중심으로 안내를 진행하여 청중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 ④ 전통 건축 부재 보존 센터의 외형을 잘 알려진 건축물의 모습과 비교하여 건축물의 설계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이 무엇인지 방문객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⑤ 전통 건축 부재 보존 센터의 핵심적인 공간에 부재가 보관되기 전 이루어지는 단계에 대해 안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3. 다음은 안내를 들은 후 방문객이 작성한 메모이다. 메모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전통 건축 부재 보존 센터
 - 현대식 건축물: 주변 지형과 바람길 고려, 최첨단 기술들로 가득함. ①
 - ↳ 습도나 환기가 중요한가 보군.
- 부재
 - 구조물의 뼈대를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여러 가지 재료 ②
- 수장고: 복층 구조이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③
- 부재 보존 방법: 건식 세척, 훈증 단계가 신기함.
 - 건식 세척: 벌레나 균을 죽이기 위한 살균 과정 ④
 - 공시충과 공시균의 개념에 대해 알게 됨.
 - 전자태그의 역할 = 도서관 도서 정보 시스템과 유사 ⑤
- 전통 건축 부재 보존 센터의 목표: 전통 건축의 가치를 알리는 일
- 느낀 점: 전통 건축 문화 보존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게 됨.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4~7] (가)는 강연이고, (나)는 강연을 들은 학생이 트레킹 참가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 작성한 트레킹 모집 안내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안녕하세요? 강연자 A입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트레킹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계획을 세워 보려는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강연에서 이제 막 트레킹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트레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어떤 분께서 무조건 오랫동안 많이 걷는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트레킹은 1박 이상의 중장거리 종주 트레킹에서부터 가벼운 배낭을 메고 산이나 들을 여유 있게 걸어 이동하면서 자연을 감상하는 코스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레킹을 즐길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오늘은 안전한 트레킹을 위한 준비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요? (대답을 듣고) 네. 맞습니다. 계획서입니다. 가장 먼저 트레킹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무작정 당일 출발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 것이 좋고, 특히 시설물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한 달 전에는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트레킹 계획자라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레킹의 목적을 생각해 볼까요? 트레킹의 목적은 높은 산의 등정일 수도 있고, 체력 향상, 문화 유적 체험일 수도 있으며, 일출이나 풍경 감상 등 매우 다양하게 정할 수 있으니 먼저 자신의 트레킹 수준, 시간 등을 함께 고려해 트레킹의 목적을 세워 보세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한 목적을 세워 진행하는 것보다 초보자들은 당일 트레킹부터 시작해 장비를 쓰는 것에 익숙해지면 시간과 난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 좋을까요? (대답을 듣고) 혼자자요? 진심이세요? 이야, 대단한데요. 물론 트레킹은 혼자서 떠날 수도 있고 가족, 친구, 연인 등 추억과 성취감을 공유할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함께 떠날 수 있습니다. 계획자로서 일반적으로 팀을 구성할 때는 길잡이 역할을 해 줄 리더와 비슷한 페이스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만 부대끼는 것이 별로고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면 혼자 길을 나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혼자 트레킹을 갈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보자든 트레킹 전문가든 모두 지켜야 할 요소입니다. 반드시 일기 예보를 확인하고 만일에 대비해 꼭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적지와 코스, 일정을 알려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정보를 얻기 위해 강연을 듣는 것은 모두 안전을 위한 일이니 절대로 잊지 말아 주세요.

자! 다음으로는 트레킹에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트레킹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준비물 챙기는 것에 대한 지식 부족에 있습니다. 가벼운 트레킹이니 아무런 준비 없이 오시는 분도 계시고, 지나치게 많은 준비를 해서 오히려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만큼 꼭 필요하거나 주의해야 할 사항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레킹 장비는 우리의 몸과 같은 존재입니다. 화면을 보시죠. 무엇일까요? 네. 트레킹화입니다. 초보자가 짧은 코스를 가는데 굳이 트레킹화까지 신을 필요가 있을까? 운동화처럼 간단한 신발을 신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트레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부

상 방지를 위해서라도 발이 받는 피로감과 충격을 줄여 주고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트레킹화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배낭을 꾸려 봅시다. 지나치게 짐을 많이 꾸려 오시는 분들의 문제점이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출발 전에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져 다 담아 가지만 무작정 많이 담거나 두서없이 물건을 넣으면 필요한 것을 찾아 쓸 수도 없고 힘만 들어 트레킹이 시작되면 모든 짐을 내던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배낭을 잘 꾸리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화면입니다. 배낭입니다. 먼저 무거운 짐은 어디에 넣을까요? (대답을 듣고) 아래쪽이요? 많은 분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무거운 짐은 위쪽과 등 쪽, 가벼운 짐은 아래쪽과 바깥쪽에 넣습니다. 그래야 무게가 분산되어 힘이 덜 듭니다. 큰 배낭을 메다 보면 어디까지가 위인지 아리송하지만 위쪽에는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넣고 내리막길에서 무게가 쏠리지 않도록 무거운 것들을 어깨보다 위쪽으로 두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컵이나 스틱, 옷 등을 배낭 밖 고리에 매다는 경우가 있는데 배낭의 외부는 간결하게 정리해야 안전합니다. 몸이 움직일 때마다 다른 장비들이 흔들리면 체력이 분산되기도 하고 나뭇가지 등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되도록 배낭 안에 모든 짐을 넣고 배낭의 좌우 모양이 균형을 이루고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다음은 이것입니다. 스틱 2개죠. 스틱은 초보자이든 숙련자이든 구분 없이 안전한 트레킹을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준비물이고 2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할 것이 스틱입니다. 종종 먼저 올라간 분이 뒤에 오시는 분을 스틱으로 당겨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스틱으로 사람을 끌어당겨서는 안 됩니다. 스틱은 일반적으로 3~4단으로 분리되는데 동행자를 도와준다고 스틱을 내밀었다가 스틱이 분리되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트레킹 중간 중간 수시로 스틱이 느슨해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이 익숙하지 않아 스틱을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사용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 주세요. 자, 오늘 강연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트레킹 준비는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제가 직접 다녀온 우리나라와 세계 유명 트레킹 코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트레킹 모집 안내문]

- [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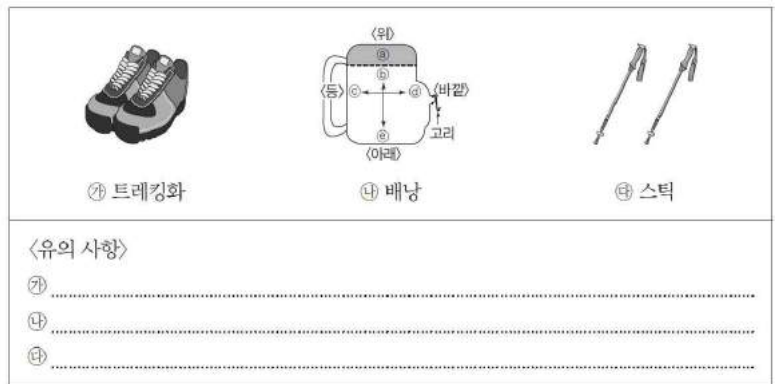
늘 열정으로 가득 찬 B 학교 학생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C 내 동아리 대표 D입니다. 지난 교내 점심 방송 시간에 소개된 사연을 기억하십니까? 수행 평가와 각종 학교 대회, 시험 준비 등으로 하늘을 쳐다본 기억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다던 2학년 학생의 사연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잠시나마 여유를 찾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C동아리에서 다가오는 X월 X일 무더운 이곳을 벗어나 녹음이 우거진 자연 속에서 쉴 수 있는 트레킹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출발하여 당일 돌아오는 일정으로 무리없이 여유로운 마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쌓기 위한 트레킹이므로 운동을 잘 못한다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트레킹에 대해 잘 모른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친구들과 자연 속에서 좋은 추억을 쌓고자 하는 분이라면 누구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은 아래 안내사항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기다리겠습니다.

- 출발 일시: X월 X일 X시
- 출발 장소: 학교 운동장
- 준비물: 트레킹화, 배낭, 스틱 등
- 신청 자격: 트레킹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가능. 초보자 대환영
- 신청 방법: 절취선 아래 신청서를 작성하여 X월 X일까지 내내 동아리실로 제출
- 준비물 안내 및 ㉠유의 사항



■ 트레킹 일정 안내 및 참가 신청서

4. 강연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보 기 > —

- ㉠.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장비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 익숙한 관용구를 사용하여 청중에게 낯선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 묻고 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청중과 활발히 상호 작용하고 있다.
- ㉣. 사고 발생 사례들을 나열하여 위험한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 비슷한 특징을 가진 청중을 대상으로 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강연을 시작하고 있다.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5. 다음은 강연자가 강연을 하기 전 생각한 내용이다. 강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청중이 트레킹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님을 고려해 ㉠트레킹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하는 일부터 설명해야겠어. 그리고 ㉡트레킹을 하는 목적이 매우 다양함을 알려 주고 초보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알려 줘야지. 특히 ㉢초보자가 트레킹을 할 때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전문가와의 차이점임을 강조해야겠어. 트레킹을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임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트레킹에 필요한 준비물도 안내해 준 후, ㉤다음 시간에 있을 강연 내용을 안내하며 마무리해야겠어.

6. 아래 <조건>을 고려하여 (나)의 [A]에 들어갈 부제를 작성 하였다. [A]에 들어갈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조 건 > —

-대구법을 사용할 것.
-계절적 배경을 드러낼 것.
-행사 기획 취지를 드러낼 것.

- ① 대자연의 신비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곳, 아름다움이 가득한 여행을 원하시나요?
- ② Z시를 출발하여 Y산을 돌아오는 여정, 일출과 일몰을 한곳에서 모두 볼 수 있는 그곳
- ③ 무더운 여름날 느끼는 조상의 숨결, 500년의 시간이 머무는 곳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 ④ 뜨거운 태양을 피해! 노래하는 계곡을 향해! 더위를 벗어나 여유를 느끼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 X계곡
- ⑤ 느리게 걷고, 마음껏 느끼고, 편안히 휴식하라! 일상을 벗어나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V산으로 함께 떠나요.

7. (가)의 강연과 관련하여 (나)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발의 피로감과 충격을 줄여 주고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트레킹화로 준비
*운동화를 신고 오는 것은 지양해 주세요. ①

㉡: *무게 중심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쪽에는 자주 사용하는 물건을 넣어 주세요. ②
*㉢, ㉣쪽에는 무거운 짐을, ㉠, ㉡쪽에는 가벼운 짐을 넣어 주세요. ③
*자주 사용하는 컵이나 옷 등은 배낭 밖 고리에 걸어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④

㉢: *전문성 여부를 떠나 안전한 트레킹을 위해 2개를 준비해 주세요.
*절대 타인을 도와주는 용도로 스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⑤

[8~10]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오기 전까지 저의 진로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진로 캠프에도 참여해 보고 진로 상담도 많이 받았지만 꼭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저는 제 진로 목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국어 시간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프로젝트로 진로 독서를 실시하였는데, 우연히 읽게 된 책 속에 수록된 한 편의 글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낸시 펄이 쓴 ‘상상을 실현하는 자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은 작가의 독서경험을 담은 것인데 작가가 독서를 통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 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독서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처였다면 어느 순간 독서는 그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통로이자 도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1998년에 시애틀 공공 도서관의 사서였던 그녀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하였고, 이후 이 운동이 미국 전역에 확산되었습니다. 낸시 펄은 꾸준히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소개하고 나누는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책을 통해 변화했고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한편의 책이 사람들을 이어 주고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녀의 신념이 사회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저는 책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마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낸시 펄처럼 사람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고, 책을 나누는 삶을 살면 가치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꿈을 펼치기 위해서 저는 학교에서 저와 생각이 비슷한 친구들과 함께 책 나눔 동아리를 만들었고, 동아리명을 ‘책꿈지기’라고 지었습니다. 여기에는 책을 통해 꿈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도서관의 사서 선생님을 찾아가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저는 우리 학교의 책 나눔 동아리 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도서관의 도서 정리를 도와주는 독서 동아리도 있었지만 저는 동아리 활동의 영역을 교내로 한정하지 않고 학교 밖의 마을로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서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 마을에 있는 A도서관을 찾아가했습니다. 저는 도서관장님께 마을 도서관과 마을에 사는 학생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독서 나눔 행사에 관한 제안을 드렸는데 마침 A도서관에서도 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마련이나 행사들을 기획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방과 후에 도서관을 찾아가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 주는 봉사도 하였고, 책을 읽고 싶지만 몸이 불편해서 도서관에 나오시지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학교 앞 노인정에 책을 배달하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시던 분들이 봉사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책이 오는 날을 기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새 책을 가지고 가서 가끔 책도 읽어 드리고 원하시는 책 목록도 받아 오는 날이면 그 뿌듯한 마음을 이루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학교에서는 가을 독서 주간에 ‘책 아나바다’ 행사도 진행하여, 집에 있는 책들을 학교로 가져와서 다른 친구들과 나누고 책갈피 만들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8.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작성하기 위해 쓴 메모이다. 메모의 내용 중에서 위 초고에 반영된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나의 진로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을 준 학교 밖 진로 체험 활동의 사례들을 제시해야겠어. ...㉠
 •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주었던 독서 경험이 드러나도록 내용을 작성해야겠어. ...㉡
 • 진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겪게 된 역경을 중심으로 나의 도전 정신이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작성해야겠어. ...㉢
 • 내가 선택한 진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작성해야겠어. ...㉣
 •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내적 갈등과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키고자 하는 나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내용을 작성해야겠어. ...㉤

- ① ㉠ ② ㉡ ③ ㉢
 ④ ㉣ ⑤ ㉤

9. <보기>는 위 초고를 읽은 담임 선생님의 조언 내용이다. 이를 반영하여 마지막 부분에 추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생님: 진로와 관련하여 실천했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네가 깨달은 내용,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하여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지를 밝혀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교의 인재상에 어울리는 인물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인상적일 것 같구나.

- ① 저는 이와 같은 동아리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A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진학해 우리나라의 독서 정책이나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지역 도서관이 지역 시민들에게 지식의 허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해외의 다양한 사례들도 탐구하고 싶습니다. 저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는 A대학교의 인재상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② 저는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 책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책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A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진학해 우리나라의 독서 정책이나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③ 저는 재학 중에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진취적인 태도와 도전 정신을 갖추었고, 이러한 저의 모습은 A대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A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진학해 고등학교의 동아리 활동의 경험을 살려 다양한 독서 정책을 연구하고 이것을 실제 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미래 사회에서도 도서관이 지역 사회 지식의 허브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 ④ 저는 이 활동들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희생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숨은 봉사과 헌신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A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진학해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했던 봉사 활동들을 꾸준히 이어 가기 위해서 관련된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저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삶의 태도는 A대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세대를 초월하여 책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A대학교 문헌정보학과에 진학해 우리나라의 독서 정책이나 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고, 우리나라의 도서관이 마을과 학교, 지역 사회를 이어 주는 지식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저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삶의 태도는 A대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10. <보기>는 위 초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고한 점검 목록이다. 초고 작성 시 반영된 것만을 고른 것은?

< 보 기 >

ㄱ. 독자를 고려하여 격식을 갖추어 쓰고 있는가?
 ㄴ. 재학 중의 자기 주도 학습 경험을 진술하였는가?
 ㄷ. 진로와 관련한 교내·외 활동 내용을 드러내었는가?
 ㄹ. 지원자의 성장 과정과 성격의 장단점을 드러내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국어에는 ‘연음’이라는 중요한 발음 원리가 있다. 이것은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조사, 어미, 접미사)가 결합할 때 일어난다. 가령 ‘뉘-’이라는 용언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 -으면’이나 접미사 ‘-음’이 결합하면 ‘뉘어[무꺼], 뉘으면[무끄면], 뉘음[무꾸]’에서 보듯이 어간의 마지막 자음 ‘ㄱ’이 뒤 음절 초성으로 넘어가서 발음하게 되는 것이다. 모음과 모음 사이에 놓인 자음은 종성보다는 초성에서 발음하는 것을 언어 보편적으로 선호하는데, 이러한 경향이 구체화된 것이 연음이라고 할 수 있다.

연음을 음운 변동의 한 종류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은 옳지 않다. 연음이 일어나면 자음의 위치가 앞 음절의 종성에서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질 뿐, 자음 자체가 다른 음운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가령 앞의 예에서 어간 ‘-류-’의 말음인 ‘ㄱ’이 연음이 되었다고 해서 ‘ㄱ’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거나 탈락 또는 축약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연음을 음운 변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연음이 일어나는 조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는 조건과 배타적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연음이 일어나는 환경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지 못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연음은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 일어난다.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나 자음군 단순화는 연음이 일어나지 않는 조건, 즉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일반화할 수 있다.

연음은 매우 중요한 현상이지만 예외도 없지는 않다. 앞 형태소의 자음이 그대로 뒤 음절 초성으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다. 가령 ‘밭’ 뒤에 주격 조사나 서술격 조사가 결합하면 ‘밭이[바치], 밭이다[바치다]’와 같이 ‘ㅌ’이 ‘ㅍ’으로 바뀐다. 이것은 구개음화라는 음운 변화 때문에 일어난 예외이다. 구개음화가 없던 시절에는 ‘밭이, 밭이다’가 ‘[바티], [바티다]’로 발음되었다. 이 외에도 연음의 예외는 더 존재한다.

11. 밑글을 읽고 현실 발음을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닭이’를 ‘[다기]’로 발음하는 것은 잘못이군. ‘[달기]’가 올바른 발음이야.
- ② ‘꽃에’를 ‘[꼬세]’로 발음하는 것은 잘못이군. ‘[꼬체]’가 올바른 발음이야.
- ③ ‘밭을’을 ‘[바슬]’로 발음하는 것은 잘못이군. ‘[바츨]’이 올바른 발음이야.
- ④ ‘부엌에’를 ‘[부어게]’로 발음하는 것은 잘못이군. ‘[부어케]’가 올바른 발음이야.
- ⑤ ‘여덟이’를 ‘[여더리]’로 발음하는 것은 잘못이군. ‘[여덜비]’가 올바른 발음이야.

12. 밑글을 읽고 ㉠~㉣을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흠-’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흠이다’는 ‘[흠치다]’로 발음한다.
- ㉡ ‘-끓-’에 어미 ‘-어’가 결합된 ‘-끓어’는 ‘[끄러]’로 발음한다.
- ㉢ ‘-값’에 접미사 ‘-어치’가 결합된 ‘-값어치’는 ‘[가버치]’로 발음한다.

- ① ㉠은 연음의 예에 속하지만 ㉡, ㉢은 연음의 예외이다.
- ② ㉡은 연음의 예에 속하지만 ㉠, ㉢은 연음의 예외이다.
- ③ ㉢은 연음의 예에 속하지만 ㉠, ㉡은 연음의 예외이다.
- ④ ㉡, ㉢은 연음의 예에 속하지만 ㉠은 연음의 예외이다.
- ⑤ ㉠, ㉡, ㉢은 모두 연음의 예외이다.

13.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활동을 할 때, ㉠~㉣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1 >

형태소는 의미를 갖는 가장 작은 문법 단위를 말한다. 형태소는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구분할 수 있다. 자립 형태소는 자립성이 있어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소이고, 의존 형태소는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야만 쓰일 수 있는 형태소이다. 형태소가 갖는 의미에 따라 형태소를 분류할 수도 있는데 어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실질 형태소라고 하고,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형식 형태소라고 한다.

< 보 기 2 >

※ 다음 문장에서 분석되는 형태소를 써 보고, 제시된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보자.

“아이가 마당에 앉아 있다.”

- (1) 분석되는 형태소: ㉠
- (2) 형태소의 분류: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	㉢
형식 형태소	㉠	㉣

- ① ㉠에 들어갈 형태소는 모두 8개이다.
- ② ‘아이’는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므로 ㉡에 들어간다.
- ③ ‘앉-’은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이므로 ㉢에 들어간다.
- ④ ‘에’는 자립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이므로 ㉣에 들어간다.
- ⑤ ‘-다’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이므로 ㉣에 들어간다.

14. <보기>의 ㉠~㉣의 서술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팽이가 빨리 돈다.
- ㉡ 명수가 호빵을 집었다.
- ㉢ 반지가 언니에게 어울린다.
- ㉣ 민희가 노래를 예쁘게 부른다.
- ㉤ 형주가 진서와 의견을 교환했다.

- ① ㉠: ‘...가 ...다’라는 문장 형식으로 쓰이므로 한 자리 서술어이다.
- ② ㉡: ‘...가 ...을 집다’라는 문장 형식으로 쓰이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③ ㉢: ‘...가 ...에게 어울리다’라는 문장 형식으로 쓰이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④ ㉣: ‘...가 ...를 ...게 부른다’라는 문장 형식으로 쓰이므로 세 자리 서술어이다.
- ⑤ ㉤: ‘...가 ...와 ...을 교환하다’라는 문장 형식으로 쓰이므로 세 자리 서술어이다.

15. 밑줄 친 단어의 의미 관계가 <보기>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담화의 의미는 맥락을 참고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데, 맥락에 따라 같은 단어가 반대의 의미로 해석되는 예들이 있다.

- ① ㉠ 취직자리가 나서 얼른 지원했다.
㉡ 이 지방에서는 사과가 많이 난다.
- ② ㉠ 형님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했다.
㉡ 할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장손에게 상속했다.
- ③ ㉠ 나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대출해 왔다.
㉡ 도서관은 시민들에게 책을 대출하는 기관이다.
- ④ ㉠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 우리는 앞 세대의 누적된 경험을 존중해야 한다.
- ⑤ ㉠ 그는 빛 독촉에 못 이겨 집을 빛쟁이에게 넘기고 말았다.
㉡ 큰아버지는 소를 사육하다가 하루아침에 빛쟁이가 되고 말았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과적 주장은 일상생활이나 과학적 탐구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된다. ‘~ 때문에’나 ‘~로 인하여’ 따위가 인과적 주장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말들이다. 예컨대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갑자기 작동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알아보고 싶어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한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인과적 주장을 사용한다.

인과적 주장이 사용되는 논변을 ‘인과 논변’이라 부른다. 그러나 인과 논변을 이해할 때 핵심적인 원인 개념은 우리의 관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단일하게 말하기가 어렵다. 먼저 ‘X가 Y의 원인이다.’라는 것은 ‘X가 일어나지 않으면 Y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필요조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뇌염모기에게 물려 뇌염에 걸린 사람은 뇌염모기에게 물리지 않았다면 뇌염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므로 뇌염모기가 뇌염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산소가 없었다면 불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지만 산소가 불의 원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으므로 일상적인 원인 개념과 사뭇 다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조건으로서의 원인 개념에 관심을 갖는 것은 뇌염모기의 예에서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가 하는 실천적인 고려 때문이다.

[A] 그런가 하면 ‘X가 Y의 원인이다.’라는 것은 ‘X가 일어나

면 항상 Y도 일어난다.’를 의미하는 충분조건으로 볼 수도 있다. 압력이 높아지면 항상 온도가 높아지므로 압력 증가는 온도 상승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결과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생기게 하는 데 관심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조건 대신 ㉡충분조건으로서의 원인 개념에 더 주목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하나만의 조건이 있어 그것이 어떤 사건의 발생에 충분조건이 되는 경우는 드물므로 적절한 원인 개념이 아닐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산소도 필요하지만 불똥이 튀어야 하고, 주위에 연소되는 재료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젖어 있지 않아야 하는 필요조건들이 갖추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인이 결과에 대하여 필요조건이라고도 충분조건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원인을 확률 개념으로 파악해야 하는 경우가 그러한데, 예컨대 흡연은 폐암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다. 원인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 문제의 결과가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인과 논변이 논리적 오류를 범했을 때 발생하는 오류를 ‘인과적 오류’라고 한다. 원인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위에서 보았듯이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적어도 중요한 두 가지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것은 첫째,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보통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양상을 띤다는 점이고, 둘째, 원인의 발생이 결과의 발생에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점이다. 많은 인과적 오류는 인과 관계의 이 두 특징과 관련하여 실은 인과 관계가 없는데 있다고 잘못 파악해서 생기는 것들이다.

첫 번째 인과적 오류로 ㉢‘우연과 원인의 혼동’이 있다. 이것은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점에만 근거하여 그것을 원인으로 간주하는 오류이다. 두 사건이 시간적인 선후 관계에 있다고 해도 우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기 때문에 둘 사이를 인과 관계로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 흔히 ‘미신’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이 대개는 이 오류에 속한다. 예컨대 어떤 필요에 의해 조상의 묘를 이 장하자마자 불운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 그 원인을 묘 이장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 오류에 속한다.

두 번째 인과적 오류는 ㉣‘공통 원인의 무시’이다. 원인이라 생각되는 사건과 결과라 생각되는 사건 사이에 일정한 규칙성이 있음이 실험과 관찰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공통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잘못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홍역 바이러스는 붉은 반점과 고열을 동시에 유발시킨다. 반점이 발생할 때 고열도 ‘규칙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어느 쪽도 다른 쪽의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원인이라고 하면 홍역 바이러스라는 공통 원인을 무시한 것이다.

세 번째 인과적 오류는 ㉤‘원인과 결과의 혼동’인데, 이것은 인과 관계의 방향을 잘못 판단해서 생긴다. 결과가 원인보다 앞설 수 없음은 자명한데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19세기에 영국의 한 개척가는 착실하고 부지런한 농부는 모두 적어도 한두 마리의 젖소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개척가는 게으른 농부들을 착실하고 부지런하게 만들기 위해서 젖소를 한 마리씩 주자고 건의하였다. 이것은 바로 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오류의 예가 된다.

16.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어떠한 사건의 필요조건을 막으면 앞으로 일어날 결과를 막을 수 있다.
- ② 인과적 주장이 사용되어도 인과적 오류를 범하면 인과 논변이 아니다.
- ③ 어떤 결과를 산출해 내는 원인에 주목한다면 충분조건보다 필요조건을 찾으면 된다.
- ④ 충분조건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결과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에 해당하는 원인이 없는데 결과로 생각되는 것이 일어났다면 인과관계는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

17. 뒷글의 ㉠, ㉡과 관련하여 <보기>의 (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가) 수분이 없었다면 인간은 살아 있지 못할 것이다.
(나) 독감에 걸리면 항상 고열에 시달린다.

- ① (가)는 ㉠이 일상적인 원인 개념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다.
- ② (가)가 거짓이라면 ㉠의 관점은 수분이 사람의 살아 있음의 원인이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 ③ (나)는 ㉡이 적절한 원인 개념이 아님을 보여 주는 반대 사례이다.
- ④ (나)가 참이라고 해도 독감이 고열의 원인이라는 것에 ㉠의 관점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⑤ (나)가 거짓이더라도 독감이 걸리지 않았을 때보다 걸렸을 때 고열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면 독감을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18.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은 원인의 발생이 결과의 발생에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점에만 주목해서 생기는 오류이다.
- ② ㉠은 두 사건이 인과 관계가 되려면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양상을 띠어야만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 생기는 오류이다.
- ③ ㉡은 두 사건이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양상을 띠어야 인과 관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 ④ ㉡와 ㉢은 원인의 발생이 결과의 발생에 시간적으로 앞선다는 점을 간과해서 생기는 오류이다.
- ⑤ ㉠, ㉡, ㉢에 해당하는 예들은 필요조건, 충분조건, 확률 등 어떤 원인 개념으로 보아도 원인이 될 수 없다.

19. 뒷글의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산소가 화재의 필요조건이어도 불의 원인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화재가 발생하기 위한 하나만의 조건을 찾기도 어렵다면, 산소, 불똥, 연소되는 재료, 젖어 있지 않음 모두를 화재 발생의 원인으로 간주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것은 (㉠) 조건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

- ① 하나하나씩이 필요하면서도 충분한
- ② 하나하나씩은 충분하고 모두 합하면 필요한
- ③ 하나하나씩은 필요하고 모두 합하면 충분한
- ④ 하나하나씩 보아도 충분하고 모두 합해도 충분한
- ⑤ 하나하나씩 보아도 필요하고 모두 합해도 필요한

20. ㉠~㉢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의 (가)~(다)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 보 기 > —

(가) 지은이는 세차를 할 때마다 비가 왔다는 것을 떠올리고, 오늘 세차를 했으니 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 번개가 번쩍이고 난 다음에 천둥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고 번개가 천둥소리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다) 말기 암에 걸린 환자가 심한 정서적 불안정에 시달리는 것을 보고 정서적 불안정이 암의 원인 이라고 판단한다.

- | | (가) | (나) | (다) |
|---|-----|-----|-----|
| ① | a | b | c |
| ② | a | c | b |
| ③ | b | a | c |
| ④ | b | c | a |
| ⑤ | c | a | b |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려 후기의 문인 이제현은 당시 유행하던 우리말 노래들을 칠언 절구의 한시로 옮기는 ㉠소악부(小樂府)를 창안하였다. ‘악부’라는 말은 원래 중국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부서를 의미하였는데, 나중에는 여기에서 한시 형식으로 채집한 작품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사용되었다. 이제현은 이 용어를 활용하되, 비교적 짧은 형식을 사용했다 하여 소악부라고 명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현은 민사평과 같은 후배 문인들에게 자신이 창안한 소악부의 형식으로 작품을 지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도 하였다. 소악부는 한시이면서도 우리말 노래, 특히 민요의 진솔한 사연을 담고 있는데, 조선 후기의 문인 신위는 소악부를 통해 옛 우리말 노래들이 전해지도록 한 이제현의 공적을 높게 평가한 바 있다.

이제현의 소악부 작품 대부분은 작품에 활용된 원래의 우리말 노래 가사가 전해지지 않지만, [정과정] 과 같이 원래의 노래 가사가 지금까지 따로 전해지는 것들도 있다. 이제현은 고려 의종 때의 인물인 정서가 자신을 부르지 않는 임금을 그리워하며 지은 [정과정] 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감상하여 소악부 작품으로 옮겨 두었는데, 여기에 활용된 정서의 작품은 조선 시대의 악서인 [악학궤범]에 한글로 가사가 기록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소악부의 창작 방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다음은 이제현이 [정과정]을 소악부로 옮긴 작품이다.

[A]	임금을 그리워하여 옷을 적시지 않는 날이 없으니	憶君無日不霑衣
	틀림없는 봄 산의 두견새일세	政似春山蜀子規
	사람들아, 옳고 그름을 묻지 마시게	是爲非人莫問
	오직 새벽녘의 달과 별만이 알 뿐이리	只應殘月曉星知

(나) 어제 객충룡을 만나 보았는데 그의 말이, 민사평이 내가 지어 보낸 소악부에 화답을 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사실에 대해 표현할 말이 거둬졌기에 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삼가 말하건대, 당나라의 시인 유우석이 지은 [죽지사(竹枝詞)] 는 기주(夔州)와 삼협(三峽) 지역의 남녀들이 서로 즐기는 사연이고, 소동파는 아황과 여영, 굴원, 회왕, 향우 등의 일을 엮어서 시를 지었는데, 이들이 모두 옛사람의 것을 답습한 것이라 할 수 있는가? 민사평은 마음에 감동을 주는 바를 담아 새로운 가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두 편을 지어 그를 일깨우고자 한다.

[B]	도근천의 제방이 터져	都近川頽制水坊
	수정사 마당까지 물이 넘치네	水精寺裏亦滄浪
	상방엔 오늘 밤 선녀를 숨겨 두고	上房此夜藏仙子
	절 주인이 도리어 신랑이 되었네	社主還爲黃帽郎

근래에 어떤 고관(高官)이, 봉지련이란 늙은 기녀를 희롱하면서 ‘너희는 돈 많은 중은 따르면서 사대부가 부르면 왜 그렇게 늦게 오느냐?’ 하였다. 그 기생이 말하기를, ‘요즈음 사대부들은 돈 많은 장사치의 딸을 데려다가 두 살림을 꾸리거나 아니면 그 중으로 첩을 삼는데, 우리가 중과 속세의 사람을 가려 손님으로 받는다면 어찌 생계를 꾸릴 수 있단 말이오?’ 하므로 자리의 모든 사람이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중략)

[C]	거꾸러진 보리 이삭 그대로 두고	從教藁麥倒離披
	가지 생긴 삼도 내버려 두었네	亦任丘麻生兩歧
	청자와 백미를 가득 실고서	滿載靑瓷兼白米
	북풍에 오는 배만 기다리고 있구나	北風船子望來時

탐라*는 땅이 좁고 백성들이 가난하다. 옛날에는, 비록 드물지만 도자기와 쌀을 팔러 오는 전라도의 장사꾼들이 가끔씩 찾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관가(官家)와 사가(私家)의 소와 말이 들에 가득하고 새로 일구는 밭은 없이, 오가는 벼슬아치의 수레만 벼들의 북처럼 쉴 새 없이 드나들어 전승과 영접에 시달리게 되었으니 백성의 불행이었다. 그래서 여러 번 번고가 생긴 것이다.

- 이제현, [익재난고(益齋亂藁)]

*탐라: ‘제주’의 옛 이름.

2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말 노래의 내용과 한시의 형식이 결합하여 탄생한 새로운 문학 갈래이군.
- ② 명칭의 유래로 보아 국가의 음악을 관장했던 관리들이 주된 창작 계층이었겠군.
- ③ 한글 창제 이전에 창안된 갈래로서 한자를 통해 우리말 노래를 기록한 가치가 돋보이는군.
- ④ 후배들에게 같은 방식의 창작을 권유한 데에서 창안자로서 이제현의 자부심이 드러나는군.
- ⑤ 후대 문인에 의한 평가가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고려 시대 이후에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겠군.

22. [A]와 <보기>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내 님물 그리스와 우니다니

㉢ 산(山) 접동새 난 이슷흐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들 아으

㉣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르시리이다

㉣ 녀시라도 님은 흐되 녀져라 아으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믈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물히 마리신녀
술웃분데 아으
니미 나를 흐마 니즈시니잇가

㉤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 정서, [정과정(鄭瓜亭)]

- ① ㉔의 화자가 우는 모습은 [A]에서 눈물에 옷이 젖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 ② ㉕에서 활용된, 산새를 통해 화자의 처지를 빗대는 방식은 [A]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 ③ ㉖와 같이 초월적 존재에게 문제 해결을 부탁하는 태도가 [A]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 ④ ㉗에서 드러낸, 임과 함께 있으려는 소망을 [A]에서는 겉으로 나타내지 않고 있다.
- ⑤ ㉘와 같이 임에게 자신의 바람을 호소하는 모습이 [A]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다.

23. (나)에서 ‘이제현’이 ‘민사평’에게 소악부 창작에 대해 충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전의 작품에 활용되지 않은 소재를 발굴해야 한다.
- ②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요소를 담아야 한다.
- ③ 평범한 남녀들이 나누는 사랑 이야기를 표현해야 한다.
- ④ 널리 알려진 중국의 고사를 적극적으로 인용해야 한다.
- ⑤ 자신이 받은 감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사를 만들어야 한다.

24. 작품과 관련된 글쓴이의 설명을 참고할 때, [B]와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에서는 자신의 본분을 지키지 않는 종교인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 ② [B]에서 고발하는 문제는 사회의 지도층인 사대부 계층에 의해서도 반복되고 있다.
- ③ [C]의 창작은 백성의 불행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④ [C]에는 물자의 공급을 외부와의 교류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 ⑤ [C]는 생업인 농사를 소홀히 하고 사치스러운 생활만을 추구하는 백성들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은 인간의 생활 관계에서 바른 질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규범이다. 일반적으로 법의 적용은 삼단 논법을 따르는데, 추상적인 법규를 대전제로 하고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소전제로 하여 판결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대전제인 법규가 명확하고 소전제인 사실 관계가 ㉔확정된 것이라면 삼단 논법을 통해 논리 필연적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은 소송을 제기한 측인 원고(原告)와 소송을 당한 측인 피고(被告)의 분쟁을

다루는 도구이기에 그렇게 간단히 삼단 논법을 ㉕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중 하나는 소전제가 되는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이다.

우리나라 법제에서 사실 관계의 확정은 반드시 증거에 기초하여야 하는데, 그 사실 관계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㉖조사됨으로써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그대로 인정하면 증거를 조사할 필요 없이 바로 판결로 이어진다. 이른바 청구의 인낙(認諾)*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청구의 인낙이 일어나는 경우는 대개의 소송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그대로 인정하면 서도 법률상 다른 주장을 펴는 예가 가끔 있는데, 이 경우에도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증거 조사란 사실 관계에 대하여 쌍방 간에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바로 판결을 하는데, 그 결론은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예외가 있다면 원고의 주장이 그 자체로서 타당한 근거를 가지지 못한 경우이다.

그러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인정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증거 제출에 대해 피고가 변론(辯論)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인(否認), 그러한 사실 관계의 존재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부지(不知),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침묵(沈默)의 태도를 취할 수 있다. 이때 피고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는 그 후의 심리(審理)*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침묵의 태도를 취한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명백하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자 백을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진다. 부인을 한 경우와 부지로 답한 경우는 원고가 증거로 인정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 ㉗입증을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법정에 제출된 자료가 증거로 인정되면, 법관은 이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심증(心證)을 형성하고 법을 적용하여 판결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기 위해 증거에 쓰이는 기초 사실을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고, 때로는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입증에 따르는 곤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사실 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㉘추정(推定)하거나 ㉙의제(擬制)하기도 한다. 추정은 어떤 사항과 동일한지의 여부가 불확실한 다른 사항을,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일단 진실로 가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동일 사건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측하여 인정하는 것이 추정의 예인데, 추정은 불이익을 받는 자가 반대 사실 관계를 입증하면 ㉚반복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의제란 어떤 사항이 다른 사항과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두 사항을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을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의 청구권에 있어서 태아(胎兒)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즉 법이 공익상의 필요 등 때문에 사실 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법 정책적으로 확정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의 필요에 의해 사실로 확정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증만으로 반복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청구의 인낙: 피고가 원고의 청구 내용인 권리나 주장을 전면적으로 긍정함.

*심리: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원이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

25. 윗글을 근거로 할 때, 제시된 내용의 진위를 바르게 판단한 것은?

	내용	진위의 판단
①	대개의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반박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지 않다.
②	법은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 규범으로, 소송을 제기한 측과 소송을 당한 측의 분쟁을 다루는 도구이다.	그렇지 않다.
③	'부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피고가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가 변론할 때 취할 수 있는 태도 중 하나이다.	그렇지 않다.
④	사실 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그와 관련된 법규가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서는 삼단 논법에 의해 올바른 결론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	그렇다.
⑤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의 청구권에 있어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추정'에 의해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렇다.

2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제시된 소송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확정되지 않은 사실 관계: '을'이 '갑'의 자전거를 고의로 망가뜨렸다.
- *소송 전개: '갑'이 '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 *사실 관계와 관련한 법규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 ① 사실 관계가 확정되어 삼단 논법에 따라 법이 적용될 수 있게 된다면 민법 제750조는 대전제, “'을'이 '갑'의 자전거를 고의로 망가뜨렸다.”는 소전제가 되겠군.
- ② '을'이 '갑'의 자전거를 고의로 망가뜨렸다는 물증이 소송 전개 중에 발견되어 증거로 인정되었다면 법관은 이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정하는 심증을 형성하겠군.
- ③ '을'이 '갑'의 자전거를 고의로 망가뜨렸다는 증거가 '갑'에 의해 제시되고 '을'에 의해 청구의 인낙이 이루어졌다면, 증거를 조사할 필요 없이 판결로 이어지겠군.
- ④ '을'이 '갑'의 자전거를 고의로 망가뜨렸다는 증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법률상 다른 주장을 펼쳤다면 증거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군.
- ⑤ '을'이 자전거를 고의로 망가뜨렸다는 증거를 '갑'이 제출한 것에 대해 '을'이 침묵의 태도를 취했다면, 이후 재판 과정에서 침묵이 '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군.

27.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특징이 있다.
- ② ㉡은 본질이 다른 것을 법률상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 ③ ㉠은 ㉡과 달리 반대 사실 관계만 입증된다면 반복될 수 있다.
- ④ ㉡은 ㉠과 달리 법규에 의해 일정한 사실 관계의 존재나 부존재를 확정하지 않는다.
- ⑤ ㉠과 ㉡은 모두 입증에 따르는 곤란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28.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일을 확실하게 정함.
- ② ㉡: 알맞게 이용하거나 맞추어 씬.
- ③ ㉢: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봄.
- ④ ㉠: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옳지 아니함을 그에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증명함.
- ⑤ ㉢: 이리저리 뒤쳐 고침.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는 오십 리를 못 가서 발이 부르텠다. 그는 한 시간에 십 리를 걸었다 하면 지금은 그것의 절반 오 리도 못 걸었다.

그는 발 부르튼 것을 길가에 서서 지긋지긋 눌러 보며 혼잣속으로, ‘흠, 올 적에는 기차 타고 온다. 정거장에서 집까지가 오 리 밖에 안 되니 그때는 잠깐 걷지…….’

그러나 그는 주머니 속을 생각하여 보았다. 발병이 나지 않고 그대로 출창 잘 걸어간다 해도 닳새나 돼야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주머니에 있는 행자는 얼마나? 빠듯하게 쓰고도 남을지 말지 하다.

해는 저 간다. 가슴에서는 공연히 무서운 생각이 났다. 만일 발병이 더하여 길을 못 가게 되면 어찌하나.

그는 용기가 줄어들고 희망에 구름이 끼는 것 같았다.

그는 비척비척 맥이 없이 걸어가며 궁리해 보았다. 그는 자기가 가는 길가에 아는 사람의 집을 모조리 생각해 보았다.

말할 만한 집이 하나도 없었으나 거기서 한 십 리쯤 셋길로 휘어 들어가면 거기 큰 촌이 하나있었다. 그 촌 이름을 여기에 쓸 필요가 없으며 그만두지마는 그 촌에는 자기 아버지가 한참 호기 있게 @돈을 쓰고 그 근처 읍에 이름 있는 부자로 있을 때 소작인으로 있던 사람이 생각한다.

그는 그를 자기 집 사랑에서 자기 아버지 앞에 황송한 태도로 앉아 있는 것을 보기는 보았을지라도 그의 집을 찾아간 일은 물론 없었다.

㉠ ‘옳지…….’ / 형근은 무릎을 쳤다.

‘김 서방을 찾아가면 얼마간이라도 돌릴 수가 있을 터이지, 거저 달래는 것인가? 돌아올 때 갚을걸!’

그는 김 서방의 상전이란 관념이 있다. 옛날에 자기 아버지의 은덕으로 살아간 사람이니까 은덕을 베푼 자의 아들의 편의를 보아 주는 것도 떳떳한 일이라 하였다.

즉 자기 마음이 그러니까 남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하였다.

그는 허위단심 김 서방 집을 찾았다. 그 집 앞에는 흰한 논과 밭이 있고 집은 대문이 컸다.

주인을 찾으매 정말 김 서방이 나왔다. 김 서방은 반가워하면서도 놀랐다. / “이게 웬일야?”

김 서방은 존대도 아니요 하대도 아니요 어리벉벉하게 말을 해 버린다. 형근은 이것이 의외였다. 아무리 세상이 망해서 내가 제 집을 찾아왔기로 어디를 보든지 말버릇이 그렇게 나오지는 못할 것이었다.

㉡ “어서 들어가세.”

이번에는 하계가 나왔다. 형근의 얼굴은 노래졌다가 다시 붉어졌다. 그는 대답이 없었다. 마당에 서서 해만 바라보았다. 해는 벌써 저쪽 서산 위에 반쯤 걸리었다.

그러나 그는 단념하였다. 자기가 노동을 하러 괴나리봇짐을 지고 나가는 이 시대에서는 무엇보다도 돈이 있어야 한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된다.** 양반도 되고 남을 부릴 수도 있으니 자기도 돈을 벌어서 다시 **옛날의 문벌을 회복하고 남도 부려 보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은 참아야 한다. 숙명적으로 그는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이니까 단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철원에 도착한 지형근은 친구를 만나 다른 노동자들과 움에서 함께 살게 된다. 일자리를 찾아 준다는 조 주사에게 이끌려 술집에 갔다가 한동네에 살던 이화가 창기

가 된 것을 보고 놀란다.

그렇게 지내기를 닳새를 넘고 열흘이 넘었다.

조 주사라는 자를 장거리에서 한두 번 만났으나 코웃음을 치고 우물쭈물 얼렁얼렁하고 핵 피해 버릴 뿐이요 전과는 단판이요, 동향 친구는 사람이 입이 무거워서 말은 아니 하지마는 그래도 기색이 좋은 기색은 아니었다. 그뿐 아니라 그 더운 염천에 그 지지분한 곳에서 여벌 옷 한 벌을 입고 지내려니까 온몸에서 땀내가 터지게 나고 옷이 척척 달라붙어서 거북하고 끈적끈적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비로소 사람 많이 사는 데 인심 강박한 것을 알았다.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힘써 주는 이 없고 더구나 서로 으르렁대고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것뿐인 것을 알았다.

그뿐 아니라 그는 지금까지 시골서는 양반이었고 행세하는 사람이요, 먹을 것은 없으나 그래도 일군에서 누구라면 알아주기는 하였으나 지금 여기 와서는 지형근의 존재가 없다. 그뿐이면 오히려 예사이지마는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남의 것을 빌어 먹다시피 하는 사람이 된 것을 생각할 때 그는 자기가 불쌍하니보다도 웬일인지 가슴에서 무서운 생각이 날 뿐이다.

자기가 이화를 보고 그 계집이 창기가 된 것을 비웃었으나 그는 **오늘에 거의 비렁뱅이가 된 것을 생각하고** 눈이 아플 만큼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곳에 온 지 열흘이 넘도록 그는 일이라고는 붙들어 보지를 못하였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이 잠을 자는 축에도 심어 명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는 이상해서 하루는 물었다.

“당신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노시우.” / 그들은 서로 얼굴들을 보더니 그중 한 사람이,

“㉢그렇소, 요새는 여름이 되어서 전황*한 까닭에 일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우. 그래 일자리가 펍 드물쥬. 그렇지만 가을만 되면 좀 괜찮쥬.”

“가을에는 일본 사람들이 돈을 풀어놓나요?”

“㉣ 플다뿐요? 작년 가을에도 여기 수만금 떨어졌소. 오죽해야 돈 소내기가 온다 했소.”

형근은 다만, / ㉤ “네에, 그래요?” / 하고 말을 못 했다.

“가을까지만 기다리시우. 그때는 괜찮으시리다. 저것 쯤.” / 하고 전차길 깔아 놓은 걸 가리키며,

“저것 놓는 데도 돈이 산더미같이 들었소. 지긋지긋합니다.”

형근은 말에 배가 불려서 공연히 좋았다. 속으로 가을만 되면 태산만큼은 그만두고라도 그 한 모퉁이쯤은 생기려니 하고 혼자 좋았다.

㉦ 돈 생기는 생각만 하면 이화 생각이 난다. 이화 생각이 나면 이화 집에 가고 싶다. **젊은 가슴은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듯한 부질없는 정열로** 해서 애를 쓴다.

그는 밤중만 되면 이화 집 앞을 돌아온다. 갈 적에는 혹시 이화의 그림자라도 보았으면 하고 가기는 가지 마는 어찌 그런 일에 그러한 공교로움이 있을 리가 있으랴.

갔다가는 헛되이 돌아오고 돌아올 때에는 스스로 다시 안 가기를 맹세한다. 맹세만 할 뿐이 아니라 이화를 멀리하고 욕하고 침 뱉었다. / 그러나 그 이튿날이 되면은 아니 가려 하다가도 자연히 발길이 그쪽으로 향하여져서 으레 허행일 것을 알면서도 다녀오지 않을 수가 없었다.

- 나도향, [지형근]

*전황: 돈이 잘 유통되지 아니하여 귀함.

2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현재의 어려움을 벗어날 계책을 떠올린 것에 대한 만족감이 담겨 있다.
- ② ㉡: 형근에게 하대를 함으로써 과거와는 달라진 인물 간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일자리가 없어 이상해하는 형근의 판단이 맞다고 인정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근에 대한 인물의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상대가 말한 내용을 듣고 생겨난 형근의 기대감을 암시하고 있다.

30.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계층 간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② ㉡는 타인의 노동을 통해 얻게 되어 있는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 ③ ㉠은 인물 간 화해를 위한, ㉡는 인물 간 협력을 위한 용도와 관련되어 있다.
- ④ ㉠은 부유했던 과거 상황과, ㉡는 인물의 욕망과 연관된 현재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 ⑤ ㉠과 ㉡는 모두 나태했던 생활에 대한 인물의 반성적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1926년 [조선문단]에 발표된 소설로,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손인 ‘지형근’이 노동자 신세로 전락해 가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현실적인 처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의 낡은 관념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일제 강점기의 배금주의 풍조, 실업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의 현실, 시대의 변화에 기인한 신분제도의 해체와 같은 사회상을 비판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어수룩한 주인공의 왜곡된 가치관이나 현실 인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 ① 아버지의 ‘소작인’이었던 김 서방을 여전히 자신보다 낮은 신분으로 생각하는 형근의 모습에서, 과거의 낡은 관념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형근의 모습에서, 돈에 의해 인간이 지배되기에 이른 왜곡된 근대화 과정의 어두운 이면을 떠올릴 수 있군.
- ③ ‘다시 옛날의 문벌을 회복하고 남도 부러 보리라’는 형근의 생각에서, 신분 제도가 해체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의 시대착오적인 면모를 확인할 수 있군.
- ④ ‘오늘에 거의 비렁뱅이가 된 것을 생각하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토로하는 형근의 모습에서, 극빈의 현실로 전락한 인물의 자괴감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그림자를 붙잡으려는 듯한 부질없는 정열’이라는 서술자의 말에서,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는 어리숙한 인물이 점차 현실을 자각하는 과정을 그리려는 표현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군.

[32~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구의 모든 사물은 본연의 색을 지니고 있으며, 그 색을 잃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퇴색이란 색 성분의 분자가 흡수한 빛의 에너지 등에 의해 부서지거나 변형된 것이다. 보통 무엇이 낡거나 몰락하면서 그 존재가 희미해지거나 볼품없어질 때 비유적으로 퇴색했다는 표현을 쓰듯이, ‘백화 현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다음은 백화 현상이 일상생활이나 생태계 속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산호는 군체 동물로 그중 몇 부류의 군체가 모여 산호초를 형성한다. 산호초는 해양에서 가장 다양한 생태계를 형성하며 해양 어종의 약 25%의 서식처와 먹이를 제공한다. 산호는 열대 해역뿐만 아니라 극지방과 온대 해역에서도 발견되지만 산호초는 열대 해역에서만 발견된다. 이것은 두 가지 상이한 유형의 산호가 있기 때문이다. 조초성 산호는 산호초를 형성하는 산호로 열대 해역에서만 발견된다. 비조초성 산호는 산호초를 형성하지 않는다. 조초성 산호의 조직 속에는 황록공생조류라는 미세한 식물 플랑크톤이 자란다. 황록공생조류는 엽록소를 비롯한 광합성 색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모이면 녹색, 갈색, 붉은색을 띠는데 햇빛을 이용해 산호가 호흡할 때 나오는 이산화 탄소와 물로 광합성을 한다. 산호의 골격은 탄산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황록공생조류가 광합성을 해서 만든 유기물은 산호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산호의 탄산 칼슘 골격을 키워 산호초의 성장과 발달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산호는 그들의 조직에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황록공생조류가 방출되면 색깔이 바래진다. 황록공생조류가 없는 산호의 조직 안은 거의 투명하고 석회석의 골격으로 하얗게 되는 백화 현상이 나타난다. 만약 이것이 상당 기간 지속되면 산호는 죽게 된다. 백화 현상의 원인은 불분명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학자는 그 원인을 수온이 30℃ 또는 그 이상이 될 때 야기되는 스트레스 탓으로 돌리고 있다. 백화는 점점 더 흔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백화 현상의 패턴은 지구 온난화가 시작되는 초기 경고일지도 모른다는 ㉠시각도 있다.

건축물도 예외는 아니어서 백화 현상은 위협적이다. 콘크리트 건물의 백화 현상은 콘크리트 내부의 수산화 칼슘 등이 물에 용해되어 건물의 외부로 흘러나와 수분이 증발된 후 표면에 탄산칼슘의 형태로 남는 현상이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물 그리고 강도를 위한 골재를 적절하게 배합하여 굳힌 혼합물이다. 시멘트에 일정한 물을 가해 섞으면 수산화 칼슘이 생성되어 물에 용해된다. 수산화 칼슘은 계속해서 시멘트 중의 다른 성분들과 반응하여 콘크리트를 견고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콘크리트가 수소 이온 지수인 pH가 12.5~13인 강한 염기성인 것은 수산화 칼슘 포화 용액 때문이다. 수산화 칼슘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높는데, 이 특성이 백화 발생에 중요한 ⑥요인이 된다. 콘크리트가 ㉔건조될 때 수산화 칼슘 용액이 콘크리트 내의 미세한 구멍이나 빈틈인 공극을 따라 콘크리트의 표면으로 이동하고 이후 물이 증발하게 되면 표면에 수산화 칼슘이 잔존한다. 이 수산화 칼슘이 공기 중의 이산화 탄소를 흡수하여 반응하게 되면 탄산칼슘으로 변환한다. 이 탄산칼슘은 물에 녹지 않으며 흔히 백색을 띠고 있어 이 현상을 백화 현상이라 한다. 탄산칼슘의 pH가 7 정도이기 때문에 백화 현상을 콘크리트의 탄산화 혹은 중성화라고도 하는데 콘크리트 수명 판단에 있어 하나의 ㉔지표가 된다. 탄산칼슘은 내력*을 부담할 수 없기에 쉽게 부서지거나 균열이 가기 때문이다. 산성비가 콘크리트에 좋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이다.

건물 백화의 발생은 온도와 습도에 영향을 받는다. 콘크리트 내부의 수용액의 이동을 양지와 음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양지에서 콘크리트 표면이 내부보다 온도가 높으므로 표면의 수분이 빠르게 건조되면서 공극의 수분이 내부에서 증발되어 백화가 발생하기 어렵다. 반면, 그늘에서는 표면의 온도가 낮으므로 수분의 증발이 억제되어 내부의 수용액이 공극을 따라 외부로 흘러나오게 되며 건조된 후 표면에 수산화 칼슘이 잔존하므로 백화가 발생하기 쉽다. 즉 온도가 낮고 일조량이 적어 습도가 높은 경우, 공극에 존재하는 물이 잘 건조가 되지 않으므로 백화 원인 물질이 쉽게 용해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특히 수산화 칼슘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높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또한 콘크리트가 만들어진 초기일수록 물이 많고 공극 구조가 영성하므로 수산화 칼슘 용액이 이동하기 쉽다. 이러한 상황에서 ㉔일정 시간이 흐른 후 표면의 수용액이 건조되면서 백화로 나타난다.

*내력: 견디어 내는 힘.

3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콘크리트에 물과 골재를 배합한 것이 시멘트이다.
- ② 황록공생조류는 산호초 주위에 거주하며 먹이를 공급받는다.
- ③ 극지방에서 발견되는 것은 산호초를 형성하지 않는 산호이다.
- ④ 색 성분의 분자가 부서지거나 변형된 것을 백화 현상이라 한다.
- ⑤ 콘크리트 건물의 백화는 콘크리트 속 탄산칼슘이 표면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다.

33. 윗글에서 산호초의 생태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황록공생조류는 이산화 탄소와 물을 유기물로 전환시키는군.
- ② 산호초의 백화 현상은 황록공생조류의 색이 바래지면서 일어나는군.
- ③ 산호초의 백화 현상이 심화되면 서식처를 잃는 해양 생물들이 있겠군.
- ④ 산호초는 열대 해역에서 서식하지만 해수 온도가 높을수록 성장하는 것은 아니군.
- ⑤ 산호초는 황록공생조류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빛이 많은 지역에 주로 서식하겠군.

34. 윗글을 근거로 할 때, 콘크리트의 백화 현상이 일어나는 환경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공극의 물 증발이 활발할수록 백화가 발생하기 쉽다.
- ② 콘크리트 내부의 물이 많을수록 백화가 발생하기 어렵다.
- ③ 콘크리트 구조물이 만들어진 초기일수록 백화가 발생하기 어렵다.
- ④ 고온 건조한 기후보다는 저온 다습한 기후에서 백화가 발생하기 쉽다.
- ⑤ 별이 바로 드는 남쪽 외벽이 그렇지 않은 북쪽 외벽에 비해 백화가 발생하기 쉽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미생물 콘크리트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미생물 콘크리트는 박테리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와 내구성을 증가시키는 기술이다. 콘크리트가 박테리아와 혼합되면 박테리아는 휴면 상태로 들어간다. 이 콘크리트에 어떤 균열이나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면 공기와 물이 들어오는 공간을 제공하게 되어 박테리아 포자가 침전 작용을 개시한다. 이 박테리아는 콘크리트 내부에 탄산칼슘 침전을 일으킨다. 이 침전물이 콘크리트 내부의 공극을 채우게 되므로 조적이 치밀한 콘크리트가 만들어진다.

- ① 박테리아로 인해 물이 많아지므로 백화 현상이 방지되겠군.
- ② 박테리아로 인해 수산화 칼슘이 증가하면서 백화 현상이 방지되겠군.
- ③ 탄산칼슘 침전이 생기므로 백화 현상 발생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지겠군.
- ④ 수산화 칼슘 용액이 표면까지 흘러가기 힘들 테니 백화 현상이 방지되겠군.
- ⑤ 박테리아로 인해 공극이 만들어지므로 백화 발생 가능성은 오히려 높아지겠군.

36. 밑글과 <보기>를 읽고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콘크리트의 백화 현상과 함께 일어나는 수소 이온 지수의 변화는 산호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인 '해양 산성화'에서도 일어난다. 해양 산성화는 대기 중의 이산화 탄소가 해양으로 흡수되면서 해수의 수소 이온 농도가 증가해 pH가 낮아지는 현상이다. 해수로 흡수된 이산화 탄소는 물과 반응하여 중탄산염과 수소 이온을 만든다. 이때 발생한 수소 이온은 산호 등과 같은 해양 생물이 탄산 칼슘 골격을 만드는 데 필요한 탄산 이온과 반응하여 중탄산염을 형성한다. 이에 따라 탄산 칼슘의 형성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해양 산성화는 산호의 성장 및 번식, 산호초 구조의 강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① 탄산 칼슘은 산호에는 필요하지만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해가 되는군.
- ② 수소 이온 농도가 증가하는 것은 산호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군.
- ③ 수소 이온 농도가 증가하는 것은 콘크리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군.
- ④ 이산화 탄소와 물의 화학 반응이 많이 일어날수록 탄산 칼슘의 형성이 어려워지는군.
- ⑤ 이산화 탄소와 수산화 칼슘의 화학 반응이 많이 일어날수록 탄산 칼슘을 감소시키는군.

37. ㉠~㉢의 문맥적 의미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우리는 약속한 시각에 맞추어 모임 장소에 나갔다.
- ② ㉡: 식당에는 삼부 요인이 한자리에 다 모여 앉아 있었다.
- ③ ㉢: 신기술을 이용한 대형 유조선이 건조되었다.
- ④ ㉣: 더운 열기가 지표를 뜨겁게 달구었다.
- ⑤ ㉤: 일정 금액을 내시면 등록이 됩니다.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세상에 원자허(元子虛)라는 사람이 있으니, 강개(慷慨)한 선비이다. ㉠기개와 도량이 넓고 커서 시대에 용납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주 나은(羅隱)*의 슬픔을 품고 어렵게 원헌(原憲)*의 가난을 견디어야 했다. 아침에 나가서 발을 갈고 저물 때 돌아와서 옛사람의 글을 읽었다. ㉡일찍이 역사서를 보다가 역대의 위태로워 말할 지경에 처하거나 국운이 옮겨 가거나 운세가 떠나가는 곳에 이르면, 책을 덮고 눈물 흘리며 마치 자신이 그 시대에 처하여 망해 가는 것을 보고도 힘으로 부지할 수 없는 것처럼 애태우지 않은 적이 없었다.

팔월 보름 저녁에 달빛을 따라 책을 펼쳐 보다가 밤이 깊고 정신이 피로하여 의자에 기댄 채 잠들었다. 몸이 홀연히 가볍게 들리며 아득하고 멀리 훨훨 날아올라 마치 날개가 돋아 신선이 된 듯하였다. 어떤 강 언덕에 멈추니 긴 강물이 굽어 흐르고 못 산들이 겹겹이 싸여 있었다. 이때 밤이 반 넘어 깊었다. 홀연히 눈을 들어 보니 천추(千秋)의 불평한 기운이 있는 듯하여 이에 획 휘 파람을 길게 한번 불고 낭랑하게 절구 한 수를 읊었다.

한이 장강에 들어 목메어 못 흐르는데
갈대꽃 단풍잎에 찬바람 우수수 부네
분명 이곳은 장사의 언덕일 것이거늘
달 밝은 밤에 영령은 어디서 노니는가

서성이며 둘러볼 즈음에 홀연히 멀리서부터 가까워지는 발자국 소리가 있더니, 이윽고 갈대꽃 깊은 곳에서 호남아 한 사람이 불쑥 튀어나왔다. 복건(幅巾)을 쓰고 야복(野服)을 입었으며, 풍채가 맑고 미목(眉目)이 수려하여 능름하게 수양산(首陽山) 백이(伯夷)·숙제(叔齊)의 유풍(遺風)이 있었다. 앞으로 다가와서 읊하고 말하기를,

“자허(子虛)께서는 오는 걸음이 어찌 더디었습니까. 우리 임금께서 마중하라고 했습니다.”

하였다. ㉢자허가 산신령이나 물귀신이라고 의심했지만, 용모가 준수하고 행동거지가 한아(閑雅)하여 자신 도 모르게 속으로 기이하게 여겼다.

이에 그를 따라 100여 걸음쯤 가니, 강가에 우뚝 선 정자가 있었다. 그 위에 어떤 사람이 난간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의관이 한결같이 임금 같았고, 또 다섯 사람이 곁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모두 세상의 호걸들로서 모습이 당당하고 풍채가 능름하였다. 가슴속에는 말고삐를 잡거나 바닷속으로 빠지려는 의리를 간직하였고, 배 속에는 하늘을 떠받치고 해를 받드는 뜻을 품고 있었으니, 참으로 이른바 ‘어린 임금을 부탁하고 나라의 운명을 맡길 만한’ 사람들이었다.

자허가 이르는 것을 보고 모두 나와서 맞이하였다. ㉣자허는 다섯 사람에게 먼저 예(禮)를 행하지 않고, 들어가서 임금께 배알한 뒤에 물러나 서서 자리가 정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말석에 꿇어앉았다. 자허의 위쪽은 곧 복건을 쓴 사람이고, 그 위의 다섯 사람이 차례대로 자리하였다.

자허가 어찌 된 영문인지 헤아릴 수 없어 심히 스스로 편안하지 못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일찍이 향기로운 명성을 듣고서 하늘에 달는 높은 의리를 깊이 사모하였소. 좋은 밤에 우연히 만났으니 의아하게 여기지 마시오.”

하자, 자허가 이에 자리에서 일어나 사례하였다.

㉔자리가 정해진 뒤에 고금의 흥망을 서로 토론하면서 지칠 줄 몰랐다. 복건을 쓴 사람이 크게 탄식하며 말하기를,

“㉑ 요(堯), 순(舜), 우(禹), 탕(湯)이 나라를 주고받은 이후로 간교한 꾀로 선양(禪讓)*받는 자가 이들을 빙자하고 신하로서 임금을 치는 자가 이들을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천년토록 모두 다 이와 같아서 마침 내 구원할 수 없게 되었으니, 아아, 네 임금이 영원히 이들의 효시(嚆矢)가 되고 말았습니다.” / 하였다.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임금이 곧 정색하고 말하기를, “아, 이 무슨 말인가. 네 임금과 같은 성스러운 덕이 있으면서 네 임금과 같은 시대 상황에 처한다면 괜찮겠지만, 네 임금과 같은 성스러움이 없는데다가 네 임금과 같은 시대 상황이 아니라면 옳지 않으니, 네 임금에게 어찌 죄가 있겠는가. 도리어 빙자하거나 명분으로 삼는 자들이 잘못된 것이다.” / 하였다.

복건을 쓴 사람이 머리를 조아려 절하며 사죄하기를, “속마음이 불평하여 자신도 모르게 말이 격분되었습니다.” /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만두어라. 귀한 손님이 자리에 계시니 모쪼록 다른 일을 한가롭게 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달이 밝고 바람이 맑으니 이렇게 좋은 밤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이에 비단 도포를 벗어 강촌에 가서 술을 사 오게 하였다.

술이 몇 잔 돌았을 때에 임금이 술잔을 잡고 목메어 흐느끼며 여섯 사람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경들은 어찌 각각 자신의 뜻을 말하여 원통함을 서술해 보지 않는가.”

하니, 여섯 사람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노래를 지으시면 신들이 이어서 이루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에 초연(愀然)히 웃기를 바로잡고 원통함을 이기지 못하며 노래하기를,

강 물결 오염하며 끝없이 흐르니
나의 한 길고 깊이 강물과 같구나
살아서는 제후의 나라 차지했더니
죽어서는 외로운 혼백이 되었도다
신나라 왕망은 거짓 임금이고
의제는 바로 겉으로 높임일세
옛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

[A] 모두 초적에게 들어가니
육칠 명 신하가 함께하여
혼백이 겨우 의탁할 수 있네
오늘 저녁이 어떤 저녁인가
강가 누각에 함께 올랐구나
물결 빛과 달빛은
내 마음 근심케 하고
슬픈 노래 한 곡조에
천지는 아득하기만 하네

하였다. 노래가 끝나자, 다섯 사람이 각각 절구 한 수씩 읊었다.

- 임제, [원생몽유록(元生夢遊錄)]

*나은: 중국 당나라 사람으로 문장이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나 꺼리는 이가 많아 등용되지 못함.

*원헌: 공자의 뛰어난 제자였으나 평생 극심한 가난 속에서 살았음.

*선양: 임금의 자리를 물려줌.

38.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자신이 지닌 뛰어난 역량을 세상에 펼치지 못하는 원자허의 처지를 말해 주고 있다.
- ② ㉒: 다른 나라의 멸망도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는 원자허의 의로운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㉓: 권력을 가진 이에게 순종하는 원자허의 평소 성격을 알려 주고 있다.
- ④ ㉔: 조심스럽게 주변 상황을 파악하는 원자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 ⑤ ㉔: 원자허가 역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인공은 현실에서 좌절된 사회 개혁의 소망을 꿈속에서 실현하고 있다.
- ② 꿈속에서는 주인공이 처한 현실과 대비되는 사회 질서가 등장하고 있다.
- ③ 현실에서 꿈으로 전환되며 미천했던 주인공의 사회적 신분이 상승하고 있다.
- ④ 주인공이 현실에서는 알 수 없었던 역사적 진실이 꿈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⑤ 꿈을 통해 주인공은 현실에서는 만날 수 없는 존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40. ㉑에 대한 ‘복건을 쓴 사람’과 ‘임금’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복건을 쓴 사람은 ㉑이 ‘선양’이라는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아쉬워하고 있다.
- ② 복건을 쓴 사람은 ㉑의 과한 욕심으로 인해 백성들의 고통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 ③ 임금은 ㉑의 성스러움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④ 임금은 ㉑을 명분으로 삼아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이들의 잘못을 비판하고 있다.
- ⑤ 임금은 ㉑의 왕위 계승을 평가할 때 당시의 시대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A]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조선 중기의 문인 임제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이 작품은 세조에 의해 왕위를 빼앗긴 단종과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육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신하로서 역모를 일으켜 나라를 차지한 왕망, 항우에 의해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나 항우에게 암살당한 의제, 의제를 살해한 항우를 의미하는 초적 등 작품에 언급되는 중국의 여러 역사적 인물은 모두 단종의 폐위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 ① ‘죽어서는 외로운 흰백’이 된 이는 단종을 의미하겠군.
- ② ‘왕망’을 언급한 것은 세조의 행위를 비판하기 위해서이군.
- ③ 신하의 배신으로 외로운 흰백이 된 것은 ‘의제’와 화자가 공통적이군.
- ④ 화자는 ‘초적’처럼 자신의 한을 풀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군.
- ⑤ ‘육칠 명 신하’에는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육신이 포함되겠군.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마돈나] 지금은 밤도 모든 목거리*에 다니노라 피곤(疲困)하여 돌아가려는도다.
 아, 너도 먼동이 트기 전으로 수밀도(水蜜桃)*의 네 가슴에 이슬이 맺도록 달려오너라.

[A]

[마돈나] 오려무나. 네 집에서 눈으로 유전(遺傳)하던 진주(眞珠)는 다 두고 몸만 오너라.
 빨리 가자. 우리는 밝음이 오면 어딘지도 모르게 숨는 두 별이어라.

[마돈나] 구석지고도 어둔 마음의 거리에서 나는 두려워 떨며 기다리노라.
 아, 어느덧 첫닭이 울고 — 뭇 개가 짖도다. 나의 아씨여. 너도 듣느냐.

[B]

[마돈나] 지난밤이 새도록 내 손수 닦아 둔 침실(寢室)로 가자. 침실로!
 낡은 달은 빠지려는데, 내 귀가 듣는 발자국 — 오, 너의 것이냐?

[마돈나] 짧은 심지를 더우잡고, 눈물도 없이 하소연하는 내 맘의 촛불을 보라.
 양(羊)털 같은 바람결에도 질식(窒息)이 되어 얽푸른 연기로 꺼지려는도다.

[마돈나] 오너라 가자. 앞산 그리메*가 도깨비처럼 발도 없이 이곳 가까이 오도다.
 아, 행여나 누가 볼는지 — 가슴이 뛰누나. 나의 아씨여. 너를 부른다.

[C]

[마돈나] 날이 새련다. 빨리 오려무나. 사원(寺院)의 쇠북이 우리를 비웃기 전에
 네 손이 내 목을 안아라. 우리도 이 밤과 같이 오랜 나라로 가고 말자.

[마돈나] 뉘우침과 두려움의 외나무다리 건너 있는 내 침실 열 이도 없으니!
 아, 바람이 불도다. 그와 같이 가볍게 오려무나. 나의 아씨여. 네가 오느냐?

[마돈나] 가엾어라. 나는 미치고 말았는가. 없는 소리를 내 귀가 들음은 —
 내 몸에 피란 피 — 가슴의 샘이 말라 버린 듯 마음과 목이 타려는도다.

[D]

[마돈나] 언젠들 안 갈 수 있으랴. 갈 테면 우리가 가자. 고을러가지 말고!
 너는 내 말을 믿는 [마리아] — 내 침실이 부활(復活)의 동굴(洞窟)임을 네야 알련만…….

[마돈나] 밤이 주는 꿈. 우리가 엮는 꿈.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으니.
 아, 어린애 가슴처럼 세월(歲月) 모르는 나의 침실로 가자. 아름답고 오랜 거기로.

[E]

[마돈나] 별들의 웃음도 흐려지려 하고, 어둔 밤물결도 찾아 지려는도다.
 아, 안개가 사라지기 전으로 네가 와야지. 나의 아씨여. 너를 부른다.

— 이상화, [나의 침실로]

*목거리: ‘모꼬지’의 방언. 여러 사람이 놀이나 잔치 등에 모이는 일.

*수밀도: 사과 물이 많고 맛이 단 복숭아.

*그리에: 그림자.

(나)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밀동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어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라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라

고통과 설움의 땅 훑훑 지나서
뿌리 깊은 별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캉캉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 손 하나 오고 있거니

-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4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원경과 근경을 대비시켜 풍경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 ② 설의법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청유형의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수미상관의 구성을 통해 작품의 구조적 안정감을 추구하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생동하는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

43. (가)의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먼동’이 뜨기 전의 시간과 ‘어딘지도 모르게 숨는 두 별’이 연결됨으로써, 마돈나와의 만남에 대해 조급해하는 화자의 간절한 심정이 드러나는군.
- ② [B]: ‘첫닭’과 ‘뭇 개’의 청각적 심상과 ‘내 귀가 듣는 발자국’의 환청을 결합하여, 마돈나와의 만남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③ [C]: 말라 버린 듯한 ‘가슴의 샘’과 타려는 듯한 ‘마음과 목’을 결합하여, 이루어지지 못한 만남으로 인해 점차 절망이 심화되고 있는 화자의 마음 상태를 제시하고 있군.
- ④ [D]: ‘세월 모르는’과 ‘아름답고 오랜’을 결합하여, 지향하는 세계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화자의 뒤늦은 깨달음과 한탄을 제시하면서 시상을 전환하고 있군.

⑤ [E]: 흐려지는 ‘별들의 웃음’과 ‘어둔 밤물결’을 결합하여, 화자의 다급하고 간절한 심정을 재차 환기하고 있군.

44. (나)의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에게 두려움을 유발하는 존재이고, ㉡은 ㉠에게 위안을 주는 존재이다.
- ② ㉠은 화자에게 각성을 촉구하는 존재이고, ㉡은 ㉠에게 연민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다.
- ③ ㉠은 화자가 위로를 전하려는 존재이고, ㉡은 ㉠이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존재이다.
- ④ ㉠은 화자에게 기대감을 갖게 하는 존재이고, ㉡은 ㉠에게 실망감을 갖게 하는 존재이다.
- ⑤ ㉠은 화자의 자부심을 환기하는 존재이고, ㉡은 ㉠에게 의구심을 환기하게 하는 존재이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시에서는 서로 대비되는 공간의 특성을 함께 제시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의 특성을 그려 내거나, 화자의 독특한 내면세계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가)에서는 어두운 밤의 현실과 대비되는 ‘침실’을 상징의 공간으로 제시하고 있다. 밀폐된 공간인 ‘침실’은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다양한 공간으로 변주되면서,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인물의 욕망을 암시한다. 이 공간을 통해 화자는 현실과 거리를 두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 삶의 활력을 되찾으려 한다. (나)에서는 ‘하늘 아래’나 ‘별판’이 지닌 ‘뿌리 깊음’을 시적 공간의 특성으로 구체화한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이 바라는 세계에 대한 지향을 나타낸다.

- ① (가)에서 ‘침실’을 ‘눈으로 유전하던 진주는 다 두고 몸만’와 ‘야 할 곳으로 그려 낸 것에서, ‘침실’에 대한 지향이 세속적인 현실과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화자의 초월적 태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가)에서 ‘침실’을 ‘뉘우침과 두려움의 외나무다리 건너’에 있는 공간으로 파악한 것에서,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겠다는 화자의 단호한 결단을 떠올릴 수 있군.
- ③ (가)에서 ‘침실’을 ‘부활의 동굴’이라고 비유하는 것에서, 마돈나와 함께 밀폐된 공간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재생하고 싶다는 화자의 간절한 바람을 엿볼 수 있군.
- ④ (나)에서 ‘하늘 아래’와 ‘물 고이’는 곳은 고통 속에서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서러운 현실에 맞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할 존재들을 떠올리게 하는군.
- ⑤ (나)에서 ‘뿌리 깊은 별판’은 화자가 자신을 구원해 줄 존재와의 만남을 위해 스스로 마련해 놓은 이상적인 공간으로서, 고통과 설움을 이겨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환기하고 있군. **1차 끝**

[1~3] 다음은 방송 보도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앵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년 새로운 폰이 출시될 때마다 우리를 기대하게 했던 폴더블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 안녕하십니까? A입니다.

앵커: A기자, 폴더블폰의 출시와 관련된 이야기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지요?

기자: 네. 4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폴더블폰이라는 말을 들으면 양치기 소년이 떠오른다고도 하시는데요, 먼저 폴더블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폴더블폰은 접히는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접어서 휴대하고, 펼칠 경우 태블릿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폰을 말합니다.

앵커: 스마트폰을 접어서 크기를 작게 할 수 있다면 휴대가 훨씬 용이하겠습니다. 이 기술에 대해선 이미 들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 더 이슈가 된 이유가 있나요?

기자: 네. 녀 B업체가 반으로 접었을 때 한 손에 들어오는 태블릿 PC를 시제품으로 내놓았습니다. 실제 크기는 일반 태블릿 PC와 다름없지만 화면을 접으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크기 정도로, 혹은 그보다 더 작아집니다.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폴더블폰 시제품이 출시되면서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이 더욱 커진 것 같습니다.

앵커: 많은 분들을 기대하게 하면서도 시제품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을 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장치들을 휘어지게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나 봅니다.

기자: 폴더블폰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미 많은 부분들이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장치들이 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폴더블폰을 연구한 C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교수: (인터뷰 영상) 폴더블폰 하드웨어를 위한 기술은 이미 모두 개발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접히는 폴더블폰은 돌돌 말 수 있는 롤러블 디스플레이와 달리 정해진 일부 부분만 접히는 형태여서 디스플레이만 접으면 됩니다. 폴더블폰 출시의 열쇠는 디스플레이를 접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므로 배터리나 메모리 칩, 회로 등 부품은 접하지 않는 부분에 배치하면 됩니다. 현재는 안정성과 성능을 향상하여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목표가 10만 번 접었다 펴기를 반복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40만 번까지 요구 수준이 높아졌고, 접히는 부분의 반지름도 초기 5 mm에서 1 mm까지 줄어 현재는 거의 완벽히 접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앵커: 이제 스마트폰 시대에 이은 폴더블폰의 시대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 중인 스마트폰을 보면 이렇게 딱딱한 기기가 어떻게 접힐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네. C 교수님께서 폴더블폰의 핵심 기술로 유리만큼 단단한 필름, 더 얇은 디스플레이, 접히는 전자 회로, 강하고 유연한 점착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들었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시죠. (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이 폴더블폰입니다. (해당 부분을 가리키며) 이 부분이 디스플레이의 최상층인데 화면을

보고 터치하는 스크린으로 유리와 비슷한 수준의 경도가 높은 필름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투명하고 휘어져야 하기에 기존에 사용했던 필름 대신에 등장한 재료가 휘어지는 투명 폴리아마이드 필름입니다. 두 번째로 책이든 디스플레이든 얇을수록 접기가 쉽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섯개 층으로 이루어진 OLED 디스플레이의 층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OLED 디스플레이는 형광성 유기 화합물에 전류가 흐르면 빛을 내는 자체 발광 현상을 이용하여 만든 디스플레이로 바닥에서부터 하부 필름층, OLED 패널층, 터치스크린 패널층, 편광자, 유리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얇을수록 잘 접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의 층을 합쳐 두께를 줄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접히는 이 부분(해당 부분을 가리키며)을 잇는 전선 역할을 하는 전극을 신축성 있게 만들어 기판이 휘어질 때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설계하거나 신축성 있는 액체 금속을 사용하면 접히는 전자 회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상외로 가장 어려웠던 기술이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층을 서로 붙여 주는 점착제라고 하셨는데요, 점착제는 점착 성질이 있어 붙였다가 떼기를 반복할 수 있는 물질로 잘못하면 디스플레이가 구겨질 수도 있고 온도 변화에 따라 점착제의 물성이 변화되어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가진 기존의 아크릴 계열의 점착제 대신 실리콘 계열의 점착제를 개발하여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앵커: [가]

기자: 편광자와 터치스크린 패널을 하나의 층으로 만드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편광자는 외부의 빛이 디스플레이 안으로 들어갔다가 반사돼 나오는 현상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해 OLED층에서 나오는 빛이 또렷하게 보이도록 만들어 줍니다. 터치스크린 패널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입력 장치로 촘촘히 배열된 전극에 흐르는 미세 전류가 사용자의 손을 타고 흘러 나가면 연결된 회로에서 그 양을 측정해 터치를 인식하게 하죠. 각각의 기능을 하는 두 개의 층을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앵커: 두 개의 구조를 하나의 층으로 만들었다니 더 얇은 폴더블폰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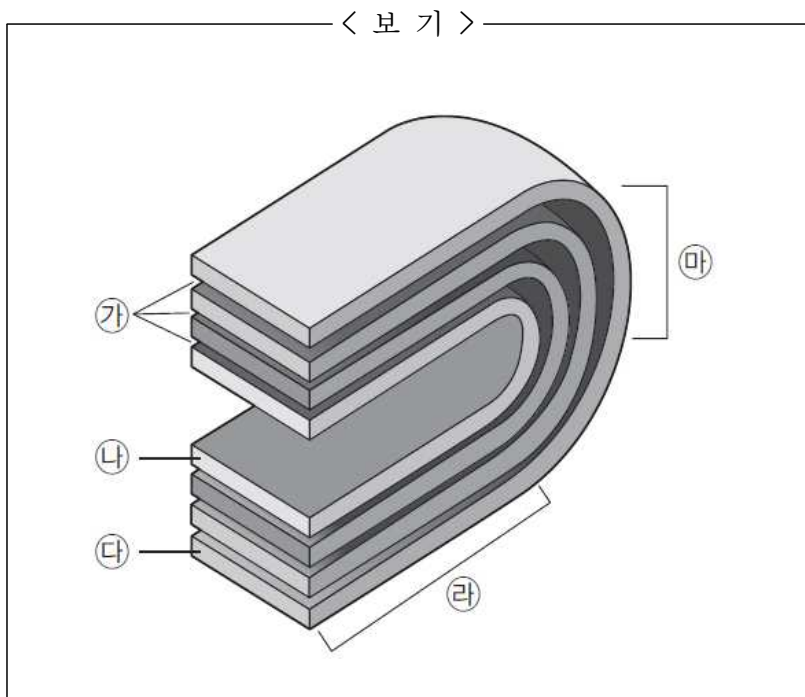
1. [A]에 활용된 말하기 방식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앵커는 특정 개념에 대해 기자에게 질문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앵커는 기자에게 롤러블 디스플레이와의 차이점을 질문하여 폴더블폰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기자는 일반인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을 짚어 주어 제품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기자는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전문적인 내용을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⑤ 교수는 폴더블폰의 기술 발전이 앞으로 다른 전자 제품의 기술 발전에 미칠 영향과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 [B]의 기자 답변을 고려할 때, [가]에 들어갈 앵커의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리만큼 단단한 필름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기술은 무엇인가요?
- ② 신축성 있는 전극을 사용하기 위한 기술은 어떻게 개발되었습니까?
- ③ 디스플레이가 잘 접히도록 두께를 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현했나요?
- ④ 플러블 디스플레이에 적용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습니까?
- ⑤ 내구성을 향상하여 높은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어떤 기술을 사용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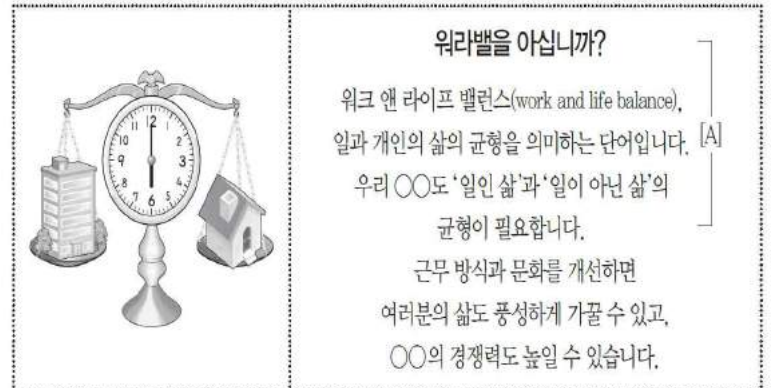
3. <보기>는 ㉠에 해당하는 화면이다. 이를 토대로 위 방송 보도에 대해 시청자가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각 층을 서로 붙여 주는 실리콘 계열의 점착제구나. 기존의 점착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해 주어 이해에 도움이 되었어.
- ② ㉠은 디스플레이의 최상층에 있는 투명 폴리아마이드 필름이구나. 이 필름이 유리만큼 경도가 높다는 것이 놀라웠어.
- ③ ㉠은 바닥 부분으로 OLED 디스플레이에서는 하부 필름층에 해당하겠군. 특히 폴더블폰에서 하부 필름층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어 하부 필름층에 대한 이해가 쉬웠어.
- ④ ㉠ 부분에는 배터리나 메모리 칩, 회로 등을 배치하겠군. 배터리나 메모리 칩처럼 스마트폰에 사용되고 있는 부품들을 예로 들어 접하지 않는 부분을 설명해 주니 이해하기 편했어.
- ⑤ ㉠ 부분은 기판이 휘어질 때 충분히 늘어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는 부분이구나. 신축성 있는 액체 금속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들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어.

[4~7] (가)는 어느 회사의 사내 광고 초안이고, (나)는 (가)를 수정하기 위한 광고 담당자 회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팀장: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회사의 근무 시간 단축 결정과 관련하여 회사 문화 개선을 위한 광고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회의 때에는 작년부터 이슈가 되고 있는 '워라밸'을 광고에 담자는 데 의견이 모였고, 그에 따라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오늘은 초안에 대한 검토 의견과 함께 수정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팀원 1: 초안은 '워라밸'이라는 표현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정된 근로 기준법에 따라 우리 회사에서도 근무 시간 단축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방침을 결정했지만, 근무 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일하는 시간과 일하지 않는 시간을 구별하자는 메시지를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팀원 2: 그것보다는 사원들이 근무 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지를 말하는 내용이 우선 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요? 휴식, 취미 활동, 자기 계발처럼 자신을 위한 활동을 하며 업무로부터 잠시 떨어지는 시간을 갖자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팀원 3: 요즘 사람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우리 회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도 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표제로 내세우고,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이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팀장: 세 분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러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 방안을 조율하면 좋겠습니다.

팀원 2: 근무 시간 외에 개인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일하는 시간과 일하지 않는 시간을 구별하자는 메시지를 명시하자는 의견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광고에 부각되면 팀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서는 광고를 볼 때마다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팀원 1: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 안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가에 따라 광고에 담긴 의미 전달이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A]

그렇게 본다면 일하는 시간과 일하지 않는 시간을 구분하자는 내용을 명시하는 대신 퇴근 후 시간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이 좋겠습니다.

팀원 3: 맞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자는 의미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퇴근 후 시간에 대한 실천 계획을 세우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팀원 1: 근무 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내용을 부각하자는 말씀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팀장: 의견이 모인 것 같군요. 여러분이 모두 동의하신 의견에 추가하여 '저녁이 있는 삶'을 광고문에 포함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팀원 1, 3: 좋습니다.

팀원 2: 저도 좋습니다. 초안의 마지막 문장은 그대로 살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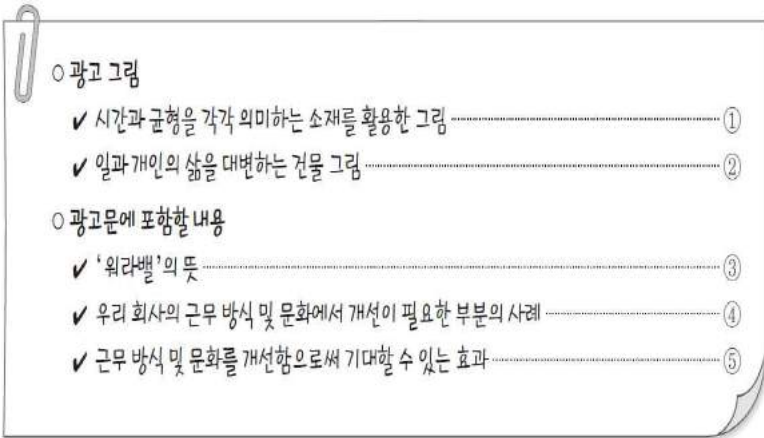
팀원 1: 동의합니다.

팀원 3: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표제를 제외한, 본문의 문장은 초안의 마지막 문장처럼 조건과 관련되는 연결 어미를 활용하고 대구적 표현이 사용되도록 형식을 통일하면 좋겠습니다.

팀원 1, 2: 좋습니다.

팀장: 그럼 지금까지 팀원들 간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광고문을 수정해 주세요. 광고문이 바뀌면 당연히 그에 맞추어 그림도 바뀌어야 할 겁니다. 수정안이 완성되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칩니다.

4. 다음은 (가)를 작성하기 전에 실시한 ㉠의 결과를 메모한 것이다.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5. (나)에서 '팀장'의 역할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회의 참여자가 발언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며 추가 발언을 요구하고 있군.
- ② 회의 참여자가 발언한 내용들의 장점과 단점을 언급하며 의견을 종합하고 있군.
- ③ 회의 참여자가 발언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며 참여자의 발언 순서를 지정하고 있군.

- ④ 회의 참여자가 발언할 내용을 한정하고 참여자들의 발언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군.
- ⑤ 회의 참여자가 발언할 내용을 제시하고 참여자들 간의 대립에 대해 중재안을 제공하고 있군.

6. [B], [C]에 제시된 발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C]의 '팀원 2'의 발언에는 [B]의 '팀원 1'의 발언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 있다.
- ② [C]의 '팀원 1'의 발언에는 [C]의 '팀원 2'의 발언을 토대로 [B]의 자기 발언을 수정한 내용이 있다.
- ③ [C]의 '팀원 3'의 발언에는 [C]의 '팀원 1'의 발언에 동조하며 [B]의 자기 발언의 한계를 보완하는 내용이 있다.
- ④ [C]의 '팀원 1'과 '팀원 3'의 발언에는 [B]의 '팀원 2'의 발언에 담긴 제안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
- ⑤ [C]의 '팀원 2'와 '팀원 3'의 발언에는 [B]의 '팀원 1'의 발언에 담긴 주장에 동의하는 내용이 있다.

7. (나)를 고려할 때, [A]의 수정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워라밸을 실천하기 원하십니까? 여가 시간을 확보한다면 취미 활동을 즐기고 자기 계발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② 우리 OO의 일과 삶에 균형을 주세요. 저녁이 있는 삶을 가져올 여러분의 취미를 떠올리고 함께할 사람을 떠올려 주세요.
- ③ OO에도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서로 조금씩만 배려하면 균형이 있는 삶도 가능하고, 저녁이 있는 삶도 가능합니다.
- ④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려면 퇴근 후 시간에는 업무에서 멀어지고 자신을 위한 활동과 가까워지세요.
- ⑤ 저녁이 있는 삶을 되찾아 드립니다. 일과 삶의 균형, 근무 시간만큼 여가도 중요합니다. 퇴근 후의 시간은 자신을 위한 활동에 할애하세요.

[8~10] 다음은 청소년 의회 교실의 개최를 축하하는 식사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십니까? 제8회 A도 청소년 의회 교실에 참가해 주신 B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올해도 청소년 의회 교실을 개최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 의회의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청소년 의회 교실의 참가자 모집에도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여러분들을 개최식에서 만나게 되고 이렇게 축하의 인사말을 나눌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공 지능이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제 4차 산업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을 생산해 내는 능력보다는 타인과 공감하고 협력적으로 의사소통하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는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A도 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A도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 A도의 정책과 입법, A도의 운영에 관한 다양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의결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기도 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 의회는 집행부인 A도와 A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행정 감시 기관으로서의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나 관계 공무원은 의회에 출석하여 행정 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고 의회가 요구할 경우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도 의회에서는 다양한 의정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도 의회에서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의정 활동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여러분은 1일 도 의원이 되어 의원 선서를 한 후, 사전에 공지된 안건인 ‘A도 청소년 쉼터 확대 방안’에 대해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관련 조례안을 상정하여 찬반 토론을 실시한 후 표결 처리하는 과정 전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의회 퀴즈를 풀어 보면서 의정 활동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청소년 의회 교실은 작년에 실시했던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운영될 것입니다.

[가]

청소년 의회 교실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은 의회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할 때 민주주의가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청소년 의회 교실체험은 A도 의원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주의 의사 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현장 교육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의회 정치를 실제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훌륭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 위 식사문에 나타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청중의 관심을 유도한다.
- ②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 신청을 해 준 청중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
- ③ 도 의회의 활동 소개에 앞서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주의를 환기한다.
- ④ 행사에 포함된 구체적인 체험 활동들을 소개하면서 행사 취지를 강조한다.
- ⑤ 청소년 의회 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덕담을 건네면서 마무리한다.

9. <보기>는 작년에 청소년 의회 교실에 참가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 조사 결과이다. <조건>을 고려할 때, 윗 글의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Q. 청소년 의회 교실 체험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 1. 안건에 대한 의견 발표 시간이 너무 짧아서 충분한 발언을 할 수 없었다.(44%)
- 2. 1일 체험으로 끝나고 재신청이 되지 않아서 아쉽다.(27%)
- 3. 조례 제정 체험에서 안건을 사전에 공지해 주지 않아서 조사가 미흡했다.(19%)
- 4. 조례 제정과 관련된 토론 시 토론 태도가 바르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다.(10%)

< 조 건 >

- 1. 글의 문맥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
- 2. <보기>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할 것.

- ① 조례 제정 체험과 관련된 안건을 사전에 누리집을 통해 공지하고 학생들이 미리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 ② 안건에 대한 의견 발표 시간을 좀 더 늘려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의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③ 올해는 의회 교실 체험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학생들이 직접 도 의회 의원들을 만나서 조례 제정 과정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인터뷰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 ④ 작년 설문 조사 응답 중에서 토론 시 토론 태도가 좋지 못한 학생들로 인해서 진지한 토론을 할 수 없었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행사 전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토론에 진지한 자세로 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⑤ 작년에 실시했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1일 체험으로 끝나고 재신청이 되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재신청한 학생도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후에 체험 행사의 횟수를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10. 다음은 ㉠을 위해 작성한 광고문의 일부이다. [A]의 내용을 고려할 때, ㉡~㉣ 중 수정되어야 할 것은?

OO도 의회에서 1일 의회 활동 체험하기

A도 의회가 주최하는 청소년 의회 교실에서는 ㉠타인과의 공감과 협력적 의사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미래 사회를 대비하여 ㉡학생들이 자신들이 사전에 직접 준비한 다양한 안건들을 발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청소년 의회 교실에서는 ㉢의원 선서, 안건에 대한 자유 발언, 안건 처리, 의회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의정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 전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A도 의회 청소년 의회 교실에 많은 청소년 여러분이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음운 중 낱낱의 소리로 쪼개어질 수 있는 것을 분절음(또는 분절 음운)이라고 한다. 분절음에는 자음과 단모음, 그리고 반모음이 있다. 자음은 홀로 발음할 수 없으며 발음할 때 입안의 어디에서인가 공기의 흐름이 방해 받는다. 모음은 자음과 달리 홀로 발음할 수 있으며 발음할 때에도 공기의 흐름이 방해 받지 않는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은 그 성격이 상반된다. 반면 반모음은 공기의 흐름이 방해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모음과 같으나 홀로 발음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자음과 같다. 즉, 반모음은 자음이나 모음 어느 쪽과도 구분되는 성격의 분절음인 것이다. 그러나 반모음도 음운에 속한다는 점은 다를 바가 없다.

반모음은 홀로 발음되지 못하기 때문에 단모음과 결합하여 이중 모음 또는 삼중 모음과 같은 복합적인 모음의 일부로 쓰인다. 국어의 반모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단모음 ‘ㅣ’와 성격이 비슷한 ‘ㅈ’이고 다른 하나는 단모음 ‘ㄴ, ㄷ’와 성격이 비슷한 ‘ㅍ’이다. 반모음 ‘ㅈ’가 포함된 이중 모음에는 ‘ㅈㅅ, ㅈㅊ, ㅈㅌ, ㅈㅍ’ 등이 있으며, 반모음 ‘ㅍ’가 포함된 이중 모음에는 ‘ㅍㅅ, ㅍㅊ, ㅍㅌ, ㅍㅍ’ 등이 있다. ‘ㅈㅅ, ㅈㅊ, ㅈㅌ, ㅈㅍ, ㅍㅅ, ㅍㅊ, ㅍㅌ, ㅍㅍ’는 반모음 ‘ㅈ’ 뒤에 단모음 ‘ㅅ, ㅊ, ㄷ, ㅍ, ㅅ, ㅊ, ㄷ, ㅍ’가 결합되어 있고, ‘ㅍㅅ, ㅍㅊ, ㅍㅌ, ㅍㅍ’는 반모음 ‘ㅍ’ 뒤에 단모음 ‘ㅅ, ㅊ, ㄷ, ㅍ’가 결합되어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국어의 이중 모음은 대부분 반모음 ‘ㅈ’와 ‘ㅍ’가 다른 단모음 앞에 결합하는 구조를 가진다.

반모음은 자음과 모음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지만 자음보다는 모음에 좀 더 가깝다. ‘반자음’ 대신 ‘반모음’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그래서 단모음과 단모음이 인접할 때 단모음 중 하나가 반모음으로 바뀌는 경우도 자주 나타난다. 가령 어간 ‘배우-’와 ‘쏘이-’ 뒤에 어미 ‘-어서’가 결합할 때 그 활용형이 ‘배워서’와 ‘쏘여서’로 나타나는 것은 각각 단모음 ‘ㅏ’와 ‘ㅣ’가 반모음 ‘ㅘ’와 ‘ㅙ’로 바뀐 결과이다.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었으므로 음절의 수는 줄어들게 되나 음운의 수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음운 변동은 교체에 속한다.

11.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중 모음에는 두 개의 음운이 포함되어 있다.
②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바뀌면 항상 음절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③ ‘ㅘ’와 ‘ㅙ’를 비교하면 반모음과 단모음이 모두 다른 이중 모음이다.
④ ‘다쳐(다치 + 어)’를 ‘[다쳐]’로 발음하는 것은 반모음이 탈락한 결과이다.
⑤ ‘거’와 ‘켜’를 비교하면 반모음은 다르지만 단모음은 같은 이중 모음이다.

12. ㉠~㉣ 중 변화의 결과 반모음이 나타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 도하 > 도와, 구버 > 구워
㉡ 기+어 → [기여], 비+어 → [비여]
㉢ 꺾+어 → [꺾], 켜+어 → [켜]

- ① ㉠ ② ㉡ ③ ㉠, ㉡
④ ㉠, ㉢ ⑤ ㉡, ㉢

13. (가)의 ㉠, ㉡에 해당하는 예를 (나)에서 골라 올바르게 짝 지은 것은?

(가) 우리말 합성 명사는 그 구성 성분의 배열 방식이 일반적인 우리말 구성 방식과 같은지 여부에 따라 통사적 합성 명사와 비통사적 합성 명사로 구분할 수 있다. 통사적 합성 명사는 두 어근의 배열 방식이 일반적인 구와 동일하고, 비통사적 합성 명사는 그렇지 못하다. 이들을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통사적 합성 명사

- 명사+명사
- 관형사+명사
- 용언의 관형사형+명사

㉡ 비통사적 합성 명사

- 용언의 어간+명사
- 부사+명사

(나) 접칼, 검버섯, 굳은살, 산나물, 산들바람, 늪은이, 새해

- | ㉠ | ㉡ |
|-------------|-----------|
| ① 검버섯, 늪은이 | 산나물, 산들바람 |
| ② 산나물, 산들바람 | 접 칼, 검버섯 |
| ③ 굳은살, 산나물 | 접칼, 산들바람 |
| ④ 검버섯, 새해 | 굳은살, 늪은이 |
| ⑤ 늪은이, 산나물 | 검버섯, 새해 |

14.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할머니가 손녀에게 “아버지 좀 모시고 오너라.”라고 말할 때, 할머니에게 손녀의 아버지는 높일 필요가 없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자인 손녀에게는 높임의 대상이므로 의도적으로 ‘모시다’라는 객체 존대의 어휘를 사용하였다. 이처럼 우리말의 높임 표현에는 화자에게는 높이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청자를 의식해서 높여 주는 경우가 있다.

- ①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방에서 잡니다.
- ② (회사 경비원이 방문객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 ③ (회사 직원이 상사에게) 오늘 부산에 출장 가지지요?
- ④ (동생이 형에게) 어제 받은 세뱃돈을 어머니께 드렸어.
- ⑤ (큰아버지가 조카에게) 영호야, 너희 아버지는 나가셨니?

1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흔 菩薩(보살)이 王(왕) ㉠되야 ㉡겨샤 나라흐 아스 ㉢맞디시고 道理(도리) 비호라 나아가샤 瞿曇婆羅門(구담바라문)을 만나샤 ㉣즈갓 ㉤오스란 밧고 瞿曇(구담)이 오솔 니브샤 深山(심산)애 드러 과실(果實)와 ㉥물와 좌시고

[현대역] 한 보살이 왕 되어 계시어 나라를 아우에게 맡기시고 도리 배우러 나가시어 구담바라 문을 만나셔서 당신의 옷은 벗고 구담의 옷을 입으시어 깊은 산에 들어 과일과 물을 자시고

- 『월인석보』 권1

- ① ㉠: 주어를 높이는 데 쓰이는 동사이다.
- ② ㉡: 주어와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 ③ ㉢: ‘보살’을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가 쓰였다.
- ④ ㉣: ‘밧다’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 ⑤ ㉥: 문장 성분을 나타내는 격 조사가 생략되었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은유는 수사법의 일종으로, 문학 작품에서만 아니라 일상 언어 생활에서의 참신한 표현에도 활용된다. 은유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metaphor’는 ‘넘어서’의 의미인 ‘meta’와 ‘옮기다’의 의미인 ‘phor’의 합성어로, 어떤 말이 본래의 의미를 벗어나서 다른 의미로 옮겨져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은유는 서로 다른 두 영역의 개념들을 유사성의 관점에서 비유하는 인지적 표현 방법이다. 은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개’와 ‘취 의’를 의미상의 구성 요소로 가져야 한다. ‘매개’는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채택되는 친숙한 단어이다. ‘취의’는 매개에 담겨서 전달되는 의미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벚꽃잎이 날리는 것을 보고 “눈이 내리 네.”라고 말했다면 ‘눈’은 매개이고 ‘벚꽃잎’은 취의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은유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말의 장식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20세기의 학자들은 은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은유가 인상적인 문학적 표현을 위하여 활용될 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 대상을 인식하고 경험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개념적 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개념적 틀의 역할을 한다는 입장에 따르면 은유는 동일한 실재에 대한 다른 기술(記述)을 ㉡양산하여 현실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은유는 장식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인지적 도구이다.

[A] 우리 일상의 개념 체계 대부분이 은유적이다. 인간이 개념 체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보면 추상적인 개념은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 유사성이 확장되어 구조화된다. 예를 들어 “논쟁은 전쟁이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자.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논쟁’은 언어 담화이며 구체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은 무장 분쟁으로, 거기에 수행되는 행위도 다르다. 그러나 ‘논쟁’은 ‘전쟁’의 관점에서 부분적으로 구조화되고 이해된다. 우리는 논쟁의 상대방을 적수로 보며 전략을 구상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공격하기도 하고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한 개념이 다른 개념의 관점에서 은유적으로 구조화되는 경우를 ‘구조적 은유’라고 한다.

이와 달리 공간적 지향성과 관련 있는 은유적 개념은 ‘지향적 은유’라고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녀는 억장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에는 슬픔의 추상적 감정이 아래쪽을 지향하는 단어로 은유되어 있다. 많은 언어에서 기쁨은 위쪽에, 슬픔은 아래쪽에 은유되고, 많음은 위쪽에, 적음은 아래쪽에 은유되는 지향성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은유는 과학에서도 활용되어 지식을 확장한다. 과학의 진보를 위해서 새로운 개념은 친숙하지 않더라도 수립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과학자들은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면 그 현상을 기존의 틀 속에서 이해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적극적으로 은유를 활용한다. 이때 어떤 은유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개념은 전혀 다르게 형성된다. 따라서 은유의 형성은 과학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난 300여 년간 계속되어 온, 빛의 본질을 설명하려는 대립적 입장 역시 은유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빛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에 과학자들은 기존에 알고 있는 알갱이 나 호수에 돌을 던질 때 나타나는 물결의 파동에 빗대어 빛의 본질을 설명하려 한 것이다. 17세기 뉴턴은 빛이 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입자들의 흐름이며, 눈 속으로 들어온 입자가 시신경을 자극한다고 생각했다. 이와 같은 입자 설은 광전 효과 실험을 설명할 수 있다. 금속판에 특정 진동수 이상의 진동수를 가진 빛을 쬐어 주면 금속판 안에 있던 전자들이 튀어나오는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하며, 이때 튀어나오는 전자를 광전자라 한다. 실험의 결과 금속 표면에 쬐어 주는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라는 특정한 값보다 작으면 아무리 센 빛을 쬐어 주거나 오래 쬐어 주더라도 광전자가 방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를 통해 빛이 입자라는 이론이 지지되었다. 입자설은 이 현상을 빛의 입자가 전자와 충돌하여 전자가 방출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반면 빛의 회절*이나 간섭과 같은 새로운 성질이 연구되면서 빛의 본질을 파동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도 있다. 푸코는 빛이 입자라면 물속에서 힘을 받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고, 파동이라면 파장이 짧아져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리고 광속 측정 실험을 통해 물속에서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 물 위에 형성된 기름막이나 비눗방울이 만드는 무지갯빛 간섭무늬는 다른 경로를 통한 두 개 이상의 빛이 합쳐져 생기는 현상으로, 빛을 파동으로 이해할 때 훨씬 잘 들어맞는다. 파동설에 따르면 두 파동의 마루와 마루, 골과 골이 겹치면 더 크게 진동하지만 마루와 골이 겹치면 진동이 상쇄된다. 이는 입자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회절: 파동의 전파가 장애물 때문에 일부가 차단되었을 때 장애물에 가려진 부분에까지도 파동이 전파하는 현상.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과학에서도 지식을 확장하기 위해 은유를 활용한다.
- ② 아리스토텔레스는 은유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말의 장식으로 여겼다.
- ③ 푸코는 물속에서 빛의 속도를 측정하여 빛의 본질을 파동으로 이해하였다.
- ④ 빛의 본질을 설명하려는 과학자들은 입자설과 파동설로 나누어 대립해 왔다.
- ⑤ 뉴턴은 광원으로부터 방출된 파장이 눈 속으로 들어오면 시신경을 자극한다고 생각하였다.

17. ㉠을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20세기의 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은유의 역할이로군.
- ② 일상생활 속에서 말의 장식만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로군.
- ③ 의미상의 구성 요소인 매개와 취의를 생략하더라도 설득력이 있다는 의미로군.
- ④ 다양한 기술(記述)을 양산하여 현실을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로군.
- ⑤ 문학적 표현을 위해 활용될 뿐만 아니라 경험을 확장하는 데에도 동원된다는 의미로군.

18.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 시간은 돈이다.
(나) 가진 돈이 바닥을 드러냈다.

- ① (가): ‘시간’의 추상성은 ‘돈’의 구체성을 통해 구조화되고 이해된다고 할 수 있군.
- ② (가): 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이라는 측면에서 ‘돈’의 귀중함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군.
- ③ (나): ‘바닥’은 ‘돈’과의 유사성을 통해 의미가 확장된다고 할 수 있군.
- ④ (나): ‘돈’이 적어지는 상황을 아래쪽에 비유한 지향적 은유라고 할 수 있군.
- ⑤ (나): 부정적 상황이 아래쪽에 은유되는 공간적 지향성이 나타나고 있군.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통슨은 음극선 실험을 통해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하나의 입자라는 돌턴의 원자설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원자가 더 쪼개질 수 있으며 음전하를 띠는 입자인 전자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원자 내부에서 양전하와 음전하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여 양전하가 고르게 분포된 푸딩 속에 음전하를 띤 전자 건포도들이 박혀 있는 원자 모형을 제안했다. 이 것이 건포도 푸딩 모형이다.

- ① ‘건포도 푸딩 모형’에서 ‘건포도’와 ‘푸딩’은 매개에 해당하
- ② 통슨은 ‘음전하’와 ‘건포도’가, ‘양전하’와 ‘푸딩’이 유사성을 가
- ③ 원자를 ‘건포도’와 ‘푸딩’의 분리된 개념으로 제시해 원자가 쪼
- ④ ‘건포도’나 ‘푸딩’의 은유는 실험을 통해 발견한 사실을 건포도
- ⑤ 통슨은 ‘건포도 푸딩 모형’을 통해 원자의 구조라는 과학적 개

20. ㉠~㉣의 사전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성.
- ② ㉡: 많이 만들어 냄.
- ③ ㉢: 확실히 보증하거나 가지고 있음.
- ④ ㉣: 어떤 상태나 상황이 그대로 보존되거나 변함없이 계속되
- ⑤ ㉤: 문 따위를 달아걸거나 막아 버림.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말에서 내려와 사람 부르니	下馬問人居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 보고는	婦女出門看
초가집 안으로 맞아들이고	坐客茅屋下
나그네 위하여 밥상 내온다	爲客具飯餐
바깥어른은 어디 계시오	丈夫亦何在
아침에 쟁기 들고 산에 갔다오	扶犁朝上山
산밭은 너무나 갈기 어려워	山田苦難耕
해가 저물도록 못 오신다오	日晚猶未還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四顧絕無鄰
개와 닭들 비탈에서 서성대누나	雞犬依層巒
숲속에는 무서운 호랑이 많아	中林多猛虎
뜯은 콩잎 광주리에 반도 안 된다	采菹不盈盤
가련할손 이곳이 뭐가 좋다고	哀此獨何好
척박한 ㉠두메산골 산단 말인가	崎嶇山谷間
편안할사 저 너머 ㉡평지의 생활	樂哉彼平土
가고파도 ㉢고을 관리 너무 무서워	欲往畏縣官

- 김창협, [산민(山民)]

(나) 내가 안의(安義) 고을을 다스리기 시작한 그 이듬해인 계축년 몇 월 며칠이었다. 밤이 장차 쉼 즈음에 내가 어렴풋이 잠 깨어 들으니 청사 앞에서 몇 사람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다가 슬퍼 탄식하는 소리도 들렸다. 무슨 급한 일이 생겼는데도 내 잠을 깨울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았다. 내가 그제야 소리를 높여

“닭이 울었느냐?”
하고 물었더니, 곁에 있던 사람이 대답했다.
“벌써 서너 번이나 울었습니다.”
“바깥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통인(通引) 박상호의 조카딸이 함양으로 시집가서 일찍 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지아버의 삼년상이 끝나자 바로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 집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구해 달라고 하지만 상호가 오늘 숙직 당번이므로 황공해하면서 맘대로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빨리 가보라고 명령하였다. 날이 저물 무렵에,
“함양 과부가 살아났느냐?”
라고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묻자,
“벌써 죽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나는 서글프게 탄식하면서
“아아 모질구나. 이 사람이여.”
하고는 여러 아전들을 불러다 물었다.
“함양에 열녀가 났는데, 그가 본래는 안의 사람이라고 했지. 그 여자의 나이가 올해 몇 살이며 함양 누구의 집으로 시집을 갔었느냐? 어릴 때부터의 행실이 어떠했는지 너희들 가운데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 아전들이 한숨을 쉬면서 말하였다.
“박 씨의 집안은 대대로 이 고을 아전이었는데 그 아비의 이름은 상일(相一)이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죽은 뒤로는 이 외동딸만 남았는데 그 어머니도 또한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났는데 효도를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열아홉이 되자 함양 임술증에게 시집가서 아내가 되었지요. 술증도 또한 대대로 함양의 아전이었는데 평소에 몸이 여위고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한번 초례(醮禮)를 치르고 돌아간 지 반년이 채 못 되어 죽었습니다. 박 씨는 그 남편의 초상을 치르면서 예법대로 다하고 시부모를 섬기는 데에도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두 고을의 천척과 이웃들 가운데 그 어진 태도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정말 그 행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 늙은 아전이 감격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 여자가 시집가기 몇 달 전에 어느 사람이 말하길 ‘술증의 병이 골수에 들어 살 길이 없는데 어찌 혼인날을 물리지 않느냐’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 여자에게 가만히 알렸더니, 그 여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답니다. 혼인날이 다가와 색시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어 술증을 보니 술증이 비록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폐병으로 기침을 했습니다. 마치 버섯이 서 있고 그림자가 걸어 다니는 것 같았답니다. 색시의 집에서 매우 두려워하며 다른 중매쟁이를 부르려 했더니, 그 여자가 얼굴빛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난번에 바느질한 옷은 누구의 몸에 맞게 한 것이며 또 누구의 옷이라고 불렀지요? 저는 처음 바느질한 옷을 지키고 싶어요.’ 그 집에서는 그의 뜻을 알아차리고 원래 잡았던 혼인날에 사위를 맞아들였습니다. 비록 혼인을 했다지만 사실은 빈 옷을 지켰을 뿐이랍니다.”

얼마 뒤에 함양 군수 윤광석이 밤중에 기이한 꿈을 꾸고 감격하여 [열부전]을 지었다. 산청 현감 이면제도 또한 그를 위하여 전(傳)을 지어 주었다. 거창에 사는 신도향도 문장을 하는 선비였는데, 박 씨를 위하여 그 절의(節義)를 서술하였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한결같았으니 어찌 스스로 '나처럼 나이 어린 과부가 세상에 오래 머문다면 길이길이 친척에게 동정이나 받을 것이다. 이웃 사람들의 망령된 생각을 면치 못 할 테니, 빨리 이 몸이 없어지는게 낫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랴?

아아, 슬프다. 그가 처음 상복을 입고도 죽음을 참은 것은 장사를 지내야 했기 때문이었고, 장사를 끝낸 뒤에도 죽음을 참은 것은 소상(小祥)이 있기 때문이었다. 소상을 끝낸 뒤에도 죽음을 참은 것은 대상(大祥)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제 대상도 다 끝나서 상기(喪期)를 마치자, 지아비가 죽은 것과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죽어 그 처음의 뜻을 이루었다. 어찌 열부가 아니랴?

- 박지원, [열녀함양박씨전(烈女咸陽朴氏傳)]

21.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재 시각에서 과거의 일을 환기하며 내용을 펼치고 있다.
- ② 한 사람의 시선으로 여러 사람의 심리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의 속성에 기대어 시적 상황 속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 ④ 대화의 내용을 활용하여 초점이 되는 인물들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긴장감이 고조되는 방향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2.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집과 토지가 황폐화되고 관리들의 수탈까지 자행되어 조선 백성들은 경제적 궁핍에 시달렸다. 그러면서 신분제를 비롯한 각종 사회 규범에 대한 비판 의식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배층은 백성의 궁핍을 해결하거나 사회의 변화 요구를 수용하기는커녕 예론을 강조하며 성리학적 지배 질서를 답습함으로써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이런 상황은 지배층에 대한 백성들의 불신이 팽배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가), (나)에는 조선 후기의 이러한 사회상이 잘 나타나 있다.

- ① (가)에는 심한 수탈로 인해 지배층에 대한 백성들의 불신이 팽배해진 상황이 드러나 있군.
- ② (가)의 산골 부부와 같은 서민의 삶은 양란 이전보다 양란 이후에 더욱 비참해졌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군.
- ③ (나)에서 박 씨는 조선 사회 지배층의 사상을 답습하지 않고 자 노력했기에 죽음을 맞이한 셈이군.
- ④ (나)에서 관리나 선비가 쓴 박 씨와 관련된 글은 열녀의 삶을 재조명하여 당시 사회 규범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겠군.
- ⑤ (나)의 박 씨와 관련된 사건은 사회 변화의 수용보다 자신들의 특권 유지를 위해 예론을 강조했던 지배층의 인식이 백성들의 삶에까지 고착되었기에 생긴 것이로군.

2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삶은 '척박한' 삶이라는 점에서 ㉡의 삶과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다.
- ② ㉠의 '이웃'이 없는 상황이 산골 부부에게는 ㉢으로 인한 두려움보다 견딜 만한 것이다.
- ③ ㉢이 없다면 산골 부부는 '가고파도' 가지 못하고 있는 ㉡를 선택했을 것이다.
- ④ ㉡은 '무서운 호랑이'가 없는 대신 ㉢의 손길이 미칠 수 없는 공간이다.
- ⑤ ㉡의 삶을 '편안할사'라고 말하는 것은 ㉠의 삶이 고달프다는 것을 의미한다.

24. (나)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딸 하나를 둔 A라는 남자와 아들 하나를 둔 B라는 여자는 재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A의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에 동의하며 둘의 재혼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A와 B는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어머니의 냉대를 깨끗하게 견뎌 나간다. 시어머니의 반대는 물론 재혼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속상한 적도 있었지만 B는 요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행복을 느끼고 있다.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지속되던 외로운 삶은 사라지고 인생의 황혼기가 위안으로 가득 차게 되었기 때문이다.

- TV 드라마 내용

- ① 박 씨는 신의를 중시하며 혼인에 대한 주변의 반대를 이겨 낸 반면, B는 사랑하는 마음을 중시하여 '재혼에 대한 반대'를 이겨 냈군.
- ② 박 씨에게 열녀가 될 것을 강요했던 '사회적인 시선'은 현대에 와서는 B의 재혼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군.
- ③ 박 씨가 남편의 대상을 마치자마자 죽은 것을 볼 때, B와 달리 박 씨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을 지니고 살지는 않았던 것이로군.
- ④ 죽은 남편을 따라 죽거나 정절을 지켜야 칭송받던 과거의 풍속 때문에, 박 씨와 같은 과부들에게는 B와 달리 '외로운 삶'이 강요되었던 것이로군.
- ⑤ 박 씨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B가 재혼하지 않고 남은 시댁 식구들을 섬기며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는 것이 박 씨처럼 죽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여기겠군.

[25~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엇을 아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아는지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한 사람이나 집단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연결하는 모든 직간접적인 관계를 네트워크라고 부른다. 사회 집단은 이와 같은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중요한 원천이지만,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사회 집단인 것은 아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많은 관계는 사회 집단의 중요한 특징에 해당하는, 기대 및 정체성의 공유를 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우편 발송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일종의 네트워크를 이루지만 우리가 온라인 우편 발송 명부에 같이 올라 있다고 해서 그들과 정체성을 공유하지는 않는다.

네트워크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거나 승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주는 등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여한다. 그리고 사회 집단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회 집단에 가입한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이득을 얻고 자신의 영향력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사회학자들은 사회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얻게 되는 이러한 이익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부른다.

사회적 자본은 사람을 효과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데 유용한 사회적 연결망과 효과적인 행동을 지배하는 규범에 대한 이해, 상호 의무감과 신뢰 등 다른 여러 사회적 자원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이 종종 학생회나 대학 신문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그런 활동은 졸업 후에 사회에서 필요한 일을 숙련하고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의 차이는 거시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성별이나 인종, 부의 정도 등은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이다.

①로버트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을 외향적이고 포괄적인 ‘연결 사회 자본’과 내향적이고 배타적인 ‘구속 사회 자본’으로 구분한다. 연결 사회 자본은 사회적 격차를 넘어 사람들을 통합한다. 반면에 구속 사회 자본은 배타적 정체성과 집단의 동질성을 더욱 강화해 준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자본, 특히 연결 사회 자본은 더 큰 공동체의 한 부분이라는 느낌을 제공하여, 다른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도 자신과 함께 그 공동체 속에 포함된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퍼트남은 사회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 신뢰감 및 소속감 같은 사회적 자본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종류의 사회적 자본은 효과적인 시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 자본이 강하면 민주주의가 발전한다. 실제로 국가 간 비교 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평가되는 미국은 시민 참여의 수준이 세계에서 상당히 높은 축에 속했다. 하지만 최근 30여 년 동안 미국에서는 서로를 묶어 주었던 다양한 사회 집단에서의 시민적 참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사회 집단 참여 감소와 더불어 대통령이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의 투표율도 1960년대 후반을 정점으로 상당히 떨어졌다. 퍼트남은 이와 같은 변화를 민주주의의 위기와 공동체 상실의 징후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몇몇 사회학자들은 사회적 참여의 방식이 달라졌을 뿐 사회적 참여 자체가 감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②데보라 챔버스는 ‘친구 관계’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결합과 사회적 연계가 등장하고 있고, 이 중에 일부는 정보 통신 네트워크를 통

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친구 연결망은 면대면 접촉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 공동체와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런 방식이 사회적 자본을 연결해서 사회적 연계를 만드는데 덜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대의 다른 많은 사회 운동 역시 기존처럼 주요 채널을 이용한 전통적인 정치적 방식에 의존하기보다는 웹 사이트나 이메일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조직되고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목격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종말이 아니라 평등과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사회적 연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인류는 오랜 기간 매우 가까운 사람들과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관계 속에서 상호 작용을 해 왔다. 하지만 산업 혁명을 통해 대규모의 탈인격화된 관료제가 등장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잘 알지 못 하게 되면서 사회적 상호 작용의 성격이 바뀌었다. 오늘날 정보 혁명은 다시 한 번 인간 [A]의 상호 작용을 변화시키고 있다. 미래의 사회 집단들이 의사소통과 사회적 친밀성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줄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고독과 단절 같은 사회 문제가 더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새로운 소셜 미디어를 기존의 면대면 상호 작용과 더불어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25.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네트워크를 통해 얻게 되는 사회적 이익과 영향력을 의미한다.
- ② 시민 사회에 대한 개인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③ 성별이나 인종, 부의 정도에 따라 불평등한 분포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 ④ 집단 내 동질성을 강화하여 해당 집단과 다른 집단 사이의 통합에 기여한다.
- ⑤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 통신 네트워크에 의해 사회적 연계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26.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정보 통신 네트워크가 인간의 사회적 참여를 감소시켰다고 보고 있다.
- ② ㉠과 ㉡은 모두 공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사회 집단만을 네트워크에 포함시키고 있다.
- ③ ㉠과 ㉡ 모두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연계를 만드는 데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함을 인식하고 있다.
- ④ ㉠은 네트워크가 사회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보고 있고, ㉡은 네트워크가 사회 통합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다.
- ⑤ ㉠은 시민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가 발달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고, ㉡은 시민의 참여 없이도 민주주의가 존속된다고 여기고 있다.

27. [A]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업 혁명 이전의 사회 집단 구성원들은 주로 배타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겠군.
- ② 산업 혁명 이후의 사회 집단의 사회적 연계는 이전 시대에 비해 더 확장되었겠군.
- ③ 산업 혁명 이후에 등장한 탈인격화된 관료제는 정보 혁명 이후에 점차 소멸되었겠군.
- ④ 정보 혁명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은 '친구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겠군.
- ⑤ 정보 혁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고독과 단절은 공동체 상실의 징후와 관련된 것이겠군.

2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OO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OO고등학교 동문회에 가입하였다. 이 동문회의 회장은 유명 기업인인 B씨가 맡고 있으며,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다.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OO고등학교 동문회 출신들은 회원이 운영하는 기업체에 동문 사람들을 추천해 주거나 회원 소유의 각종 사업체 이용에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A씨는 OO고등학교 동문회 가입 후 동문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며, 회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 개설을 주도하였다. 이를 통해 회원들은 일 년에 몇 번 정기적인 모임에서만 이루어지던 소통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상시적으로 행하게 되었다. 최근 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OO고등학교 동문회는 NGO 단체인 C와 연계하여 결식아동을 돕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그 취지에 공감한 동문회 회원들은 성금을 모아 C를 통해 결식아동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다.

- ① B씨는 A씨와 알고 지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A씨의 인적 네트워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없겠군.
- ② OO고등학교 동문회의 인터넷 커뮤니티의 개설 이후 회원들 사이의 사회적 연계는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게 되겠군.
- ③ OO고등학교 동문회와 C가 함께 하고 있는 캠페인은 기존의 면대면 상호 작용과는 다른 성격의 새로운 사회적 연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OO고등학교 동문회가 회원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행위는 동문회의 회원들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연결 사회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⑤ OO고등학교 동문회 회원들과 A씨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지만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OO고등학교 동문회는 사회 집단으로 보기는 어렵겠군.

29. <보기>의 부르디외의 관점에서 윗글의 '네트워크'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계급 위치를 특징짓는 것으로 '자본'을 들면서, 이를 경제 적 자본, 문화적 자본, 사회적 자본, 사회적 지위 개념과 유사한 상징적 자본의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네 가지 유형의 자본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어떤 자본의 소유가 다른 자본들을 추구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시 말해 자본의 소유는 다른 자본의 소유를 가져오며, 이렇게 형성된 자본은 인간의 사회적 계급을 결정한다. 이렇게 결정된 계급은 인간들 사이의 '구별 짓기'의 도구가 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계급 구조는 공고화된다.

- ①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소통은 인간 사회를 구분 짓고 분열시킬 수 있다.
- ② 네트워크는 현실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을 다른 자본들과 통합시키지 못하고 고립되게 한다.
- ③ 네트워크가 사회적 자본과 다른 자본들을 적극적으로 연계해야만 '구별 짓기'가 희석될 수 있다.
- ④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만을 부각하여 자본들 간의 연계와 통합을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게 한다.
- ⑤ 네트워크는 배타적인 성격으로 인해 자본들 사이의 연관성을 단절시켜 계급 형성을 억제하고 있다.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와 오 일병은 야전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참호를 파다가 6·25 전쟁 때 죽은 사람의 유골을 발견한다. '나'와 오 일병은 유골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마을의 한 노인을 데리고 오지만 유골의 신원은 밝히지 못하고, 그 노인과 함께 유골을 수습하게 된다.

누군가가 헌 타올과 신문지를 가져왔다. 노인은 뺏조각을 하나씩 집어 들고 수건으로 흙을 닦아 낸 다음 그것을 펼쳐진 신문지 위에 가지런히 정리해 놓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이치도 아마 **빨갱이**였겠구만. 안 그래요?”
소대장이 지휘봉의 뾰족한 끝으로 쿡쿡 찌르듯 **유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인사계가 되물었다.

“어째서요.”
“산을 타고 도망치던 빨치산들이 그리 많이 죽었다잖아. 이치도 보기엔 군인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근처의 주민이었다면 가족이 있을 텐데 임자 없이 이리저리 팽개쳐 뒀을라구.”

“**그걸 누가 압니까.** 그때야 워낙 피차에 서로 죽고 죽이던 판인데…….”

그때였다. 쭉그려 앉아서 손을 움직이고 있던 노인이 불쑥 소리치는 것이었다.

①“어허, 대관절…… 대관절 그게 어떨다는 얘기로. 죽어서까지 원, 아무리 이렇게 죽어 누운 다음에까지 이쪽이니 저쪽이니 하고 그런 걸 굳이 따져서 무얼 하자는 말이오. 죽은 사람이 뭣을 알길래…… 죄다 부질없는 짓이지. 썩썩.”

노인의 음성은 낮았지만 강하고 무거웠다. 그러면서도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뺏조각에 묻은 흙을 정성스레 닦아 내고 있었다. 무슨 귀한 물건마냥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신중히 손질하고 있는 노인의 자그마한 체구를 우리는 둘러서서 지켜보았다. 모두들 한 동안 입을 다물었고, 나는 흙에 적셔진 **노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땅속에 누운 사람의 잠을 살아 있는 사람이 깨워야 되겠소. 또 그럴 수도 없는 법이고. 원통한 녀이니 죽어서라도 편히 눈감도록 해야지, 암. 그것이 산 사람들의 도리요…… 하기는, 이렇게 불편한 꼴로 묶어 있었으니 **그 잠인들 오죽했을까만.**”

노인은 어느 틈에 꾸짖는 듯한 말투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 노인은 뭉툭뭉툭에 묶인 줄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완강하게 묶인 매듭은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풀리어 졌다. 금방이라도 찢걱찢걱 첫소리를 낼 듯한 철사 줄은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의 어둠을 끝끝내 견뎌 내고 그럴듯 시퍼렇게 되살아 나오는 그것의 놀라운 끈질김과 냉혹성이 언뜻 소름 끼치도록 무서움증을 느끼게 했다.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낸 다음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줄 묶음을 들고 저만치 걸어 나갔다. 그가 허공을 향해 그것을 멀리 내던지는 순간, 나는 까닭 모르게 마당가에서 하늘을 치어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줄기와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곤 하던 하얀 물 사발이 눈앞에 떠 올랐다가 스러져 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혈벗은 등을 까 내놓고 죽은 듯이 옆드려 있었다. 사위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피잉, 현기증이 일었다.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 ㉠돌 돌거리며 흐르는 물소리를 거슬러 강변 모래밭을 어머니가 혼자 저만치서 다가오고 있었다. 모래밭은 하얗게 햇살을 되받아 쏘며 은빛으로 반짝였다. 허리띠를 질끈 동인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흐느적이며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햇살에 부신 눈을 가늘게 오므리고 줄곧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꿈속에서처럼 나는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한 사내의 환영을 보았다. 그건 아버지였다.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달이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 그건 영락없는 그 사내였다. 나를 어머니의 배 속에 남겨 놓은 채 어느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밤, 산길을 타고 지리산인가 어디로 황황히 떠나가 버렸다는 사내. 창백해 보이는 뺨에 마른 몸집의 그 사내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다. 놀란 눈으로 풀밭에 앉아 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어머니의 눈썹과 코, 입의 윤곽과 야윈 목줄기까지 뚜렷이 드러날 만큼 가까워졌을 때 사내의 환영은 어느 틈에 사라져 버리고 없었다.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얗게 반짝이는 모래밭 위로 어머니가 찍어 내는 발자국만 유령처럼 끈질기게 그녀의 발꿈치를 뒤따라오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관 대신에 신문지로 싼 유해를 맨 처음 그 자리에 다시 묻어 주었다. 도통하니 봉분을 만들고 뗏장 까지 입혀 놓고 보니 영성현 대로 형상은 갖춘 듯싶었다. 노인은 술을 흙 위에 뿌려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잔을 돌렸다. 오일병이 노파가 준 북어를 내놓았고, 덕분에 작은 술판이 벌어졌다. 음복인 셈이었다.

“야마. 이런 느닷없는 장례식도 모두 너희 두 놈들 때문이니까,

자 한 잔씩 마셔라.”

“그래그래. 어쨌든 너희들은 좋은 일 했으니 천당 가도 되겠다.” 소대장이 병을 기울였고 다른 녀석들도 킬킬대며 한마디씩 보태었다.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저것 봐라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다. 가슴과 팔목에 철사 줄을 동여맨 채 사내는 이 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쾅하니 열려 있는 그 사내의 눈은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채로였다. 애영. 총성이 울렸고 그는 허물어지듯 앞으로 고꾸라지고 있었다. 불현듯 시야가 부엌에 흐려 왔다.

아아.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숙부쟁이와 엉경퀴꽃을 지천으로 피워 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응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 들어 있을** 것인가.

(중략)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외아들 앞에선 좀체 눈물을 비치지 않던 그녀였다. 아무리 알아누웠을 때라도 입술을 앙다물고 애써 태연해 보이던 그녀가 **쭈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다.

아아,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그토록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려 왔었음을. 내 유년 시절의 퇴락한 고가의 마루 밑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음습하고 불길한 냄새와** 함께 나를 쏘아보고 있던 한 사내의 눈빛을, 그리고 ㉡청년이 된 지금까지도 가슴을 새까맣게 그을려 놓으며 깊숙한 상흔으로만 찍혀져 있을 뿐인 그 증오스런 사내의 이름을, 어머니는 스물다섯 해가 넘도록 혼자서 몰래 불씨처럼 가슴속에 키워 오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한테 그 사내는 다른 아무것도 아니었다. 다만 곱고 자상한 눈매로서만, 나직한 음성으로서만 늘 곁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울고 있는 건 그 미련스럽도록 끈질긴 기다림 때문만은 아니었으리라. 아니, 사실상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기다림이 얼마나 까마득하게 손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자꾸만 자꾸만 밀려나가고 있는 것인가를 말이다. 스물다섯 해의 세월이, 스스로 묶어 놓은 그 완고한 기만이 목에 잠기어 흐느낌도 없이 지금 어머니는 울고 있는 것이었다. 밥상을 받아 놓은 채 나는 고개를 처박고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우리 가족의 그 오랜 어둠과 같은 미역 가닥이 국그릇 속에서 멀겁게 식어 가고 있을 뿐이었다.

이제 노인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새 수북이 쌓인 눈을 밟으며 나는 오던 길을 천천히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깨에 멘 소총이 수통과 부딪치며 째렁째렁 소리를 냈다. 나는 어깨로 부터 전해 오는 **그 섬뜩한 쇠붙이의 촉감과 확실한 중량을** 새삼스레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항상 누구인 가를 겨누고 열려 있는 총구의 속성을, 그 냉혹함을, 또한 ㉢그 조그맣고 둥근 구멍 속에서 완강하게 따리를 틀고 앉아 있는 소름 끼치는 그 어둠의 깊이를 생각했다.

까우웁. 까우웁.

어느 틈에 날아왔는지 길옆 밭고랑마다 수많은 까마귀들이 구물거리고 있었다. 온 세상 가득히 내려 쌓이는 풍성한 눈발 속에 저희들끼리만 모여서 새까맣게 구물거리며 놈들은 그 음산함과 불길함을 역병처럼 퍼뜨리고 있는 것이었다. 얼핏, 쏟아지는 그 눈발 속에서 나는 얼어붙은 땅 밑에 새우등으로 웅크리고 누운 누군가의 몸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였다. ㉣손발이 묶인 아버지가 이따금 돌아누우며 낮은 신음을 토해 내고 있었다. 나는

향량한 들판 가운데에 서서 그 몸집이 크고 불길한 새들의 펄렁 거리는 날갯짓과 구물거리는 모습을 오래오래 지켜보았다.

- 임철우, [아버지의 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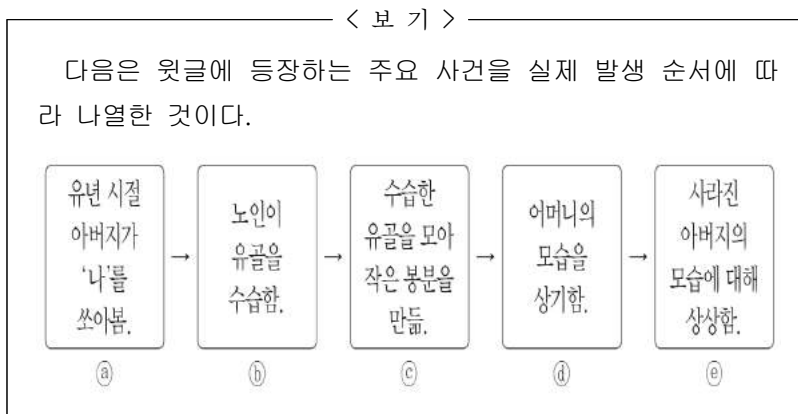
30.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을 추적하는 추리적 방식을 통해 서사를 이끌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바탕으로 인물의 분열된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중심인물에 대한 객관적 관찰을 통해 그 내면 의식을 추측하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 설정해 사건의 전모를 전달하고 있다.
- ⑤ 이야기 속 인물이 일련의 상황을 경험하며 떠올리는 생각을 서술하고 있다.

31. 유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빨갱이’라고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 소대장은 ‘유해’에 대해 사상적 관점에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군.
- ② ‘그걸 누가 압니까.’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인사계는 ‘유해’의 정체에 대해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군.
- ③ ‘그 잠인들 오죽했을까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노인은 ‘유해’를 동정과 연민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군.
- ④ ‘노파가 준 복어를 내놓’는 것으로 보아, 오 일병은 ‘유해’를 소홀히 대접하는데 대해 뒤늦게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군.
- ⑤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라는 말을 상기하는 것으로 보아, ‘나’는 ‘유해’ 수습을 계기로 아버지를 기다려 왔던 어머니의 마음을 떠올리고 있군.

3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음습하고 불길한 냄새’와 관련해 ‘나’가 유년 시절 아버지가 보냈던 눈빛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느꼈음을 나타낸다.
- ② (b): ‘노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것과 관련해 노인은 빨치산에 대한 적개심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c):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지 모를 아버지의 행방을 떠올리는 ‘나’의 안타까움을 엿볼 수 있다.
- ④ (d):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의외의 장면을 목격한 ‘나’의 회상을 통해 남편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한 어머니의 안타까움을 환기하고 있다.
- ⑤ (e): ‘섬뜩한 쇠붙이의 촉감과 확실한 중량’을 느끼는 ‘나’가 아버지가 겪었을 죽음의 공포에 대해 뒤늦게 연민을 느끼게 됨을 암시하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은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배경으로 우리 민족의 상처와 그 치유 과정을 형상화 하고 있다. 특히 전쟁 중에 죽은 사람의 유골을 수습하는 노인의 행동, 생사 불명의 아버지를 그리 워하는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에 대한 ‘나’의 인식 등이 드러나면서 전쟁의 허위와 이념의 폭력으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아픔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은 사상의 차이로 인해 동족상잔의 비극을 낳은 이데올로기 시대에 대한 노인의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군.
- ② ㉡은 생사 불명의 남편으로 인해 신산한 삶을 살아갔던 어머니를 회상하는 ‘나’의 연민의 시선을 떠올리게 하는군.
- ③ ㉢에 대한 인물의 기억은 ‘나’가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했던 불행한 어린 시절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군.
- ④ ㉣을 생각하는 ‘나’의 모습은 동족상잔의 비극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는군.
- ⑤ ㉤은 ‘나’가 아버지가 느꼈을 고통에 대해 공감하며 아버지에 대한 이해로 나아갈 가능성이 점차 열리고 있음을 암시하는군.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열선 감지기는 동작 감지기라고도 하며 주로 실내의 천장에 설치하여 침입을 감지하는 데 사용한다. 열선 감지기는 적외선을 이용해 감시하고 있는 영역 내에 일정 시간 동안 열 또는 온도의 변화가 생기면 이를 감지하고 알람 신호를 내보낸다. 물체가 복사하는 적외선은 물체의 온도에 비례하여 그 양이 다르기 때문에 물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고 낮과 밤에 관계없이 목표 물체를 관찰할 수 있어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것보다 침입 감지에 적당하다.

(a) 열선 감지기는 집광 렌즈, 초전 소자, 증폭기, 비교기 등으로 이루어진다. 집광 렌즈는 적외선을 모아 초전 소자에 전달한다. 일반적으로 빛을 모으기 위해서는 볼록 렌즈를 사용하지만, 열선 감지기용으로는 이보다 매우 얇은 프레넬 렌즈를 사용한다. 프레넬 렌즈는 볼록 렌즈의 내부를 제거하여 두께가 매우 얇으면서도 같은 초점 거리를 갖도록 만든 것이다. 열선 감지기는 감시 영역 내에 침입자가 생기면 특정 구역의 온도가 바뀌게 되어 침입 상황을 인식하는 원리인데, 감시 영역이 넓으면 침입자가 움직여도 전체적인 온도 변화가 없어 감지할 수 없다. 따라서 열선 감지기에서는 하나의 집광 렌즈에 여러 개의 프레넬 렌즈를 배치하여 사용한다. 한 개의 프레넬 렌즈마다 하나씩 구역을 나누어 할당하면 침입자가 움직였을 때 온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만약 침입자가 일정 시간 내에 계속 이동하면 감시 구역이 바뀌게 되어 바뀐 구역 수만큼 감시 신호가 발생한다. 한편 구역 내에 침입자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더 이상의 온도 변화가 없어서 열선 감지기의 신호는 변화가 없게 된다.

집광 렌즈에 의해 모아진 적외선은 초전 소자의 표면에 입사된다. 초전 소자의 내부는 진공으로 되어 있으며, 윗부분에는 적외선만 투과하는 투과창이 있어서 감지를 방해하는 요소들인 전등의 불빛 등을 차단한다. 열선 감지기에 사용하는 초전 소자의 내부에는 양(+)전하들이 한끝에 표면을 따라 배열되어 있으며, 그 반대편 끝에는 같은 양의 음(-)전하들이 배열되어 있다. 이를 자발 분극이라 한다. 이 전하들은 대기 중에 부유하는 전하들을 포획하여 전기적으로 중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에는 (-)전하들이, (-) 방향에는 (+)전하들이 포획되어 있다.

초전 소자에 적외선이 입사되면 적외선의 열에 의해 초전 소자의 온도가 상승하고, 분자가 열운동을 하면서 초전 소자 내부의 전하의 배열이 흐트러진다. 이로 인해 자발 분극은 감소하는데, 초전 소자 표면의 전하는 이러한 분극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변하기 어려워서 과잉의 전하가 나타난다. 이를 초전 현상이라 한다. 초전 소자의 (+)와 (-) 양극을 외부 전기 회로에 연결하면 온도 변화에 의하여 발생된 과잉 전하의 차이만큼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초전 소자는 입사되는 적외선의 강도가 충분히 크지 않아 소량의 전류가 흐르게 되므로 증폭기에서 전압을 증폭하여 출력한다. 비교기에서는 전압을 측정하여 미리 정해진 감시 기준 전압 이상인지를 확인한다. 만약 감시 기준 전압보다 높으면 일정 시간 내에 몇 번 감시 기준 전압을 넘었는지 확인하고 감시 상태로 판단되면 발광 다이오드(LED)를 켜고 신호를 보내 침입 상태를 알려 준다.

열선 감지기가 대부분 실내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반면에 창고 등의 외곽을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는 (b) 능동형 적외선 감지기를 많이 사용한다. 능동형 적외선 감지기는 투광기와 수광기로 구성된다. 투광기는 적외선 LED를 통해 적외선을 내보내고 투

광기와 떨어져 설치되는 수광기에서는 투광기에서 나온 적외선을 수신한다. 따라서 침입자가 발생하면 적외선이 차단되어 수광기에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적외선이 차단되는 시간으로 침입 여부를 판단한다. 투광기의 LED에서 방출하는 적외선은 레이저와 같은 직선 빔이 아니고 어느 정도 각도를 가지고 퍼져서 나오게 된다. 경계 감시 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투광기에서 적외선을 멀리까지 보내야 하므로 렌즈로 적외선을 집중시켜 직선에 가까운 빔을 사용한다.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사용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 ② 대상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③ 대상의 내부 구조를 바탕으로 제작 원리를 알려 주고 있다.
- ④ 대상의 단점을 나열하고 새로운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⑤ 대상의 성능이 발전해 온 방향으로 기능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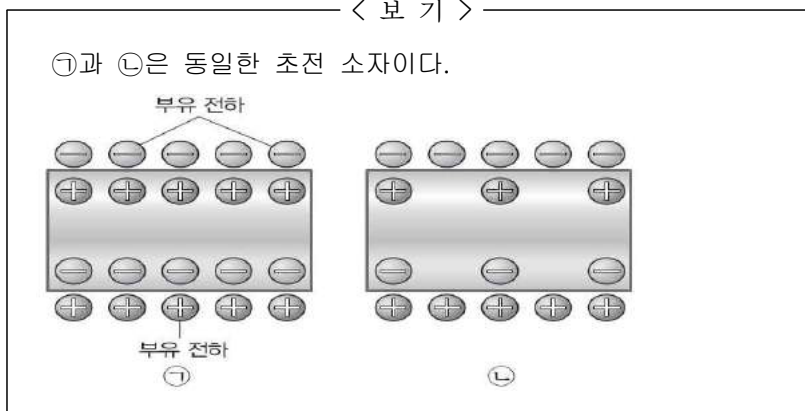
35. 윗글의 ‘열선 감지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람이 복사하는 가시광선으로 침입 여부를 판단한다.
- ② 초전 소자를 이용하여 열을 전기 신호로 바꾸어 침입을 감지한다.
- ③ 밤이나 어두운 장소에서는 침입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 ④ 적외선을 내보내는 투광기와 적외선을 감지하는 수광기로 구성된다.
- ⑤ 초전 소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감시 대상인 물체의 표면과 접촉되도록 설치한다.

36. 윗글의 (a)와 (b)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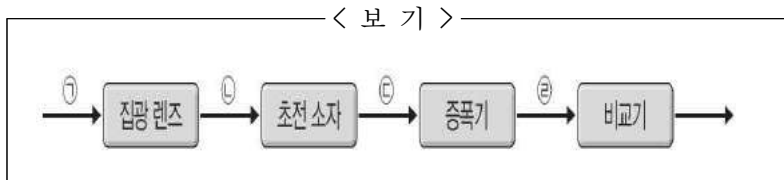
- ① (a)로 감지할 영역이 넓어지면 프레넬 렌즈의 수를 늘려야겠군.
- ② (a)에 볼록 렌즈를 사용하면 집광 렌즈의 초점 거리가 길어지겠군.
- ③ (a)의 감시 영역에 침입한 침입자가 많이 이동할수록 감지 확률은 높아지겠군.
- ④ (b)의 감시 영역에 침입자가 발생하면 수광기에 적외선이 수신되지 않겠군.
- ⑤ (b)의 감시 거리를 늘리려면 적외선을 최대한 직선에 가깝게 만들어 주는 렌즈가 필요하겠군.

3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초전 소자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침입이 없을 때로 전기적으로 중성을 유지하고 있다.
- ② ㉠은 외부에서 적외선이 입사되지 않더라도 자발 분극이 발생한다.
- ③ ㉠은 자발 분극이 증가하여 과잉의 전하가 표면에 나타나고 있다.
- ④ ㉠에 외부 전기 회로를 연결하면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 ⑤ ㉠에서 ㉡으로의 변화는 온도 변화에 기인한다.

3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침입이 있다면 ㉠에 입사되는 적외선의 양이 감소하겠군.
- ② 침입과 관계없이 ㉠을 빠져나온 적외선의 양은 일정하겠군.
- ③ 침입이 있다면 ㉡에서 나오는 전류나 전압은 차단하겠군.
- ④ 침입이 있다면 ㉡에 입사되는 적외선의 양이 증가하겠군.
- ⑤ 침입이 있다면 ㉡에 입력되는 전압은 기준 전압 이상이겠군.

[39~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삼수갑산 내 왜 왔노 삼수갑산이 어디뇨
 ㉠오고 나니 기험(奇險)타 아하 물도 많고 산 첩첩이라 아하하

내 고향을 도로 가자 내 고향을 내 못 가네
 삼수갑산 멀드라 아하 촉도지난(蜀道之難)*이 예로구나 아하하

삼수갑산이 어디뇨 내가 오고 내 못 가네
 불귀(不歸)로다 내 고향 아하 새가 되면 떠가리라 아하하

㉡님 계신 곳 내 고향을 내 못 가네 내 못 가네
 오다가다 야속타 아하 삼수갑산이 날 가두었네 아하하

㉢내 고향을 가고지고 오호 삼수갑산 날 가두었네
 불귀로다 내 몸이야 아하 삼수갑산 못 벗어난다 아하하
 - 김소월, [삼수갑산(三水甲山) - 차안서선생삼수갑산운(次岸曙先生三水甲山韻)]

***촉도지난**: 촉나라로 가는 길의 어려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의미로 사용됨.

(나)

하늘은 날더러 구름이 되라 하고
 땅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네
 청룡 흑룡 흩어져 비 개인 나루
 잡초나 일깨우는 잔바람이 되라네
 ㉠뱃길이라 서울 사흘 목계 나루에
 아흐레 나흘 찾아 박가분 파는
 가을별도 서러운 방물장수 되라네
 산은 날더러 들꽃이 되라 하고
 강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산서리 맵차거든 풀 속에 얼굴 묻고
 물여울 모질거든 바위 뒤에 붙으라네
 민물 새우 끓어 넘는 토방 툇마루
 석상년에 한 이레쯤 천치로 변해
 짐 부리고 앉아 쉬는 떠돌이가 되라네
 하늘은 날더러 바람이 되라 하고
 산은 날더러 잔돌이 되라 하네

- 신경림, [목계 장터]

39.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색채어의 대비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미완결의 문장으로 시상을 종결하며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 ③ (가)는 영탄적 표현을, (나)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에 인격적 속성을 부여하여 시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구체적인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40. <보기>를 통해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의 화자는 시적 공간의 유편적 특성을 부각하여 고향에 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화자가 놓인 삼수갑산은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타향살이를 해야 했던 식민지 시대 우리 민족의 슬픔을 떠올리게 하는데, 화자는 자조적인 어조를 통해 우리 민족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다. 한편 (나)의 화자는 시적 공간의 개방적 특성을 부각하여 떠돌이가 되어 끊임없이 길 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가 걸어가는 길은 영원한 안주와 정착이 불가능한 화자 자신의 삶을 상징하지만, 화자는 자신의 운명과 처지에 순응하면서 달관의 자세로 고달픈 현실을 벗어나려 한다.

- ① ㉠은 ‘물’과 ‘산’의 심상을 결합하여 고향에서 ‘삼수갑산’에 이르는 길의 물리적 특성을 드러냄으로써, 고향에 갈 수 없는 화자의 안타까움을 암시하고 있군.
- ② ㉡은 자신을 ‘삼수갑산’에 가두어 둔 야속한 ‘님’에 대한 원망을 드러냄으로써, 타향살이를 강요당하는 화자 자신의 현실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표출하고 있군.
- ③ ㉢은 마지막 행의 ‘삼수갑산 못 벗어나다 아하하’와의 결합을 통해, 삼수갑산을 벗어날 수 없는 유편의 공간으로 여기는 화자의 자조적인 태도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④ ㉣은 ‘뱃길이라 서울 사흘’과 ‘아흐레 나흘’의 결합으로 목계장터의 공간적 속성을 암시함으로써, 특정한 공간에 정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화자의 처지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⑤ ㉤은 ‘맷차거든’과 ‘모질거든’의 감각적 심상을 연결시켜 고달픈 현실을 암시함으로써,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군.

41. <보기>의 [자료 1]을 바탕으로 [자료 2]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자료 1]

현대시 중에는 민요의 전통적 율격과 표현 방식을 계승한 작품들이 있다. 민요는 토속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민중의 생활상과 정서를 드러낸다. 또한 유사한 음이나 음절의 반복, 동일한 시어의 중첩이나 변주, 통사 구조가 유사한 시행을 통한 대구와 대비 등을 활용하여 민중의 애환을 그려낸다. 또한 민요에는 자신의 고단한 삶을 반영한 하층민의 신세 한탄과 원망이 담겨 있는데, 이를 계승한 현대시는 내용과 형식 모두 민요의 특징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우리 역사에서 소외되거나 잊힌 존재로 남아 있던 민중을 우리의 눈앞에 소환한다.

[자료 2]

남 날 적에 나도 나고 / 나 날 적에 남도 나고 / 세상 인간
같지 않아 / 이놈 팔자 무슨 일로 지게 목발 못 면하고 /
어떤 사람 팔자 좋아 / 고대광실 높은 집에 / 사모에 풍경
달고 만석록*을 누리건만 / 이놈 팔자 어이하어 / 항상 지
게는 못 면하고 / 남의 집도 못 면하고 죽자 하니 청춘이요
/ 사자 하니 고생이라 / 세상사 살아진들 / 치마 찢은 계집
있나 다박머리 자식 있나 / 광 넓은 논이 있나 / 사래 긴
밭이 있나 / 버선짝도 짝이 있고 토시짝도 짝이 있고 / 털
먹신도 짝이 있는데 / 첩이*같은 내 팔자야 / 자탄한들 무
엇하리 한탄한들 무엇하나 / 청천에 저 기력아 / 너도 또한
임을 잃고 / 임 찾아서 가는 건가 더러 놈의 팔자로다 / 이
놈의 팔자를 / 언제나 면할꼬 / 오늘도 이 짐을 안 지고 가
면 어떤 놈이 밥 한술 줄 놈이 있나 / 자 가자 이히후후
- 작자 미상, [초부가(樵夫歌)]

*만석록: 아주 많은 녹봉.
*첩이: ‘키’의 방언. 곡식 따위를 까불러 쭈정이나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

- ① [자료 2]는 4음보의 율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는 4음보 율격을 주조로 하면서 변형을 주며 민요의 전통적 율격을 계승하고 있군.
- ② [자료 2]는 ‘~ 있나’의 반복을 통한 열거와 대구의 방식으로, (나)는 ‘~은 날더러 ~이 되라 하네’라는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민중의 삶과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군.
- ③ [자료 2]는 ‘지게 목발’로 ‘오늘도 이 짐을 안지고 가면’ 안 되는 삶의 고단함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장터를 다니며 ‘서러운 방물장수’로 살아가는 하층민의 생활상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자료 2]는 ‘고대광실’, ‘만석록’과 대비되는 화자의 신세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석상년에 한 이레쯤 천치로’ 변하는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한 자괴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⑤ [자료 2]는 ‘버선짝’, ‘토시짝’, ‘털먹신’ 등 생활상을 반영한 어휘를 통해 외로운 처지를 강조 하고 있고, (나)는 ‘민물 새우 끓어 넘는 토방 뒷마루’ 등 토속적인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시어를 통해 우리 역사에서 소외되었던 민중의 삶을 떠올리게 하고 있군.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수, 원내에서 소리를 하며 나오다가 이 광경을 목격한다.

인수: (초부의 말을 막으며) 아니에요, 스님.
 초부: (아들을 쥐어박으며) 닥되려, 이 자식아. (주지에게) 닳은 정말이지 제가 쳤지 도념이가 친게 아닙니다.
 주지: 정말 자네가 쳤나?
 초부: 네.
 주지: 도념아, 그러니?
 도념: (정심의 뒤에 가려 선 채 무언)
 주지: 누가 쳤어? 바른 대루 선뜻 대답해라.
 초부: 제가 쳤습죠.
 주지: 도념아, 그러니?
 도념: (자기도 의심치 않고) 네.
 주지: (초부를 보고) 아 —니 나무나 해다 때지, 자네더러 누가 토끼 잡아 달라던가.
 초부: 뵈올 낫 없습니다.

주지: (인수의 허리에서 새 꾸러미를 발견하고 또 한번 대경한다.) 에구 이 녀석, 넌 또 웬 새 새끼를 이렇게 잡았니? 응? 당장 내려가거라. 자네두 내려가라구. 그리구 다시는 이 절에 발 들여놓지 말게. 자네 부자 때문에 우리 도념이까지 죄짓겠네.

인수, 성이 나 가지고 대꾸하려고 비죽비죽하는 것을 초 [A] 부가 눈을 부릅뜨며 말린다.

초부: 굶은 거나 마저 와 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
 주지: 가더래두 그 토끼는 내 눈앞에서 놔주구 가게.
 초부: 네.

초부 토끼를 놓아준다. 토끼 펄펄 날듯이 질주한다. 초부 지계를 지고 안 가려는 아들을 떠다밀며 나간다.

주지: 저렇게 펄펄 날으는 걸 백죄 잡으려구 한담? (도념에게) 외(外)에 사람들을 함부루 들이지 말라구 했는데 왜 들었니? (정심에게) 넌 들어가 보던 일 보라.

정심 “네.” 하고 다시 들어간다.

도념: 못 들어가게 했는데 비탈길루 돌아서 들어갔어요.

주지: (도념을 나뭇등걸 위에 앉힌 후) 난 그런 줄 모르구 공연히 너만 가지구 나무랬구나. 내가 잘못했다. 참 그리구 서울 안 대갓집 아씨께서 널 데려다가 한 반년 동안 쉬영아들 삼구 싶다구 하시더라.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절대루 승낙하지 않을 거지만, 그 아씨 말씀이라 생각해서 2, 3일 내루 기별해 드린다고 했다.

도념: 스님, 감사합니다.
 주지: 서울 가서두 내가 이른 말 하나라두 거슬린다면 당장 도루 불러올 테야.
 도념: 네.
 주지: 그리구 갈 때는 내가 **경전**을 줄 테니 가지구 가서 열

[B] 심히 읽구, 올라올 땐 내 앞에서 다 외야 한다.

도념: 네, 갈 땐 저 혼자 가게 됩니까?
 주지: 아씨는 오늘 내려가시구, 너는 내가 대갓집에 가서 너한테 관한 여러 가지 말씀두 여쭙 겸 사날 후에 데리구 갈테다. 그런 줄 알구, 그동안 세수두 말갈게 하구, 손톱 발톱두 깨끗이 깎고 가서 웃음거리 안 되도록 해라.
 도념: 네.

주지: 사람이란 첫째 예의범절을 단정히 해야 하는 법이니라.

[C] 인수, 암상*이 잔뜩 나 가지고 나갔던 길에서 다시 뛰어 올
 라온다. 초부, 낙엽 더미를 안은 채 “인수야 인수야” 하고 규
 성을 치며 쫓아 올라온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는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도념이 어머니에게 토끼털 목도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토끼를 잡은 사실이 탄로 나자, 주지는 도념을 수양아들로 보내는 것을 반대한다.

도념: (미망인에게 매달리며) 어머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미망인: 응, 염려 마라.

주지: 염려 말라니요? 아씨는 그저 애를 데려갈 작정이십니까?

미망인: 그럼은요.

친정 모: 못 한다. 넌 애 하는 짓을 지금껏 두 눈으로 똑똑히 보구두 이러니?

미망인: ㉠어머니, 봤기에 더 한층 데려가구 싶은 생각이 솟았어요.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했으면 그런 짓을 했겠어요? 지금 이 애를 바른길루 이끌어 갈라면, 내 사랑 속에서 키우는 것밖에 댄 도리가 없어요.

친정 모: 애는 전생에 제 부모의 죄를 받구 태어났기 때문에, ㉡ 아무리 구할라구 해두 구할 수가 없단다. 흥역 마마하듯 이렇게 피하지 못할 죄가 하나씩 둘씩 발생하지 않니? 애보담, 우리 인철이 영혼 축원할 도리나 걱정해라.

미망인: 인철인 기왕 죽은 애니까 재를 다시 지내면 그만 아니에요?

친정 모: 애가 **토끼 목도리**를 존상*뒤에다 감춰만 뒀다면 모를까, 젊은 별좌(別座)*애길 들으니까 어젯밤에 딱 그 더러운 것을 관세음보살님 목에다 걸어 놓고 물끄러미 바라다보구 있었다는구나.

미망인: (울며 미친 듯이) 어머니, 난 애당초에 생각이나 안 먹었으면 모를까, 한번 먹어 논 것이라 잃구는 살 수가 없어요. 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주지: 아씨께서 진정으로 애를 사랑하신다면, 눈앞에 두구 노리개를 삼으실라구 하시지 말구 애 매디매디에 사무쳐 있는 전생의 죄 속에서 영혼을 구하게 이 절에 뒤 주십시오. 자기 한 몸의 죄만 아니라 제 아비 제 어미 죄도 씻어야 할 테니까 애는 ㉢ 여간한 공덕을 쌓기 전에는 저승에 가서 무서운 지옥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도념: 스님, 죽어서 지옥에 가더래두 난 내려가겠어요. 찾아오는 사람을 막지 않구 떠나는 사람을 붙들지 않는 것이 우리 절 주의라구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지: (열화같이 노하며) 수다스러. 한번 못 간다면 못 가는 줄 알아라. (미망인을 보고 선언하듯) 아씨께서 서방

[D] 남을 잃으시고 외아들마저 잃으신 것두 다 전생에 죄
 가 많으셨던 탓입니다. 아씨 죄두 미처 벗지 못하시
 구 이 찢덩이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실랴구 이리십니
 까? 두 번 다시 이 이야기를 꺼내 시려거든 대신 이
 절에 오시지 마십시오.

주지, 뒤도 안 돌아보고 원내로 들어간다. 친정 모도 뒤따른다.
미망인, 주지의 말에 찢리어 전신을 부르르 떠다. 영하다 놓친 사
람 모양으로 털벅 나뭇등걸에 주저앉아 운다.

도념: @어머님, 이대루 그냥 도망이라두 가지지요.
미망인: 그렇게는 못 한다. ㉠년 이 절에 남아서 스님의 말씀 잘
 듣구 있어야 한다.

도념: 촛불만 깜박깜박하는 법당을 또 어떻게 혼자 지켜요? 굶은
 비가 줄줄 내리는 밤이나 부엉이가 우는 새 벽엔 무서워
 죽겠어요.

미망인: 너한테는 그게 숙명이니까 내 힘으루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구나.

미망인, 도념을 누구에게 빼앗길 듯이 세차게 껴안고 운다. 정
심, 산문*에서 나온다.

정심: 도념아, 빨리 종 쳐라.

도념: (눈물을 닦고) 네.

정심, 산문 앞의 등잔에 불을 켜고 다시 원내로 들어간다.

미망인 : 내가 원체 죄가 많은 년이니까 너를 데리고 갔다가 너
한테까지 또 무슨 화가 끼칠지, 난 그게 무서워졌다. 어서 들어가
자. 그 대신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보름날 달 밝은 밤엔 꼭 널
보러오마.

[E] 미망인, 우는 도념을 달래 가지고 원내로 들어간다. 주위
 는 차츰차츰 어두워진다. 이윽고 범종 소리 들려온다. 멀리
 산울림. 초부, 나무를 안고 나와 지게에 엮고, 담배를 한 대
 피운다. 흠날리는 초설을 머리에 받은 채 슬픈 듯 한 표정
 으로 종소리를 듣는다.

 사이.
 이윽고 종소리 그친다. 도념, 고깔을 쓰고 바람*을 걸머지
 고, 깡매기*를 들고 나온다.

- 함세덕, [동승]

- *암상: 남을 시기하고 샘을 잘 내는 마음. 또는 그런 행동.
- *규성: 부르짖는 소리
- *존상: 지위가 높고 귀한 형상.
- *별좌: 불전(佛前)에 음식을 차리는 일. 또는 그 일을 맡아 하는 사람.
- *산문: 절 또는 절의 바깥문.
- *깡매기: ‘괭과리’의 전라도 방언.
- *바람: 승려가 등에 지고 다니는 자루 모양의 큰 주머니.

4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초부는 인수를 나무라며 인수의 발언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 ② 도념은 주지의 물음에 대한 초부의 대답을 듣고 자신도 거짓을 말하고 있다.
- ③ 주지는 도념을 미망인에게 ‘쉬영아들’로 보내기로 했던 생각을 바꾼다.
- ④ 미망인은 도념이 지은 전생의 죄가 두려워 도념을 데려가는 것을 포기한다.
- ⑤ 친정 모는 도념에 대해 알게 된 정보 때문에 미망인의 뜻에 반대한다.

43.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동승] 은 이중적인 의미 구조를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일차적으로는 종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주지와 동자승인 도념 사이에 빚어지는 갈등을 통해, 세속에 대한 동경과 초월적인 가치에 대한 깨달음의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이차적인 의미는 다양한 인물들이 보여 주는 사랑의 문제에서 확인 된다. 정념에 사로잡혀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도념을 이해하고 감싸 주는 초부, 종교적 엄격함 속에서도 도념을 따뜻하게 대해 주는 주지, 자식에 대한 사랑을 도념에 대한 사랑으로 치환하려는 미망인 등이 어우러지면서 이 작품은 진정한 사랑과 구원의 의미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① ㉠은 자신의 어머니를 설득하려는 말로서, 사랑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믿는 미망인이 도념의 잘못을 사랑으로 품어 주려는 태도를 지닌 인물임을 보여 준다.
- ② ㉡은 미망인의 고집에 대해 힐난하는 말로서, 입양을 통해 새로 인연을 맺게 될 인물에 대한 사랑보다 혈연에 대한 사랑을 중시하는 친정 모가 종교적인 가치를 외면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③ ㉢은 미망인의 뜻을 단념시키려는 말로서, 도념이 수행 정진을 해야 비로소 종교적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주지가 도념에게 보이는 지극한 사랑을 떠올리게 한다.
- ④ ㉣은 주지의 뜻을 외면할 것을 제안하는 말로서, 세속적인 인연에 따른 사랑에 집착한 도념이 종교적인 깨달음을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포기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다.
- ⑤ ㉤은 도념을 타이르는 사랑의 말로서, 자신에게 부과된 운명을 받아들여 더 이상 세속의 인연에 연연하지 않으려는 인물의 안타까운 심정을 떠올리게 한다.

44.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A]~[E]의 공연 계획을 평가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본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 산길이 산문으로 이어짐. 후면은 비탈길 모습으로 처리. • 인물의 등장, 퇴장: 후면의 비탈길이나 산문을 통해 이루어짐.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소품: 초부는 토끼를 들고 있고, 인수는 새 꾸러미를 차고 있음. ㄴ. 초부, 인수: 초부는 토끼를 놓아준 후, 인수를 밀어서 데리고 퇴장함.
[B]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ㄷ. 주지, 도념: 부드러운 표정으로 서로 바라보며 이야기를 이어 나감.
[C]	<ul style="list-style-type: none"> ㄹ. 인수: 다급하게 비탈길을 뛰어 올라감. ㅁ. 초부: 뒤따라 올라오며 인수를 애타게 부름.
[D]	<ul style="list-style-type: none"> ㅂ. 도념, 주지: 격양된 말투로 이야기를 이어 나감. ㅅ. 미망인: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음.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ㅇ. 조명, 소품: 전체 조명을 차츰 어두워지게 하면서 등잔불만 밝힘. ㅈ. 음향: 은은한 범종 소리.

- ① [A]: 인수는 화가 난 듯한 얼굴 표정을 짓도록 하여, 초부가 지닌 소품과 관련하여 인수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음을 나타내게 해야겠군.
- ② [B]: 주지와 도념이 다정한 말투로 대화하도록 하여, 의심을 품 주지가 자신에게 당부하는 말을 공손하게 새겨듣는 도념의 태도를 부각해 주어야겠어.
- ③ [C]: 인물의 움직임을 통해 두 인물 사이의 거리가 점차 멀어지는 상황을 나타내어, 인수의 결연한 행동으로 인해 극적 상황이 급박하게 전환될 것임을 예고해 주어야겠어.
- ④ [D]: 도념을 향하던 주지가 미망인을 향해 시선을 옮기도록 연기를 지도하여, 단호했던 주지의 태도가 점차 누그러지는 상황을 통해 관객의 긴장감을 완화시켜야겠어.
- ⑤ [E]: 점차 어두워지는 무대 조명과 여운을 자아내는 효과음을 결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물들의 심리가 변화하고 있음을 암시하면서 극적인 여운을 느끼게 해야겠어.

45. 경전 과 토끼 목도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전’은 도념에 대한 주지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 ② ‘토끼 목도리’는 도념에 대한 미망인의 의심이 해소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 ③ ‘경전’은 주지가, ‘토끼 목도리’는 도념이 스스로 세상과 단절되고자 선택한 수단이다.
- ④ ‘경전’과 ‘토끼 목도리’는 모두 도념이 죄의 대가로 입을 ‘화’가 두려워 선택한 회피의 수단 이다.
- ⑤ ‘경전’은 도념이 긍정적인 존재로, ‘토끼 목도리’는 도념이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될 계기를 제공할 대상이다.

2차 끝

[1~3] 다음은 학생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문학 발표를 맡은 000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작품은 '패강랭'입니다. 문학 수업 시간에 작품 탐구 활동을 하며 좋은 문학 작품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패강랭'을 소개하게 된 이유는 이 작품을 읽으며 지금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제 강점기 평양의 단어와 문물들을 통해 1930년대 우리나라의 시대상을 들여다볼 수 있었고, 주인공의 심리를 잘 표현한 작품 속 표현들이 마음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B] 먼저 이 작품은 1930년대 창작된 것으로 이 시기가 일제 강점기였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패강랭'은 1930년대를 배경으로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만행 속에서 지식인이 느끼는 슬픔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작품입니다. 또한 이 시기에 활동한 작가들로 이상, 박태원, 김유정, 정지용, 김기림 등이 있다는 사실은 지난 시간 학습한 내용을 통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작품의 작가인 이태준 역시 이 시기에 내로라하는 작가들과 함께 암울한 우리의 현실을 고민한 작가였습니다.

[C]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 작품은 주인공 현과 친구인 박, 김, 평양 기생들의 이야기입니다. 머릿수건이 사라지고 시가지가 변해 버린 평양의 모습에 아쉬움을 느끼는 현과 재즈에 맞춰 기생들과 함께 춤을 추는 김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 보였습니다. 큰 길거리에 마치 분묘와 같은 모습으로 들어선 경찰서와 군인들의 통제 때문에 통행의 자유를 빼앗긴 우리 민족의 모습을 통해 당시 우리 민족의 삶이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현이 어느 고등 보통학교에서 조선어와 한문을 가르치는 박을 보며 학교와 사회에 지긋지긋 붙어 있는 존재 같다고 생각하고, 그런 지긋지긋함에서 자신을 느끼는 부분의 표현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국어'로 가르치고, 전통문화 또한 발붙일 곳을 잃어 가던 시대 속에서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괴로워하는 인물들의 절망감과 슬픔이 '지긋지긋'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대에 몸을 맡긴 김의 속물적 태도와 대조되는 현과 박의 모습을 통해 현실에 붙어 있는 것밖에 다른 선택이 없었던 그들의 괴로운 마음에 공감할 수 있었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D] 주인공의 괴로운 마음은 소설의 마지막에 현이 되뇌는 "이상견빙지"라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서리를 맑거든 그 뒤에 얼음이 올 것을 각오하라.'라는 이 말의 뜻은 1930년대 암울하기만한 일제 강점기 현실의 모습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동강의 옛 이름인 '패강'이 차갑다는 뜻인 '패강랭'이라는 제목과도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였습니다.

[E] '패강랭'을 읽고 난 후 저는 이태준 작가의 다른 작품에도 관심이 생겨 '해방 전후'라는 작품을 읽어 보았습니다. 직업이 작가인 '현'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를 보며 작가가 작품 속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켰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두 작품을 통해 이태준 작가의 삶과 생각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기에 여러분에게도 이 두 작품을 추천합니다.

손이라도 잡아 주고 싶은 박, 분묘 같은 경찰서, 사라진 평양 여인들의 머릿수건, 김의 일본어, 젊은 기생들의 재즈와 댄스를 통해 1930년대 일제의 엄혹한 탄압과 시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일 수 있으나, 이 작품의 주인공 현과 이태준 작가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을 늘 생각하고 자신의 책임을 고민하는 사람이 되길 기대하며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발표자의 발표 계획 중 위 발표에 반영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 인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해야겠어.
- ㄴ. 작가를 소개할 때에는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활용해야겠어.
- ㄷ. 발표를 들은 청중이 가지게 될 자세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며 마무리해야겠어.
- ㄹ. 발표 작품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작품 관련 퀴즈로 시작해야겠어.
- ㅁ. 같은 시대의 다른 작가 작품들에 등장하는 표현 방식과 비교하며 내용을 전개해야겠어.

- | | |
|-----------|-----------|
| ① ㄱ, ㄴ | ② ㄴ, ㄷ |
| ③ ㄷ, ㅁ | ④ ㄱ, ㄹ, ㅁ |
| ⑤ ㄴ, ㄷ, ㄹ | |

2. 다음은 발표자가 활용한 발표 전략이다. [A]~[E] 중 밑줄 친 부분의 전략이 활용된 부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께서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는 작품이 창작된 현실의 반영 여부, 작가의 표현력, 독자에게 작품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생각하며 감상하라고 하셨어. 이번 발표에도 이런 감상 요소들을 잘 반영할 것인데 특히 독서를 하며 내가 인상 깊게 느꼈던 표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구절이 인상 깊게 느껴진 이유를 설명해 학생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

- | | | |
|-------|-------|-------|
| ① [A] | ② [B] | ③ [C] |
| ④ [D] | ⑤ [E] | |

3. <보기>는 위 발표를 들으며 학생들이 떠올린 생각이다. 학생들이 발표를 들으며 활용한 듣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현진: '패강랭' 을 읽고 이태준 작가의 다른 작품을 추천한 내용 중 시대상이나 인상적인 표현 등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웠어. 추천 작품에 대한 내용 설명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

성우: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 중에 현진건의 '고향'이라는 작품이 떠올랐어. 그 작품에서도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 마음이 아팠어.

민준: 나는 작품을 읽어 보지 못해서 발표 내용이 잘 와닿지 않았어. 내 옆의 친구도 마찬가지였어. 미리 작품을 읽어 본 학생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다는 것을 조사한 후 발표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영미: 질문을 하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피며 발표를 진행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 너무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달하다 보니 중간중간 지루함이 느껴지기도 했어.

- ① 발표 내용 중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점검하며 들었다.
- ② 청중과의 상호 작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평가하며 들었다.
- ③ 발표 내용의 참신함과 발표자의 언어 예절에 대해 평가하며 들었다.
- ④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동일 시대를 표현한 다른 작품을 생각하며 들었다.
- ⑤ 청중의 작품 내용 이해 정도에 대한 분석이 사전에 잘 이루어졌는지 평가하며 들었다.

[4~7] (가)는 방송 보도이고, (나)는 이를 본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행자: 일주일 전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려 수확기의 농가에 피해가 있었는데요, 1,000헥타르가 넘는 농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박A기자가 자세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 20일, B지역에는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오후 3시 10분부터 5시 20분까지 두 시간 정도에 걸쳐 B지역 7개 시군을 이동하며 내린 우박은 지름이 3센티미터를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곳은 일주일 전 내린 우박으로 피해를 본 과수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확기를 맞은 사과 열매와 잎사귀에 우박을 맞은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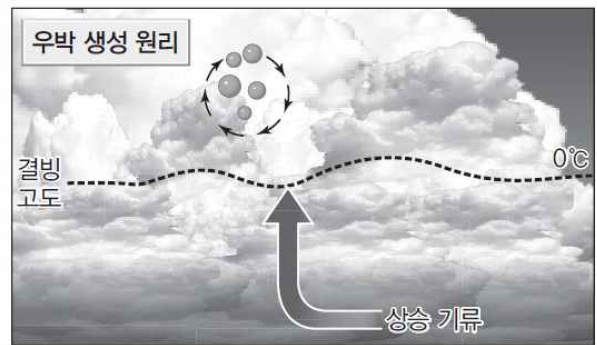
농민 1: 예년에는 이 나무 한 그루에서 10킬로그램짜리 상자 대여섯 개는 거뜬히 채울 만큼 수확했거든요. 올해는 한 상자도 채우기 힘들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여 보려고 상처가 덜한 사과를 고르고 있는데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제값은 못 받아요. 그나마도 제대로 팔릴지 모르겠어요.

기자: 이 과수원의 사과뿐만 아니라 인근 밭에서 재배하는 콩과 호박, 배추 등 밭작물도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그동안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으로, 재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B]

농민 2: 이 마을에서 40년 동안 콩이랑 호박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피해가 큰 건 처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농사짓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험도 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기자: 전문가들은, 우박이 초여름이나 가을에 주로 발생하는 데, 최근 들어 해마다 농가에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C] 피해 규모도 크므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전문가 1: 우리나라에서 우박은 4~6월에 많이 발생하며 9~10월에도 자주 발생합니다. 얼음덩어리인 우박은 상·하층 공기의 온도 차가 커지면서 대기가 불안정할 때 상승 기류가 발생하면서 생깁니다. (자료 화면)



적란운이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 영하권의 결빙 고도에 진입하면 얼음 결정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얼어붙은 알갱이들은 상승 기류에 막혀 추락하지 않고 뱅글뱅글 돌면서 주변 수증기를 계속 흡수해 몸집이 커지면 중력을 이기지 못해 떨어집니다.

전문가 2: 최근 해마다 우박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다 그 횟수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해 우박 피해가 1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정책적 차원에서 우박에 대한 대비와 연구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나 각 자치 단체의 대비뿐만 아니라 개별 농가에서도 농업 재해 보험에 가입하는 등 대비가 필요합니다.

기자: 이번에 우박 피해가 발생한 B지역의 도청과 시·군청에서는 피해 면적을 정밀하게 조사한 뒤 신속하게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자체적으로 특별 영농비를 지원하여 피해를 입은 과채를 수매하기로 하는 등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 우박으로 1,159 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정밀 조사를 실시하면 피해면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C 뉴스 박A입니다.

(나)

기쁨 아파트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단지에 사는 학생입니다. 아파트 주민 여러분께 건의 드릴 일이 있어서 이 글을 씁니다.

며칠 전 갑작스럽게 우박이 떨어졌던 날을 기억하시지요? 다행히 우리 아파트에는 피해가 없었지만 쏟아지는 우박 소리에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제 텔레비전에서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한 뉴스를 보고 다시 놀랐습니다. 마침 화면에 나온 곳이 올해 봄에 우리 아파트 자치회가 주최했던 딸기 따기 체험 행사 때 방문했던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부모님과 함께 그 행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화면을 보고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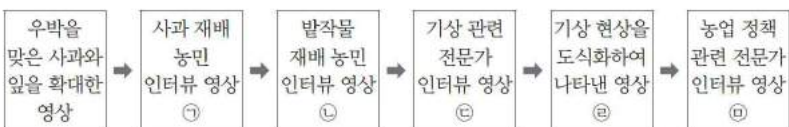
주민 여러분, 딸기 따기 체험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이면 그곳 마을 분들께서 보여 주신 넉넉한 인심을 잊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수확기를 맞이한 사과에 우박이 떨어져서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뉴스를 본 후에 따로 연락드려 알아보더니 우박으로 흠집이 생긴 사과를 원래 가격의 반이나 3분의 1 정도의 금액으로 판매하신다고 합니다. 곧 추석도 다가오는데 명절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드실 과일을 장만하실 때에 그 사과를 구입하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는 사과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서 좋고,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그 마을 농민들께서도 조금은 시름을 덜고 훈훈한 추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이 우박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는 데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발화 및 작문의 목적을 고려할 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사건을 유발한 인물을 고발하고, (나)는 정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 ② (가)는 사건의 과학적 원인을 규명하고, (나)는 대비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 ③ (가)는 사건에 대한 논평을 제시하고, (나)는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 ④ (가)는 사건의 실태와 대책을 전달하고, (나)는 제안에 동참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
- ⑤ (가)는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밝히고, (나)는 인식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5. 다음은 (가)의 방송 보도에 사용된 영상 목록이다. (가)를 참고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는 [A]의 내용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결과가 언급되고 있다.
- ② ㉡에서는 [B]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뒷받침하고 있다.
- ③ ㉢에서는 [C]의 내용과 관련된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④ ㉣에서는 [C]의 내용에 언급된 대상의 규모를 시각화하고 있다.
- ⑤ ㉤에서는 [C]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다.

6. 다음은 학생이 (나)를 작성하기 전에 계획한 내용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ㄱ. 예상 독자들과 우박 피해 농가 모두에 이익이 있음을 언급한다.
- ㄴ. 우박으로 인해 예상 독자들이 피해를 입었던 기억을 환기시킨다.
- ㄷ. 우박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와 관련된 방송 보도 내용을 인용한다.
- ㄹ.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한 정보 중에 방송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을 제시한다.
- ㅁ. 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가 글쓴이와 예상 독자들이 알고 있는 곳을 밝힌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7. <보기>는 (나)를 작성한 학생이 초고를 고쳐 쓰기 위해 검토한 내용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초고의 수정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내가 글을 쓴 의도를 잘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상 독자의 범위를 좀 더 좁혀서 내 의도를 실현할 수 있는 독자를 대상으로 해서 더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하여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 ①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사과 과수원의 농민에게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위로하는 내용
- ②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사과 과수원의 농민에게 사과와 가격과 구입 방법을 문의하는 내용
- ③ 아파트 자치회 대표에게 우박 피해 사과를 구입하는 행사를 아파트에서 개최하자는 내용
- ④ 아파트 자치회 대표에게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사과 과수원을 방문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
- ⑤ 아파트 주민 중 우박 피해 사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방송 보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내용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과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할 것

- 주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 예상 청중: 본교 재학생
- 매체: 학생회 자치 방송을 통한 연설
- 자료 활용 계획: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자료 제시

[작문 과제 분석]

- 주제 분석: 최근에 학교 앞 도로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자동차와 충돌할 뻔한 일이 있었고, 등·하교 시의 모습을 보면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음.
- 예상 청중 분석: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인식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매체 분석: 각 교실에 방송 화면이 송출되어 자료 활용이 가능함.
- 자료 활용 계획 분석: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연구 자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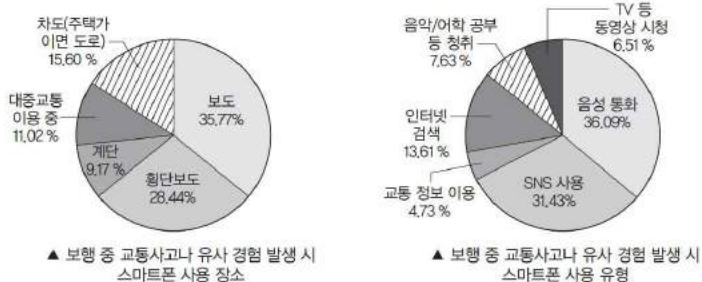
(나)

[연설문 초고]

A고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제3차 학생회 자치 방송의 날입니다. 오늘 저는 학생회를 대표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학교 앞의 횡단보도에서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걸던 학생이 신호가 바뀌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건다가 자동차와 충돌할 뻔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문을 지키시는 학교 지킴이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그 사건을 전달해 주시며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보행 중에 음성 통화를 하거나 SNS를 사용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보며 걷고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고, 부득이하게 사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무조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겠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학생회 자치 방송의 연설문을 준비하면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에 응답한 비율이 82%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응답자들 중에 90%가 ‘보행 중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라고 응답한 점입니다. 이는 상당수 학생들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스마트폰 사용 자제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설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제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 자료(2014)에 따르면, 보행 중 교통사고나 유사 경험 발생 시 스마트폰의 사용 장소가 주로 보도나 횡단보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보도나 횡단보도를 걸어 다닐 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 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유사 경험 발생 시의 스마트폰 사용 유형 중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은 음성 통화와 SNS 사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영상 시청이나 인터넷 검색 등의 유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자료에서 보듯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보행 중에는 잠시스마트폰 사용을 중지하여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 내는 A고등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8. (가)를 참고하여 (나)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기 >

ㄱ. 문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주제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소개하고 있다.

ㄴ. 공신력 있는 기관의 연구 자료를 제시하여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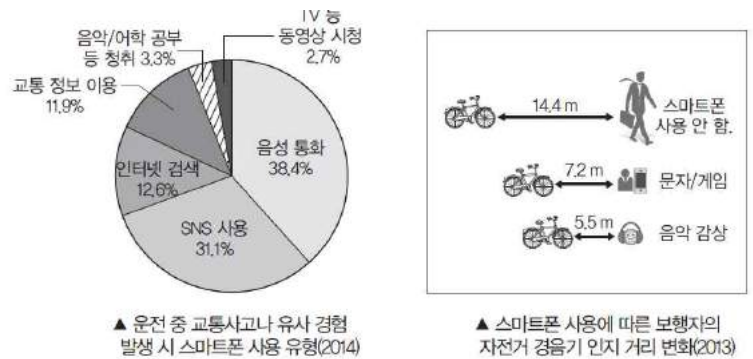
ㄷ. 주제와 관련된 예상 독자들의 인식을 알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ㄹ.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제와 관련한 글쓰기의 직접 경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9. 다음은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들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



[B] 신문 기사 자료

미국 하와이에서 보행 중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사용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지 시각으로 30일, CNN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와이주 호놀룰루 시 의회는 ‘전자 기기 보행자 안전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을 비롯한 태블릿, 전자책 단말기, 디지털카메라 등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이 부과된다. 보행 중 모바일 기기를 보다가 적발되면

15~35달러(한화 약 16,000~39,000원)가량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만약 1년 이내에 두 번 적발되면 35~75달러(한화 약 39,000~84,000원), 세 번 적발되면 최대 99달러(한화 약 111,000원)까지 올라간다.

- 2017. 8. 1. A뉴스

[C] 한국교통안전공단 B이사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에 걸맞게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배려도 필요하지만 보행자 스스로가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특히 차량 통행이 빈번한 보도가 없는 도로나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음악을 감상하거나 문자를 전송하는 등의 위험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3.12.11. 한국교통안전공단 보도 자료 중

[D] 면담 자료

정문을 지키고 있는 학교 지킴이 선생님과 면담 결과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기 때문에 정면의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어지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을 들음. 이와 관련한 안전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해 주심.

- ① 자료 [A]의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유형을 제시하면서 운전자의 경각심을 키울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② 자료 [A]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보행자의 인지 거리가 길어진다는 내용을 제시하여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음악 감상을 하며 걷는 것이 인지 거리를 좁게 하여 보행자를 위험하게 한다는 점을 언급한다.
- ③ 자료 [B]의 신문 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해외에서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처벌사례를 소개하면서 보행 중 모바일 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부각한다.
- ④ 자료 [C]의 보도 내용을 활용하여 보행자 스스로가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특히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나 횡단보도에서의 음악 감상이나 문자 전송이 위험함을 강조한다.
- ⑤ 자료 [D]에서 제시한 면담 대상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면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과 관련된 안전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10. (나)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담화 표지를 제시하여 이어지는 내용의 방향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군.
- ② 설문 조사의 결과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주제와의 관련성을 부각했군.
- ③ 제시된 자료 화면에 대한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출처를 제시했군.
- ④ 청유형의 문장 종결 방식을 활용하여 독자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있군.
- ⑤ 예상 청중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청중들의 학교 앞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례를 제시했군.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의 음운 변동 중 잘 알려진 것으로 모음 조화 현상이 있다. 모음 조화는 한 단어 내에서 공통점을 지니는 모음들이 함께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모음 조화에서 공통점을 지니는 모음들을 가리킬 때 흔히 양성 모음, 음성 모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의 언어학적 공통점이 있고,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의 언어학적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영두에 두면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모음 조화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중세 국어에는 ‘으, 오, 아’가 양성 모음을 이루고, ‘우, 어’가 음성 모음을 이룬다. 양성 모음들은 혀를 움츠려 발음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훈민정음에서는 이것을 ‘설축(舌縮)’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반면 음성 모음들은 혀를 조금만 움츠려 발음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훈민정음에서는 이것을 ‘설소축(舌小縮)’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중세 국어의 모음 조화에서 중요한 사실은 모음 조화에 참여하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명확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모음 조화가 적용될 수 있는 분명한 토대가 구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매우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가령 중세 국어 시기에는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모음 조화에 따라 어미의 형태가 결정되었다. ㉠양성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는 양성 모음인 ‘으, 오, 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고 음성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는 음성 모음인 ‘우,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음 조화는 어간 뒤의 어미 형태뿐만 아니라 체언 뒤의 조사 형태도 결정했으며 한 단어 안의 모음들도 모음 조화에서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현대 국어의 모음 조화는 중세 국어에 비해 적용되는 범위가 엄밀함이 훨씬 못 미친다. 이것은 현대 국어의 모음 조화에 관여하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특성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로 이행되면서 모음 체계가 변화한 결과, 양성 모음은 ‘오, 아’의 2개만 남았다. 반면 음성 모음은 단모음으로 바뀐 ‘애, 에, 외, 위’를 비롯하여 중성 모음 ‘이’가 새롭게 포함되어 8개가 되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수가 불균형적으로 바뀌었다. 더 큰 문제는 양성 모음이나 음성 모음의 공통점이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다. 모음 체계가 변화하면서 ‘설축’ 또는 ‘설소축’이라는 기준은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아, 오’만이 갖는 공통점 또는 음성 모음들이 갖는 공통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모음 조화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모음 조화가 유지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사라져 버렸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현대 국어에는 모음 조화의 예외가 매우 많아졌다. 단어 내부에서는 중세 국어의 ‘나무, 사슴’이 현대 국어의 ‘나무, 사슴’으로 바뀐 것과 같이 모음 조화를 지키지 않는 형태가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이 생겨났다. 또한 용언 어간에 ‘아’ 또는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에도 표준 발음은 아니지만 ‘아퍼, 앓어, 살어’ 등과 같이 모음 조화를 지키지 않는 형태들이 일상 대화에서 자주 나타난다. 이것은 모음 조화에 참여하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들의 공통점이 사라짐으로써 모음 조화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1. 밑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중세 국어는 현대 국어에 비해 모음 조화의 예외가 많지 않다.
- ② 중세 국어의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의 수는 각각 현대 국어보다 더 적다.
- ③ 중세 국어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 수가 대등하지만 현대 국어는 그렇지 않다.
- ④ 중세 국어는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이 각각 공통점을 가지지만 현대 국어는 그렇지 않다.
- ⑤ 모음 조화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지는 어미의 종류는 중세 국어가 현대 국어보다 더 많다.

12. ㉠을 고려할 때 어간 ‘막-’의 활용형이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어간+(-아/-어)	어간+(-옵/-옵)	어간+(-으니/-으니)
①	마가	마옵	마르니
②	마겨	마옵	마그니
③	마가	마옵	마그니
④	마가	마옵	마르니
⑤	마겨	마옵	마르니

13.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직접 구성 요소란 직접 성분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구성을 일단 둘로 쪼갠 때 그 각각의 구성 요소를 말한다. 어떤 단어의 직접 구성 요소를 보고 그 단어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판별할 수 있다. 가령 ‘금목걸이’의 직접 구성 요소인 ‘금’과 ‘목걸이’는 모두 어근이므로 ‘금목걸이’는 합성어이다. 그런데 ‘금목걸이’를 어근 ‘금목걸-’과 접미사 ‘-이’로 잘못 분석하면 ‘금목걸이’는 파생어가 되어 버린다. 따라서 ㉠직접 구성 요소로 접미사를 올바르게 분석한 경우에만 파생어를 올바르게 판별할 수 있다. 단어의 구조와 종류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 구성 요소를 올바르게 분석해야 하는 것이다.

- ① ‘놀이터’를 ‘놀이’와 ‘터’로 분석하였다.
- ② ‘비웃음’을 ‘비웃-’과 ‘-음’으로 분석하였다.
- ③ ‘눈웃음’을 ‘눈웃-’과 ‘-음’으로 분석하였다.
- ④ ‘코웃음’을 ‘코웃-’과 ‘-음’으로 분석하였다.
- ⑤ ‘야채볶음’을 ‘야채볶-’과 ‘-음’으로 분석하였다.

14. <보기>를 바탕으로 명령문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그 친구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라/*가지겠어라.
- ㉡ 언니가 나에게 빨래를 걸으라고 한다.
- ㉢ 그 일은 내가 처리할 테니 넌 걱정하지 마/*않아.
- ㉣ 내가 지나가게 옆으로 조금만 비켜 줘.
- ㉤ *저 멀리 있는 것도 잘 보이게 눈 좀 좋아라.

*는 비문법적 표현임

- ① ㉠을 보니, 명령문에는 선어말 어미 ‘-겠-’을 쓰지 못하는군.
- ② ㉡을 보니, 명령문이 간접 인용될 때에는 명령형 어미가 ‘-으라’로 되는군.
- ③ ㉢을 보니, 금지하는 명령을 할 때에는 동사 ‘말다’를 사용하는군.
- ④ ㉣을 보니, 1인칭 주어가 명령문의 주어로 나타날 수 있군.
- ⑤ ㉤을 보니, 서술어가 형용사이면 명령문으로 나타날 수 없군.

15. <보기>의 발표에서 ㉠에 들어갈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담화를 이루는 발화나 문장들은 특정한 장치에 의해 연결되어 응집성이 있는 하나의 담화를 만들어 냅니다. 그중 담화의 앞뒤에서 언급한 내용 대신에 사용되는 표현을 ‘대용 표현’이라고 합니다. 대용 표현에는 ‘이러하다, 그러하다’, ‘이것, 그것’ 등 지시표현과 유사한 ‘이, 그, 저’를 포함하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국어에서는 이러한 대용 표현과 함께 담화의 응집성을 만들어 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래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 (1) 옛날에 한 공주님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이웃 나라 왕자님을 사랑했습니다.
- (2) 할아버지는 단정하신 분이셨다. 항상 당신의 옷을 고이 고이 두셨다.
- (3) 길에 트럭 한 대가 서 있었다. 차 안에는 강아지가 있었다.
- (4) 나무는 덕을 지녔다. 나무는 주어진 분수에 만족할 줄을 안다. 나무는 나무로 태어난 것을 탓하지 않는다.
- (5) 지수는 동생을 자전거에 태웠다. 동생은 누나가 자전거를 잘 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무척이나 신이 났다.

그럼, 예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 _____

- ① (1)에서의 ‘그녀’는 앞 문장의 ‘공주님’의 대용 표현입니다.
- ② (2)의 ‘분’은 뒤 문장에서 언급한 ‘당신’ 대신에 사용된 표현입니다.
- ③ (3)은 상하 관계의 어휘가 연결된 예로, 상위어가 뒤에 위치하였습니다.
- ④ (4)에서는 앞에 나온 보통 명사를 뒤에서 다시 보통 명사로 반복하여 응집성을 형성합니다.
- ⑤ (5)에서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의 ‘동생’이 만들어 내는 응집성을 통해 ‘지수’가 ‘누나’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하나의 학문으로 정착된 고고학은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류의 물질적 유물을 취급하는 기술 정도로 치부되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며 고고학자들은 유물들이 사용되었던 당시 사회·문화적 맥락에 주목하였고, 그것을 통해 유물들의 의미를 유추해 낼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그리하여 고고학은 당시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다.

고고학의 기초적인 탐구 방법은 유물이나 유적과 같은 고고학 자료를 발굴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굴 작업의 목적은 단순히 고고학 자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출토 위치, 상대, 출토 유물 또는 유적 간의 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고학에서 활용되는 발굴 방법 중 하나는 사분법이다. 사분법은 봉토(封土)*가 있는 고분을 발굴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고분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십자 모양으로 사등분 하여 한 부분을 먼저 발굴한 후 면이 접해 있지 않고 서로 ㉢엮갈려 마주 보는 부분을 발굴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그렇게 되면 고분 내의 공간적 특성이나 유물들의 분포 위치, 유구(遺構)*의 흐름 등을 전체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발굴을 할 때에는 각 구역에 폭 0.5~1m의 독을 남겨 놓는데, 이는 발굴자가 고분을 덮고 있는 흙의 퇴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고분의 전체적인 공간적 특성과 독의 층서(層序)*를 파악한 다음에는, 지층의 순서에 맞추어 독을 차례로 제거하고 실제 시신이 묻혀 있는 매장 주체부를 정확하게 조사하게 된다.

사분법 외에 고고학에서 활용되는 방법으로 방격법을 들 수 있다. 방격법은 일종의 바둑판식 발굴법으로, 이 방법은 우선 가로세로의 축이 직각으로 교차하는 기준점을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발굴이 시작된다. 기준점이 설정된 후에는 바둑판 눈금 모양의 구획인 그리드(grid)를 각 축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정하여 나누어진 구역에 대해 발굴을 진행한다. 사분법과 달리 방격법은 야외 유적인 주거지, 사지(寺址) 등과 같이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할 때 효율적이고, 발굴 작업이 기준점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유구의 변화나 층위의 단절에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발굴된 유물, 즉 고고학 자료들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자료가 사용되었던 연대를 추측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때 활용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광자극 냉광법(冷光法)이다. ㉣광자극 냉광법을 활용하면 유물에 어떠한 손상이나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연대를 측정할 수 있고, 50,000년 이상 오래된 유물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방법의 기본적인 원리는 유물이 묻힌 지층에 포함된 석영, 장석과 같은 무기질 결정의 냉광 현상을 통해 유물의 연대를 측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냉광이란 무기질 결정이 외부에서 흡수한 에너지를 빛으로 바꿔 외부에 방출하는 물리적 현상을 말하는데, 무기질 결정이 빛이 차단된 땅속에 묻히면 에너지를 흡수만 하게 된다. 특히 석영은 땅속에 묻히면 주변의 방사성 원소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 축적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토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광자극 냉광법에 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어떤 고분에서 토기 여러 개가 출토되었다고 가정할 때, 그 토기들이 출토된 지층에 포함된 석영이 축적한 에너지가 100만 단위이고, 주변의 방사성 원소가 매년 방출하는

에너지가 4단위라고 한다면 그 토기들은 25만 년 전에 매장된 것이라고 범박(泛博)하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광자극 냉광법의 중요한 가정은 유물 주변의 방사성 물질은 매년 일정하게 붕괴되므로 매년 일정한 에너지가 유물에 공급된다는 것이다. 이때 석영에 방사능 에너지를 주는 자연 방사성 원소의 양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연대를 측정하기 원하는 장소에서 해마다 방출되는 에너지의 양을 각각 측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수치들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정확한 연대 측정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측정하고자 하는 유물 주변에 방사능 시설이 세워져 방사능 수치에 변화가 생긴 적이 있으면 광자극 냉광법을 통해 연대를 측정하기는 어렵다.

*봉토: 흙을 쌓아 올림. 또는 그 흙.

*유구: 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자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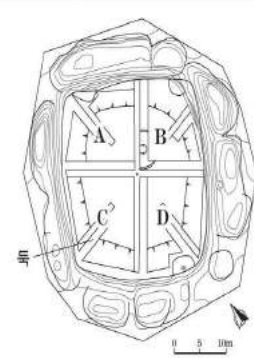
*층서: 지층이 쌓인 순서. 아랫부분에서부터 오래된 순서대로 층을 이루어 겹쳐져 있다.

16.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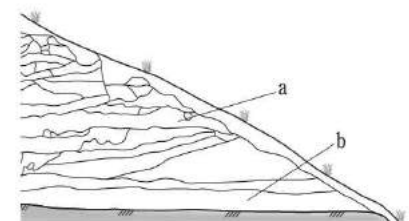
- ① 방격법은 가로세로의 축이 직각으로 교차하는 기준점을 먼저 설정한 후 발굴이 시작된다.
- ② 냉광은 무기질 결정이 외부에서 흡수한 에너지를 빛으로 바꿔 방출하는 물리적 현상을 말한다.
- ③ 고고학 자료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유구가 변화되거나 층위가 단절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 ④ 사분법은 방격법과 달리 발굴 준비 과정에서 특정 구역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는 작업을 선행 한다.
- ⑤ 19세기 중반 이전에 고고학은 체계가 가진 학문이 아닌 유물을 취급하는 기술 정도로 치부 되었다.

※ 다음은 '나주 신촌리 9호분' 발굴 보고서의 일부이다. 읽고 17~18번 문제의 물음에 답하시오.

〈나주 신촌리 9호분〉발굴 보고서	
발굴 일시	1999년 4월 26일 ~ 1999년 8월 26일
발굴지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 산 41번지 일원
출토 유물	금동관, 원통형 토기, 금동 신발, 철기 등



〈그림 1〉 9호분 평면도



〈그림 2〉 원통형 토기의 출토 위치

〈그림 1〉은 나주 신촌리 9호분의 평면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리고 〈그림 2〉는 9호분 단면의 일부로, 원통형 토기가 출토된 위치를 a와 b로 나타낸 그림이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그림 1>에 활용된 발굴법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 보 기 > —

ㄱ. 고분을 발굴할 때 A 구역에서부터 발굴을 시작하였다면 그다음에는 D 구역을 발굴하였을 것이다.

ㄴ. A~D의 각 구역에 독을 남겨 발굴자가 고분을 덮고 있는 흙의 퇴적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ㄷ. 고분의 전체적인 공간 특성과 독의 층서를 파악하기 전에 시신이 매장된 부분을 조사하였을 것이다.

ㄹ. 고분 내의 공간 특성이나 유물의 분포 위치를 전체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발굴법이 활용되었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ㄹ

18. <보기>는 <그림 2>와 관련한 보고서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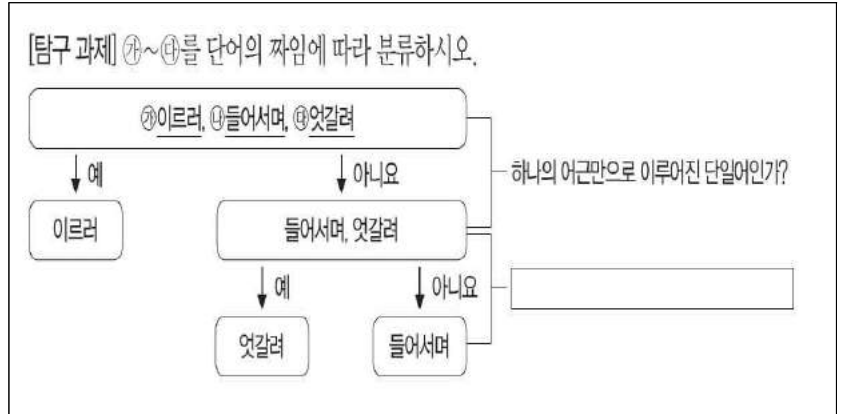
<그림 2>에 표시된 a와 b에서 원통형 토기 여러 점이 발굴되었는데, 발굴 팀은 광자극 냉광법을 이용해 이 유물들의 연대를 측정해 보았다. 발굴 팀은 a와 b에서 유물들을 발굴하기 전까지 지층에서 채취한 석영이 유물들과 매장된 이후 빛과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다고 가정하였다. a, b의 지층에 포함된 석영이 축적한 에너지는 각각 16,000단위였고, 주변의 방사성 원소가 매년 방출하는 에너지는 각각 10단위였다.

- ① 발굴 팀은 원통형 토기가 묻혀 있던 a, b의 지층에 포함된 석영 결정의 냉광 현상을 이용하여 연대 측정을 하였겠군.
- ② 발굴 팀은 a, b에 매장되어 있는 원통형 토기는 모두 기원후 1,600년에 묻힌 것으로, 17세기 전반에 매장된 것이라고 추측하였겠군.
- ③ 원통형 토기가 매장된 a나 b의 지층이 도굴 등으로 인해 빛에 노출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발굴 팀이 측정한 연대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겠군.
- ④ a, b의 지층에서 각각 채취한 석영이 축적한 에너지가 서로 큰 차이를 보였다면 a, b가 동일한 시기에 매장된 유물이 아닐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겠군.
- ⑤ 방사능 시설의 건설로 인해 a, b 주변의 방사능 수치가 변화가 생겨 a, b 주변의 방사성 원소가 매년 방출하는 에너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었다면 광자극 냉광법을 이용하기는 어려웠겠군.

19.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물에 광자극을 주어 유물 내부를 영상으로 구현하는 원리를 활용하기 때문에
- ② 석영이 땅속에 묻히면 주변의 방사성 원소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 방출하기 때문에
- ③ 무기질 결정은 빛에 노출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거의 잃어버리기 때문에
- ④ 석영이나 장석에 유입되는 자연 방사성 원소의 양이 어느 지역에서나 동일하기 때문에
- ⑤ 유물 자체가 아닌 발굴된 유물 주변의 무기질 결정을 활용하여 연대를 측정하기 때문에

20. 다음은 ㉡~㉣를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기준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어근 없이 접사로만 이루어진 단어인가?
- ② 분리하여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말인가?
- ③ 어근과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인가?
- ④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인가?
- ⑤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을 따르는 합성어인가?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풍자와 해학은 웃음을 자아내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 방법과 성격은 매우 상이하다. 풍자에서는 부정적 대상에 대하여 웃음을 유발하여 인간의 어리석음과 악덕을 폭로하고 공격한다. 다시 말해 풍자의 주체가 풍자의 대상보다 윤리적으로 우위에 있어 자기 자신이 부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풍자의 웃음은 신랄한 비판의 웃음으로 나타난다. 이와 달리 해학에서의 웃음은 대립과 갈등의 구조가 화합의 구조로 승화된다. 즉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과 그것을 억제하려는 인간의 이성 사이의 대립을 드러내어, 경직된 현실이 주는 긴장감을 완화시켜 웃음을 자아내는 것이다. 결국 해학에서의 웃음은 연민과 동정의 웃음을 선사하는데, 풍자와 달리 해학의 주체는 부정되어진 대상 속에 자기를 포함시킴으로써 온정적이거나 자조적인 웃음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우리 문학에서 전통적으로 활용된 웃음의 요소에는 언어유희, 과장, 희화화 등이 있다. 언어유희란 주로 소리가 같은데 뜻이 다른 말들로 언어를 재배치해 새로운 통사적 표현을 이끌어 냄으로써 뜻밖의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다. 언어의 통사적 구조를 관습과는 다른 방향으로 뒤흔들어 의도적으로 오해나 실수를 자아내는 것도 언어유희에 해당한다. 과장이란 실제보다 더욱 크게, 혹은 아주 작게 표현함으로써 인상을 두드러지게 하는 것으로, 기발한 착상을 통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말에 묘미를 느끼며 공감하게 할 수 있다. 희화화란 어떤 인물의 외모나 성격, 또는 사건을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나) 까투리 하는 말이,

“그 콩 먹고 잘된단 말은 내 먼저 말하오리다. ㉠잔디찰방(察訪) 수망(首望)으로 황천*부사(黃泉府使) 제수하여 청산을 영이별(永離別)하오리니 내 원망은 부디 마소. 고서(古書)를 볼 양이면 고집불통 과하다가 패가망신 몇몇인고? 진시황(秦始皇)의 몸쓸 고집 부소(扶蘇)의 말 듣지 않고 민심소동(民心騷動) 사십 년에 이세(二世) 때에 실국(失國)하고, 초패왕(楚霸王)의 어리석은 고집 범증(范增)의 말 듣지 않다 팔천제자(八千弟子) 다 죽이고 무면도강동(無面渡江東)하여 자문이사(自刎而死)하여 있고, 굴삼려(屈三閭)의 옳은 말도 고집불통 하다가 진무관(秦武關)에 굳이 갈혀 가련공산(可憐空山) 삼혼(三魂) 되어 강상(江上)의 우는 새 어복충혼(魚腹忠魂) 부끄럽다. 자네 고집 과하다가 오신명(誤身命) 하오리다.”

장끼란 농 하는 말이,

“콩 먹고 다 죽을까? 고서를 불작시면 콩 태(太) 자 든 이마다 오래 살고 귀히 되니라. 태고(太古) 적 천황 씨(天皇氏)는 일만 팔천 세(一萬八千歲)를 살아 있고, 태호 복희씨(太昊伏羲氏)는 풍성(風姓)이 상승(相承)하여 십오 대(十五代)를 전해 있고, 한 태조(漢太祖) 당태종(唐太宗)은 풍진세계(風塵世界) 창업지주(創業之主) 되었으니, 오곡백곡(五穀百穀) 잡곡 중에 콩 태 자가 제일이라. 궁팔십(窮八十) 강태공(姜太公)은 달팔십(達八十) 살아 있고, 시중천자(詩中天子) 이태백(李太白)은 기경상천(騎鯨上天) 하여 있고, 북방의 태을성(太乙星)은 별 중의 으뜸이라. ㉡나도 이 콩 달게 먹고 태공같이 오래 살고 태백같이 상천하여 태을선관(太乙仙官) 되오리라.”

까투리 홀로 경황없이 물러서니, 장끼란 농 거동 보소. ㉢콩 먹으러 들어갈 제 열두 장목 펼쳐 들고 꾸벅 꾸벅 고개 쫓아 주춤

주춤 들어가서 반달 같은 혀 부리로 들입다 짹 짹 으니, 두 고패* 등그러지며 머리 위에 치는 소리 박랑사*중(博浪沙中)에서 저격시황(狙擊始皇)하다가 버금 수레 맞추는 듯 ‘와지끈 똑딱’, ‘푸드 덕푸드덕’ 변통 없이 치었구나.

(중략)

장끼 거동 불작시면 차위*밑에 엎드려서, “에라 이년 요란하다. 후환을 미리 알면 산에 갈 이 뉘 있으리. 선미련(先未練) 후실기(後失期)*라. 죽는 놈이 탈 없이 죽으랴? 사람도 죽기 살기를 맥(脈)으로 안다 하니, 나도 죽지 않겠나 맥이나 짚어 보소.”

까투리 대답하고 이른 말이, “비위맥(脾胃脈)이 거절(去絶), 간맥(肝脈)은 서늘하고, 태충맥(太沖脈)은 걷어 가고, 명맥(命脈)은 끊어져 가네. 애고 이게 웬 일이요? 원수로다 원수로다. 고집불통 원수로다.”

장끼란 농 하는 말이, “맥이 그러하나 눈청을 살펴보소. 동자부처 온전한가.”

까투리 한숨 쉬고 살펴보며 이른 말이, “이제는 속절없네. 저편 눈의 동자부처 첫새벽에 떠나가고, 이편 눈의 동자부처 지금 떠나가려고 파랑 보에 붓짐 싸고, 공방대 붙여 물고 길목버선 감발하네. 애고애고 이내 팔자 이다지 기박한가, 상부(喪夫)도 자주 한다. 첫째 낭군 얻었다가 보라매게 채여 가고, 둘째 낭군 얻었다가 사냥개게 물려 가고, 셋째 낭군 얻었다가 살림도 채 못하고 포수에게 맞아 죽고, 이번 낭군 얻어서는 금슬도 좋거니와 아홉 아들 열두 딸을 낳아 놓고 남혼여가(男婚女嫁) 채 못 하여 구복(口腹)이 원수로 콩 하나 먹으려다 저 차 위에 덜컥 치었으니 속절없이 영이별하겠구나. 도화살(桃花煞)*을 가졌는가? 상부살(喪夫煞)을 가졌는가? 이내 팔자 험악하다. 불쌍토다 우리 낭군 나이 많아 죽었는가? 병이 들어 죽었는가? 망신살(亡身煞)을 가졌던가? 고집살(固執煞)을 가졌던가? 어찌 하면 살려 낼꼬? 앞뒤에 섰는 자녀 뉘라서 혼취(婚娶)하며 복중(服中)에 든 유복자(遺腹子)는 해산구원(解產救援) 뉘라 할까? 운림초당(雲林草堂) 너른 뜰에 백년초(百年草)를 심어 두고 백년해로(百年偕老)하자더니 단 삼 년이 못 지나서 영결종천(永訣終天) 이별초(離別草)가 되었구나. 저럴듯이 좋은 풍신(風身) 언제 다시 만나 볼까? 명사십리(明沙十里) 해당화야, 꽃 진다 한을 마라. 너는 명년 봄이 되면 또 다시 피려니와 우리 낭군 이번 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미망(未亡)일세 미망일세 이내 몸이 미망일세.”

한참 통곡하니 장끼란 농 반눈 뜨고, “자네 너무 슬퍼 마소. 상부(喪夫) 잦은 네 가문에 장가가기 내 실수라. 이 말 저 말 잔말 마라.”

- 작자 미상, [장끼전]

- *황천: 저승.
- *고패: 꿩 잡는 틀에서 목을 조르게 되어 있는 쇠.
- *박랑사: 중국 허난성 우양현의 고적. 장양이 역사(力士)들로 하여금 철퇴로 진나라 시황제를 저격하게 한 곳으로 유명함.
- *차위: ‘덧’의 방언.
- *선미련 후실기: 미련한 짓을 하게 되면 뒤에 때를 잃는다는 뜻.
- *도화살: 여자가 한 남자의 아내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질고 독한 귀신의 기운.

(다) [앞부분의 줄거리] 소작인인 영식에게 금을 찾아다니는 수재가 금을 캐자고 부추긴다. 아내 또한 돈이 판을 치는 세상에 가난을 면한다는 꿈에 이끌려 남편을 부추기자 영식은 허황된 욕심에 애써 가꾼 콩밭을 파기 시작한다. 동리의 노인이 비난하고 마름이 경고하는 가운데 아무리 파 들어가도 금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쌀을 빌려 산제(山祭)까지 지낸다.

가을은 논으로 밭으로 누—렇게 내리었다. 농군들은 기꺼운 낫을 하고 서로 만나면 흥겨운 농담. 그러나 남편은 **애먼 밭만** 망치고 논조차 건설 못하였으니 이 가을에는 뭘 거뒀들이고 뭘 즐겨할는지. 그는 **동리 사람의 이목**이 부끄러워 산길로 돌아왔다.

술숯을 나서서 멀리 밖을 바라보니 돌이 다 나와 있다. 오늘도 또 싸운 모양. 하나는 이쪽 흙더미에 앉았고 하나는 저쪽에 앉았고 서로들 외면하여 담배만 뽀뽀 피운다.

“점심들 잡숫게유.”

남편 앞에 바가지를 내려놓으며 가만히 맥을 보았다.

남편은 적삼이 찢어지고 얼굴에 생채기를 내었다. 그리고 두 팔을 걷고 먼 산을 향하여 묵묵히 앉았다.

수재는 흙에 박혔다 나왔는지 얼굴은커녕 귓속들이 흙투성이다. 코밑에는 피딱지가 말라붙었고 아직도 조금씩 피가 흘러내린다. 영식이 처를 보더니 열적은 모양. 고개를 돌리어 모로 떨어치며 입맛만 짹짹 다신다.

금을 캐라니까 밤낮 피만 내다 말라는가. 빛에 졸리어 남은 속을 볶는데 무슨 호강에 이 지랄들인가. 아내는 못마땅하여 눈가에 살을 모았다.

“산제 지낸다구 꺾 온 것은 은제나 값는다지유?”

똥하고 있는 남편을 향하여 말끝을 꼬부린다. 그러나 남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어조를 좀 돋우며,

“값지도 못할 걸 왜 꺾 오라 했지유!”

하고 얼추 호령이었다.

이 말은 남편의 채 가라앉지도 못한 분통을 다시 건드린다. 그는 벌떡 일어서며 황방 주먹을 쥐어 낭창할 만치 아내의 골통을 후렸다.

“계집년이 방정맞게.”

다른 것은 모르나 주먹에는 아찔이었다. 멧없이 덤비다간 골통이 부서진다. 앙상을 참고 바르르하다가 이윽고 아내는 등에 업은 어린애를 끌어 들었다. 남편에게로 그대로 밀어 던지니 아이는 까르륵하고 숨 모는 소리를 친다.

그리고 아내는 돌아서서 혼잣말로,

㉠ “콩밭에서 금을 탄다는 속맥도 있담.”

하고 빗대 놓고 비양거린다.

“이년아, 뭐!”

남편은 대뜸 달려들며 그 볼치에다 다시 울찬 황방을 주었다. 적이나 하면 계집이니 위로도 하여 주련만 요건 분만 푹푹 질러 노려나. 예이, 빌어먹을 거 이판사판이다.

“너허구 안 산다. 오늘루 가거라.”

아내를 와락 떠다밀어 밭둑에 젖혀 놓고 그 허구리를 푹 질렀다. 아내는 입을 헉 하고 벌린다.

“네가 허라구 옆구리를 쿡쿡 찌를 제는 언제냐, 요 집안 망할년.”

그리고 다시 푹 질렀다. 연하여 또 푹.

이 꼴들을 보니 수재는 조바심이 일었다. 저러다가 그 분풀이가 다시 제게로 슬그머니 옹아올 것을 지레 채었다. 인제 걸리면 죽

는다. 그는 비슬비슬하다 어느 틈엔가 구멍이 속으로 시나브로 없어져 버린다.

별은 다사로운 가을 향취를 풍긴다. 주인을 잃고 콩은 무거운 열매를 둥글둥글 흙에 굴린다. 맞은쪽 산 밑에서 벼들을 베며 기뻐하는 농군의 노래.

“터졌네, 터져.”

수재는 눈이 휘둥그렇게 곱문을 뛰어나오며 소리를 친다. 손에는 흙 한 줌이 잔뜩 쥐었다.

“뭐?”

하다가,

㉡ “금줄 잡았어, 금줄.”

“응— ”

하고 외마디를 뒤남기자 영식은 수재 앞으로 살같이 달려들었다. 허겁지겁 그 흙을 받아 들고 살살이 헤쳐 보니 탄은 재래에 보지 못하던 불그죽죽한 황토이었다. 그는 눈에 눈물이 핑 돌며,

“이게 원줄인가?”

“그럼 이것이 곱색줄이라네. 한 포에 몇 돈씩은 넉넉 잡히대.”

영식은 기쁨보다 먼저 기가 탁 막혔다. 웃어야 옳을지 울어야 옳을지. 다만 입을 반쯤 벌린 채 수재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본다.

“이리 와 봐. 이게 금이래.”

이윽고 남편은 아내를 부른다. 그리고 내 뭐랬어, 그러게 해보라고 그랬지 하고 설면설면 덤벼 오는 아내가 한결 어여뻐다. 그는 엄지가락으로 아내의 눈물을 지워 주고 그리고 나서 경총거리며 구멍이로 들어간다.

“그 흙 속에 금이 있지요.”

영식이 처가 너무 기뻐서 코다리에 **고래등 같은 집**까지 연상할제, 수재는 시원스러이,

“네, 한 포대에 오십 원씩 나와유.”

하고 대답하고 오늘 밤에는 꼭, 정녕코 꼭 달아나리라 생각하였다.

거짓말이란 오래 못 간다. 뽕이 나서 빠다귀도 못 추리기 전에 훨훨 벗어나는 게 상책이겠다.

- 김유정, [금 따는 콩밭]

21. (가)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까투리가 언어유희로 ‘황천부사’라는 엉뚱한 관직명을 지어내어 장끼를 조롱한 것으로서, 장끼의 어리석음을 폭로하고 있다.
- ② ㉡: 먹을 것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장끼의 모습을 보여 주는 말로서, 고집을 부리는 인물의 미련스러움이 폭로되고 있다.
- ③ ㉡: 장끼가 꼼짝없이 ‘고패’에 치이고 마는 모습을 고사를 인용하여 희화화한 것으로서, 부정적 인물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비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④ ㉡: 영식을 부추겼던 아내가 상황에 따라 말을 뒤집어 오히려 그를 비아냥거린 것으로서, 인물이 지닌 이성과 실제 욕구 사이의 부조화를 드러내 독자에게 온정적인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 ⑤ ㉡: 영식 부부 사이가 험악해지는 상황에서 수재가 재치 있게 한 말로서, 영식 부부보다 윤리적 우위에 서서 갈등을 화해로 전환시키며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22. (나)와 (다)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서 ‘까투리’의 만류를 무시하며 고집을 꺾지 않다가 고평에 치여 죽게 되는 ‘장끼’는, 상부 짚은 ‘까투리’의 가문을 탓하는 가부장적 권위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나)에서 낭군을 잃었을 때마다 개가하는 ‘까투리’는, 수절이라는 봉건적인 윤리에 얽매이지 않는 여성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다)에서 일확천금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영식’은, 소작인으로서 농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무모한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다)에서 금줄을 찾지 못한 ‘수재’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달아날 결심을 하는 무책임한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나)의 ‘까투리’와 (다)의 ‘아내’는 모두 봉건적인 가부장의 권위에 도전하며 소신을 내세워 위기를 극복하려는 진취적인 의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애먼 밭’만 망치고 ‘논’도 건사하지 못한 영식의 상황은 가을걷이의 기쁨을 느끼는 농민들과 대비되는 것으로, 농사를 포기한 농민에게 닥칠 생계의 위기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군.
- ② ‘동리 사람의 이목’을 회피하는 아내의 행동은 싸움이나 벌이는 영식과 수재에 대한 수치심을 나타낸 것으로, 황금 탐사에 나선 이들의 행태에 대한 순박한 농민들의 비판적인 시선을 대변하는군.
- ③ ‘빚’ 걱정을 하는 아내의 처지는 황금 탐사 실패의 부담을 떠안게 된 농민의 현실에서 기인한 것으로, 농민의 몰락이 가속화되는 식민지 농촌의 현실을 보여 주는군.
- ④ 아내의 ‘허구리’를 지르는 영식의 폭력은 바람이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욕망이 좌절되면서 인간성이 황폐화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⑤ 수재의 ‘거짓말’에 ‘고래등 같은 집’을 연상하는 아내의 모습은 금에 대한 유혹을 버리지 못하는 것으로, 당면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헛된 기대를 갖게 하는 황금 열풍의 모순을 보여 주는군.

23. [A]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별한 낭군들의 사연을 차례로 열거하며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살린 표현으로 홀로 남게 된 처지를 한탄하고 있다.
- ③ 자책감을 영탄적인 표현으로 토로하며 절박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부부의 처지가 모진 운명 탓인지를 묻는 의문문을 열거하여 절박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계절이 돌아오면 다시 피는 꽃과 유한한 낭군의 목숨을 대비하며 사별의 슬픔을 부각하고 있다.

[25~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영화 예술은 사회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을 영화에 담 아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전후(戰後)에 등장한 영화들은 공통적으로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윤리적 고민에 기반을 두고 나타난 대표적인 사조로는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과 미국의 뉴 할리우드 시네마가 있다. 이 두 사조는 전후 현실의 암담함과 거기서 나타난 비윤리성에 대한 고민을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나 타내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네오리얼리즘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사실주의’를 추구했던 이탈리아 영화의 경향이다. 네오리얼리즘의 대변인을 자임했던 차바티니는 기존의 극영화가 극적 인과 관계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면서, 영화는 사물을 꾸미지 않고 자유롭게 의미가 창조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이탈리아 영화가 상류층 여인들의 사랑을 주로 다루면서 현실과는 거리가 먼 영화를 제작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 이탈리아의 파시즘 정권은 영화 제작을 감시하며, 당국이 제작비 지원을 결정하고 시나리오 및 완성된 영화를 엄격 하게 검열했기 때문에 실업과 가난 등 현실의 문제를 다룬 영화가 등장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러한 정권 의 통제에 대한 저항과 전후의 극단적 현실이 맞물리면서 영화인들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영상에 담고자 하였다. 고통스러운 현실과 억압 속에서 인간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토로하고, 사회적 연대를 중시하는 현상이 @생겨난 것이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193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금값이 치솟으며 일제의 금 수탈 정책이 추진되었다. 금을 발견하면 소작인에게도 지주와 금을 나누지 않고 일정 기간 금을 채굴할 권리를 줄 정도로 장려되었다. 순박한 농민이라도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기 마련이었고 농토는 파헤쳐졌으며 실패의 책임은 농사를 포기한 농민에게 돌아갔다. 한편 발견된 금은 대부분 일본 은행의 금 비축고로 보내지고, 식민지의 경제적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다)는 식민지 농촌에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인간성마저 황폐해지는 현실을 묘사하고, 이러한 몰락을 조장하는 비정상적 황금 열풍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

사실성을 살린 영화를 위해 네오리얼리즘 영화는 스토리의 진행에서 기승전결의 방식을 기피하고, 전후 의 출구 없는 사회 현실을 반영하듯 파편적 진행과 애매한 결론을 보여 주며 사회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보여 주지 않는 방식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매끄러운 편집이 아닌 부자연스러운 편집을 지향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기 위한 현지 촬영을 선호하였으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거리의 사람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비전문 배우를 기용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이탈리아가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담아내 사회 모순을 드러내고자 했던 네오리얼리즘은 이탈리아의 치부를 드러낸다는 비판을 받으며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한편 뉴 할리우드 시네마는 196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 불거진 미국의 윤리 의식과 도덕적 가치가 흔들리는 상황에 대한 좌절과 저항 의식이 팽배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등장하였다. 뉴 할리우드 시네마는 미국적 이상을 지키지 못한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저항 의식을 영화의 핵심으로 삼아, 기성세대의 가치와 젊은 세대의 가치가 대립하던 미국의 현실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였다. 전통적인 미국식 선과 악의 개념이 담긴 기성세대의 영웅적 인물을 부정하기 위해 등장한 반영웅주의는 악과 일탈을 일삼고 있는 주인공들을 낭만적이고 인간적으로 묘사하는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살인이나 총격 장면들이 난무하는 노골적인 폭력 묘사가 두드러졌는데, 젊은 관객들이 이러한 표현 방식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뉴 할리우드 시네마는 반영웅적인 인물들의 폭력적인 장면들로 채워지곤 했다.

㉠뉴 할리우드 시네마는 동시대 미국 사회의 윤리적 가치 붕괴에 대한 비판을 담으면서도 상업적인 할리우드 영화 산업과 절묘하게 결합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였던 ㉡뉴 아메리칸 시네마가 상업적인 미국 영화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값비싼 세트와 배우들로 치장하여 허위적 신념을 관객들에게 주입하였던 ㉢올드 아메리칸 시네마를 비판하였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뉴 아메리칸 시네마가 형식적 파격을 추구하는 작가주의를 중심으로 하면서 상업성을 비판하였다면, 뉴 할리우드 시네마는 작가주의적 성격을 가졌지만 할리우드 상업주의와 결합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뉴 아메리칸 시네마가 다양한 실험적, 다큐멘터리적 수법 등의 형식적 시도를 했던 것과 달리 뉴 할리우드 시네마는 파편적인 양식, 모호한 인물 성격, 무거운 상징주의를 배격하고 선명한 서술 구조와 분명한 성격의 인물, 완결된 형식의 편집, 연기의 강한 개성, 탁월한 카메라 기법이 담긴 영화를 만들었다. 또한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와 연계하여 작업하였기 때문에 영화 관객의 다수 층인 젊은 관객, 그리고 흑인 계층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업성과의 결합은 결국 뉴 할리우드 시네마가 자신의 존재 근거가 되었던 미국의 사회적 문제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비판과 저항으로부터 출발했던 뉴 할리우드 시네마 정신의 약화를 불러오게 되었다.

25.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전쟁 이후 현실에 드러난 문제들은 영화가 윤리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② 뉴 할리우드 시네마는 상업적 성격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저항하는 동력이 약화되었다.
- ③ 차바티니는 기존 영화의 극적 인과 관계를 비판하고 자유롭게

의미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④ 파시즘 정권의 검열은 이탈리아 영화에서 한때 상류층 여인들의 사랑을 다른 영화가 주류를 이루는 데 영향을 주었다.
- ⑤ 네오리얼리즘 영화는 전후 사회 현실에 대한 고발을 통해 사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26. 다음은 '뉴 할리우드 시네마'의 특징을 담은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윗글을 참고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번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 사회 비판적 요소가 담긴 작가주의를 드러내지만 ㉠상징주의는 멀리 하고, ㉡서술 구조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해야겠어. 그뿐만 아니라 인물을 모호하게 드러내기보다는 ㉢명확한 성격의 인물들을 창조하고, 배우들에게 개성 있는 연기를 요구해야겠어. ㉣우수한 카메라 촬영 기법을 활용하면서 관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부자연스러운 편집을 사용하여 파편적인 영상을 제공함으로써 주제에 대해 다양한 측면으로 고민할 수 있는 영화를 완성해야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7.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영화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데시카의 [자전거 도둑]이라는 작품은 주제 의식과 비전문 배우의 기용, 현지 촬영 등을 통해 네오리얼리즘 영화의 특징들을 잘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음은 이 작품의 줄거리이다.

안토니오는 직업소개소 앞 길게 늘어선 줄에 참여하여 간신히 일거리를 얻고, 아내는 다른 이들이 맡긴 물건들로 가득 찬 전당포에 찾아가 자전거를 살 돈을 마련한다. 어렵게 마련한 안토니오의 자전거를 어떤 남자가 훔쳐 가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만 '자전거 한 대'라는 말로 무시를 당한다. 안토니오는 어린 아들 부르노와 함께 자전거를 찾아보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훔치다가 걸리게 된다. 경찰서로 잡혀가던 안토니오는 부르노의 눈물을 본 자전거 주인의 용서를 받고 아들과 함께 빈손으로 돌아온다.

- ① 구직난을 담은 풍경과 전당포에 맡겨진 물건들을 통해 실업과 가난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겠구나.
- ② 자전거 도난에 대한 경찰의 반응을 통해 고통받는 인간과 사회의 연대가 실현된 것을 보여 주려 했겠구나.
- ③ 작품의 배역을 전문 배우가 아닌 비전문 배우에게 맡겨 사람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사실적으로 구현하려 했겠구나.
- ④ 직업소개소나 전당포 등을 세트가 아닌 현지에서 촬영하여, 객관적 시선을 통해 사회의 모순을 보여 주고자 했겠구나.
- ⑤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훔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비참한 현실 상황으로 인해 윤리 의식을 잃어 가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구나.

28.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상업성이 배제된 실험적인 작가주의 영화였다.
- ② ㉡은 ㉠과 달리 작가주의를 통해 미국 영화의 상업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었다.
- ③ ㉢은 ㉣과 달리 허위적 신념을 믿게 만들기 위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 ④ ㉣은 ㉠과 달리 미국 사회의 윤리적 가치가 붕괴된 현상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
- ⑤ ㉠~㉣은 모두 값비싼 세트와 유명 배우를 동원하는 메이저 스튜디오와 협업을 하였다.

29.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결정(決定)된
- ② 발견(發見)된
- ③ 발생(發生)된
- ④ 설립(設立)된
- ⑤ 수립(樹立)된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물외(物外)에 초흔 일이 어부(漁父) 생애(生涯) 아니라
 비 떠라 비 떠라
 어옹(漁翁)을 운디 마라 그림마다 그렸더라
 지국충(至菊兪) 지국충(至菊兪) 어스외(於思臥)
 스시(四時) 흥(興)이 흥가지나 추강(秋江)이 음듬이라 <추(秋) 1>

슈국(水國)의 ㄹ올히 드니 고기마다 술져 인다
 달 드러라 달 드러라
 만경(萬頃)의 슬꺨지 용여(容與) ㅎ자*
 지국충(至菊兪) 지국충(至菊兪) 어스외(於思臥)
 인간(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추(秋) 2>

웃 우희 서리 오되 치운 줄을 모를로다
 달 디여라 달 디여라
 도선(釣船)이 좁다 ㅎ나 부세(浮世)와 얻더 ㅎ니
 지국충(至菊兪) 지국충(至菊兪) 어스외(於思臥)
 ㉠ ㄴ일도 이리 ㅎ고 모뢰도 이리 ㅎ자 <추(秋) 9>

송간 석실(松間石室)의 가 효월(曉月)*을 보자 ㅎ니
 비 브더라 비 브더라
 ㉡ 공산 낙엽(空山落葉)의 길홀 엇디 아라불고
 지국충(至菊兪) 지국충(至菊兪) 어스외(於思臥)
 백운(白雲)이 좃차오니 녀라의(女蘿衣)* ㅎ꺨고야 <추(秋) 10>

구름 거든 후의 힘빈치 두텁거다
 비 떠라 비 떠라
 텃디 폐식(天地閉塞)호되 바다흔 의구(依舊) ㅎ다*
 지국충(至菊兪) 지국충(至菊兪) 어스외(於思臥)
 ㉢ ㄹ업슨 ㅎ꺨결이 ㅎ꺨편 ㅎ호여 ㅎ다 <동(冬) 1>

간밤의 눈 ㅎ 후(後)에 경물(景物)이 달랠고야
 이어라 이어라
 압희는 만경류리(萬頃琉璃)* 뒤희는 천첩옥산(千疊玉山)*
 지국충(至菊兪) 지국충(至菊兪) 어스외(於思臥)
 선계(仙界)ㄴ가 불계(佛界)ㄴ가 인간(人間)이 아니로다 <동(冬) 4>

㉣ ㅎ꺨의 외로운 솔 혼자 어이 식식 ㅎ고
 비 미여라 비 미여라
 머흔 구름 ㅎ(恨)티 마라 세상(世上)을 ㅎ리온다
 지국충(至菊兪) 지국충(至菊兪) 어스외(於思臥)
 파랑성(波浪聲)*을 음(厭)티 마라 단훤(塵喧)*을 막는도다 <동(冬) 8>

어와 저머러 간다 연식(宴息)*이 말당토다
 비 붓더라 비 붓더라
 ㉣ ㅎ는 눈 ㅎ꺨린 길 ㅎ꺨근 곳 ㅎ호터 ㅎ니 ㅎ꺨치며 ㅎ러가셔
 지국충(至菊兪) 지국충(至菊兪) 어스외(於思臥)
 설월(雪月)이 서봉(西峯)의 녀도록 송창(松窓)을 비겨 ㅎ자 <동(冬) 10>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용여(容與): 한가하고 평회롭게 지내다. *효월: 새벽달.
 *녀라의: 은자의 옷. *의구(依舊): 옛날과 같다.
 *만경류리: 유리처럼 번반하고 아름다운 바다. *천첩옥산: 수없이 겹쳐 있는 아름다운 산.
 *파랑성: 물결이 일렁이는 소리. *단훤: 세속의 시끄러운 소리.
 *연식: 편안히 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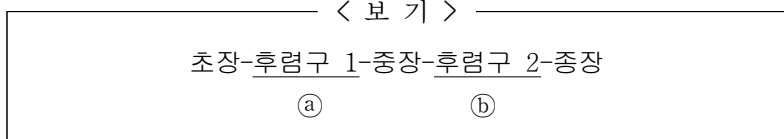
30. <추 2>와 <동 4>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추 2>는 떠나온 이들에 대한 그리움을, <동 4>는 이상향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추 2>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을, <동 4>는 현실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추 2>는 속세에 대한 거부감을, <동 4>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탄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추 2>는 자연의 포용력에 대한 깨달음을, <동 4>는 낯선 곳에서의 고립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추 2>는 자연의 풍요에 대한 감사를, <동 4>는 각박한 인간 세상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3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현재의 즐거움을 오랫동안 누리려는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② ㉡: 낙엽이 만들어 낸 가을 경치에 대한 경외감이 표출되고 있다.
- ③ ㉢: 끝없이 펼쳐진 물결의 모습을 비유를 활용해 나타내고 있다.
- ④ ㉣: 홀로 서 있는 소나무의 모습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고 있다.
- ⑤ ㉣: 흥겨움을 자아내는 경치를 색채의 대비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32. 윗글의 각 연은 <보기>의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시간의 흐름과 연관되나, ㉡는 시간과 관계없이 반복되고 있다.
- ② ㉠로 배의 이동 과정을 드러내고, ㉡로 노 젓는 소리를 묘사하고 있다.
- ③ ㉠에는 심리적 갈등의 심화가, ㉡에는 심리적 갈등의 해소가 반영되어 있다.
- ④ ㉠과 ㉡는 배의 움직임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 ⑤ ㉠과 ㉡의 삽입으로 각 연이 평시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33. 다음의 내용과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부사시사]는 속세를 떠나 자연을 즐기는 어부의 삶을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으로, 작가인 윤선도는 이 작품이 이현보와 같은 선배 문인들이 즐기던 [어부가] 계열의 작품들을 계승한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윤선도는 기존의 [어부가] 계열 작품들을 자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네 계절을 각각 10수로 구성된 총 40수의 방대한 작품을 짓고, 이 작품의 뒤에 [어부사여음]을 덧붙여 작품에서 미처 담지 못한 마음도 드러내었다.

보기 2

(가) 이 둥에 시름업스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이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니겠거니 날 가는 줄몰 안가
 -이현보 「어부단가(漁父短歌)」 제1수

(나) 강산(江山)이 도타 흔들 내 분(分)으로 누엇느냐
 님군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므리 갑고자 학야도 희을 일이 업세라
 -윤선도 「어부사여음(漁父詞餘音)」

- ① (가)와 윗글에는 모두 어부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 ② (가)와 윗글의 어부는 생업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 ③ (가)와 윗글에 등장하는 배는 화려하지 않고 소박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 ④ (나)를 통해 윗글의 작가가 사대부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았음을 환기하고 있다.
- ⑤ (나)는 윗글의 작가가 임금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음을 다른 이에게 과시하고 있다.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인간의 장기 가운데 폐는 탄성력이 있어 부피가 ①늘어났다가 바로 복원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폐가 쉽게 늘어날 수 있는 정도를 신전성(compliance)이라고 하는데, 폐의 신전성이 크면 클수록 폐가 잘 늘어나기 때문에 일정량의 공기가 들어오는데 필요한, 호흡근이 소비하는 에너지양은 감소하게 된다. 폐의 신전성은 폐에서의 표면 장력과도 관련이 있다. 표면 장력은 액체의 표면이 스스로 수축하여 가능한 한 작은 면적을 취하려는 힘으로, 액체의 표면을 이루는 분자층에 의하여 생긴다. 폐포* 내 표면은 얇은 액체층으로 싸여 있으며 이 액체층은 표면 장력을 가진다. 우리가 숨을 ②들이마셔 폐가 팽창될 때에는 표면 장력을 가진 액체층도 팽창된다. 표면 장력은 액체 성분에 따라 다르고, 표면 장력이 클수록 액체가 퍼져 나가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만약 액체층의 표면 장력이 커진다면, 동일한 크기의 에너지로 팽창시킬 수 있는 정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폐의 신전성은 감소하게 된다.

그렇다면 표면 장력이 폐의 신전성을 감소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폐포 자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여지는 없을까? 폐포 내 액체층의 물 분자 사이에 있는 수소 결합은 서로를 ③끌어당겨 동그란 물방울을 형성하려고 하는데, 이 작용으로 인해 폐포 벽이 안쪽으로 당겨져 폐포가 오그라드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④하지만 그렇게 폐포 자체가 붕괴되는 일은 다행히도 일어나지 않는다. 폐포가 붕괴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눗방울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하면 된다. 비눗방울 표면은 물을 포함

하고 있기 때문에 표면 장력이 작용하여 비눗방울 표면을 안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한다. 그러나 비눗방울이 오그라들려고 하면 비눗방울 내에 들어 있는 공기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어 비눗방울이 붕괴되려는 것의 반대 방향으로 압력이 작용한다. 즉, 팽창하려는 공기압이 존재하는 한, 비눗방울은 안정 상태의 부피가 유지된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폐가 팽창하거나 수축하지 않을 때, 폐포의 부피는 안정 상태가 유지된다.

폐포 벽에 위치한 ㉠II형 폐포 세포는 계면 활성제를 분비하는데, 이 역시 신전성과 관련 있다. II형 폐포 세포에서 분비된 계면 활성제는 물 분자 사이에 있는 수소 결합을 방해하는데, 이로 인해 폐포 내를 둘러싼 액체의 표면 장력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이 계면 활성제 덕분에 표면 장력에 의해 감소했던 신전성이 증가하고 호흡에 필요한, 호흡근이 소비하는 에너지량은 감소하게 된다.

폐포를 구형이라고 가정한다면 폐포의 붕괴를 막는 데 필요한 공기압은 표면 장력에 정비례하고 폐포의 직경에 반비례하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는 크고, 하나는 조금 작은 두 개의 폐포가 같은 표면 장력의 영향을 받으면, 작은 폐포는 안쪽에서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큰 압력이 필요해진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설 때의 마지막 시점에서 공기압은 모든 폐포 내에서 균일하다. 하지만 폐포들은 항상 같은 크기가 아니다. 만약 폐포에 계면 활성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큰 폐포의 붕괴만 막아 줄 수 있는 정도의 공기압일 경우, 작은 폐포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그러므로 두 개의 폐포가 맨 처음에 같은 압력에 놓이게 된다면, 작은 폐포는 오그라들어 내부의 공기압이 증가할 것이며 큰 폐포의 공기압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공기압의 차이에 따라 작은 폐포에서 큰 폐포 쪽으로 공기가 흘러가게 된다. 하지만 실제 폐에는 계면 활성제가 있고, 작은 폐포 내에는 큰 폐포보다 더 높은 농도의 계면 활성제가 있다. 이 결과, 작은 폐포의 표면 장력은 큰 폐포의 표면 장력보다 작아서 작은 폐포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공기압을 감소시킨다. 그리하여 작은 폐포와 큰 폐포는 모두 안정 상태의 부피가 유지되는 것이다.

*폐포: 허파 과리. 허파로 들어간 기관지의 끝에 포도송이처럼 달려 있는 자루로, 호흡할 때에 가스를 교환하는 작용을 한다.

3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우리가 숨을 들이마셔 폐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폐가 팽창되며 표면 장력을 가진 액체층도 함께 팽창된다.
- ② 폐포를 구형이라고 가정한다면 폐포의 붕괴를 막는 데 필요한 공기압은 표면 장력과 폐포의 직경에 반비례한다.
- ③ 표면 장력은 액체의 표면을 이루는 분자층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폐가 쉽게 늘어날 수 있는 정도와도 관련이 있다.
- ④ 폐포 내 계면 활성제는 물 분자 사이에 있는 수소 결합을 방해하여 폐포 내를 둘러싼 액체의 표면 장력을 감소시킨다.
- ⑤ 폐의 신전성이 크면 클수록 폐 속으로 일정량의 공기가 들어오게 하는데 필요한, 호흡근이 소비하는 에너지량은 감소한다.

35. [A]를 바탕으로 할 때,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폐포 벽에 위치한 II형 폐포 세포가 계면 활성제를 흡수하므로
- ② 표면 장력에 의해 폐포의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발생하므로
- ③ 숨을 들이쉬고 내설 때마다 폐의 신전성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므로
- ④ 폐포 내 계면 활성제가 폐포 내의 공기압을 높이는 기능을하므로
- ⑤ 폐포 내 공기압이 폐포를 붕괴시킬 수 있는 힘과 균형을 이루므로

36. 윗글을 근거로 할 때, <보기>의 (가)와 (나)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가)와 (나)의 폐포는 모두 구형으로, (가)와 (나) 모두 숨을 들이마시고 내설 때의 마지막 시점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가)는 폐포 2의 붕괴만을 막아 줄 수 있는 정도의 공기압을 가진 경우로 본다. 또한 (나)는 (가)와 달리 폐포 1, 2의 내에 계면 활성제가 정상적으로 분비되어 존재하는 상태이다.

- ① (가)의 경우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면 '폐포 1'은 결국 찢어지며 '폐포 1' 내의 공기가 '폐포 2'로 흘러가게 되겠군.
- ② (가)의 경우 '폐포 1'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공기압은 '폐포 2'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공기압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나)의 경우 계면 활성제가 '폐포 1'의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공기압을 증가시켰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나)의 경우 '폐포 1'에서 작용하는 표면 장력보다 '폐포 2'에서 작용하는 표면 장력이 크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나)의 경우 '폐포 1'이 붕괴되지 않는 것은 '폐포 1' 내에 '폐포 2' 내보다 더 높은 농도의 계면 활성제가 존재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겠군.

37. ㉠에 대한 설명을 근거로 할 때, <보기>의 ㉡,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갑’은 II형 폐포 세포에 문제가 생겨 계면 활성제 분비가 정상 수치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이 처럼 계면 활성제의 분비가 감소하게 되면 폐의 신전성이 (㉡)되어 호흡근이 일정 용적(容積) 까지 폐를 (㉢)시키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된다.

- | | |
|------|----|
| ㉡ | ㉢ |
| ① 증가 | 팽창 |
| ② 증가 | 수축 |
| ③ 감소 | 팽창 |
| ④ 감소 | 수축 |
| ⑤ 유지 | 수축 |

38. ㉠~㉣를 <보기>의 기준에 따라 바르게 구분한 것은?

< 보 기 >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되는데, 어근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통사적 합성어’와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방식과 다른 ‘비통사적 합성어’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이 결합한 ‘접어들다’는 통사적 합성어이고, 두 개의 용언 어간끼리 결합한 ‘오르내리다’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전자의 경우 후자의 경우와 달리 연결 어미가 실현되어 있다.

- | | |
|-----------|----------|
| 통사적 합성어 | 비통사적 합성어 |
| ① a, c | b, d |
| ② a, d | b, c |
| ③ b, c | a, d |
| ④ a, b, c | d |
| ⑤ b, c, d | a |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맹 진사: 내 사위가..... 그게 정말루 사실입니까?
김명정: 허, 여기꺼정 소문이 터졌군요. 그럼 아니 뎨 굴뚝에서 연기 날 턱이 있겠어요.
맹 진사: 그럼 좌우간에 어느 편 다리요. 여보슈, 어느 다리가 그 꼴인가유?
김명정: 혼인날을 눈앞에 바라보시면서 너무 황황하십니다그려. 헛헛..... (퇴장)

맹 진사: (완전히 울상을 하고) 그럼 꿈두 아니구 농담 역시 사실이란 말이구려. 아 — 여보슈. 도라지골 양반. (급히 사랑으로 쫓아 퇴장)

갑분이 발을 구르며 안에서 나온다. 한 씨와 입분이 쫓아 등장

갑분: ㉠몰라..... 몰라..... 다 듣기 싫여!
한 씨 : 에그 딱두 해라. 여기 좀 올라온. 네가 펄펄 뛰는 심정이야 이 어민들 왜 모르겠니마는 그렇다구 양반끼리 굳게 작정한 노릇인데 어쩌면 좋냐, 갑분 아! 네 깊이 생각 좀 해주려므나, 응?

[A]

입분: 그럼..... / **갑분:** 싫어요. 그렇게 좋거든 어머니나 가 시구려.

입분: 에그 아가씨! / **한 씨:** 원 저런 년 말버릇 좀 봤나. 옛날 어디서는.....

갑분: 옛날 어디서요? 또 구렁이 이야기구료. 구렁이허구 혼인을 해서 정경부인*까지 된 열녀가 있었다란 얘기 죠? ㉡어머님, 날 무슨 놀림감으로 아세요. 응.

한 씨: 무남독녀 귀한 너를 내가 왜? 그럴 게 아니라 글썽 혼인날을 받아 놓구 이러면 어쩌란 말이나?

갑분: 아이 듣기 싫어요. 정녕 자꾸만 우기시면 난 죽어 버릴 테야.

한 씨: 에그 요것아! 어이구 ㉢망할 놈의 신수두 다 있지. (중략)

입분: 아니에요, 이거 노세유. 자꾸만 이러시면 서방님께서 몹쓸 욕을 당하세요. 큰 낭패를 보세요, 큰일 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미연: 욕이라니? 큰 낭패를 보다니? / **입분:** 네! 난! 갑분 아가씨 아네요.....

미연: 이 무슨 이런 소리가 있소. 당신은 갑분 아가씨, 내 아내!

입분: 아니 어떡허나, 여지껏 아무것도 모르시나 봐. 서방님, 전..... 저는 천한 몸종이에유. 갑분 아가씨의 몸시중 드는 몸이에유..... ㉣아이 무서워. 하늘이 무서워요. 그렇지만 어쩌는 수가 없어서 나쁜 줄 알면서도 이 댁 나리마님께서 하도 조르시길래 죽는 심만 치고 제가 갑분 아가씨 노릇을 하였든 거예유.

미연: (빙그레 웃는다.) 그래요?

입분: (드디어 울어 버리며) 서방님, 용서해 주세요. 실상은 갑분 아가씨가 서방님을 절룩발이 신랑이라구 — 죽어도 싫다고 그래서 어쩌는 수 없이 금방 신랑이 드신다 하는데 신부는 없고 미천한 몸이 아가씨 대신 신부로 뽐혔든 거예요. 저는 가짜예유. / **미연:** 음.....

입분: 그리고 저도 서방님께서 절룩발인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여태 장가도 못 드시고 아무도 시집와 주는 색시도 없는 쓸쓸한 양반이시라..... 이렇게만 알았어유. 그랬더니만 이제는 왜 서방님께서 절룩발이가 못 되었을까, 차라리 몸쓸 다리병신으로 세상에 모든 색시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외로운 서방님이었으면 좋았겠어요. 지금은 그게 도리어 이 몸에게 견딜 수 없이 원망스러워요, 서방님..... 서방님께서 그 몸쓸 속인 사람들 중에 하나인 저를 용서하세요. (운다.)

미연: 허—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은 오히려 나라고. / **입분:** 네?

미연: 나두 다 알고 있었으니까 말이오. 내가 왜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시오.

입분: 아니 서방님.....

미연: (입분의 손목을 지그시 잡으며) 놀라지 마시오. 이번 일을 이렇게 꾸민 사람도 실상은 나왔소. 내가 그같이 꾸렸든 것이오. 내 명정 숙부로 하여금 내가 절룩발이라고 헛소문을 내게 한 것도 기실은 나왔소.

입분: 네? / **미연:** 그 정도가 지나쳐서 그대를 이렇게까지 괴롭힐 줄은 몰랐소.

입분: 서방님..... 무슨 연유로 그런.....

미연: 그 연유는? 아가씨는 터득지 못하겠소? 내가 무엇을 구해서 그런 장난을 했으며 무엇을 찾아서 그런 일을 꾸렸는지 짐작하지 못하겠소? / **입분:** 잘 모르겠어요 —

미연:사람의 마음, 더욱이 여자의 마음, 그 마음의 참된 무게와 깊이가 알고 싶었던 것이오. 병신이라든가 거지라든가 돈이 있다든가 없다든가 이것은 모두가 겉치레뿐이오. 이러한 부자나 영화에 취한 사람들하구도 사귀어 볼대로 사귀어 봤구, 그 마음씨의 천박함에는 진절머리가 나도록 겪은 나요. 내가 참으로 찾든 마음씨는 당신과 같은 참된 사람이요. 어떤 불평이라도 어떤 괴로움이라도 어떤 불안이라도 박차고 이겨 나갈 만한 깨끗한 마음씨, 깨끗한 진실이 당신에게 있는 것을 나도 숙부를 통해서 잘 알았소. 당신이야말로 내가 찾던 아내요, 내가 구하던 배필이요. 이제야 참된 사람에게 내 손길이 스치어 보는 것같이 그윽한 행복을 느끼는 바요.

입분: 서방님 — @그러나 저는 역시.....

미연: 아니오, 이제는 그대는 종도 아니오. 아가씨도 아닌 내 아내요. 진실과 순정, 순정의 굳세고 아름다움..... 나는 그것을 믿어 한껏 기쁨 따름이오.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도 높고 향기롭고 값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만이 기쁘고 즐거울 따름이오. 알겠소?

입분: 네 — 서방님 — (안긴다. 서로 쳐다본다.)
— 오영진, [맹 진사 맥 경사]

***정경부인(貞敬夫人):** 조선 시대에, 정일품·종일품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봉작.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라지골 양반은 김명정의 뜻에 따라 맹 진사에게 소문을 전하고 있다.
- ② 갑분은 자신이 만나 보지 못했던 사람과의 혼사를 결정했다는 이유를 들어 혼인을 거부하고 있다.

- ③ 한 씨는 갑분의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혼사가 예정한 대로 진행되기를 바란다.
- ④ 미연은 숙부의 제안을 수용하여 자신이 절름발이라는 소문을 퍼뜨린다.
- ⑤ 입분은 미연으로부터 자신이 불구라는 고백을 직접 듣고도 혼인을 승낙한다.

40. <보기>와 [A]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S# 52.
(중략)

맹 진사: 휴우 —
그만 울상이 된다.
또다시 긴 한숨과 함께 깊은 생각에 잠긴다. (F.O.)

S# 53. (F. I.) 안방 바깥
맹 진사가 불안스러이 문틈으로 방 안 형세를 살핀다.
방 안에서는 악을 쓰는 소리가 흘러나온다.

갑분의 소리: 몰라 몰라 몰라! 그렇게 좋거든 어머니가 가구려!

침통한 얼굴로 머리를 설레설레 젖는 맹 진사.
뜰에서는 입분이 조심스러이 부서진 파편을 줍는다.

S# 54. 방 안
갑분이 한 씨를 매섭게 노려보고 섰다.

한 씨: 애야, 깊이 속을 좀 쓰려으나. 옛날 어디서는.....
갑분: 듣기 싫다니까. 또 구렁이 얘기구려. 구렁이한테 시집가서 정경부인이 된 열녀 말이죠. 아이 징그러워, 날 무슨 놀림감으루 아세요.
한 씨: 아버님과 집안 체면두 좀 생각해야지 않니. 양반끼리 굳게 정한 노릇인데.
갑분: 정말 그럼 난 죽어 버릴 테야.

총알같이 밖으로 튀어 나간다.
— 오영진, [시집가는 날]

- ① [A]에서는 <보기>와 달리 대화에 개입하는 ‘입분’을 등장시켜, 두 모녀의 갈등을 해소하려고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 ② [A]에서는 <보기>와 달리 ‘맹 진사’의 퇴장과 ‘갑분’의 등장으로 장면을 구분하여, 두 사건 사이에 시간의 흐름이 개입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보기>의 S# 53에서는 [A]와 달리 화면 바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음향 효과로 활용하여, 해당 인물의 격양된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보기>의 S# 53과 S# 54에서는 [A]와 달리 안방 바깥에서 엿듣는 ‘맹 진사’의 모습과 방 안의 풍경을 차례로 보여 주어, ‘갑분’의 태도에 대한 ‘맹 진사’의 심리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⑤ <보기>의 S# 54에서는 [A]의 ‘한 씨’ 대사 순서를 바꾸고 일부를 생략했지만, 집안의 체면을 중시하는 ‘한 씨’의 가치관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이 작품은 민담 [뱀 서방] 을 소재의 원천으로 하여 이를 극화한 것이다. [뱀 서방] 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어떤 노부부가 뱀을 낳았다.
- 장성한 뱀 서방이 김 정승 댁에 청혼한다.
- 두 딸은 거부하고 셋째 딸이 자진하여 뱀 서방과 혼인하여 결연(結緣)을 이룬다.
- 뱀 서방은 허물을 벗고 잘생긴 선비로 변한다.
- 질투한 언니들의 시기심 때문에 셋째 딸은 남편과 헤어진다.
- 셋째 딸은 뱀 서방과 재회하는데, 뱀 서방은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
- 뱀 서방은 시험에 통과하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고, 셋째 딸은 시험을 통과하여 남편과 결연을 이룬다.

- ① 뱀과의 혼인을 거부하는 <보기>의 ‘언니들’과 절름발이 신랑과의 혼인을 거부하는 윗글의 ‘갑분’은 공통적으로 혼인 상대자의 결함을 결연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
- ② 뱀과의 혼인을 자처하는 <보기>의 ‘셋째 딸’과 달리, 윗글의 ‘입분’은 신분상의 위계 관계 때문에 마지못해 혼인을 감수한다.
- ③ <보기>에서 허물을 벗은 ‘뱀 서방’의 모습과 윗글에서 ‘미연’의 실제 모습은 모두 혼인의 기회를 타인에게 넘긴 인물들에게 상실감을 유발할 만한 요소로 볼 수 있다.
- ④ <보기>의 ‘뱀 서방’이 내놓은 시험과, 윗글의 ‘미연’이 퍼뜨린 헛소문은 결연 대상자의 숨겨진 자질을 확인하여 신부로서의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보기>에서 ‘뱀 서방’과 ‘셋째 딸’을 헤어지게 만들려는 존재와, 윗글에서 ‘갑분’과 ‘미연’을 헤어지게 만들려는 존재는 모두 혼인 당사자들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생각하지 못했던 정보를 접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 ② ㉡: 주위 사람들의 평가를 민감하게 의식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 ③ ㉢: 자신의 잘못으로 운수가 나쁘게 되었다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다.
- ④ ㉣: 남을 속이는 술책에 가담한 것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 ⑤ ㉤: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자신은 미연과 부부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은

구강산(九江山)
보랏빛 석산(石山)

산도화
두어 송이
송이 버는데

봄눈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 박목월, [산도화(山桃花) 1]

(나) 뒷동산 청솔잎을 빗질해 주던 바람이

무어라 무어라 하는 솔나무의 속삭임을 듣고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갔다 하자.
달려가선, 거기 미루나무에게 전하니
알았다 알았다는 듯 나무는 잎새를 흔들며
강물 위에 짙짙 구슬 알을 쏟아 냈다 하자.
그 의중 알아챈 바람이 이젠 그 누구보단
앞들 보리밭에서 물결치듯 김을 매다
이마의 구슬땀 씻어 올리는 여인에게 전하니,
여인이야 이윽고 아픈 허리를 곧게 펴고
눈앞 가득 일어서는 마을의 정자나무를 향해
고개를 끄덕끄덕, 무언가 일별*을 보냈다 하자.

아무려면 어쩐가, 산과 강과 들과 마을이
한 초록으로 짙어 가는 오월도 청청한 날에,
소쩍새는 또 바람결에 제 한 목청 다 실는 날에.

- 고재종, [초록 바람의 전언]

*일별: 한 번 흘깃 봄.

43.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장면을 그려 내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자연을 의인화하는 방법을 통해 시의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색채의 대비를 활용하여 대상의 변화를 구체화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명사 종결 시행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44.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기 >

박목월은 주로 간결과 응축의 원리로 시를 창작하였다. (가) 역시 평화롭고 정결한 자연의 광경을 소묘하여 여백미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음절수를 고려한 행 배열과 호흡의 변주, 시어나 시행의 반복과 변형 등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작품 이면에 숨어 있는 화자가 봄날의 풍경을 관조하고 탈속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① 1연은 시어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적 공간의 탈속적인 분위기를 부각하며 시상을 열고 있군.
- ② 2연은 '송이'를 2행과 3행에서 두 번 반복하여 마치 꽃송이가 두어 송이 피어 있는 듯한 시각적인 느낌을 주면서 여백미를 자아내고 있군.
- ③ 3연은 다른 연과 달리 시행에 따라 음절수가 점차 감소하도록 시어를 배열하여 시적 호흡에 변화를 주는 방식으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군.
- ④ 4연은 '암사슴'이 '발을 씻는' 장면을 초점화하여, 자연 속에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존재를 관조하는 화자의 연민의 시선을 떠올리게 하고 있군.
- ⑤ 1연의 '산은 / 구강산'과 4연의 '사슴은 / 암사슴'은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군.

45.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뒷동산 송나무	-	㉡ 강변 미루나무	-	㉢ 앞들 보리밭 여인	-	㉣ 마을 정자나무	-	㉤ 초록의 오월
--------------	---	--------------	---	----------------	---	--------------	---	-------------

- ① ㉠의 '앞을 빗질해 주던 바람'이 '푸른 햇살 요동치는 강변으로 달려'가는 모습에서, 시적 공간이 자아내는 생동감을 느낄 수 있군.
- ② ㉠의 '무어라 무어라' 하는 말에 ㉡이 '알았다 알았다'며 '짚랑 짚랑 구슬 알'을 쏟아 내는 모습에서, 만물이 조음을 이루고 있는 시적 공간의 특성을 떠올릴 수 있군.
- ③ ㉢의 '구슬땀'은 '물결치듯 김을 매'는 건강한 노동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앞들 보리밭'이 봄의 생명력이 충만한 생활의 터전임을 떠올리게 하는군.
- ④ ㉣에 '여인'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보내는 '일별'은 고단한 노동에 기인한 것으로서, 안식의 공간을 찾아가고 싶다는 인물의 바람을 떠올리게 하는군.
- ⑤ ㉤의 시각적 심상은 '목청'의 청각적 심상과 결합함으로써, 바람의 심상을 통해 그려지는 봄날의 정경을 재차 떠올리게 하면서 여운을 자아내고 있군.

[1~3] 다음은 답사 보고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저는 이번에 문학 기행을 기획하며 최명희 문학관과 혼불 문학관에 다녀왔습니다. 최명희 작가에 대해서는 들어 보셨나요? (반응을 살핀 후) 네, 많이들 들어 보셨군요. ‘혼불’을 읽어 보신 분은 얼마나 계실까요? 언뜻 보니 절반 정도는 읽어 보신 것 같네요. 그럼 두 문학관의 위치와 공통점 혹은 차이점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대답을 들은 후) 많이 안 계시는군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문학 기행을 계획하며 처음에는 최명희 문학관과 혼불 문학관이 같은 곳에 위치한 동일한 문학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사를 하며 두 문학관이 각각 전주와 남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 비교해 보고자 두 문학관을 방문했습니다. 두 문학관을 방문해 보니 최명희 문학관은 작품보다 작가 최명희를 중심으로, 혼불 문학관은 ‘혼불’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명희 문학관은 전북 전주시 한옥 마을에, 혼불 문학관은 전북 남원시 노봉 마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 주며) 이것이 두 문학관의 위치와 문학관 주변을 소개한 지도입니다. 먼저 전주에 위치한 최명희 문학관의 독락재라는 전시실에서는 최명희 선생님이 필사한 여러 노트와 선생님의 연보 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협소한 전시장으로 보였지만 하나하나 자세히 둘러보며 머물다 보니 사람들로 북적이는 한옥 마을과는 달리 마음의 여유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것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에 익숙한 현대 사회에서 천천히 생각하고 기다림의 자세를 지닐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 좋았습니다. ‘1년 뒤에 받는 나에게 쓰는 편지’는 1년 뒤의 나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였고, ‘전주발, 엮서 한 장’을 쓰며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리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여유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체만큼이나 뛰어난 서체를 자랑하던 작가 최명희의 글을 화선지에 펜을 이용해서 직접 따라 써 보는 ‘서체 따라 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도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남원에 위치한 혼불 문학관은 최명희 문학관처럼 도시형 문학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학관이 위치한 노봉 마을은 소설 ‘혼불’의 배경지인 매안 마을로서 종가, 노봉 서원, 청호 저수지 등 마을 주변이 소설 속에 그대로 살아 있고 실제로 최명희 작가의 선조들이 500년 동안 살아온 곳이라고 합니다. 최명희 선생님이 직접 작성하신 원고와 각종 자료들, 최명희 선생님의 집필실을 재현해 놓은 곳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혼불’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장면들을 재현해 놓은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아기가 하지만 섬세하게 제작해 놓은 모형을 보며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작품 속 장면과 비교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혼불 문학관을 방문하는 동안에는 ‘혼불’ 작품의 배경이 되었던 장소에 직접 가 볼 수 있어 마을 전체가 문학관이자 작품인 양 느껴졌습니다.

최명희 문학관과 혼불 문학관 모두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라 문학 기행 계획 시 참고해야 하며 개관 시간은 두 문학관이 다르기에 반드시 각 문학관의 누리집이나 전화로 확인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검색창에 두 문학관을 입력하시면 누리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혼불 문학관의 경우 하절기와 동절기의 운영 시간도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문학관 모두 주변에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으며 최명희 선생님의 작품을 읽고 갈 경우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으니 반드시 문학 작품을 읽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보고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관용구를 사용하여 두 문학관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② 이동 거리와 교통편을 참고하여 답사지의 추천 경로를 안내하고 있다.
- ③ 질문을 통해 작가와 작품, 답사지에 대한 청중의 이해 정도를 점검하고 있다.
- ④ 답사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답사 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 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2. 다음은 답사 보고 전 학생들이 내놓은 의견이다. 답사 보고에 반영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두 문학관을 더욱 의미 있게 다녀올 수 있도록 답사 보고의 마지막에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을 넣어야겠어.
- ② 답사지에서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느낀 감정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어.
- ③ 두 문학관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성격을 띠고 있으니 두 문학관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우면 어떨까?
- ④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학 기행 관련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흥미도가 높은 곳을 답사지로 선정하게 되었음을 밝혀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좋겠어.
- ⑤ 자칫하면 학생들이 계획한 날짜에 문학관을 방문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학생들이 문학기행 계획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해 주는 것이 좋겠어.

3. 답사 보고를 들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두 문학관의 위치를 소개해 주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
- ② 혼불 문학관의 체험 프로그램 유무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었다 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 ③ 두 문학관의 전시 내용 중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는지 질문하고 싶었어.
- ④ 두 문학관이 위치한 지역의 다른 문학관들도 안내해 주어 문학 기행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었어.
- ⑤ 문학관을 방문한 날짜를 비롯하여 이동 방법과 시간, 각각의 문학관에서 머문 시간 등을 알려 주었다 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4~7] (가)는 학교 신문에 '맛집 주인에게 듣는 성공의 비법'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한 인터뷰의 일부이고, (나)는 이를 토대로 '학생 1'이 작성한 기사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식당 주인: 처음부터 식당이 잘됐는지 물으셨는데, 처음부터 잘될 리가 있겠습니까. 처음 식당을 개업했을 때는 파리 날리는 정도가 아니라 파리조차도 없을 정도였지요.

학생 1: ㉠그렇게 장사가 안되었을 때, 손님을 모으기 위해 사용한 방법들은 없으셨나요?

식당 주인: 왜 없었겠습니까? 아는 사람들 다 동원해서 식당을 채워서 북적거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거리에서 갈비를 구워서 시식 행사를 해 보기도 했지요. 그런 방법은 잠깐의 효과는 있었지만 들인 돈을 생각하면 손해가 더 컸지요.

학생 2: ㉡그렇게 했는데 손해를 보셨다고요? 그 방법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식당 주인: 그 방법들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그때 우리 식당의 장점이 딱히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식당이 망해서 장사를 그만두고 말았지요.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아무 일이나 닦치는 대로 해야 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네요.

학생 1: 그런 아픔이 있으셨군요. 지금까지 실패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러면 ㉢OO식당이 성공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식당 주인: 아, 좀 쓸데없는 이야기가 많았네요. 식당 망하고 난 후에 막일을 하면서 틈틈이 장사가 잘된다고 소문난 집들을 찾아다녔지요. 직접 먹어 보고, 흠에 앉아서 하루 종일 관찰하기도 했지요.

학생 2: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식당 주인: 손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했지요. 여러 식당 중에 그 식당을 선택한 데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제가 보니까 잘되는 집들은 맛, 서비스, 가격 등에서 하나 이상의 강점이 있었어요. 저는 안면을 튼 사장님들한테 가서 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무작정 비법이 무엇인지 물었죠.

학생 1: ㉤자기 집의 비법을 말해 주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대답을 해 주시던가요?

식당 주인: 당연히 이야기를 잘 안 해 주지요. 그런데 한 분이 저한테 “매일 손님들한테 돼지 한 마리를 서비스로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다라고요. 하루에 돼지 한 마리 파는 것도 힘든데, 그걸 서비스로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더니, 세 마리, 네 마리 팔면 되지 않느냐고 하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바로 개업 준비를 시작했지요.

학생 2: 그 사장님은 박리다매 전략을 이야기하신 건가요?

식당 주인: 그렇죠. 저는 식당을 새로 개업하면서 매일 손님들에게 돼지 한 마리를 더 준다는 생각으로 가격을 낮추었습니다. 대신 몇 배를 더 팔아야 남들 이상의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 보다 몇 배의 땅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와 봤던 손님들이 다시 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도 많이 해 줘서 이만큼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학생 1: OO식당에 가 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싸고 질이 좋은 데다 친절하기까지 하다고 칭찬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식당 주인: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싸고 질이 같은 것입니다. 싸면서 질이 좋을 수는 없어요. 우리 식당이 가격은 싼데 질도 차이가 없으니까 만족도가 높아진 거겠지요.

(나)

맛집 주인에게서 듣는 성공의 비법

- ㉠맛의 비결은 주인의 땅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고기로 이름난 맛집 OO식당. 언제나 손님들로 북적대는 이 식당이 처음부터 이렇게 장사가 잘되지 않았다. 주인 장○○ 사장은 처음 개업했을 때 장사가 잘 안되자 손님을 끌기 위해 사람들을 동원해서 손님이 많아 보이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시식 행사를 하는 방법을 사용해 보았다. ㉡그런 방법들은 한 번 왔던 사람들을 다시 오지 못하게 했고, 그는 쓰라린 실패를 맛보게 되었다.

그는 식당 문을 닫고 있는 동안 손님의 입장에서 잘되는 집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는 생계를 위해 막노동을 하면서 지냈다. 그가 손님의 입장에서 찾아낸 잘되는 집의 특징은 맛, 가격, 서비스 등에서 특별한 강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잘되는 집들의 주인에게 비법을 묻고 다녔는데, 다들 잘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한 유명한 식당의 주인이 그에게 들려준 비법은 '손님에게 하루에 돼지 한 마리를 서비스로 주라'는 것이었다. ㉣그 말은 남들보다 한 마리를 더 팔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다.

그는 그 말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새롭게 식당을 시작하였다. 손님들에게 돼지 한 마리를 서비스로 줄 만큼 가격을 내렸다. 그러자 OO식당은 싸고 질 좋은 고기를 판다는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는 유명 맛집이 되었다. 모두가 싸고 질 좋은 고기를 먹었다고 칭찬하지만, 그는 싸면서도 질이 같은 고기를 사용한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다. 손님들은 가격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더 질 좋은 고기를 먹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는 싸게 파는 대신 이윤을 덜 남기기 때문에 더 많이 일을 하고 있다.

[A]

4. (가)에 나타난 인터뷰 참여자들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학생 1'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근거로 들어 상대방을 칭찬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질문을 통해 자신이 이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③ '식당 주인'은 관련된 일화를 소개하며 물음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
- ④ '식당 주인'은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 바로잡고 말을 이어가고 있다.
- ⑤ '식당 주인'은 명언을 인용하며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5. <보기>는 인터뷰 전에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생 1: 내일 인터뷰할 때 필요한 질문 내용과 녹음기는 준비됐어. 혹시 뭐 빠진 건 없니?
 학생 2: 음, 정해진 질문만 하고 그에 대한 답을 듣기만 하는 건 아니니까 진행 방법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을 해 보자.
 학생 1: 그래. 일단 질문지에 없어도 인터뷰를 하다가 ㉡의 문점이 있으면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지? ㉣어떤 일을 할 때의 의도나 속마음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
 학생 2: 맞아.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성공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인터뷰의 핵심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핵심 질문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 ① ㉠과 ㉢은 ㉡가 실현된 것이다.
- ② ㉢은 ㉡와 ㉣가 실현된 것이다.
- ③ ㉢은 ㉣가 실현된 것이다.
- ④ ㉢은 ㉡가 실현된 것이다.
- ⑤ ㉢은 ㉣가 실현된 것이다.

6. (나)의 ㉠~㉥을 고쳐 쓰고자 할 때, 이유와 수정 방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유	수정방안	
㉠	글의 내용과 맞지 않음.	'맛의 비결'을 '성공의 비결'로 수정	... ①
㉡	식당 주인이 사용한 방법이 손님들을 다시 오지 못하게 한 방법은 아님.	'다시 오지 못하게 했고'를 '다시 오게 하지 못했고'로 수정	... ②
㉢	주제와 맞지 않고, 앞뒤 문장과의 연결이 어색함.	삭제	... ③
㉣	박리다매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음.	'한 마리를 더 팔기 위해'를 '이윤을 적게 남기는 대신 더 많이 팔기 위해'로 수정	... ④
㉤	이윤을 덜 남기는 것과 더 많이 일하는 것의 인과 관계가 맞지 않음.	'이윤을 덜 남기기 때문에'를 '이윤을 덜 남기기 위해'로 수정	... ⑤

7. <보기>는 '학생 2'의 상호 평가 의견이다. 의견에 따라 [A] 부분에 추가할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생 2: 글의 마지막에 제목에서 이야기한 '성공의 비법'을 강조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식당이 사람들의 선택을 받은 이유와 그 이면에 있는 식당 주인의 노력을 이야기하면 좋겠지. 그리고 식당 주인의 성공이 학생 독자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

- ① OO식당이 맛집으로 이름난 데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좋은 것이 있으면 공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경쟁력이 있는 것은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드러나게 마련이다.
- ② OO식당은 현재 가격은 싸지만 만족도가 높아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 장 사장은 아는 것이 힘이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의 성공의 비법은 항상 낮은 자세로 남들에게 배우는 데 있다.
- ③ 사람들이 OO식당을 찾는 이유는 싸고 질 좋은 고기를 팔기 때문이다. 하루에 돼지 한마리를 더 준다는 생각으로 덤으로 손님들에게 더 주는 판매 전략이 성공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정신은 우리 학생들도 본받아야 할 것이다.
- ④ OO식당은 실패를 딛고 일어난 장 사장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장 사장은 남들이 가지 않은 외롭고 험한 길을 갔지만 결국 성공에 이르게 되었다. 것처럼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묵묵히 해 나갈 때 성공이 보장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 ⑤ OO식당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격에서 확실한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장 사장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렸던 것이 성공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을 그는 보여 준다.

[8~10] 다음은 학생이 쓴 기사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 작문 과제: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문 쓰기
- 중심 소재: 천연기념물 센터
- 예상 독자: 학급 친구들
- 글의 주제: 천연기념물 센터의 역할과 센터가 보관하고 있는 국내 최대 크기의 나무 화석 소개

(나) [기사문 초고]

천연기념물 센터의 전시관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경험하다
 수장고에 보관 중인 국내 최대 크기의 나무 화석의 가치

우리 학교 교지 편집부원들은 대전 서구 A동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센터를 방문하였다.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국내 최대 크기의 나무 화석이 천연기념물 센터에 보관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와 관련된 취재를 하기 위해서였다. 취재와 관련하여 취지와 목적 등을 설명하였고 사전 승인을 얻은 후에 센터를 방문하였다.

천연기념물 센터는 자연 유산인 천연기념물과 명승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와 전시·교육을 통해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 연구 기관이다. 전시관에서는 자연 유산에 대한 연구 결과물인 공룡알·공룡 발자국 등의 화석, 반달가슴곰, 수달, 독수리 등의 동물 박제 표본, 존도리 소나무 등의 식물 표본 등을 전시하여 전문 연구자와 청소년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체험학습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전시관은 우리 마을, 숲속, 습지·들판·강·바다, 지질, 독도, 제주도, 명승·천연 보호 구역의 7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체험 코너도 있어서 직접 동물 표본을 만져 보는 체험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는 전시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전시관을 둘러볼 수는 없었다. 한편 천연기념물 센터의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했을 경우는 천연기념물 관람 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책임을 지고 변상해야 하므로 전시실을 둘러볼 때는 이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 또한 전시관 전문 안내 봉사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현재 전시관 공사로 인해서 당분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고 하셨다.

뉴스에 보도된 나무 화석은 몇 년간의 보존 처리 작업을 거쳐서 천연기념물 센터의 1층 개방형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국내 최대 크기의 나무 화석이고 온전한 형태로 남아 있어서 연구 가치가 매우 높다고 설명해 주셨다. 이 나무 화석은 당분간 수장고에 보관되며 아직 공식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하셨다.

[A]

8. <보기 1>은 기사문을 쓰기 전에 참고한 뉴스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취재를 위한 질문 목록을 <보기 2>와 같이 만들었다고 했을 때, ㉠~㉥ 중 위 기사문 초고에 반영된 내용은?

— < 보 기 1 > —

자연 유산인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조사·연구하는 대전 국립 문화재 연구소 천연기념물 센터 개방형 수장고에 길이가 10.1m에 이르는 나무 화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국립 문화재 연구소 학예 연구관은 B뉴스에 지난 24일 “2009년 경북 포항시 동해면 금광리 도로 공사 현장에서 C대 교수팀이 발견한 나무 화석을 2011년 대전으로 가져왔다.”며 “국내 최대 크기의 나무 화석으로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D학예 연구관은 “이 화석은 1,800만 년 전에 살던 나무가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알 수 없는 이유로 나무가 쓰러진 뒤 압력을 받아 눌린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무 화석은 규소가 침투해 나무 형태와 구조가 그대로 굳은 규화목과 높은 온도와 압력을 받고 탄소가 집적돼 검게 변한 탄화목으로 나뉘는데, 석탄 형성과 관련 있는 지층인 함탄층에서 찾은 포항 출토 화석은 탄화목입니다. 이 화석은 뿌리를 제외한 줄기 일부가 보존됐으며, 웅이와 나뭇결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폭은 80~120cm입니다.

D학예 연구관은 “이렇게 거대한 나무 화석이 온전한 형태로 나온 사례가 국내에는 거의 없다.”며 “살아 있는 나무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다.”라고 강조하면서 연구가치를 설명했습니다. D학예 연구관은 수중에 대해 “소나무과나 측백나무과로 보이지만, 정확한 결론을 내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 A뉴스, 2018. 4. 28.

— < 보 기 2 > —

*나무 화석의 보존 상태가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천연기념물 센터의 개방형 수장고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 ㉡
 *국내 최대 크기의 나무 화석을 운반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나요? ㉢
 *뉴스에 보도된 나무 화석이 연구 가치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국내 최대 크기의 나무 화석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① ㉠ ② ㉡ ③ ㉢
 ④ ㉣ ⑤ ㉤

9. <보기>의 선생님의 조언을 반영하여 [A]에 들어갈 내용을 추가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선생님: 기사문의 마지막 부분에는 취재 대상이었던 기관에 향후 기대하는 바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추가하면 좋을 것 같구나.

- ① 국내 최대 크기의 나무 화석은 문화재적인 가치가 매우 높아서 일반인들에게 상시로 공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② 천연기념물 센터는 조사·연구와 전시·교육을 통해서 천연 자연물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③ 천연기념물 센터에서 특별전과 같은 행사를 통해 국내 최대 크기의 나무 화석이 보관된 수장고를 일반인에게 공개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④ 국내 최대 크기의 나무 화석에 대한 학계의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수중에 대한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하였다.
 ⑤ 국내 최대 크기의 나무 화석을 실제로 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의 자연 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천연기념물 센터에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의 노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10. 위 기사문 초고를 수정하기 위한 점검 목록과 수정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점검 목록	수정 계획	
표제 선정이 적절한가?	기사문의 내용을 반영하여 표제를 '천연기념물들의 보고인 천연기념물 센터를 방문하다'로 수정해야겠군.	... ①
내용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시각 자료를 활용했는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에서 설명된 나무 화석의 사진 자료를 추가해야겠군.	... ②
기사문 내용 중에 순화해야 할 외래어는 없는가?	본문의 '리모델링'과 같은 외래어는 순화어인 '새 단장' 등으로 수정해야겠군.	... ③
기사문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였는가?	본문의 첫 문단의 처음에 '2019년 ○월 ○일'을 추가해야겠군.	... ④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는가?	센터를 방문한 적이 없는 독자들을 고려하여 전시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했을 시의 규정을 안내해야겠군.	... 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어의 ‘이다’는 다른 단어와 어울려 ‘연필이다’, ‘지우개이다’처럼 쓸 수 있다. 다만 앞에 오는 단어가 모음으로 끝날 때에는 ‘이것은 지우개다’처럼 ‘이’가 탈락하기도 한다. 반면 앞에 오는 단어가 자음으로 끝날 때, 즉 받침이 있을 때에는 ‘연필다’가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이’가 탈락될 수 없다. 과거를 나타내는 ‘-었-’과 함께 쓰일 때에는 ‘연필이었다’, ‘지우개이었다’처럼 쓸 수 있는데, 이때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 뒤에서는 ‘이었다’가 줄어들어 ‘였다’로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연필이었다’, ‘지우개였다’로 쓰이는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연필이었다’처럼 ‘이다’에 ‘이었-’이 줄어든 ‘였-’이 결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다’와 ‘이었다’의 ‘이-’가 중복된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필이었다’, ‘경험이 였다’, ‘생각이었다’는 모두 틀린 표기이다. ‘이에요’의 경우도 같다. ‘연필이에요’, ‘지우개이에요(→ 지우개예요)’로 쓸 수 있지만 ‘연필이에요’라고는 쓸 수 없다. (㉠)

그렇다면, ‘아니었다’와 ‘아니였다’ 중 어떤 것이 맞는 표기일까? 정답은 ‘아니었다’이다. ‘아니다’의 ‘아니’는 ‘지우개’와 같은 명사가 아니다. ‘아니다’는 그 자체로 ‘뵤다’, ‘적다’와 같은 형용사로 ‘뵤었다’, ‘적었다’로 쓰는 것처럼 ‘아니었다’로 쓰면 된다. ‘아니다’에 ‘이다’가 다시 결합하여 ‘아니였다’로 쓰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11.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와 같이 ‘경험이에요’, ‘생각이에요’도 모두 틀린 표기이다.
- ② ‘연필이에요’는 ‘연필+ 이- + 이- + -예요’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 ③ 받침이 없는 명사와 ‘이에요’가 쓰일 때만 ‘이에요’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 ④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 뒤에서는 ‘이다’의 ‘이-’가 쓰일 수 없기 때문이다.
- ⑤ 즉,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의 경우, ‘명사+이에요’로 쓰인다고 정리할 수 있다.

12. 뒷글을 바탕으로 할 때, ‘아니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아니다’는 용언으로 활용을 한다.
- ② ‘아니다’는 ‘아니 + 이다’로 분석된다.
- ③ ‘아니다’에 ‘-예요’가 결합하면 ‘아니예요’로 쓰면 된다.
- ④ ‘아니다’의 ‘아니’는 모음으로 끝나므로 ‘이-’가 탈락된 것이다.
- ⑤ ‘뵤다’, ‘뵤고’, ‘뵤어서’로 쓰는 것처럼 ‘아니다’, ‘아니고’, ‘아니여서’로 쓰면 된다.

13. (가)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가) 음운 변동의 유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 한 음운이 없어지는 탈락, 없던 음운이 새로 덧붙는 첨가, 두 음운이 합쳐져 제삼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축약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어에 따라서는 네 가지 음운 변동 중 어느 하나의 유형만 적용되기도 하고 둘 이상의 유형이 적용되기도 한다. 또한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변동이 둘 이상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나) 놀 + 는 → [논는], 앞 + 만 → [암만],
꺾 + 는 → [깁는]

- ① 교체에 속하는 음운 변동이 한 가지 적용되었다.
- ② 탈락에 속하는 음운 변동이 한 가지 적용되었다.
- ③ 교체에 속하는 음운 변동이 두 가지 적용되었다.
- ④ 탈락과 첨가에 속하는 음운 변동이 한 가지씩 적용되었다.
- ⑤ 교체와 축약에 속하는 음운 변동이 한 가지씩 적용되었다.

14. <보기>의 ㉠~㉥을 문장의 짜임새에 따라 올바르게 분류한 것은?

— < 보 기 > —

㉠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공할게요.
㉡ 오늘은 폭우가 오고 강풍이 불겠습니다.
㉢ 우리가 그 일을 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다.
㉣ 너처럼 계속 무리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
㉤ 나는 어제 간 음악회에서 옛 친구를 만났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안은문장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15. (가)를 참고할 때, (나)의 활동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높임의 종류는 그 대상에 따라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 부사어나 목적어와 같은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현대 국어에는 주체 높임이나 상대 높임을 담당하는 어미가 존재하지만 객체 높임을 담당하는 어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중세 국어에는 주체 높임이나 상대 높임은 물론 객체 높임을 담당하는 어미도 존재했다. 그리하여 부사어나 목적어를 높여야 할 경우에는 ‘-습-’, ‘-줍-’, ‘-습\’-’과 같은 선어말 어미를 결합하여 객체 높임을 실현하였다.

- ㉠ 나는 사진 속의 할아버지를 보았다.
- ㉡ 누나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 ㉢ 아버지께서는 할머니를 극진히 돌보셨다.
- ㉣ 나는 문의 사항이 있어서 선생님을 찾아갔다.
- ㉤ 우리는 어제 동네 어른들을 뵈었다.

(나) 다음 문장들이 중세 국어에 나타난다면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쓰였을지 생각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 ① ㉠: ‘할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객체 높임의 어미를 사용했을 거야.
- ② ㉡: ‘부모님’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객체 높임의 어미를 사용했을 거야.
- ③ ㉢: ‘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객체 높임의 어미를 사용했을 거야.
- ④ ㉣: ‘선생님’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객체 높임의 어미를 사용했을 거야.
- ⑤ ㉤: ‘동네 어른들’이 높임의 대상이므로 객체 높임의 어미를 사용했을 거야.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애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정조에게는 민국 사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조선 전기의 민인(民人)은 양반과 천민을 제외한 양민을 지칭하는 말로 주로 사용되면서 상하의 계층성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런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발생은 구성원이 일치단결할 필요성과 더불어 민인의 개념이 모든 백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 영조 대에는 이전의 민국, 즉 ‘백성과 나라’라는 의미에서 ‘민(民)의 나라’라는 의미의 민국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점차 모든 백성의 부담을 고르게 하고, 군주가 천민까지도 자신의 백성으로 끌어안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정조가 추쇄관(推刷官)*을 혁파하여 노비들의 생활을 안정시킨 것은 그러한 개념으로 확장되는 것과 연관이 있었다.

민국 사상은 정조에 의해 ‘군주-백성-국가’의 관계를 군민일체(君民一體)의 유기적 관계로 정립하는 단계까지 발전하였고, 여기에는 백성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정조는 재위 24년간 66회, 연평균 2.7회의 빈도로 성 밖을 나와 백성의 생활을 직접 살피기도 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백성이 국왕에게 자신의 일을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격쟁(擊箚)을 적극 허용하는 등 백성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다. 또한 국가 행사나 건설에 동원된 백성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건설 공법의 혁신을 통해 효율을 높여 한 것은 정조의 민국 사상에 담긴 애민 정신을 잘 보여 주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배다리 건설을 들 수 있다.

18세기 말 정조는 수원 화성에 행차하기 위해 한강에 배다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배다리란 배를 일정한 간격으로 늘어놓고 그 위에 판재를 건너질러 만드는 부교(浮橋)를 말한다. 배다리는 16세기 초 연산군도 건설한 바가 있었는데, 사냥을 가기 위해 백성들의 배 800척을 동원하여 만든 것이었다. 목적도 사치스러운 것이었으나 과도한 물자를 비체계적으로 운용하고, 백성들의 생업을 등한시하여 큰 폐단을 낳았다. 정조는 기존 배다리의 비효율성과 폐단을 지적하며 새로운 배다리 건설 공법을 정리한 [주교지남(舟橋指南)]을 펴냈다.

배다리의 구조를 살펴보면 배다리의 하부 구조는 부력을 사용하여 상부 구조의 하중을 지탱하고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칭형의 구조물로 설계되었다. 36척의 배 중 몸체가 가장 크고 뱃전이 가장 높은 배를 골라 강 한복판에 정박시켜 기준으로 삼고 양쪽으로 크기에 따라 나열하여 무지개 모양이 되도록 했다. 또한 상부 구조물을 지탱하는 선박은 큰 하중을 견뎌 내기 위해 부력이 큰 것을 사용했다.

배의 높이를 재는 치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깊이이고, 또 다른 하나는 흘수이다. 깊이는 배의 갑판에서부터 바닥까지의 전체 길이이고, 흘수는 물속에 잠긴 부분의 길이이다. 또한 깊이에서 흘수를 뺀 수면 윗부분은 건현이라 불렀다. 건현이 크면, 건현이 작은 배보다 예비 부력* [A] 이 크고 하중을 지탱하는 데 유리하였다. 1,800여 명이 동시에 한강을 건너야 했던 배다리는 상당한 양의 부력을 가져야 했으므로 건현과 몸체가 큰 배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부력은 배의 무게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지만 물의 밀도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특징이 있기에 바다가 아닌 강에 띄운 배다리 건설에 고려할 부분이기도 하였다.

물에 뜬 배는 물의 흐름에 따라 흔들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배의 무게 중심이 낮을수록, 부력의 중심인 부심이 높을수록 복원력이 좋다. 배다리 상부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사용된 배는 부력이 크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선체의 높이가 높아 복원력이 좋지 못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배다리의 상부 구조물은 하부 구조에 전해지는 하중을 고르게 분산시키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각 선박을 연결하기 위해 ㉡짜 맞춤 공법이 아닌 ㉢척 묶음 공법을 사용하였다. 짜 맞춤 공법은 이음매를 맞추는 정교한 작업으로 인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결합된 이후에는 분해가 어려울 정도로 튼튼하게 맞물린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 척 묶음 공법은 결합에 걸리는 시간은 짧으나 결합 강도 측면에서는 짜 맞춤 공법에 미치지 못한다. 배다리는 필요 할 때 가설하고 다시 분해하는 임시 교량으로서 결합과 분해의 용이성이 매우 중요하였고, 파손 등으로 일부 선박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대비해야 했으므로 척 묶음 공법이 사용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 말이 배다리를 건너는 동안 발생하는 불규칙한 하중과 유속의 변화로 인한

흔들림에 배다리의 연결 부위가 적절히 반응하며 진동을 흡수하는 데에도 최 육음 공법이 적합하였던 것이다. 이 외에도 닛줄의 활용, 조립형 난간 설치 등 다양한 공법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공법을 통해 지어진 배다리에 사용된 배는 경강선이었다. 새롭게 배를 만들지 않고 기존에 세곡이나 소금을 운반하던 배들을 이용한 것이다. 배다리 설치시기를 일상적인 선박 운용에 폐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동원된 배에는 공에 따라 이권을 보장해 주었다. 노랑진 부근의 장인들은 배다리 건설에 동원하는 대신 잡역을 면제해 주었다. 배다리 건설에 사용된 각종 자재는 조립 위치를 기록해 두고 종류별로 나누어 보관하여 추후 건설에서 자재의 낭비가 없게 하였다. 정조는 기술 혁신, 합리적인 경영, 치밀한 관리를 통해 배다리의 건설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백성들이 겪는 폐단을 바로잡아 민국 사상에 담긴 애민 정신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추쇄관: 도망한 노비를 수색하여 잡아서 주인에게 되돌려 주는 일을 하던 벼슬아치.

*예비 부력: 하중의 증가와 같은 변화가 생겼을 때에도 충분히 부상하여 떠 있을 수 있는 힘.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정조의 추쇄관 혁파는 민(民)의 개념이 확장되는 시기에 일어난 정책이었다.
- ② 조선 전기의 민인(民人)의 개념은 전쟁의 영향으로 대상의 범주가 변화되었다.
- ③ 영조 대에 이르러 민인(民人)의 개념에 상하의 계층성을 담은 개념이 추가되었다.
- ④ 연산군의 배다리 건설은 물자 운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생업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도 안고 있었다.
- ⑤ 정조는 직접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는 것 외에도 격쟁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17. <보기>는 부력에 대한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부력의 크기는 ‘유체의 밀도X잠긴 부분의 부피X중력 가속도’로 구할 수 있다. 물은 유체이기 때문에, 물에 잠긴 물체는 물의 밀도와 중력 가속도가 같은 조건이라면 잠긴 부분의 부피에 해당하는 유체의 무게에 따라 받는 부력이 달라진다. 따라서 배의 무게에 변화가 생기면 중력과 부력은 새로운 평형을 찾아 유지한다. 만약 물체의 무게가 늘어난다면, 잠긴 부분의 부피가 증가하여 부력이 커지게 된다. 또한 물체의 밀도가 일정할 때, 부피는 단면적 및 높이와 비례하므로 높이가 높으면 전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부력도 영향을 받는다. 한편 부피와 중력 가속도가 같은 배라도 바다에 있는지 강에 있는지에 따라 부력에 차이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바닷물의 평균 밀도가 강물의 평균 밀도보다 더 커서 부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 ① 배에 실리는 무게가 감소한다면, 이전보다 건현은 커지고 흡수는 감소하게 되겠군.
- ② 건현이 큰 배는 건현이 작은 배에 비해 높이가 높기 때문에 예비 부력이 큰 것이겠군.
- ③ 배에 화물이 더 실릴 경우,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배의 흡수가 늘어나면서 다시 평형 상태를 찾게 되겠군.
- ④ 전체 부피와 중력 가속도가 일정한 상태일 때, 동일한 배를 강에 띄웠을 때보다 바다에 띄웠을 때 흡수가 더 늘어나게 되겠군.
- ⑤ 같은 무게라도 단면적과 높이에 따라 잠긴 부분의 부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배다리에는 되도록 바닥이 넓은 배를 사용해야 했겠군.

18. <보기>를 통해 민국 사상에 담긴 의미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달은 하나뿐이고 물의 종류는 일만 개나 되지만, 물이 달빛을 받을 경우 앞 시내에도 달이요, 뒤 시내에도 달이어서 달과 시내의 수가 같게 되므로 시냇물이 일만 개면 달 역시 일만 개가 된다. …… 물이 흐르면 달도 함께 흐르고, 물이 멎으면 달도 함께 멎고, 물이 거슬러 올라가면 달도 함께 거슬러 올라가고, 물이 소용돌이치면 달도 함께 소용돌이친다. 그러나 그 물의 원뿌리는 달의 정기(精氣)이다. 거기에서 나는, 물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달이 비취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사람들 각 자의 얼굴이고 달은 태극*인데, 그 태극은 바로 나(정조)라는 것을 알고 있다.

- 정조, [만천명월주인옹자서]의 일부

* 태극: 우주 만물이 생성·전개되는 근원 혹은 근원적 이치.

- ① 물이 흐르면 달이 함께 흐르는 것처럼, 군주와 백성은 신분의 차이가 없는 유기체라는 것이다.
- ② 물의 본질은 같고 달의 종류가 많은 것처럼, 군주를 위해 수많은 백성이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③ 달이 물을 비추며 그 움직임과 함께하듯, 군주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의 처지를 살피야 한다는 것이다.
- ④ 모든 물이 달의 정기라는 동일한 뿌리를 갖는 것처럼, 백성들이 군주를 존경하면서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 ⑤ 물의 종류가 일만 개이고 달 역시 그에 비취어 일만 개나 되는 것처럼, 군주는 백성들이 떠안을 부담을 신분에 맞춰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19. ㉠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존 배다리가 가진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공법을 정리하여 [주교지남]을 펴냈다.
- ② 백성들의 생업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 시기를 정해 백성들을 무상으로 징발할 수 있었다.
- ③ 추후 배다리 건설 시 자재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자재를 분류하여 보관하고 조립 정보를 기록하였다.
- ④ 하부 구조의 안정성을 위해 뱃전이 가장 높은 배를 기준으로 크기에 따라 양쪽에 선박을 나열하였다.
- ⑤ 경강선의 선체 높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부 구조물은 하부에 전해지는 중량을 고르게 분산하도록 설계하였다.

20.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결합과 분해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배다리의 공법으로 채택되었다.
- ② ㉢은 이음매를 맞추는 조립 과정 때문에 조립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었다.
- ③ ㉡은 ㉢에 비하여 조류의 변화에 반응하며 진동을 흡수하는 데에 유리하였다.
- ④ ㉢은 ㉡에 비하여 문제가 발생한 일부 선박을 교체하는 데에 편리함이 있었다.
- ⑤ ㉢은 ㉡에 비하여 불규칙한 하중이 실리는 상황을 대처하기에 불리함이 있었다.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른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의자 고행을 했다고 한다. 제일 먼저 출근하여 제일 늦게 퇴근할 때까지 그는 자기 책상 자기 의자에만 앉아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그가 서 있는 모습을 여간해서는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점심시간에도 의자에 단단히 붙박여 보리밥과 김치가 든 도시락으로 공양을 마쳤다고 한다. 그가 화장실 가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했다는 사람에 의하면 놀랍게도 ㉠그의 다리는 의자가 직립한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그는 하루 종일 손익관리대장경(損益管理臺帳經)과 자금수지심경(資金收支心經) 속의 숫자를 읊으며 철저히 고행 업무 속에만 은둔하였다고 한다. 종소리 북소리 목탁 소리로 전화벨이 울리면 수화기에다 자금 현황 매출 원가 영업 이익 재고 자산 부실 채권 등등을 청아하고 구성지게 영불했다고 한다. ㉡끝없는 수행 정진으로 머리는 점점 빠지고 배는 부풀고 커다란 머리와 몸집에 비해 팔다리는 턱없이 가늘어졌으며 오랜 음지의 수행으로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는 매일 상사에게 굽실굽실 108배를 올렸다고 한다. 수행에 너무 지극하게 정진한 나머지 전화를 걸다가 전화기 버튼 대신 계산기를 누르기도 했으며 귀가하다가 지하철 개찰구에 승차권 대신 열쇠를 밀어 넣었다고도 한다. 이미 습관이 모든 행동과 사고를 대신할 만큼 깊은 경지에 들어갔으므로

사람들은 그를 ‘30년간의 장좌불립(長座不立)*’이라고 불렀다 한다. 그리 부르든 말든 그는 전혀 상관치 않고 묵언으로 일관했으며 다만 혹독하다면 혹독할 이 수행을 외부 압력에 의해 끝까지 마치지 못할까 두려워했다고 한다. [A] 그러나 지금껏 매달릴 수 있다는 것을 큰 행운으로 여겼다고 한다. 그의 통장으로는 매달 적은 대로 시주가 들어왔고 시주는 채워지기 무섭게 속가의 살림에 흔적 없이 스며들었으나 혹시 남는지 역시 모자라는지 한 번도 거들떠보지 않았다고 한다.

오로지 의자 고행에만 더욱 용맹 정진했다고 한다. 그의 책상 아래에는 여전히 다리가 여섯이었고 둘은 그의 다리 빛은 의자 다리였지만 어느 둘이 그의 다리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한다.

- 김기택, [사무원]

*장좌불립: 눕지 않고 앉아서만 하는 불교의 수행 방식.

(나) 플랫폼 방의 불이 꺼지며 다시 응접실이 밝아진다. 소파에 누워 철쇄마저 어느 사이에 풀어 헤치고 행복하게 잠자는 교수가 보인다. 시계가 아홉 시를 친다. 시간이 한 시간 경과하였음을 표시한다. 이때 창문을 열고 감독관이 방 안을 들여다본다. 얼굴이

흥측하게 생긴 데다 아래위를 까만 옷으로 차리고 있어 지옥의 옥리를 방불케 한다. 긴 회초리를 든 손을 방 안에 밀어 넣더니 장자는 교수를 회초리로 때린다. 교수가 눈을 비비며 일어난다.

감독관: 원고! 원고!

교수: (일어나며) 네 곧 됩니다. 또 독촉이군.

감독관: (책상 쪽을 가리키며) 원고! 원고!

교수, 소파 한구석에 있던 가방을 집어 갖고서 황급히 책상에 앉는다. 가방에서 원고를 꺼내 꺼내놓고 책을 펼친다.

감독관: 원고! 원고!

이윽고 교수는 번역을 시작한다. 감독관이 창문을 닫고 사라진다. 처가 들어온다. 큰 자루를 손에 들고 있다.

처: 어머니! 그렇게 벌거벗고 계시면 어떡해요.

㉠막대기에 감긴 철쇄를 줄줄 끌어다 교수의 허리에 감아 준다.

처: 감기에 걸리면 큰일 나요.

교수는 말없이 번역을 한다. 처는 의자를 하나 끌어다 교수 옆에 앉더니 큰 자루를 벌리고 교수를 주시한다.

처: 빨리! 빨리!

교수가 말없이 원고지 한 장 쪽 찢어 처에게 넘겨준다. 처는 빼앗듯이 원고지를 가로채더니 자루 안에 넣어 넣는다. 그리고

처: 삼백 환!

재빠르게 다음 페이지의 번역을 끝낸 교수가 다시 한 장을 찢어 처에게 넘긴다. 처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처: ㉡육백 환! (이어) 구백 환!

(중략)

교수: 하룻밤 사이에 참 신기한 사건도 많아라. 세상이 그렇게 변해서야 어디 살 수 있겠니. 너 왼쪽 손에 들고 있는 종이는 뭐냐?

장녀: 이거요?

영자 신문을 교수에게 준다. ㉢교수는 받기가 무섭게 기계적으로 번역을 한다.

장녀: 뭘 번역을 하세요?

교수: 이 영어를 우리말로 고치는 거야.

그대로 번역을 한다.

장녀: 아버지두 참! 그거 오늘 아침 영어 신문이에요.

교수: (신문을 보더니) 그렇군! 난 영어길래 곧 번역하려고 했지.

시계가 여덟 번을 친다. 교수는 무엇에 놀란 듯 황급히 일어나 가방을 들고 소파 쪽으로 가 철쇄를 바꾸어 맨다.

[B]

교수: 벌써 여덟 시야.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이번엔 분명 아침 여덟 시겠지. (무섭게 철문을 열고 퇴장하면서) 오늘이 무슨 요일이더라?

- 이근삼, [원고지]

21.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에 대해 친밀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② 공간의 대비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이 지향하는 가치를 암시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여 지나간 시간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경어체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경건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⑤ 반어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대상이 처한 비극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22. (나)의 무대 공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명: 불이 꺼진 플랫폼 방의 어둠과 불이 켜진 응접실의 밝음을 조명 장치를 통해 대비시켜, 극적 공간의 이동을 관객에게 알려 준다.
- ② 소품: 까만 옷과 회초리를 감독관의 소품으로 활용하여, 감독관이 지닌 부정적인 속성을 관객에게 환기한다.
- ③ 동작: 책상으로 황급하게 움직이는 교수의 동작을 표현하여, 인물의 다급한 심정을 관객에게 알려 준다.
- ④ 대사: 장녀가 냉소적인 어조로 대사를 처리하도록 하여, 장녀와 교수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 ⑤ 음향: 시계 소리를 음향 효과로 사용하여, 인물의 삶을 구속하는 시간의 상징적인 의미를 관객에게 일깨워 준다.

2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세속의 일상적인 삶에 초연한 인물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삶의 고통을 초극하려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정신적 가치와 물질적 욕망의 균형에 집착하는 인물의 조바심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A]는 노동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인물의 모습을, [B]는 노동의 대가에 연연해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A]는 생활을 되돌아볼 여유가 없는 인물의 절박함을, [B]는 정신적 여유를 잃어버린 인물의 혼란스러움을 보여 주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현대 예술에서는 인간의 몸이 왜곡된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몸의 일부가 과장·변형된 형태로 부각되거나, 몸이 사물과 구별되지 않는 상태 혹은 몸이 사물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묘사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인간의 사물화는 현대 사회의 억압적 규율과 소외된 노동에 얽매어 인간 본연의 자율성과 생명력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처지를 나타낸다. 또한 특정한 행위를 무의미하게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모습을 통해 기계의 일부처럼 특정 행위를 강요받는 현대인의 소외된 현실을 드러내기도 한다.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채 파편화된 인간관계에 놓인 현대인의 비극적인 상황이 몸에 대한 새로운 묘사 방식을 이끌어 낸 것이다.

- ① ㉠은 의자의 다리와 사람의 다리가 구별되지 않아 보이는 상태를 보여 주어, 사물화된 존재로 전락한 현대인의 처지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② ㉡은 사무원의 몸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 주어, 타인의 강요로 인한 소외감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는군.
- ③ ㉢은 교수의 몸이 철쇄라는 사물에 지배되는 모습을 보여 주어, 억압적 규율에 얽매어 있는 현대인의 상황을 풍자적으로 드러내고 있군.
- ④ ㉣은 남편의 노동을 금전적 가치로만 환산하는 ‘처’의 기계적인 행동을 보여 주어, 물질주의적 가치관으로 인해 가족 관계의 참된 모습이 사라지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풍자하는군.
- ⑤ ㉣은 교수의 번역 행위가 습관적 행위로 전락했음을 보여 주어, 인간 본연의 자율성을 빼앗긴 현대인의 소외된 노동 현실을 보여 주는군.

[25~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서는 ‘특정한 내적·외적 변인들에 대해서 경험적, 생리적, 행동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유전적으로 결정되거나 습득된 동기적 경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정서는 인지나 지각과는 대립되고 단절된 정신 작용으로 간주되었으나 인지 심리학에서는 정서가 인간이 사물을 인지하고 지각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인지 심리학의 관점에서 정서가 인지에 관여하는 것은 정보 처리의 형태와 과정으로 설명된다.

일상생활에서 인지에 대한 정서의 관여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것으로, 기분 일치 효과를 들 수 있다. 기분 일치 효과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기분 상태에 있을 때 그 기분과 유인가(valence)*가 일치하는 내용들을 쉽게 저장하거나 회상하는 경향을 말한다. 즉 기분이 좋으면 세상의 모든 사물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즐거웠던 과거의 기억들이 쉽게 상기되는 효과이다. 그런데 유쾌한 정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효과가 대체로 잘 나타나지만 불쾌한 정서 상태의 사람들에게는 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처럼 유쾌 정서와 불쾌 정서가 인지미치는 효과가 서로 다른 이유는 각 정서 상태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정보 처리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인지적 정보 처리의 형태는 크게 체계적이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보 처리와, 어림법*을 사용하는 정보 처리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유쾌 정서는 어림법으로 정보를 하게 만들고,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를 적게 기울이게 한다. 이는 인지적 능력 감소와 동기적 요인으로 설명되는데, 기분이 좋으면 유쾌한 의미를 가진 사고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과제에 대한 주의를 방해하게 되고 체계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능력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는 현재 기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동기가 작용하여 기분을 해칠지도 모르는 과제에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불쾌 정서는 체계적, 분석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게 만들며, 과제의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든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정보 처리의 형태는 주의의 방향과 기분 조절 동기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몇몇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유쾌한 기분은 타인에게로 주의를 돌리게 만드는 데 비해, 불쾌한 기분은 주의를 자기 내부로 향하게 한다. 기대와 현실의 괴리로 인한 불편한 느낌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내부로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때로는 현재의 기분을 떨치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고 분석적인 처리 방식을 취하거나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분 이외의 딴 것으로 돌리는 등 자신의 기분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한 기분 회복 전략을 사용한다.

그렇다면 정서는 어떻게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에 영향을 주는가?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모형으로 ‘정서 점화 모형’과 ‘정보로서의 기분 모형’이 있다. ㉠정서 점화 모형은 정서 상태가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활성화한다고 가정한다. 이 모형에 따르면 인간의 기억 의미망 구조 속에 유쾌나 불쾌의 정서 마디가 자리 잡고 있고, 어떤 기분이 경험되면 그것과 연결된 다른 마디들에 정서의 효과가 확산된다. 따라서 유쾌한 기분은 과거의 기분 좋았던 경험과 연결되거나 또는 유쾌한 의미를 가진 사고나 심상들을 잇달아 활성화하고, 그것들은 다시 현재의 정보가 처리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 유쾌한 기분과 불쾌한 기분의 처리 효과가 다른 이유는 우리가 유쾌한 정서와 더 친근하고, 유쾌한 정서와 연결된 의미 고리들은 불쾌한 정서에 비해 더 광범위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보로서의 기분 모형은 기분의 의식적 측면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기분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 필요한 의식적인 정보의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현재의 기분이 지금 상황에 대한 나의 입장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우리가 복잡한 과제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행을 평가할 때, 관련된 정보를 모두 따져서 평가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수행을 보고 일어난 느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판단으로 인해 실제로 기분을 초래한 것은 다른 원인인데 지금 눈앞에 있는 판단 대상이 그 기분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귀인*에 도달하기도 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서와 인지의 관계는 개입하는 정서의 종류나 정서의 일부 한정된 기능에 따라 다르게 설명된다. 최근에는 인지미에 대한 정서의 효과를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지속되고 있으나 아직은 하나의 모델이나 구조에 의해 그 관계가 모두 설명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서가 인지미에 다양한 형태와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지

심리학은 끊임없이 그 관계를 밝히기 위해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 *유인가: 목표의 매력성. 혹은 특정한 결과에 대한 정서적 방향성.
- *어림법: 불확실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풀기 위해 쓰는 주먹구구식 셈법이나 직관적 판단, 경험과 상식에 바탕을 둔 단순하고 즉흥적인 판단 추론.
- *귀인: '원인의 귀착'의 줄임말로, 어떤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추론하는 것.

25.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핵심이 되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 ② 심리적 작용과 관련된 서로 다른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인지와 관련된 심리적 작용이 이루어지는 형태와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인지 심리학이 발생한 배경을 당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 ⑤ 심리적 작용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를 대조적인 심리 상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26. 뒷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전통적으로 인지는 정서에 영향을 주지만 정서는 인지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 ② 불쾌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어림법적 정보 처리에 의존하여 현실을 분석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 ③ 유쾌 정서를 가진 사람들과 달리 불쾌 정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기분 일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유쾌한 기분을 지닌 상태에서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 ⑤ 유쾌한 기분을 지닌 사람과 불쾌한 기분을 지닌 사람이 정보를 처리할 때 주의를 기울이는 방향은 상반되게 나타난다.

27. 인지에 대한 정서의 관여와 관련하여, <보기>의 실험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포개스(Forgas)와 바우어(Bower)는 피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나쁜 기분(불쾌한 정서)이나 좋은 기분(유쾌한 정서)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낯선 사람에 대한 긍정적 평가 내용과 부정적인 평가 내용이 섞인 글을 읽도록 하였다. 실험자는 각각의 그룹에 속한 피험자가 글을 읽을 때 든 시간과 회상한 내용의 개수를 측정했는데, 그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단, 글에는 긍정적 내용과 부정적 내용이 동일한 양으로 들어 있으며, 모든 실험자에게 부여한 글 읽기 시간은 동일함.)

기분	긍정적 내용	부정적 내용
나쁜 기분	~6.6	~7.1
좋은 기분	~6.1	~5.7

기분	긍정적 내용	부정적 내용
나쁜 기분	~15.0	~16.5
좋은 기분	~16.5	~14.0

* 읽는 시간과 회상한 내용의 숫자가 높을수록 해당 정서와 인지의 상관성은 높다고 해석된다.

- ① 정서의 인지적 반응은 상황에 따라 기분과 상반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② 자신이 현재 느끼는 기분과 일치하는 내용에 대해 인지적 반응이 더 잘 나타난다.
- ③ 불쾌한 정서를 가진 사람이 유쾌한 정서를 가진 사람에 비해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적다.
- ④ 유쾌한 정서를 가진 사람이 불쾌한 정서를 가진 사람보다 인지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다.
- ⑤ 기분 일치 효과는 유쾌한 정서를 가진 사람보다 불쾌한 정서를 가진 사람에게 더 잘 나타난다.

28.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에서는 모두 상황에 대한 판단과 해석에 있어 정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 ② ㉠과 ㉡에서는 모두 현재의 기분이 상황 판단에 필요한 의식적인 정보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다.
- ③ ㉠에서는 과거의 정서가 현재의 기분을 자극하고, ㉡에서는 현재의 기분이 과거의 정서를 활성화한다고 본다.
- ④ ㉠에서는 기억에 저장된 선택적 정보에 의해서, ㉡에서는 상황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의해서 상황 판단이 일어난다고 본다.
- ⑤ ㉠에서는 정서의 종류에 따라 정보 처리 형태가 다르다고 보지만, ㉡에서는 정서의 종류와 관계없이 정보 처리 형태가 동일하다고 본다.

29.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철수: 와, 오늘 기분 참 좋다. 날씨도 정말 맑고 상쾌하지 않니? 오늘 같은 날 놀러 가면 정말 재미있겠다.
- 영희: 뭐가 날씨가 맑고 상쾌해? 오늘 날씨 예보 안 들었어? 오늘 미세 먼지가 얼마나 많은데.
- ㉡ 철수: 그래? 근데 난 왜 날씨가 좋다고 느껴지지? 아, 그러고 보니 내가 좋아하는 너를 만나서 그런가 보다.
- ㉢ 영희: 뭐라고? 나 지금 농담할 기분 아니야. 미세 먼지가 내 기분을 다 망쳐 놨단 말이야.
- 철수: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너 사실 어제부터 계속 기분이 엉망이었어. 어제 시험 망쳤다고 엄청 우울해하더니 지금도 계속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잖아?
- ㉣ 영희: 어떻게 알았어? 그래, 네 말이 맞아. 사실 어제 시험을 망치고 나서 계속 우울했어. 이번만큼은 시험을 잘 보고 싶었는데, 그 욕심 때문에 오히려 나 자신에게 너무 실망을 했나 봐.
- ㉤ 철수: 에이, 나중에 잘 보면 되지 뭐. 우리, 그러지 말고 노래방에나 갈까?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잖아?

- ① 미세 먼지가 많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에서 철수가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날씨가 맑고 상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분 일치 효과 때문이겠군.
- ② ㉡에서 철수가 날씨가 좋다고 인식한 원인을 자신이 좋아하는 영희와의 만남에서 찾는 것은 유쾌한 기분이 타인에게로 주의를 돌리게 하기 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겠어.
- ③ 정보로서의 기분 모형에 따르면, 시험 때문에 기분이 나쁜 영희가 ㉢에서 자신의 기분이 나쁜 원인을 미세 먼지에서 찾는 것은 잘못된 귀인이라 판단할 수 있겠어.
- ④ ㉣에서 영희는 자신이 우울한 기분이 지속된 이유를 자기 내부에서 찾아 분석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
- ⑤ ㉤에서 철수가 영희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하는 것은 현재의 기분을 떨치고 자신의 기분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한 기분 회복 전략에 해당하겠군.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날 신라 시대 때, 세달사(世達寺) 금의 흥교사(興敎寺)다. 장원이 명주(溟洲)날리군(李郡)에 있었다. [지리지]를 살펴보면, 명주에 날리군은 없고 다만 날성군(城郡)이 있는데, 본래 날생군(生郡)으로 지금의 영월(寧越)이다. 또 우수주(牛首州) 영현(領縣)에 날령군(靈郡)이 있는데, 본래는 날이군(己郡)으로 지금의 강주(剛州)다. 우수주는 지금의 춘주(春州)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날리군이 어느 것인지 알 수 없다. 사(本寺)에서는 승려 조신(調信)을 보내 장원을 맡아 관리하게 했다.

조신은 장원에 이르러 태수 김흔(金昕)의 딸을 깊이 연모하게 되었다. 여러 번 낙산사의 관음보살 앞에 나아가 남몰래 인연을 맺게 해 달라고 빌었으나 몇 년 뒤 그 여자에게 배필이 생겼다. 조신은 다시 관음 앞에 나아가 관음보살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그렇게 그리워하다 지쳐 얼마 뒤 선장이 들었다. 꿈에 갑자기 김 씨의 딸이 기쁜 모습으로 문으로 들어오더니,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저는 일찍이 스님의 얼굴을 본 뒤로 사모하게 되어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명을 어기지 못해 억지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제 같은 무덤에 묻힐 벗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조신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며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사십여 년을 살면서 자식 다섯을 두었다. 그러나 집이라곤 네 벽뿐이요, 콩잎이나 명아쭉국 같은 변변한 끼니도 낼 수 없어 마침내 실의에 찬 나머지 가족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입에 풀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십 년 동안 초야를 떠돌아다니다 보니 웃은 메추라기가 매달린 것처럼 너털너털해지고 백 번이나 기워 입어 몸도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 강릉 해현령(蟹縣嶺)을 지날 때 열다섯 살된 큰아들이 굶주려 그만 죽고 말았다. 조신은 통곡하며 길가에다 묻고, 남은 네 자식을 데리고 우곡현(羽曲縣) 금의 우현(羽縣) 도착하여 길가에 띠풀로 엮은 집을 짓고 살았다. 부부가 늙고 병들고 굶주려 일어날 수 없게 되자, 열 살 난 딸아이가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다. 그러다가 마을의 개에 물려 부모 앞에서 아파다고 울며 드러눕자 부모는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부인은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말했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꽃다운 나이에 옷차림도 깨끗했습니다. 한 가지 맛있는 음식이라도 당신과 나누어 먹었고, 몇 자 되는 따뜻한 웃음이 있으면 당신과 함께 해 입었습니다. 집을 나와 함께 산 오십 년 동안 정분은 가까워졌고 은혜와 사랑은 깊었으니 두터운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이래로 쇠약해져 병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해 오는데, 결방살이에 하찮은 음식조차 빌어먹지 못하여 이 집 저 집에서 구걸하며 다니는 부끄러움은 산과 같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도 돌봐 줄 수가 없는데, 어느 겨울에 사랑의 싹을 틔워 부부의 정을 즐기겠습니까? 젊은 날의 고왔던 얼굴과 아름다운 웃음도 풀잎 위의 이슬이 되었고,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도 회오리바람에 날리는 버들솜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있어서 근심만 쌓이고, 나는 당신 때문에 근심거리만 많아지니, 공공이 생각해 보면 옛날의 기쁨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이거나 나 어째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요. 여러 마리의 새가 함께 굶주리는 것보다는 짝 잃은 난새가 거울을 보면서 짝을 그리워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힘들면 버리고 편안하면 친해지는 것은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가고 멈추는 것 역시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 어지고 만나는 데도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따라 이만 헤어지기로 합시다.”

조신이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각기 아이를 둘씩 나누어 데리고 떠나려 하는데 아내가 말했다.

“저는 고향으로 향할 것이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그리하여 조신은 이별을 하고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고 밤이 깊어만 가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수영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세어 있었다. 조신은 망연자실하여 세상일에 전혀 뜻이 없어 졌다. 고달프게 사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백 년 동안의 괴로움을 맛본 것 같아 세속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 사라졌다.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이 참회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해현으로 가서 아이를 묻었던 곳을 파 보았더니 돌미륵이 나왔다. 물로 깨끗이 씻어서 가까운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사임하고 개인 재산을 털어 정토사(淨土寺)를 짓고서 수행했다. 그 후에 아무도 조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

- 작자 미상, [조신(調信)의 꿈]

- *장원: 궁정·귀족·관료나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대규모의 토지.
- *명주: 지금의 강릉 지방.
- *지초: 지치. 예전부터 민간요법에서 약재로 많이 사용한 풀로, 여기에서는 향기로운 풀을 의미함.
- *난새: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새로, 깃은 붉은빛에 다섯 가지 색채가 섞여 있으며, 소리는 오음(五音)과 같다고 함.

30.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떠나지 않으면 그로 인한 불행이 자식들에게 미칠 것임을 들어 이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 ②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부의 인연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별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며 훗날 재회할 것을 기약하고 있다.
- ③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처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별이 필요하다고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드러내며 자식의 죽음과 불행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자책하고 있다.
- ⑤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운명을 따르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별을 하는 것이 부부 사이의 도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전설(傳說)은 신화와 달리 신분과 능력이 평범하거나, 비범하다 해도 평범한 사람의 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한다. 또한 허구적이라고 여겨지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증거물이 남아 있어 당시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믿는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이다. 전설은 주로 지명(地名)이나 탑(塔), 불상(佛像) 및 사찰(寺刹)과 같은 건축물 등의 유래와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그런 점에서 '조신'이라는 인물을 다루면서 그의 행적에 대한 신빙성을 부여하는 인명(人名)이나 구체적 지명들을 활용한 [조신의 꿈]을 통해 전설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조신이 '정토사'라는 절을 세운 후 수행을 했다는 내용을 통해 이 이야기가 사찰의 유래와 관련된 전설이라는 점을 알 수 있군.
- ② 절의 장원을 관리하는 승려인 '조신'의 행적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능력과 신분이 평범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전설의 요소에 해당하겠군.
- ③ 조신과 관련된 절인 '세달사'가 '지금의 흥교사'와 같다는 설명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믿음을 주는 요소에 해당하겠군.
- ④ 조신의 행적과 관련해서 '명주', '우곡현'과 같은 지명이나 장원의 태수 이름을 '김흔'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이 이야기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요소에 해당하겠군.
- ⑤ 조신이 창건한 절에 모신 '돌미륵'이 꿈에서 죽은 아이를 묻었던 곳에서 발견한 '돌미륵'과 같다는 점은 허구적인 사건을 사실로 믿게 하는 증거물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해당하겠군.

3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윗글은 고려 승려 일연이 쓴 「삼국유사」에 수록된 글입니다. 「삼국유사」에는 많은 꿈 이야기 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꿈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역할을 하거나, 꿈속 교시자(敎示者)를 통해 꿈의 의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또한 꿈은 이계(異界) 내지 다른 공간으로의 여행과 돌아옴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 꿈은 현세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회로(回路)가 되며, 꿈의 내용 또한 현실에서 억압된 욕망이나 잠재된 의식이 표출되거나 혹은 현실에서의 억압을 풀어 버리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꿈은 언제나 깨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인생의 덧없음을 나타내기도 하며, 꿈을 꾸 인물들을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지요.

- ① 조신이 꿈속에서 태수의 딸과 혼인을 한다는 점에서 윗글은 주인공이 현실에서 억압된 욕망을 달성하는 이야기에 해당하겠군.
- ② 조신이 꿈속에서 겪은 사건이 하룻밤의 일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꿈'이 현세적인 시간을 초월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③ 조신이 꿈속에서 겪은 사건을 바탕으로 삶을 참회하며 불도에 정진하게 된다는 점에서 '꿈'은 인물의 깨달음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고 있군.
- ④ 조신이 부인의 말을 듣고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점에서 부인은 꿈에 감추어진 의미를 알려 주는 '교시자'에 해당하겠군.
- ⑤ 조신이 꿈속에서 겪은 체험들은 현재 자신의 처지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사건들이라는 점에서 '꿈'은 현실과 '다른 공간'을 이어 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군.

[33~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윈은 [종의 기원]을 통해 진화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변이와 자연 선택을 제안하였다. 진화에서의 변이는 특정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형질의 변화로, 변화된 형질은 자손에게 전해진다. 다윈은 유전될 수 있는 최초의 변이가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하는가를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특정한 변이가 생존에 유리할 경우에 그 변이로 인해 변화된 형질을 가지고 있는나의 여부에 따라 생존과 번식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세대마다 생존하고 생식할 수 있는 개체의 수보다 더 많은 수의 개체들이 태어나 그 사이에 필연적인 경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연 선택은 특정한 환경에서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갖고 태어나는 개체들이 경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더 많은 자손을 낳고 그들에게 그 형질을 전해 주는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집단 유전학은 유전자 풀(gene pool) 내에 존재하는 유전자의 빈도에 근거하여 자연 선택 과정을 설명한다.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시기에 타 지역과 ㉠격리되어 존재하는 특정한 종의 무리를 집단이라 하고, 하나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의 집합을 유전자 풀이라고 한다. 유전자 풀에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와 돌연변이에 의해 새롭게 생겨난 유전자가 함께 존재한다. 집단은 세대를 거치면서 변해 가는데 이 과정에서 유전자 풀 안의 유전자 조성도 바뀐다. 자연 선택이란 특정 유전자형을 가지는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보다 더 높은 확률로 생존과 번식을 하는 경향성을 갖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러한 자연 선택의 결과로 유전자 풀 내의 유전자 조성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자연 선택에는 크게 지향적 선택, 안정적 선택, 분열적 선택, 균형적 선택 등 네 가지 선택이 있다. 이 네 가지 자연 선택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유전자형의 빈도와 적응도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전자형의 빈도란 집단 내의 전체 개체 수에서 특정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고, 적응도는 특정 표현형이나 유전자형이 다음 세대의 유전자 풀에 ㉡기여할 수 있는 상대적 가능성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번식률이 가장 높은 표현형이나 유전자형의 적응도를 1로 잡은 후 이를 기준으로 다른 표현형이나 유전자형의 적응도를 상대적으로 계산한다. 이 개념을 집단 전체로 확장하면 특정 집단의 평균 번식률을 구하여 그 집단의 평균 적응도를 구할 수 있는데, 자연 선택은 집단의 평균 적응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자연 선택 중 첫째, ㉢지향적 선택은 특정한 환경에서 특정한 표현형을 가진 개체들이 상대적으로 적응도가 높을 경우 그 표현형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방울새 집단이 어떤 섬으로 ㉣이주하였는데 그 섬에는 단단한 씨만이 존재하여 단단한 씨를 깰 수 있는 개체들이 생존에 더 유리해지자 그 집단에서 단단한 부리를 가진 개체들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지향적 선택이 장기간 지속 되면 생존에 유리한 표현형을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가 집단 내 우위를 차지할 것이고, 결국 유전자의 단일 형을 가져올 것이다.

둘째, ㉤안정적 선택은 양극단의 중간 정도의 표현형을 갖고 있는 개체가 양극단에 속하는 표현형을 갖는 개체보다 생존에 유리한 것을 말한다. 새가 한 번에 낳는 알의 개수를 연구한 영국의 생물학자 랙은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알을 낳는 새의 적응도가 적당한 수의 알을 낳는 새의 적응도보다 낮은 것을 발견했다. 알의 수가 적으면 다음 세대에 기여할 개체 수가 부족하여 불리하

다. 또한 알을 너무 많이 낳으면 부모가 새끼를 보살피거나 먹이를 충분히 줄 수 없기 때문에 새끼들의 생존 가능성이 낮아진다. 따라서 중간 수치의 알을 낳는 새들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셋째, ㉥분열적 선택은 서로 다른 표현형을 나타내는 두 가지 이상의 유전자형이 각각의 환경에서 선택 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표현형이 P 환경에는 생존에 유리하고 Q 환경에는 불리하지만 다른 표현형은 P 환경에는 생존에 불리하고 Q 환경에는 유리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분열적 선택은 다양한 환경에 분포된 집단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넷째, ㉦균형적 선택은 생존에 불리한 대립 유전자가 퇴출되지 않고 생존에 유리한 대립 유전자와 일정 비율을 유지하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균형적 선택은 안정된 다형성(多形性)을 이루어 표현형이 다른 유전자형이 함께 집단 내에 ㉧존속하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방식 중 하나는 ‘이형 접합체 우세’의 경우이다. 대립 유전자가 AA나 aa처럼 동형 접합을 이룰 경우보다 Aa처럼 이형 접합을 이룰 경우에 특정 환경에 대한 적응도가 더 높은 것이 한 예이다. 안정된 다형성이 이루어지는 다른 방법은 ‘빈도 - 역의존 선택’이다. 이는 어떤 유전자형의 빈도가 높아지면 그 유전자형의 적응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주로 포식자의 먹이가 되는 종들이 다형성을 유지하는 방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포식자는 머릿속에 피식자의 검색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그러한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는 낯선 개체가 섞여 있으면 그 것을 피식자로 인식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피식자는 잡아먹힐 확률이 적어 빈도 - 역의존 선택이 이루어지고 피식자의 다형성이 유지된다.

3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전자 풀은 하나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의 집합을 의미한다.
- ② 집단이 세대를 거치면서 변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풀의 유전자 조성이 바뀔 수 있다.
- ③ 다윈은 개체들의 형질 변화가 일어나는 최초의 과정을 밝힌 후 자연 선택을 주장하였다.
- ④ 빈도 - 역의존 선택이 일어나면 빈도가 낮은 유전자형을 가진 피식자는 잡아먹힐 확률이 적어진다.
- ⑤ 다윈은 생물 개체 사이에는 생존과 번식을 위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자연 선택의 과정을 거쳐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34. [A]와 관련하여, <보기 1>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끼리 <보기 2>에서 골라 묶은 것은?

< 보 기 1 >

대립 유전자 A와 a로 구성된 가상의 유전자 풀이 있다. 유전자형 AA는 10명의 자손을, Aa는 8명의 자손을, aa는 2명의 자손을 생산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돌연변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 보기 2 >

ㄱ. Aa의 적응도는 aa의 적응도에 비해 5배 높다.
 ㄴ. 유전자형의 적응도는 AA가 가장 높고 aa가 가장 낮다.
 ㄷ. Aa 유전자형을 갖고 있는 개체의 번식력이 가장 높다.
 ㄹ. 다음 세대의 유전자 풀에 기여할 상대적 가능성은 AA가 Aa보다 높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5.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가) 영국 웨일스 남부 구리 광산 근처의 잡초 군락은 그 지역 일부가 중금속에 오염되자 성장이 억제되었다. 그러다가 구리 오염에 내성을 보이는 돌연변이 잡초가 나타났는데, 이 잡초는 오염된 토양에서는 잘 성장했지만 오염되지 않은 일반 토양에서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
 (나) 아프리카에서는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 많다. 정상 대립 유전자 H^A 가 동형 접합한 유전자형 $H^A H^A$ 를 가진 개체는 말라리아에 대한 저항력이 크지 않아 말라리아에 잘 걸리게 된다. 그런데 악성 빈혈과 뇌출혈을 일으켜 발병하면 사망 확률이 높은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나타내는 유전자형인 $H^S H^S$ 를 가진 개체에서는 말라리아가 잘 살지 못한다. 이에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이형 접합체인 $H^A H^S$ 유전자형이 동형 접합체인 $H^A H^A$ 유전자형보다 적응도가 더 높게 나타난다.

- ① (가): 중금속에 저항력이 있는 잡초가 오염된 토양에서 잘 자라고, 중금속에 저항력이 없는 잡초가 일반 토양에서 잘 자라는 것은 분열적 선택의 예로 볼 수 있겠군.
 ② (가): 구리 광산 근처 잡초 군락에서 구리 오염에 내성을 보이는 돌연변이 잡초가 더 많이 살아남았다면 이는 오염된 토양에서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갖고 있는 개체가 그렇지 않은 개체와의 경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③ (나): 말라리아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형 접합체의 적응도가 동형 접합체보다 우세하게 나타나겠군.
 ④ (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동형 접합체인 $H^S H^S$ 유전자형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는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으로 인해 $H^S H^S$ 의 적응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겠군.
 ⑤ (나): 말라리아가 빈발하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유발하는 대립 유전자 H^S 가 유전자 풀에서 계속 존속하는 균형적 선택이 이루어지는군.

36. ㉠~㉡을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은 거주 환경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② ㉠과 달리 ㉡은 세대가 지나더라도 유전적 다형성이 유지된다.
 ③ ㉡과 ㉢에서는 모두 극단의 표현형을 가진 개체가 생존에 유리하다.
 ④ ㉡과 달리 ㉢은 개체의 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선택이다.
 ⑤ ㉡과 달리 ㉢은 개체가 자신이 거주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선택이다.

37.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다른 것과 통하지 못하게 사이를 막거나 떼어 놓음.
 ② ㉡: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
 ③ ㉢: 본래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김.
 ④ ㉠: 어떤 대상이 그대로 있거나 어떤 현상이 계속됨.
 ⑤ ㉢: 서로 비슷하다.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철로 너머 제분 공장의 굴뚝에서 ㉠울컥울컥 토해 내는 검은 연기는 전쟁으로 부서진 도시의 하늘에 전진(戰塵)처럼 밀려들고 있었다.

전쟁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는 치열했던 함포 사격에도 제 모습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것은 중국인 거리라고 불리우는, 언덕 위의 이층집들과 우리 동네 낡은 적산 가옥*들뿐이었다.

시가지 쪽에는 아직 햇빛이 머물러 있는데도 낙진처럼 내려앉는, 북풍에 실린 저탄장의 탄가루 때문일 까, 중국인 거리는 연기가 서리듯 녹녹한 어둠에 잠겨 들고 있었다.

[A] 시의 정상에서 조망하는 중국인 거리는, 검게 그을린 목조 적산 가옥 베란다에 널린 얼룩덜룩한 담요와 레이스의 속옷들은, 이 시의 풍물(風物)이었고 그림자였고 불가사의한 미소였으며 천칭의 한쪽 손에 얹혀 한없이 기우는 수이었다. 또한 기우뚱 침몰하기 시작한 배의, 이미 물에 잠긴 고물[船尾]이었다.

시의 동쪽 공설 운동장에서 때 이른 햇불이 피어올랐다. 잔양(殘陽) 속에서 그것은 단지 하나의 흔들림, 너울대는 바람의 자락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와아와아 함성을 질렀다. 체코, 폴란드, 물러가라, 꼭두각시, 괴뢰 집단 물러가라, 와아와아. 여름 내내 햇빛이 걸히면 한 집에서 한 명씩 뿔뿔히 나간 사람들은 공설 운동장에 모여 발을 구르며 외쳤다. 할머니는 돌아와 밤새 끄끙 허리를 앓았다.

중립국 감시 위원단 중 공산 측이 추천한 체코와 폴란드가(그들은 소련의 위성 국가입니다) 그들의 임무를 저버리고 유엔군 측의 군사 기밀을 캐내어 공산 측에 보고하는 스파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체 조회에서 교장 선생님은 말했다.

무릎을 세우고 앉아 그 사이에 깊이 고개를 묻으면 함성은 병의 좁은 주둥이에 휘파람을 불어 넣을 때처럼 아스라하게 웅웅대며 들려왔다. 땅속 깊숙이에서 울리는, 지층이 움직이는 소리, 해일의 전조로 미미하게 흔들리는 물살, 지붕 위를 활으며 머무는 바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수채에 쭈그리고 앉아 ㉢으으으 구역질을 하고 있었다. 임신의 징후였다. 이제 제발 동생을 그만 낳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나는 처음으로 여자의 동물적인 삶에 대해 동정했다. 어머니의 구역질에는 그렇게 비통하고 처절한 데가 있었다. 또 아이를 낳게 된다면 어머니는 죽게 될 것이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병으로 쓰러진 할머니를 할아버지가 계신 시골로 모셔다드리고 온 뒤 한숨을 쉰다. '나'는 할머니가 입던 옷들을 보며 할머니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서늘해짐을 느낀다. 어머니는 할머니가 입던 옷들을 정리하다가 손수건에 싸인 물건들을 꺼낸다. 어머니는 할머니가 입던 옷들을 걸레나 목도리로 쓰기로 하고, 할머니가 간직한 물건들을 다시 손수건에 싸서 빈 반달이에 던져 놓는다.

다음 날 나는 아무도 몰래 반달이를 열고 손수건 뭉치를 꺼냈다. ㉣그러고는 공원으로 올라가 장군의 동상에서부터 숲 쪽으로 할머니의 나이 수대로 예순다섯 발자국을 걸어 숲의 다섯 번째

오리나무 밑에 깊이 묻었다.

겨울의 끝 무렵 우리는 할머니의 부음을 들었다. 택시에 실려 떠난 지 두 계절 만이었다.

산월을 앞둔 어머니는 새삼스럽게 할머니가 쓰던, 이제는 우리들의 해진 옷가지들이 ㉤뒤죽박죽 되는대로 쑤셔 박힌 반달이를 어루만지며 울었다.

저녁 내내 아무도 찾아내지 못할, 골방의 잠동사니들 틈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나는 밤이 되자 공원으로 올라갔다. 아주 깜깜했지만 나는 예순다섯 걸음을 걷지 않고도 정확히 숲의 다섯 번째 오리나무를 찾을 수 있었다.

깊은 땅속에서 두 계절을 묻혀 있던 손수건은 썩은 지푸라기처럼 축축하게 손가락 사이에서 묻어났다. 동강 난 비취반지와 녹슨 버클, 몇 닢 백동전의 흙을 털어 가만히 손안에 쥐었다. 똑같았다. 모두가 전과 다름없었다. ㉥잠시의 온기와 이내 되살아나는 차가움.

나는 다시 손안의 물건들을 나무 밑에 묻고 흙을 덮었다. 손의 흙을 털고 나무 밑을 꼭꼭 밟아 다진 뒤 일정한 보폭(步幅)을 유지하는 데 신경을 쓰며 장군의 동상을 향해 걸었다. 예순 번을 세자 동상이었다. 나는 고개를 가웃했다. 분명히 두 계절 전 예순다섯 걸음의 거리였다. 앞으로 다시 두 계절이 지나면 쉰 걸음으로도 달을 수가 있을까, 다시 일 년이 지나면, 그리고 십 년이 지나면 단 한 걸음으로 날듯 달을 수 있을까.

아직 겨울이고 깊은 밤이어서 나는 굳이 사람들의 눈을 피하지 않고도 쉽게 장군의 동상에 올라갈 수 있었다. 키를 넘는, 위가 잘려진 정사면체의 받침돌에 손뚱을 박고 기어올라 장군의 배 위에 모아 둔 망원경 부분에 발을 딛고 불빛이 ㉦듬성듬성 박힌 시가지를 내려다보았다. 지난해 여름 전진(戰塵)처럼 자욱이 피어오르던 함성은 이제 들려오지 않았다. 다만 조용했다. 귀 기울여 어둠 속에 부드럽게 흐르는 소리를 좇노라면 땅속 가장 깊은 곳에서 숨어 흐르는 수맥이라도 손끝에 닿을 것 같은 조용함이었다.

[B] 나는 깜깜하게 엮드린 바다를 보았다. 동지나해로부터 밤새워 불어오는 바람, 바람에 실린 해조류의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중국인 거리, 언덕 위 이층집의 덧문이 열리며 쏟아져 나와 장방형으로 내려앉는 불빛과 드러나는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차가운 공기 속에 연한 봄의 숨결이 숨어 있었다.

나는 따스한 핏속에서 돌아 오는 순(筭)을, 참을 수 없는 근지러움으로 감지했다.

인생이란.....

나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뒤를 이을 어떤 적절한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알 수 없는, 다만 복잡하고 분명 치 않은 색채로 뒤범벅된 혼란에 가득 찬 어제와 오늘과 수없이 다가올 내일들을 뭉뚱 거릴 한마디의 말을 찾을 수 있을까.

다시 봄이 되고 나는 6학년이 되었다. 오빠는 어디서인지 강아지를 한 마리 얻어와 길을 들이는 중이었다. 할머니가 없는 집 안에 개는 멋대로 터력을 날리고 똥을 싸다.

나는 일 년 동안 키가 한 뼘이나 자랐고 언니가 쓰던, 장미가 수놓여진 옥스퍼드 천의 가방을 들게 된 것은 지난해부터였다.

- 오정희, [중국인 거리]

*적산 가옥: 패망한 일인 소유의 재산 중 주택을 가리키는 말.

38.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은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서술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는 감각적 이미지를 동원하여 공간의 특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다양한 사물을 세부 소재로 동원하여 공간이 지닌 특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계절적 상황을 나타내는 심상을 동원하여 인물의 느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서술의 주체가 자신의 행위를 서술하고 있다.

39.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온전히 간직하려는 마음을, ㉡은 할머니를 잃었다는 상실감을 환기하고 있다.
- ② ㉠은 할머니의 병을 치유하고 싶다는 주술적인 행위를, ㉡은 그런 행위가 실패한 것에 대한 좌절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③ ㉠과 ㉡의 대립을 통해 서술자는 시골에 간 할머니를 찾아가 반드시 모셔 오겠다는 인물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④ ㉠과 ㉡의 연결을 통해 서술자는 할머니를 시골로 내려보낸 부모의 결정을 뒤늦게 수긍하는 인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에 나타난 인물의 천진난만한 놀이가 할머니를 잃게 되는 계기로 이어졌다는 인물의 뒤늦은 자책을 ㉡에서 확인할 수 있다.

40.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아직 전쟁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중국인 거리의 사람들의 모습을 환기하고 있다.
- ② ㉣: 공설 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집회의 모습을 통해 당대의 시대적인 분위기를 실감 나게 나타내고 있다.
- ③ ㉤: 또다시 아이를 가진 어머니의 괴로움을 그려 내어, 어머니에 대해 연민을 품게 된 '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 ④ ㉥: 어머니의 산월을 앞둔 집안의 어수선한 상황을 강조하여, 인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부각하고 있다.
- ⑤ ㉥: 어둠에 묻혀 여기저기 불빛만 간혹 보이는 상황을 강조하여, 고요하고 적막한 시가지의 분위기를 제시하고 있다.

4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이 작품은 소녀로 설정된 '나'의 성장 과정을 담아낸 성장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나'의 유년 시절을 품어 준 '중국인 거리'는 6·25 전쟁 직후의 피폐한 현실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나'는 이 공간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던 할머니나 어머니를 통해 여성의 삶과 운명에 점차 눈을 뜨고, 다른 한편으로 그들이 지닌 강한 모성에 대한 관찰을 통해 여성의 삶에 대한 자각에 도달하기도 한다. 이런 정신적 성숙은 '나'의 육체적인 성장과 결부되어 그려지면서 인물의 전반적인 성장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① '연기가 서리듯 녹녹한 어둠에 잠겨 들고 있'는 중국인 거리의 밤 풍경에서, 시대 현실로 인해 궁핍했던 '나'의 성장 배경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또 아이를 낳게 된다면 어머니는 죽게 될 것이다.'라는 '나'의 염려에서, 고통스러운 삶으로 내몰리는 여성의 소외된 처지에 대한 자각을 떠올릴 수 있군.
- ③ '따스한 핏속에서 돌아 오는 손을, 참을 수 없는 근지러움'을 감지했다는 '나'의 말을 통해, 육체적 성장 과정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 인물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④ '혼란에 가득 찬 어제와 오늘과 수없이 다가올 내일들을 뭉뚱 거릴 한마디의 말을' 찾아내려 는 '나'의 모습에서, 인생에 대한 성찰을 통해 점차 성장을 이루어 가는 인물의 내면을 떠올릴 수 있군.
- ⑤ '장미가 수 놓여진 옥스퍼드 천의 가방을 들게 된' '나'의 모습을 통해, 중국인 거리에서 피폐 한 삶을 살아가는 다른 여성들과는 차별되는 삶을 살아가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군.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은 산업 발전을 통해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지만 자연환경의 파괴와 생태 질서의 혼란이라는 부정적 상황에 내몰렸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생태시는 산업화와 물질주의가 초래한 이러한 병폐를 반성하고 인간과 자연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삶을 상상하고 노래한다.

초기의 생태시는 자연환경의 파괴와 생태의 위기를 고발하는 작품이 많았다. 무분별한 산업화가 불러온 폐해, 특히 인간과 자연이 모두 파괴와 죽음에 직면하는 상황을 비판적 관점에서 그려내는 경향을 띤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서정적인 생태시는 생태계의 조화로움과 생명의 존귀함을 그려내고, 이를 통해 시인이 느끼는 긍정적 깨달음을 노래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자연은 더 이상 개발과 정복의 대상이거나 피해해진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자연은 스스로 충만한 생명력을 갖춘 순환적인 존재이자, 세상 만물에 한없이 삶의 터전이 되어 주는 근원적인 생명의 존재로서 인간이 돌아가야 할 대상 혹은 닮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변화의 밑바탕에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시선 혹은 인식의 전환이 자리를 잡고 있다. 초기의 생태시는 인간을 무지와 탐욕의 존재로 간주한다. 순환하는 생태의 질서에 무지한 인간이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순환하는 자연의 질서를 무분별하게 파괴하였고, 그로 인해 인간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다고 생각했다. 초기의 생태시가 서정의 목소리가 약화되고 ㉠**문명 비판과 풍자**의 시로 나타난 것도 이 때문이다. 서정적인 생태시는 인간을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스스로 각성하며 생태의 질서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는 존재로 그려내는 경우가 많다. 자연과 직접 교감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마음의 위로를 얻거나, 자연 만물의 일부인 인간 스스로 자연과의 상생(相生)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나) 우리 시대의 비는 계절과 무관하다.

시도 때도 없이
푸른 것은 모조리 갉아먹어 버리는
전천후 산성비 .

그렇다 전천후로
비는 죽은 구근*을 흔들며 깨워서
자꾸만 생산을 재촉하고 있다.
그래서 생산이 넘치고 넘치는
그래서 미처 다 소비도 하기 전에
쓰레기통만 가득 채우는 시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다린다고는
누군가 참 잘도 말했다.

한때는 선지자의 예언처럼 고독했던
그러한 절망이
이제는 도처에서 천방지축으로
장미처럼 요란하게 꽃피고 있는 시대.

죽은 자의 욕망까지 흔들며 깨우면서

그 위에 내리는
시도 때도 없는 산성비.

사람들은 모두 우산을 쓰고 있다.
일회용 비닐우산이 되어 버린
절망을 쓰고 있다.

비극이 되기에는
너무나 흔해 빠진 우리 시대의 비
대량 생산의 장미를 쓰레기통에 가득 채우는
전천후 산성비 **오늘도 내린다.**

- 이형기, [전천후 산성비]

*구근: 둥근 모양이나 덩어리 모양으로 된 줄기나 뿌리를 통틀어 이르는 말.

(다) 떡갈나무 숲을 걷는다. 떡갈나무 잎은 떨어져
너구리나 오소리의 따뜻한 털이 되었다. 아니면,
뺨집집이거나, 지난여름 풀 아래 자지러지게
울어 대던 벌레들의 알의 집이 되었다.

이 숲에 그득했던 **풍뎅이**들의 흔레,
그 눈부신 날갯짓 소리 들릴 듯한데,
털새만 남아
산 아래 공밭에 뿌려 둔 노래를 쫓아
아름다운 목청 밑에 갈무리한다.

나는 떡갈나무 앞에서 **노루 발자국**을 찾아본다.
그러나 벌써 노루는 더 깊은 골짜기를 찾아,
겨울에도 얼지 않는 파릇한 산울림이 떠나려오는
골짜기를 찾아 떠나갔다.

나무 등걸에 앉아 하늘을 본다. 하늘이 깊이 숨을 들이켜
나를 들이마신다. 나는 가볍게, 오늘 밤엔
이 떡갈나무 숲을 온통 차지해 버리는 별이 될 것 같다.

떡갈나무 숲에 남아 있는 **열매 하나**.
어느 산짐승이 혀로 핏아 보다가, 뒤에 오는
제 새끼를 위해 남겨 놓았을까? 그 순한 산짐승의
젖꼭지처럼 까맣다.

나는 떡갈나무에게 외롭다고 쓸쓸하다고
중얼거린다.
그러자 떡갈나무는 슬픔으로 부은 내 발등에
잎을 떨어준다. 내 **마지막 손**이야. 뺨에 대 봐,
조금 따뜻해질 거야, 잎을 떨어준다.

- 이준관, [가을 떡갈나무 숲]

42. ㉠을 바탕으로 (나)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연의 ‘푸른 것은 모조리 갉아먹어 버리는’은 생명을 파괴하는 ‘산성비’의 속성을 그려낸 것으로서, ‘우리 시대’의 삶에 대해 화자가 지니고 있는 비판적 인식을 떠올리게 하는군.

- ② 2연의 ‘미처 다 소비도 하기 전에 / 쓰레기통만 가득 채우는 시대.’는 산업 사회의 특성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자연의 질서에서 벗어나 과잉 생산을 추구하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화자의 냉소적인 시선을 떠올리게 하는군.
- ③ 4연의 ‘절망’이 ‘장미처럼 요란하게 꽃피고 있는 시대.’는 산성비로 인한 파괴와 죽음이 일상화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말로서, ‘선지자의 예언’에 담긴 절망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느끼는 화자의 위기감을 환기하고 있군.
- ④ 6연의 ‘사람들은 모두 우산을 쓰고 있다.’는 산성비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인간의 적극적인 대응 양상을 묘사한 것으로서, 생태의 위기에 맞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군.
- ⑤ 마지막 연의 ‘비극이 되기에는 / 너무나 흔해 빠진 우리 시대의 비’는 ‘산성비’의 위험성을 재차 일깨우는 것으로서, 산업화에 대한 만연한 공포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피해에 둔감해진 도시 문명의 어두운 일면을 고발하고 있군.

43. (가)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집’은 ‘떡갈나무 잎’이 ‘숲’의 다른 존재에게 만들어 준 삶의 거처로서, ‘숲’이 생명체가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상호 의존의 공간임을 보여 준다.
- ② ‘풍덩이’와 ‘덧새’는 ‘숲’의 계절 변화를 화자에게 일깨워 주는 존재로서, ‘숲’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명의 순환이 다채롭게 펼쳐지는 공간임을 암시한다.
- ③ ‘노루 발자국’은 떡갈나무에 깃들어 있는 다른 생명체의 흔적으로서, ‘숲’의 생명체들과 교감을 나누고 싶어 하는 화자의 동경을 떠올리게 한다.
- ④ ‘열매 하나’는 ‘숲’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에게 먹이가 되는 존재로서, ‘숲’을 이루는 생명체들이 다른 생명체를 서로 배려하는 상생의 존재들이라는 화자의 깨달음을 떠올리게 한다.
- ⑤ ‘마지막 손’은 ‘잎’을 향한 화자의 손길을 비유한 표현으로서, ‘숲’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된 화자가 이제 다른 생명체들에게 내미는 위안의 손길을 가리킨다.

44. (나)의 전천후 산성비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과 무관하다.’라는 표현을 볼 때, 자연의 섭리인 계절의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인간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경이감을 드러내는 시어이다.
- ② ‘죽은 구근을 흔들어 깨워서’라는 표현을 볼 때, 살아 있는 존재와 죽어 있는 존재 간의 순환을 만들어 내는 산성비의 역할을 부각하는 시어이다.
- ③ ‘누군가 참 잘도 말했다.’라는 표현을 볼 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근거로 화자가 선지자의 절망적인 예언에 대해 비판하는 태도를 부각하는 시어이다.
- ④ ‘죽은 자의 욕망까지 흔들어 깨우면서’라는 표현을 볼 때, 현실의 문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부단히 새로운 신념 체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환기하는 시어이다.
- ⑤ ‘오늘도 내린다.’라는 표현을 볼 때, 생태계의 파괴를 불러오는 산성비의 위험이 지속되고 있는 부조리한 현실을 일깨우고 있는 시어이다.

45. (나)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미래 상황을 묘사하여 화자의 바람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다)는 의문형의 진술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환기하고 있다.
- ③ (나)는 (다)와 달리 색채 이미지를 통해 대상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 ④ (다)는 (나)와 달리 동일한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모두 시적 대상과의 가상적 대화를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1~3] 다음은 학생 토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부장: 작년에 이어 올해 동아리 모집에서도 우리 동아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동아리는 사라지는 분위기 속에서 인문학을 탐구하고 토론하는 우리 동아리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동아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꼭 필요합니다. 먼저 학생들이 우리 동아리에 관심을 갖지 않는 ㉠원인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 1: 저는 학생들이 우리 동아리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우리 동아리 활동 내용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로에 적합한 동아리만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인문학을 탐구하고 토론하는 동아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보니 무작정 진로와 관련이 있을 것만 같은 이름을 가진 동아리로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2: 네. 작년 학교 축제에서도 우리 동아리의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다 보니 학생들이 우리 동아리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연히 자신의 진로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함은 물론 인문학을 탐구한다는 말이 무겁고 재미없게 느껴져 학생들이 기피하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 1: 우리 동아리의 활동들도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진로 활동과 연관된 내용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아리 활동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학생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학생 3, 4: 동의합니다.

부장: 네. 학생들이 우리 동아리 활동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 3: 네. 저 역시 처음에는 이 동아리가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 하지만 선배들이 작성한 동아리 모집 공고문의 내용을 보고 관심을 가져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동아리 모집 공고문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진로 활동을 포함하여 우리 동아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학생들이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4: 동아리 모집 공고문도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공고문에 활동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될 경우 오히려 학생들이 고리타분하다고 여겨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모집 공고문을 자세하게 읽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학교 축제가 동아리와 관련된 가장 큰 행사이니, 축제 기간을 활용해 동아리를 홍보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장: 모집 공고문을 잘 작성하는 것과 학교 축제 활용 방법, 둘 다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 1: 어떤 방식이든 학생들에게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모집 공고문은 지면에 한계가 있고 많은 글자를 넣다 보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 우리 동아리 활동 내용을 알려 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2: 학생들의 관심을 끌려면 축제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적

절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축제에서도 기존과 같은 동아리 홍보 방식을 활용하면 일회성 홍보가 되기 쉬워 우리 동아리의 활동 내용을 정확히 알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부장: 학생들의 관심을 끌려면 축제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데 기존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올해부터 일회성 활동을 줄이고 동아리 활동 내용을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학생 2: 기존의 동아리 홍보 방식에서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 동아리 활동 내용 중심으로 홍보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1, 3, 4: 네. 좋습니다.

부장: 그럼 이번 축제에서 동아리 홍보 방식을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 3: 지금까지 우리 동아리는 문학 작품을 전시하고 문학 쿼츠를 내서 맞이하는 학생들에게 상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진행했습니다. 상품을 받으려 학생들이 참여하기는 했으나 우리 동아리 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지는 않았고 저희도 동아리 활동 내용을 안내하는 일에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먼저 우리 동아리 활동 내용들을 잘 정리해 각 항목의 활동 내용과 결과물들을 차례로 작성하여 우리 동아리 부스에 전시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모집 공고문을 작성한다면 축제와 동아리 홍보의 내용을 일관성 있게 준비할 수 있어 학생들이 우리 동아리의 활동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학생 4: 네.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동아리는 인문학을 탐구하고 토론하는 활동 외에도 봉사 활동, 서점방문, 작가와의 만남, 동아리 선배와의 시간 등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더욱 많은 학생들이 우리 동아리에 관심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며 동아리 가입 방법을 묻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진 자료와 결과물들을 활용해 전시하고 안내했으면 합니다.

학생 1, 2: 네. 좋습니다.

1. 위 토의에 활용된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생 1은 유사한 사례를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② 학생 2는 논의의 복잡성을 들어 후속 논의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 ④ 학생 4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을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 ⑤ 부장은 토의 주제에서 벗어난 참여자에게 토의 주제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토의를 원활히 진행하고 있다.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학생들이 우리 동아리의 활동 내용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함.
- ② ㉠: 모집 공고문이 진로 탐색 관련 내용에만 국한되어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함.
- ③ ㉡: 축제에서 동아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많은 이벤트들을 기획함.
- ④ ㉡: 축제 기간 중 학생들이 직접 문학 토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동아리를 홍보함.
- ⑤ ㉡: 문학 퀴즈 등 학생들이 축제에서 참여할 수 있는 구성을 계획하여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 방식을 기획함.

3. <보기>는 부장이 토의를 준비하며 떠올린 생각이다. ㉡~㉣ 중 토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이번 토의를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토의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겠어. 참여자들이 고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토의 시작 부분에서 미리 발언 순서를 지정해 주고, ㉣ 학생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안내하면 토의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모호한 내용에 대해선 질문의 방식을 활용하여 내가 이해한 바가 정확한지 확인해야겠어. 그리고 ㉣학생들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더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참여자들에게 의견을 요청해야겠어.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 ⑤ ㉣, ㉤, ㉥

[4~7] (가)는 강연의 일부분이고, (나)는 강연을 들은 학생이 강연자에게 쓴 전자 우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OO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OO고등학교 학생들은 문법을 아주 잘 안다고 들어서 우리말 품사 구분에 대한 최근의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는 어떤 품사들이 있나요?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네, 잘 아시네요. 품사란 단어들을 의

[A] 미, 기능, 형태적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분류를 해 보면 일관된 기준으로 명확하게 나누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시간에는 동사와 형용사의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최근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새로 분류한 동사와 형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동사와 형용사에 대해 어떻게 배웠죠?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네, 그렇습니다. 동사는 동작이나 작용을,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배웠을 것입니다. (화면의 사진을 가리키며) 여기 사진에 있는 친구는 '교실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있다'는 동작이나 작용인가요, 아니면 상태인가요?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B] 판단이 애매하죠? 그러면 '있다'라는 말은 형용사인가요? (진행형, 명령형, 청유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사라는 대답을 듣고) 문법을 아주 잘 알고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는 동사에는 '-는', 형용사에는 '-(으)ㄴ'이 결합한다는 차이도 있지요. '있다'를 '머물다'의 의미로 볼 경우 '교실에 있는다, 있어라, 있자.'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있다'는 동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답이 있다'고 할 때는 진행형, 명령형, 청유형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용사로 분류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동작이나, 상태나 하는 의미만으로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이나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것도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말한 '있다'의 경우 동사와 형용사 모두 '있는'으로 씁니다. 또 '서슴다'와 같은 어휘는 기능이 제한 되어 있고, 활용 형태가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능이나 형태로는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의미상 동사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동사로 처리하고 있지요. '잘생기다'의 경우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한 '잘생겼다'가 과거가 아닌 현재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용사 어간에 '-았-/

[C] -었-'이 결합하면 과거를 나타내지 현재 상태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중세 국어의 '-아/어 잇-'에서 발달한 '-았-/

-었-'이 동사와 결합하여 동작의 완료 후 그 결과가 지속되는 것을 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지요. 이런 현상은 형용사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닭다'와 같은 일부 동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생기다'를 형용사로 본다면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생기다'는 동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생기다' 외에도 '낡다', '뭉나다'와 같은 말들은 개별 어휘의 특성을 고려하여 동사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새로 동사로 분류하였답니다.

(나)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선생님의 강연을 들은 OO고등학교 3학년 김성제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국어 문법의 기초적인 내용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된 것은 강의를 듣고 제가 나름대로 품사 분류를 해 보려고 했더니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겨서입니다. 먼저 ‘잘생기다’가 동사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은 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의미나 문법 체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과거에 어떤 형태로 쓰였는지가 현재 어휘의 품사 분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철의 가사에 ‘나 하나 젊어 있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면 ‘젊다’도 동사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잘생겼다’가 현재를 나타낸다는 것이 다른 원칙들을 뒤집을 만큼 중요한 것인지, ‘잘생기다’는 다른 동사들과 의미와 형태가 다른데도 함께 묶어 놓으면 품사 분류의 취지가 퇴색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품사 분류에서 어휘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할 때 여러 특성들 중 어떤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 예들을 찾아보니 ‘생기다’와 같은 단어는 ‘돈이 생기다’에서는 명령형, 청유형은 안 되지만 진행형은 가능했습니다. ‘예쁘게 생기다’라고 할 때는 명령형, 진행형, 청유형 모두 안 됩니다.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돈이 생기는 일’, ‘예쁘게 생긴 아이’가 되는 것을 보면 전자는 동사, 후자는 형용사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동사로만 분류되어 있습니다.

(㉠)

제가 가진 이러한 의문이나 생각들에 대해 틀린 부분을 지적하고 조언을 해 주신다면 저에게는 큰 공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4. <보기>는 (가)의 강연을 위한 계획이다. 강연 계획 중 실제 강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청중 분석>

- 문법 교과서를 학습했고, 문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점검하면서 강연을 진행함.

<내용 구성>

- 동사와 형용사 구분에 대한 통념 깨기
- 동사와 형용사가 의미로 구분되지 않는 사례 제시 ㉠
- 동사와 형용사가 기능, 형태로 구분되지 않는 사례 제시 ... ㉡
- 동사에 결합하는 어미와 형용사에 결합하는 어미가 다른 이유 정리 ㉢
- 동사와 형용사 구분에 대한 새로운 기준
-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어-’이 현재를 나타내는 특수한 어휘 분석 ㉣
-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형용사에서 동사로 품사가 바뀐 어휘 제시 ㉤

- ① ㉠ ② ㉡ ③ ㉢ ④ ㉣ ⑤ ㉤

5. [A]~[C]에 활용된 강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개념을 정의하고 강연의 세부 주제를 제시한다.
- ② [A]: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주제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한다.
- ③ [B]: 청중의 대답을 단서로 하여 다음 설명 내용을 이어 간다.
- ④ [B]: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한다.
- ⑤ [C]: 청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다.

6. (가)를 들은 학생이 강연 내용에 대해 제기한 의문점 중에서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강연의 내용	의문점	...
‘잘생기다’는 선어말 어미 ‘-았-’이 붙어 현재를 나타내는데, 이는 과거에 ‘-아/어-’에서 발달한 ‘-았-/어-’이 동사와 결합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	과거의 형태가 현재 어휘를 분류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	... ㉠
‘잘생기다’는 새로 동사로 분류하였다.	‘-았-’이 붙어 현재를 나타낸다는 것이 다른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 ㉡
일반적으로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는 동사는 ‘-는’, 형용사는 ‘-(으)ㄴ’을 쓴다.	다른 동사들과 성격이 다른 것을 함께 묶으면 품사 분류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 아닌가?	... ㉢
품사를 분류할 때 개별적인 어휘의 특성을 고려한다.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을 사용하는 형용사의 예는 없는가?	... ㉣
품사를 분류할 때 개별적인 어휘의 특성을 고려한다.	품사를 구분하는 여러 특성들 간에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 ㉤

7. <보기>의 ‘현우’의 조언에 따라 ㉠에 들어갈 내용을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성제: 어제 강연을 듣고 생각한 것이 있어서 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한번 봐 줄래?

현우: 음, 세 번째 문단의 마지막에 뭔가 빠진 듯한데, 그 부분에 앞에서 이야기한 너의 탐구 결과를 종합해서 네가 생각하는 대안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 너의 대안을 이야기할 때 강연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 ①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사와 형용사를 분류하는 기준들에 가중치를 두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② 품사 분류는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신 만큼 ‘생기다’는 의미에 따라 형용사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③ 이러한 방식으로 분류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서슴다’를 예외적인 어휘로 분류하신 것처럼 쉬운 문법 체계를 만드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④ 제 생각으로는 강연에서 말씀하신 ‘잘생기다’처럼 명령형, 청유형, 진행형이 자유롭지 못한 것은 형용사로 분류하는 것이 명쾌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있다’가 동사, 형용사 모두 될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생기다’도 동사와 형용사의 성격을 모두 가진 어휘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10] 다음은 00시 누리집에 실릴 모집 공고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함께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세상

A시 다문화 어울림 축제를 위한 관내 학생 자원봉사자 모집 !

5월 21일은 국제 연합이 제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입니다. 이날의 구호는 '다양성과 포용을 위한 한 가지 실천하기'입니다. 국제 연합은 지구에 살고 있는 현재와 미래 구성원들이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며 공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기념일은 지정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함께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문화 어울림 축제를 ㉢개최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과 달리 전시 행사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다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를 만들고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크 콘서트도 열 예정입니다. 이에 이 행사를 지원해 줄 관내 재학생 자원봉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대상: A시 관내 중·고등학생
2. 모집 부문: 다문화 체험관 부스 운영 지원, 통역 지원, 환경 정화 활동, 안전 지도
3. 봉사 일시 및 장소: 20XX년 XX월 XX일 ~ 20XX년 XX월 XX일, 00시 00공원 일대
4. 특전: 기념 모자 제공, 봉사 시간 8시간(하루 4시간씩) 인정
5. 봉사 세부 내용
 - 1) 다문화 스포츠 체험, 전통 놀이 체험, 다문화 음식 만들기 체험, 다문화 의상 입고 사진 찍기 등의 부스 운영 및 통역
 - 2) 체험관 부스 주변, 토크 콘서트장 주변 안전 지도
 - 3) 행사장 주변 환경 정화 활동
6. 봉사 지원서 제출: A시 B과로 이메일(00000@00000.kr) 제출
7. 기타 사항
 -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학생들의 당일 점심은 A시에서 도시락으로 제공.
 - 모든 자원봉사자들은 학생증을 지참하여 행사 당일 행사 본부에서 ㉤수령하기 바람.
 - 다문화 체험관 부스 운영 자원봉사자들은 행사 전에 오리엔테이션에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함.
 - 미세 먼지가 '나쁨' 수준일 경우 외부 행사는 일부 취소될 수 있음.

A시 다문화 어울림 축제 준비 위원장

8. 다음은 위 공고문을 읽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학생들의 반응이다. 공고문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사 당일 학생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하니 꼭 챙겨야겠어.
- ② 점심은 A시에서 도시락을 제공한다고 하니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겠군.
- ③ 다문화 축제에 참여도 하고 내 외국어 실력으로 통역 봉사도 하게 되니 좋겠어.

- ④ 외부 행사는 취소될 수도 있으니 행사 당일에 미세 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나가야겠어.
- ⑤ 환경 정화 활동으로 봉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오리엔테이션에도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구나.

9. <보기>는 축제 담당자가 '다문화 어울림 축제'에 대해 확인한 시민 요구 조사 내용의 일부이다. <보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축제를 기획했다고 했을 때 위 공고문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작년에는 자원봉사 신청서를 직접 시청에 제출해야 해서 너무 불편했어요. ㉠
- 작년에는 학생 자원봉사가 환경 정화 활동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아쉬웠어요. ㉡
-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
-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되면 좋겠어요. ㉣
- 작년에는 전시 위주의 행사였는데 올해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다문화 체험 부스가 운영되었으면 좋겠어요...㉤

- ① ㉠ ② ㉡ ③ ㉢ ④ ㉣ ⑤ ㉤

10. 위 초고의 ㉠~㉤에 대한 점검 결과와 수정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점검 결과	수정 방안
① ㉠: 이어지는 단어와 의미가 중복된다.	➡ '함께 살아가며'를 삭제한다.
② ㉡: 조사의 쓰임이 부적절하다.	➡ '기념일'로 고친다.
③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어색하다.	➡ '개최됩니다'로 고친다.
④ ㉣: 어색한 접속 표현이 사용되었다.	➡ '특히'로 수정한다.
⑤ ㉤: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졌다.	➡ '명찰과 기념품을'을 추가한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은 보조 용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술어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용언, 혹은 ‘체언+ 서술격조사’로 이루어지지만 둘 이상의 용언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의 예를 보세요.

- (가) 민수는 새 옷을 입어 보았다.
- (나) 순희가 영화를 보고 있다.
- (다)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어 봐.

이렇게 용언이 둘 이상일 때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장의 의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용언을 본용언, 특수한 의미를 덧붙이는 역할을 하는 용언을 보조 용언이라고 합니다. ㉡보조 용언도 의미를 나타내므로 본용언만으로는 문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가)와 (나)에서의 본용언은 각각 ‘입다’와 ‘보다’입니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매개하는 어미로는 ‘-아/-어’, ‘-고’ 등이 쓰입니다. ㉤본용언 하나에 보조 용언이 두 개 이상 쓰일 수도 있는데요, (다)에서의 본용언은 ‘기다리다’이고, 보조 용언으로는 ‘있다’와 ‘보다’가 쓰였습니다.

11. ㉠~㉤의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12. 다음은 보조 용언의 의미에 대해 추가적으로 탐구한 내용이다.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조 용언은 본용언과 함께 쓰여 그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이나 행위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건이나 행위가 ㉡진행 중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사건이나 행위가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예정의 의미 역시 보조 용언으로 나타낼 수 있다.

- ① ㉠: 동생이 과자를 다 먹어 버렸다.
- ② ㉠: 어제 말한 책은 사 냈어.
- ③ ㉡: 장미가 시들어 가네.
- ④ ㉡: 지금 학교로 가고 있어.
- ⑤ ㉢: 두 사람은 친구인가 보다.

13. (가)에 제시된 국어의 단모음 체계를 바탕으로 (나)의 ㉠, ㉡을 해석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가) 국어의 단모음 체계

혀의 앞뒤	전설모음		후설모음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혀의 높낮이				
고모음	ㅣ	ㄱ	-	ㅈ
중모음	ㅑ	ㅓ	ㅕ	ㅊ
저모음	ㅓ		ㅗ	

(나) ㉠ 물>물, 불>불, 풀>풀

㉡ 강충강충>강충강충, 오뚝이>오뚝이

- ① ㉠은 입술 모양이 바뀌는 변화이고, ㉡은 혀의 앞뒤가 바뀌는 변화이다.
- ② ㉠은 입술 모양이 바뀌는 변화이고, ㉡은 혀의 높낮이가 바뀌는 변화이다.
- ③ ㉠은 혀의 높낮이가 바뀌는 변화이고, ㉡은 입술 모양이 바뀌는 변화이다.
- ④ ㉠은 혀의 높낮이가 바뀌는 변화이고, ㉡은 혀의 앞뒤가 바뀌는 변화이다.
- ⑤ ㉠은 혀의 앞뒤가 바뀌는 변화이고, ㉡은 혀의 높낮이가 바뀌는 변화이다.

14. <보기 1>을 바탕으로 ㉠과 품사가 같은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 < 보 기 1 > —

‘-기’는 동일한 형태로 접미사 혹은 어미로 쓰일 수 있다. 접미사는 어근과 결합하여 새로운 품사의 단어를 만들 수 있는 반면, 어미는 새로운 품사의 단어를 만들 수 없다. 다음 예에서 ㉠은 ‘달리-’에 접미사 ‘-기’가 붙어 만들어진 명사인 반면, ㉡은 ‘달리-’에 어미 ‘-기’가 붙었으나 여전히 동사이다. ㉢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지만, ㉣은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것에서 이들의 품사를 알 수 있다.

- *아침에 하는 ㉠달리기는 건강에 매우 좋다.
- *나는 모임에 늦지 않으려고 더 빨리 ㉡달리기 시작했다.

— < 보 기 2 > —

- 저와 함께 ㉢춤을 추시겠어요?
- 장군은 호탕하게 크게 ㉣웃음으로써 위기를 넘겼다.
- 아무리 ㉤잠을 쫓으려 해도 눈이 감겼다.
- 동생이 일기에 “그림을 ㉥그림.”이라고 썼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 ④ 나, 라 ⑤ 다, 라

15. (가)를 참고할 때, (나)의 ㉠~㉣에 들어갈 형태가 모두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와 달리 ‘ㅎ’으로 끝나는 체언들이 존재했다. ‘가을, 나라, 땅, 하늘’ 등의 중세 국어 형태인 ‘ㄱ술, 나라, 짜, ㅎ닐’ 등은 모두 지금과 달리 ‘ㅎ’으로 끝나는 말들이었다. 이 단어들이 ‘ㅎ’으로 끝난다는 사실은 조사와 결합하면 알 수 있다. 가령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결합하면 ‘자히, 짜홀, 짜해’와 같이 ‘ㅎ’이 이어 적기에 의해 그 모습을 직접 드러낸다. ‘과, 도’와 같이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면 ‘자과, 자토’처럼 조사의 첫 자음 ‘ㄱ, ㄷ’이 ‘ㅋ, ㅌ’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체언의 말음 ‘ㅎ’과 조사의 첫 음이 축약된 결과이다. 물론 이 외의 환경, 가령 체언이 단독으로 쓰이거나 관형격 조사 ‘ㅅ’과 결합할 때에는 ‘ㅎ’이 나타나지 않는다.

‘ㅎ’으로 끝나는 체언은 현대 국어로 오면서 모두 말음 ‘ㅎ’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가을, 나라, 땅, 하늘’ 등은 뒤에 어떠한 조사가 오든지 ‘ㅎ’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체언은 ‘ㅎ’의 흔적을 복합어에 남기기도 한다. 가령 ‘살코기, 암탉, 수캐’ 등에서 ‘고기, 닭, 개’의 첫 자음 ‘ㄱ, ㄷ’이 복합어에서 ‘ㅋ, ㅌ’으로 된 것은 모두 그 앞에 오는 말들이 예전에 ‘ㅎ’으로 끝나던 체언이었기 때문이다.

(나) 중세 국어의 ‘돌(石)’은 현대 국어와 달리 ‘ㅎ’으로 끝나는 체언이었다. 이 단어가 홀로 쓰이거나 그 뒤에 조사 ‘이’, ‘과’가 결합하면 각각 (㉠), (㉡), (㉢)와 같이 실현되었다.

- | ㉠ | ㉡ | ㉢ |
|-----|----|----|
| ① 돌 | 돌히 | 돌과 |
| ② 돌 | 돌히 | 돌과 |
| ③ 돌 | 돌히 | 돌과 |
| ④ 돌 | 도리 | 돌과 |
| ⑤ 돌 | 도리 | 돌과 |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0년 노벨 생리 의학상은 학습과 기억을 세포적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연구를 선구적으로 수행한 캔델에게 돌아갔다. 그의 연구는 단순한 생명체인 군소*를 가지고 수행한 것이었지만 생쥐와 같은 척추동물의 신경 세포에서도 동일한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주목받게 되었다. 이러한 캔델의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과 기억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습이란 경험이나 교육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의해 능력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척추 동물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보상이나 처벌이 필수적이다. 만약 한 동물이 특별한 자극에 대하여 특정한 반응을 보였을 때 생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는 보상을 경험했다면 이후 동일한 자극에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특정한 반응의 결과로 처벌을 경험했다면 이후 동일한 자극에 그런 방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를 학습과 관련지으면 쾌감을 주는 행동 반응이 강화되고 불쾌감을 주는 행동 반응이 회피될 때 학습이 일어났다고 말한다.

기억은 이전에 학습된 지식이나 능력을 나중에 사용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것으로, 기억의 지속 시간에 따라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부에서 새로 본 전화번호를 버튼을 누르는 동안만 떠올리는 것은 단기 기억 작용이며, 이전의 자기 집 전화번호를 장기간에 걸쳐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장기 기억 작용이다. 단기 기억에는 용량의 한계가 있는데, 숫자나 문자, 단어의 경우 7개 정도가 그 한계라고 본다. 이러한 한계를 기억의 범위라고 한다. 반면 장기 기억은 저장 용량에 제한이 없다. 장기 기억의 경우 일시적으로 기억을 재생하는 데 실패할 지라도 나중에 어떤 계기나 실마리를 통해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 장기 기억을 ㉢말는 뇌의 부위는 해마와 편도를 포함하는 측두엽 내부인데, 편도는 감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강한 감정과 관련된 기억을 아주 오랫동안 저장한다.

그렇다면 기억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 캔델은 군소에서 아가미의 수축 반사가 관여되어 있는 학습의 한 형태에 주목하였다. 군소는 쉽게 신경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큰 크기의 신경 세포, 즉 뉴런을 가지고 있으며 불과 2만 개의 신경 세포만을 가지고 있어 특정 유형의 행동에 관여하는 경로를 쉽게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연구 대상이 된다. 군소 아가미의 수축 반사는 습관화와 민감화라는 학습 유형과 관련이 있는데, 이 습관화와 민감화는 특정한 감각 뉴런의 말단에 있는 막이온 채널 단백질의 변형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이 밝혀졌다. 여기서 습관화는 보상이나 처벌과는 관계없는 자극을 주었을 때 반응이 점차 줄어들거나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고, 민감화는 강하고 해로운 자극을 받은 후에는 그와 관련된 약한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군소에서 습관화와 민감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처음에 군소의 피부에 있는 호흡관을 자극하면 시냅스 전 뉴런인 감각 뉴런이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해서 시냅스 후 뉴런인 운동 뉴런을 흥분시키고 그 결과 운동 뉴런의 지배를 받는 아가미가 수축된다. 그런데 군소의 호흡관을 약한 강도로 반복하여 건드리지만 할 뿐이면 군소는 이 반복된 자극을 무의미한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감각 뉴런에서 칼슘 채널이 닫히면서, 시냅스 전 말단으로 칼슘의 유입이 줄어든다. 칼슘의 유입이 줄면 글루타메이트의 분비량도 함께 줄어들어 운동 뉴

런의 흥분이 약화되고, 이에 운동 뉴런의 지배를 받는 아가미 수축 역시 줄어드는 습관화가 일어난다. 민감화에서는 꼬리에 강한 전기적 자극이 촉진 뉴런을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촉진 뉴런은 세로토닌을 감각 뉴런으로 방출한다. 세로토닌을 받으면 감각 뉴런은 칼슘 채널이 오래 열리게 하여 칼슘 유입을 늘리고 이로 인해 글루타메이트의 방출이 촉진된다. 결과적으로 운동 뉴런의 전위가 강해져서 아가미 수축이 강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강한 전기적 자극 이후에는 호흡 관을 살짝만 건드려도 아가미의 수축이 강하게 일어난다.

습관화나 민감화의 지속 시간은 1시간 정도에 불과한 단기 기억의 작용이다. 그러나 군소의 꼬리에 여러 차례 전기 충격을 가하고 반복적으로 건드리면 민감화는 며칠 또는 몇 주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장기 강화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장기 기억이 형성된다. 캔델은 군소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단기 기억과 달리 장기 기억이 일어날 때는 새로운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반복적인 자극이 시냅스 전 뉴런에서 이루어지면 세포의 핵에서 전령 RNA를 만드는 유전자들이 활성화되어 유전 암호를 세포질의 리보솜으로 전달하고, 리보솜에서는 운반 RNA가 실어 온 아미노산을 재료로 하여 암호화된 단백질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은 추가적인 시냅스 연결을 형성해 준다.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연결은 시냅스 전 뉴런과 시냅스 후 뉴런 간에 의사소통을 강화해 준다. 학습의 결과로 생기는 이러한 시냅스의 변화를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한다.

* 군소: 바다달팽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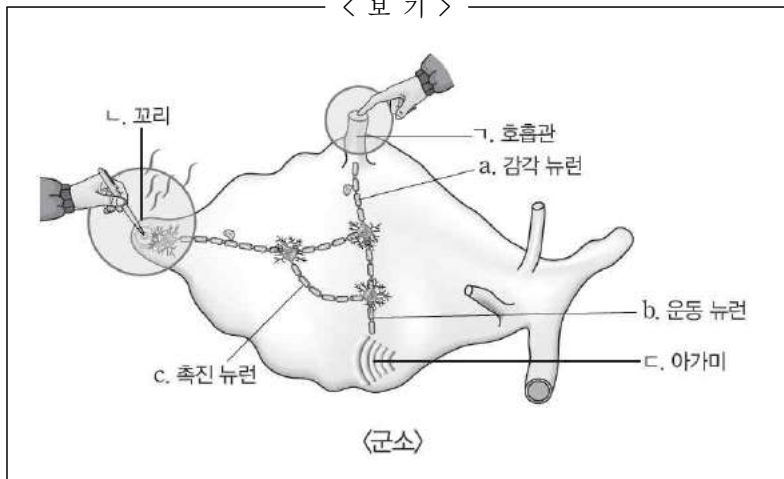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캔델은 군소를 대상으로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 ② 촉진 뉴런이 활성화되면 운동 뉴런 내 세로토닌의 활동이 활발해진다.
- ③ 강한 감정과 관련된 장기 기억은 측두엽 내부에 있는 편도에 저장된다.
- ④ 군소 아가미의 수축 반사는 감각 뉴런이 운동 뉴런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일어난다.
- ⑤ 보상이나 처벌로 인해 행동 반응이 강화되거나 회피될 때 학습이 일어났다고 한다.

17.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사라지기도 하지만 ㉡으로 바뀌기도 한다.
- ② ㉠과 ㉡은 모두 학습을 필요로 한다.
- ③ ㉠과 달리 ㉡은 저장의 용량에 제한이 없다.
- ④ ㉠과 달리 ㉡은 새로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수반된다.
- ⑤ ㉠과 달리 ㉠은 재생에 실패한 기억을 되살릴 수도 있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ㄱ을 처음으로 자극하면 a에서 칼슘 채널이 열려 b로 글루타메이트가 방출된다.
- ② ㄱ을 반복적으로 약하게 자극하면 b의 흥분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ㄷ의 수축 역시 줄어든다.
- ③ ㄱ에 가하는 약한 반복적 자극과 ㄴ에 가하는 강한 전기적 자극은 a의 칼슘 채널에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 ④ ㄴ에 반복적으로 전기적 자극을 가하면 a와 b 사이에 시냅스 연결이 추가된다.
- ⑤ ㄴ에 강한 전기적 자극을 주면 c는 a에서 b로의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19.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태어난 지 4시간밖에 안 된 신생아의 청각 능력을 검사하기 위해 고무젖꼭지에 감지기를 달아 소리가 나도록 했다. 처음 소리가 울리면 신생아는 젖꼭지 빨기를 멈춘다. 그러나 소리가 수차례 반복되면 신생아는 젖꼭지 빨기를 계속한다. 그다음에 감지기에서 나는 소리를 변화시키면 신생아는 다시 빨기를 멈춘다.

- ① 처음 소리가 울릴 때 신생아가 젖꼭지 빨기를 멈춘 것은 습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감지기에서 나는 소리가 달라지자 신생아가 젖꼭지 빨기를 멈춘 것은 민감화로 설명할 수 있겠군.
- ③ 감지기에서 나는 처음 소리는 무의미한 자극을 의미 있는 자극으로 바꾸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감지기에서 나는 소리에 변화를 준 것은 신생아가 해로운 자극을 받은 이후 약한 자극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로군.
- ⑤ 소리 나는 횟수가 반복될 때 신생아가 젖꼭지 빨기를 멈추지 않은 것은 그 소리를 보상이나 처벌과는 관계없는 무의미한 자극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군.

20.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습관화와 민감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 ② 감각 뉴런의 말단에 있는 막이온 채널 단백질의 변형을 가져온다.
- ③ 호흡관에 가한 약한 자극에 대해서는 아가미의 수축이 잘 일어나지 않게 한다.
- ④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 간의 시냅스의 연결을 추가하여 장기 기억을 형성하게 한다.
- ⑤ 단순한 생명체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척추동물의 신경 세포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21. 밑줄 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친구의 부탁으로 잠시 가방을 맡아 두었다.
- ② 나는 회사에서 경리뿐만 아니라 비서 역할도 맡고 있다.
- ③ 그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녀와도 졸다는 허락을 부모님께 맡았다.
- ④ 영수는 독서실에 자리만 맡아 놓고 친구들과 밖으로 놀러 나갔다.
- ⑤ 근속 연수를 채운 그는 회사에 휴가를 맡고 가족과 여행을 떠났다.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중풍으로 쓰러졌던 병력이 있는 ‘나’의 아버지는 유일한 수입원으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한다. ‘나’는 아버지의 잔심부름꾼으로 시장통 도매상을 같이 종종 다녔는데, 어느 날 도매상에서 스무 병이 와야 할 술병이 열여덟 병만 왔음을 알게 된다. 도매상인 흑부리 영감에게 자초지종을 말하지만 사정을 봐주지 않자, 아버지는 흑부리 영감의 눈을 속여 소주 두 병을 미리 넣어 놓았다가 들킬 위기에 처한다.

결국 흑부리 영감은 두 병이 더 들어간 것을 밝혀냈고 아버지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나는 내가 희생양이 돼야 함을 느꼈다.

예, 맞아요. 그건 말예요, 제가 영감님 몰래 넣은 건데요…… 왜냐하면 접때접때 우리 집에서 사실 두 병을 빠뜨리고 갔기 때문에 응, 뽀뽀이어서요…….

㉠나는 이상하게도 맘이 편하고 당당했다. 나도 모르게 입가로 번져 나온 미소를 단속하느라 손바닥으로 입을 몇 번인가 틀어막기도 했다. 흑부리 영감은 얼굴에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고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일단 직접적 책임을 모면한 아버지는 헤של픈 표정으로 날 쳐다볼 뿐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흑부리 영감이 당신과는 이제 거래 끝이야 하고 선언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얼굴 이었다. 아버지처럼 이북 출신인 그 영감은 시장통에서 신용 하나는 보증 수표나 다름 없었지만 성질이 불같고 매몰차기로 소문이 자자한 위인이었기에 그런 상황은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었다.

내래 이까짓 걸루다 당신하고 거래를 끊지는 않겠어. 다 물질 모르는 아이들이 저지른 짓인데 으잉?

아유, 고맙습네다 영감님. 그저 어떻게 해헤…… 우리 아이가 평소에는 그렇게 민한 애가 아닌데 어찌 다…….

단…….

흑부리 영감이 아버지의 말끝을 가로챘다.

내 앞에서 저 아이를 호되게 가르치는 꼴을 봐 주라우. 내가 그깟 술 두 병이 아까워서 기러는 게 아니야. 하지만 기렇게 따끔하게 가르치는 건 바로 자식에게 말이야, 부모 된 도리를 다하는 것 아니겠슴매? 내 이 자리서 이녁이 하는 껌냥을 두고 보고서리 까짓것 그 술 두 병은 거저라두 주겠어. 내 이제껏 남한테 콩알 반 쪼가리도 거저 준 적은 없지만서두, 이건 경우가 다르다우 아암.

호되게라든 …… 어떡케?

쯔쯔, 이녁도 함경도 아바이 출신이든 부랄값도 못 하는 자식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어드러케 다루는지는 알 만하잖소? 그걸 왜 내게 묻소 으응? 아 안 그렇소?

야! 간나야, 니 다시는 이런 민한 짓이래, 하겠니, 안 하겠니? 어서 말 좀 해 보라우.

㉢짐짓 호령을 하는 아버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며 허공 높이 허우적거렸다. 단 한 대에 내 뺨은 무섭게 부풀어 오르며 감각을 잃어 갔다.

길티…… 기게 바로 진짜 교육이야.

㉣흑부리 영감의 격려를 받은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그에게 굶신거리던 다음 또 한 차례 내 뺨을 기세 좋게 올려붙였다. 그러나 이 지독한 연극을 지켜보면서 나는 아픔을 거의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맑아지는 느낌뿐이었다. 그러곤 투시해 버리고 말았다.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의 눈 속에 흐르지도 못하고 괴어 있는 눈물을.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애비라는 존

재는 되지 말자. 아마도 나는 그때 그런 꿈 짝한 다짐을 했는지도 모른다.

(중략)

[**수도상회**] 안에 가득 쟁여 있는 물건들이 무방비 상태로 가지런히 놓인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속에서 뭔가가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터였다. 나는 내가 생각해 봐도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하고 침착했다. 조금만 무슨 일이 닥쳐도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새 가슴이었지만 웬일인지 가슴조차 평온한 맥박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흑부리 영감이 허구한 날 깔고 앉는 알팍한 꽃무늬 방석을 집어 올렸다. 그러고는 방석을 덮어씌운 채 병따개를 이용해 진로소주는 물론이고 이상하게 생긴 양주병 마개들을 소리 나지 않게 따거나 비튼 다음 진열장 위아래 가릴 것 없이 부어 댔다. 그렇게 **한 십 분간 소리 나지 않게 돌아다닌** 것으로 수도상회 물건의 대부분이 절단이 났다. 이제는 다시 도망쳐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웬지 성이 차지** 않았다. 아랫배에서는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연달아 났다. 나는 진열대에 발을 올려놓고 대들보에 매달려 있는 ‘수도상회’라고 쓰인 한글 간판을 꼬집어 내렸다. 그 간판은 흑부리 영감이 월남을 하기 전에 자신의 고향에서 역시 대물림으로 벌이던 잡화점을 꾸릴 때 쓰던 전통 있는 간판이라는 말을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영감탱이가 애지중지하는 물건은 다 작살을 내야만 했다. 나는 떼어 낸 간판을 하수구 안으로 깊숙이 내던졌다. 생각 같아서는 그 자리에서 **뽀개 버리고** 싶었지만 그러자면 그 소리 때문에 영감탱이네 식구가 잠을 깰지도 몰랐다.

막 돌아서려는 내 눈에 흑부리 영감이 만날 보물단지처럼 끌어안고 사는 시커먼 돈케가 들어왔다. 물론 당일 벌어들인 그 안의 돈들은 이미 영감이 다 계산을 마치고 나서 텅텅 비어 있었다. 나는 꾸르륵거리는 아랫배를 움켜쥐고 그 궤 쪽으로 다가섰다. 그러고는 한동안 참았던 굼직한 대변을 그 위에 질펀하게 싸질렀다. 하수구 냄새 때문에 잠깐 감각을 잃었던 내 코였지만 어린애답지 않게 굼게 늘어진 똥줄기에서는 **몹시 구린 냄새**가 진동했다.

하수구를 되짚어 나와 학교 뒷문 개구멍을 통해 수위 아저씨들이 가끔씩 사용하는 비품 창고 안으로 들어 간 나는 세면대에서 몸을 대충 씻었다. 집에 돌아와서도 수돗가에서 계속 비누칠을 해대며 살갓을 수세미로 **뽀뽀** 문질렀다. 흑시나 남아 있을 하수구 냄새를 걱정해서였다.

아버지가 내 등먹 소리에 선장이 달아났는지 부엌 앞 나무 의자에 나와 앉아 담배를 빼물었다.

— 더위를 먹었니?

— ……!

— 중복 되기 전에 인절미라도 해 먹었어야 하는데…… 후유.

— 주무세요, 아버지.

— 내일 비라도 오려나…… 하수구 냄새가 솔솔 코끝을 스치니…….

— ……!

그다음 날부터 시장통이 한바탕 난리를 겪은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수도상회가 절단 난 애기를 주고받았다.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공살긋게 대하지 못해서 그런지 흑부리 영감이 당한 것에 대해 고소해하는 사람들도 꽤 되었다.

[A]

— 물건엔 손을 하나도 대지 않았다는대두. 글썄 어떤 농성깡인지 똥이 한 바가지였대 낄낄.
 — 뭘 조хват속이런가 잉?
 — 그 영감 얼굴이 충격개나 받았는지 축이 가서 말이 아니더라구. 한편으로 그 고린 영감 잘코사니라고, 꽤재도 나지만 당하고 나니까 안쓰럽데 거…….

— 김소진, [자전거 도둑]

22. 수도상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 ㉠ ‘나’가 흑부리 영감의 처사에 대해 품었던 반감을 분탕질로 이어 간다는 점에서, ‘나’에게는 복수를 실현하는 공간이다.
- ㉡ ‘나’가 흑부리 영감에게 수모를 당한 후 극복할 방안을 찾는다는 점에서, ‘나’가 경제적 자립을 모색하는 공간이다.
- ㉢ ‘나’와 아버지에게 부당한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게 하는 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흑부리 영감에게 거래 관계의 우위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 ㉣ 시장통 사람들이 흑부리 영감의 평소 행실과 성품을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인 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공간이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23. [A]를 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여 자신이 아무도 모르게 행한 분탕질을 들킨 것이 아닐까 하여 흥칫 놀라는 얼굴 표정을 담아내야겠어.
- ② 아버지 역할의 배우에게 미안함이 담긴 말투로 연기하도록 요구하여, 더위에 지친 아들을 잘 먹이지 못하는 형편을 드러내도록 해야겠어.
- ③ 여러 명의 인물이 곳곳에 모여서 수군거리는 장면을 교차해서 보여 주어, 이 사건의 특이성에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음을 부각해야겠어.
- ④ 시장통 사람들에게 야박하게 굴었던 과거를 떠올리며 후회하는 흑부리 영감의 회상 장면을 추가하여, 인물 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암시해 주어야겠어.
- ⑤ 흑부리 영감이 기운 없이 늘어져 있는 장면을 추가하여, 사람들의 대화 장면 속에 오버랩하면 좋겠어.

24. <보기>를 바탕으로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에서 ‘나’는 어린 시절에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추레한 아버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작가는 회상을 서술하는 방식을 동원하여, 성인이 된 후에도 유년 시절에 얻은 내면의 상처를 기억하고 있는 ‘나’의 과거를 드러낸다. 장면을 극적으로 재구성한 이 회상은 ‘나’의 무의식 속에 억압된 채 보존되어 있던 상처를 불러내어 이를 다시 경험하게 하고,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게 한다.

- ① ㉠: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양을 자처하는 어린 ‘나’의 순수한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이후 사건으로 인한 내면의 상처가 클 수밖에 없음을 독자가 짐작하는데 도움을 주겠군.
- ② ㉡: 아들의 마음보다 흑부리 영감의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한 아버지의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가난하고 궁핍했던 ‘나’의 어린 시절을 드러내는데 도움을 주겠군.
- ③ ㉢: 아버지에게 맞았던 장면을 극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고통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나’가 성인이 되어서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의식적으로 재경험하는 것을 환기하고 있군.
- ④ ㉣: 궁지에 몰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아버지의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덮어 주지 않았던 아버지에게 대한 원망이 상처의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⑤ ㉣: ‘나’의 과거 기억이 현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유년 시절의 상처가 여전히 자신에게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독자의 공감을 유발하는 것이겠군.

25. <보기>의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나’가 밤에 몰래 ‘수도상회’에 가서 분탕질하는 장면은 현장감 있는 묘사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감각을 동원한 표현이나 음성 상징어를 활용한 표현, 과격한 표현 등을 통해 인물의 인식과 심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긴장감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장면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봅시다.

- ① ‘나’가 ‘속에서 뭔가가 지글지글 끓어오르는 것’을 느낀다는 설정은 내면의 분노를 드러내는 동시에 또 다른 행동을 계획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군.
- ② ‘한 십 분간 소리 나지 않게 돌아다니’ ‘나’의 행동 묘사는 긴장감 있는 현장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군.
- ③ ‘웬지 성이 차지 않’은 ‘나’의 배에서 나는 ‘꾸르륵거리는 소리’는 술병의 술을 부어 대는 행동으로도 복수가 미진하다고 느끼는 ‘나’의 심리 상태와 연결될 수 있겠군.
- ④ 영감이 소중하게 여기는 수도상회 간판을 ‘작살’ 내고 ‘뽕개 버리고’ 싶다는 과격한 표현은 인물의 내면에 자리 잡은 상처와 관련된 것이겠군.
- ⑤ ‘몹시 구린 냄새’로 표현된 ‘나’의 배설은 흑부리 영감에 대한 복수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자괴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후각적 감각으로 드러낸 것이군.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독일의 역사가 랑케의 ㉠실증주의 역사학은 ‘자료 그 자체가 말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원래의 역사적 자료에 충실하면서 어떠한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끝까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서술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사료의 정확성에 집착하여 객관적인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역사학의 폭과 깊이를 축소시키는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었으며 인문·사회 과학의 세계에서 역사학이 자료 제공자의 위치로 전락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후 1970년대 구조 기능주의적 방법론을 주창한 프랑스의 아날학파가 서양 역사학계를 주도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정치보다는 사회, 개인보다는 집단을 역사 서술의 기본 골격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면서, 집단적 행동 양식과 가치관 같은 문화적 대상까지도 계량적으로 연구하고 인구 통계학이나 사회학의 계량적 방법을 통해서 삶에 대한 서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하게 된 ‘미시사(microstoria)’는 1970년대 중반 이탈리아 역사가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주창된 개념으로, 역사학을 ‘실제의 삶에 관한 학문’으로 규정하고, 계량화된 숫자 안에서 희미하게 드러나는 민중이 아니라 실제 살아 숨 쉬는 생생한 인간으로서의 민중을 기록하고자 하였다. 미시사는 이탈리아어로 작다는 뜻의 ‘micro’와 역사라는 뜻의 ‘storia’가 합성된 단어로, 우리말로 직역하면 ‘작은 역사’가 되는데 이는 역사적 대상을 작은 규모와 척도에서 관찰한다는 의미로, 예컨대 한 지역의 사건, 또는 어떤 한 인물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세세히 추적하는 것을 말한다.

미시사의 특징은 연구 주제, 사료의 종류, 서술 방식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미시사는 기존에 무시되어 온 연구 주제들, 연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간주되어 온 주제들을 중점적인 연구 대상으로 여겨 ‘평범한 농민의 세계관’, ‘산업 혁명의 거대 조류 속 소시민의 행동’ 등과 같이 작고 평범한 인물들의 삶의 모습들을 주제로 다루었다. 사료의 종류와 관련하여 미시사는 이전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이른바 ‘내러티브적’ 자료들에도 주목하였는데, 여기에는 재판 기록, 일기, 연대기, 편지, 탄원서, 설화집 등이 있다. ‘자료 그 자체’에 집중했던 랑케식 실증주의가 자신들에 대한 자료를 스스로 생산하는 엘리트 계급의 역사를 기술하는 데는 비교적 유효한 측면이 있지만 자료를 거의 남기지 못한 하층 계급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 주지 못했기 때문에, 미시사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내러티브적 자료들에 주목하여 그 안에 담긴 민중들의 이야기를 살피으로써 이들의 가치관과 문화적 태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서술 방식에 있어서 미시사는 역사가의 주관적 서술을 드러내는 방식을 활용하였는데,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 한 개인의 생각과 행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과정에서 역사가가 갖게 되는 의문점이나 생각도 역사 서술의 일부가 되도록 한 것이다. 미시사의 대표적인 저작물인 긴츠부르그의 [치즈와 구더기]는 한 인물을 이단으로 판정하는 재판 기록에 의거하여 서술되었는데, 저자는 인물이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할 때 생기는 의문이나 가설을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있다.

미시사는 그 접근 방식이 충분히 실증적이지 못하다는 점, 예외적인 주제만을 선호함으로써 사회 전체를 제대로 조망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한계로 지적받기도 한다. 하지만 역사에 대한 기존의 입증 방식과 인식 체계가 엘리트 계급의 문화 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미시사는 기존의 역사학에서 잊힌 사람들, 즉 ‘보통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역사의 무대로 올려놓은 의미 있는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26. 윗글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미시사의 출현 배경
- ② 미시사의 연구 주제
- ③ 미시사의 서술 방식
- ④ 미시사의 한계와 의의
- ⑤ 미시사의 사료 수집 방법

27. 윗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며칠 후에 심문이 재개되었다. 시장이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재판관들은 시장의 귀환을 기다리지 않았다. “마음속의 생각을 말해 달라.”라는 재판관들의 심문에 메노키오는 “저의 영혼은 송고한 것을 추구하였으며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원하였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올바르게 나아가지 못하고 그토록 많은 허식으로 넘쳐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하였다. 도대체, 방앗간 주인 메노키오는 정치·경제·사회적인 모순들이 함께 뒤섞여 있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 그는 자신의 존재를 은밀하게 제약하고 있는 그 거대한 힘의 논리에 대해 어떤 상상을 하고 있었을까?

- 카를로 긴츠부르그, [치즈와 구더기]

- ① 인물이 법정에서 서게 된 행적을 집중적으로 세세히 추적하고 있군.
- ② 사건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인물의 말에 대한 역사가의 의문이 드러나고 있군.
- ③ 재판 기록이라는 내러티브적 자료를 바탕으로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살피고 있군.
- ④ 거시적으로 사회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서 일어난 특정 사건에 집중하고 있군.
- ⑤ 집단적 행동 양식 속의 개인이 아니라 방앗간 주인이라는 평범한 인물의 실제 삶의 모습을 다루고 있군.

28. ㉠의 입장에서 ‘미시사’를 평가한다고 할 때, 그 내용을 추론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시사적 접근은 역사 서술에 있어서 사회와 집단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 ② 미시사적 접근은 삶에 대한 서술을 함에 있어서 계량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 ③ 미시사적 접근은 개인의 생각과 행적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서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 ④ 미시사적 접근은 자료를 거의 남기지 못한 하층 계급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 ⑤ 미시사적 접근은 역사학이 인문·사회 과학의 세계에서 자료 제공자에 그치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29~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현상을 '해체하여 읽는다'는 것은 그 현상을 해체하여 소멸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고정 관념을 해체하여 새롭게 조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공간을 해체하여 읽는다는 것은 공간을 창출하는 비가시적인 영역에 주목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앙리 르페브르는 '건축학의 공간', '문학의 공간'처럼 공간을 구분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공간을 파편화한다고 비판하면서 공간을 창출하는 비가시적인 영역에 주목하여 일상생활과 사회를 포괄하는 공간 이론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는 공간이 사회의 고유한 성격과 사회적 관계에 의해 끊임없이 생산되는 것이기에 모든 공간은 '사회적 공간'이라고 보았다. 르페브르는 사회적 공간이 구체적인 형태를 지닌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추상적, 정신적 공간을 아우르는 것으로서 공간을 생산하는 주체들의 의도에 따라 상호작용을 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고안된(conçu) 공간', '체험된(vécu) 공간' 등의 개념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공간을 인식하기 위해 자신의 의식 구조 안에서 일정한 이론적 형태를 지닌 담론을 만들어 낸다. 과학자, 도시 계획자, 예술가 같은 전문가 집단은 한 사회에서 정당하다고 간주하는 이론이나 중시하는 가치에 근거해 '고안된 공간'을 만들어 낸다. 이 공간은 추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물리적 공간이나 도시 계획의 도면, 지도 등에 투영될 수 있다. 냉전 시대에서 방 국가들은 공산권 국가의 위협을 강조하기 위해 공산권 국가의 영토를 크게 확대해 왜곡한 지도를 제작하였다. 이렇게 이념에 의해 고안된 지도의 공간은 대중들에게 공산권 국가의 위협을 각인시키는 데 일조했다. 이는 '고안된 공간'이 대중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쳐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에 비해 '체험된 공간'은 상상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개인의 주관에 따라 정신적으로 다양하게 재현되는 공간이다. 재현이란 외적 대상을 주관으로 조합하고 상상을 통해 저마다의 방식으로 재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극을 감상하는 관객들이 상상력을 바탕으로 무대를 각기 개별화하여 체험하는 것처럼 이 공간은 개인의 사고에 따라 각기 달리 체험되는 공간이며, 유동성을 지니고 있다. 집에 대해 아시아와 유럽, 현재와 과거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시대별, 장소별로 '체험된 공간'이 지닌 유동성을 보여 준다. 이러한 개별성과 유동성을 지닌 '체험된 공간'은 주민들의 집단적 정치 행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공간들이 상호 작용하는 일면을 이언 보든은 일상 공간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보여 주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도시의 기념비적 건축물이나 엄숙한 구조물처럼 추상적인 담론을 형상화한 상징적 공간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스케이트보드 기술을 뽐내곤 한다. 도시의 기념비적 건축물이나 엄숙한 구조물은 사회적으로 중시하는 가치나 지배층의 담론에 의해 규범화된 일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행위를 통해 기존의 규범화된 공간을 상상력이 충만한 공간으로 바꾼다. 몇몇 서구 대도시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공간과 사람의 관계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해당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스케이트보드 통행 방지 장치를 덧붙였다. 이에 대해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사람들은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는 구호를 내걸고 집단적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스케이트

보드를 타는 행위와 이들의 캠페인은 지배층의 담론을 규범화하여 강요하는 수직적 질서의 '고안된 공간'을 '체험된 공간'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결국 '고안된 공간'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것은 규범화된 질서에서 벗어난 행위이며, 이들의 캠페인은 기존의 공간을 도시의 모든 주체가 자유롭게 평등하게 개별성을 누릴 수 있는 수평적 질서의 공간으로 변화시키려는 저항인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르페브르는 일상생활에서 '체험된 공간'이 지닌 정치적 실천의 가능성을 강조한다. 일상 공간은 정해진 규범에 의해 통제되는 수동적 억압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상상력이 존재하는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공간이기도 하다. 르페브르는 일상 공간이 수동성과 창조성, 지배와 저항이라는 대립적 요소들의 병존이 만드는 모순과 긴장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다. 결국 그의 말처럼 ①일상 공간은 억압된 'No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Yes의 공간'이자 삶이 확인되는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르페브르의 해체적 공간 읽기는 현대 도시의 일상 공간이 지배층의 담론에 의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도시의 모든 주체가 개별성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의 이러한 공간 읽기는 오늘날 대중들에게까지 '도시에서 살 권리'를 확장하려는 다양한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2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르페브르'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적 공간은 공간을 생산하는 주체들의 의도에 따라 끊임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
- ② 일상 공간은 지배층의 담론뿐만 아니라 개인의 개별적 체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 ③ 연극의 관객들이 무대에 대해 떠올리는 이미지가 다르듯이 '체험된 공간'은 유동성을 지닌다.
- ④ 권력을 가진 존재들이 만든 '고안된 공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중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⑤ 일상생활에서 생산되는 모든 사회적 공간은 기존의 고정 관념에 의한 공간으로서 파편화된 공간이다.

3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중심부의 칭기즈 칸 광장에는 몽골 제국의 정복자 칭기즈 칸과 사회주의 혁명의 영웅 수흐바타르의 동상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몽골 정부는 정권 수립에 공을 세웠던 수흐바타르 동상을 세워 광장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냉전의 붕괴 이후 몽골 정부는 민족성을 강조하여, 웅장한 건물과 칭기즈칸 동상을 광장에 새로 세우고 광장의 이름도 수흐바타르 광장에서 칭기즈 칸 광장으로 바꾸었다.

이와 같은 광장의 변화는 (㉠)을 알려 준다.

- ① ‘체험된 공간’이 대중을 억압하는 이념적 수단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
- ② 특정 이념이 개인별로 상이한 ‘체험된 공간’을 물리적 공간에 투영할 수 있다는 사실
- ③ ‘고안된 공간’이 억압한 대중의 일상적 공간이, 능동적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
- ④ 한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담론이 변화하면 ‘고안된 공간’도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
- ⑤ ‘고안된 공간’과 ‘체험된 공간’의 상호 작용이 주민들의 집단적 정치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사실

31.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상 공간은 수직적 질서의 공간을 긍정함으로써 수평적 질서의 공간을 확인하려는 자유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 ② 일상 공간은 규범화된 질서에 의해 억압되는 공간인 동시에 주체들이 개별성을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 ③ 일상 공간은 규범화되어 강요된 공간과 연관되지 않은 새로운 공간으로, 지배층의 담론에 맞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 ④ 일상 공간은 수동성과 창조성을 지닌 상상력의 공간에서 정해진 질서에 의해 규범화된 공간으로 변화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 ⑤ 일상 공간은 규범화된 담론이 부정되는 공간이지만, 창조성과 저항이라는 대립적 요소를 수용함으로써 지배층의 이념을 강화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32~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도시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형성되고 성장했다. 현대 사회에서는 도시화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도시 공간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되었다. 현대시는 이러한 도시에서의 삶이 인간에게 주는 상실감과 허무감, 절망감, 고뇌 등을 시적 관심의 대상으로 다루어 왔다.

1930년대의 경성은 식민 정책에 의해 기형적으로 성장한 도시로서 이전과는 모습이 크게 변하고 있었다. 이 변화는 당시 새롭게 등장하던 한국 모더니즘 시에 영향을 끼쳐, 막연한 이국적 정서나 서구 취향, 혹은 도시 문명에 대한 동경 등이 시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등장한 낯선 거리 풍경과 군중의 모습, 외래 문명에 대한 거부감, 각박한 도시인의 삶 등으로 시인의 시선이 옮겨 가면서, 근원적인 것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과 우울감 등이 시의 지배적 정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김광균의 시 [추일서정]은 도시적인 소재나 사물, 관념 등을 그려 내는 과정에서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동원하고 일상적인 관념을 깨뜨리는 낯선 비유를 활용한다. ㉠이러한 표현상의 특징은 당대의 도시 현실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비판적 인식을 유도한다.

도시가 발달하면서 그것을 재현하는 시의 모습도 시대에 따라 변하였다. 최근 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화 되고 대도시가 팽창하면서 현대시에서 도시의 양상은 보다 복합적으로 그려지고 있다. 도시의 바쁜 일상 속에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려 내거나 자아의 상실과 인간 소외 등을 첨예한 이미지로 그려 내는 경우도 있고, 도시를 경험하는 주체로서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김혜순의 시 [별을 굶다]는 복잡한 대도시의 바쁜 생활 속에서 내면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현 대인의 소외된 삶과 그 극복 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나) 낙엽(落葉)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紙幣)

포화(砲火)에 이즈러진 / 도룬 시(市)*의 가을 하늘을 생각해 한다.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 일광(日光)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 새로 두 시의 급행차(急行車)가 들을 달린다.

포플라 나무의 근골(筋骨) 사이로 /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내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鐵柵)이 바람에 나부끼고 / 그 위에 세로팡지(紙)로 만든 구름이 하나.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차며 / 호올로 황량(荒涼)한 생각 버릴 곳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 기울어진 풍경(風景)의 장막(帳幕) 저쪽에

고독한 반원(半圓)을 긋고 잠기어 간다.

- 김광균, [추일서정(秋日抒情)]

*도룬 시: 토룬 시. 폴란드 중부에 있는 상공업 도시.

(다) 사당역 4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에스컬레이터에 실려 올라가서

뒤돌아보다 마주친 저 수많은 얼굴들 / 모두 붉은 흙 가면 같다

얼마나 많은 불가마들이 저 얼굴들을 구워 냈을까

무표정한 저 얼굴 속 어디에
아침마다 두 눈을 번쩍 뜨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밖에서는 기척도 들리지 않을 이 깊은 땅속을
밀물져 가게 하는 힘 숨어 있었을까

하늘 한구석 별자리마다 쪼그리고 앉아
별들을 가마에서 구워 내는 분 계시겠지만
그분이 점지하는 **운명의 별빛** 지상에 내리겠지만
물이 쏟아진 듯 몰려가는 / **땅속**은 너무나 깊어
그 별빛 여기까지 달기나 할는지

수많은 저 사람들 몸속마다에는
밖에선 볼 수 없는 뜨거움이 일렁거리나 보다
저마다 진흙으로 돌아가려는 몸을 일으켜 세우는
㉔**불가마** 하나씩 깃들어 있나 보다

저렇듯 십 년 이십 년 오십 년 얼굴을 구워 내고 있었으니
모든 얼굴은 뜨거운 속이 굽는 ㉕**붉은 흙** 가면인가 보다
- 김혜순, [별을 굽다]

32.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 ‘낙엽’을 통해 화폐로서의 기능을 잃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를 떠올린 것에서, 도시에서 느끼는 무상감은 식민지로 전락한 민족의 현실과 관련이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 ② (나):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진 한 줄기 ‘길’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벗어나 도시화 이전의 근원적 세계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화자의 동경을 떠올릴 수 있다.
- ③ (나): ‘황량한 생각’을 떨치고자 ‘돌팔매’를 던지는 화자의 모습에서, 변화된 도시 풍경이 주는 낯섬과 거부감을 떨쳐 내고 그것에 익숙해지고 싶다는 열망을 떠올릴 수 있다.
- ④ (다): ‘사당역’에서 마주친 무표정한 ‘얼굴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 화자는 참된 자아를 잃고 정체성의 혼란에 직면한 대도시 시민들의 무기력한 삶을 비판하고 있다.
- ⑤ (다): ‘운명의 별빛’이 닿을 수 없는 ‘땅속’의 삭막한 풍경에 대한 묘사를 통해, 화자는 각박한 현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현대 도시 군중의 소외된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33. ㉔을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광의 폭포’라는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활기찬 도시를 바라보는 화자가 서구 문명에 대해 품고 있는 동경의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달리는 ‘급행차’의 연기와 사라지는 ‘담배 연기’의 유사성에 착안하여, 서구 문명의 유입으로 인해 변화된 도시 풍경에서 떠올린 화자의 상실감을 암시하고 있다.
- ③ 동물 신체의 ‘근골’이나 ‘흰 이빨’에 연결시켜 도시적 소재를 비유한 것에서, 삭막한 도시 풍경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떠올릴 수 있다.
- ④ 자연물인 ‘구름’을 ‘세로팡지’라는 낯선 소재와 결합한 것에서, 도시 풍경을 통해 화자가 떠올리는 이질적인 느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자욱한 풀벌레 소리’는 청각을 시각으로 전환시킨 공감각적 심상으로서, 도시의 가을 풍경을 접한 화자의 쓸쓸해하는 마음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34. (나)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감탄문의 반복을 통해 대상에 대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다)는 의문문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의구심을 암시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모두 반어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모두 수미상관을 활용하여 시상 전개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⑤ (나)는 의인법을 통해, (다)는 활유법을 통해 화자의 감정 이입을 나타내고 있다.

35. (다)의 ㉔, 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㉔는 물질적 풍요에 대한 욕망을, ㉕는 그 욕망을 충족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상실감을 가리킨다.
- ② ㉔는 타인과의 경쟁심을, ㉕는 그 경쟁심 때문에 스스로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도시인들의 얼굴 모습을 가리킨다.
- ③ ㉔는 초월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㉕는 그 동경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를 절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 ④ ㉔는 도시인의 마음속에 간직된 삶의 의지를, ㉕는 그 의지가 표출되어 남들에게 비치는 도시인의 얼굴 모습을 가리킨다.
- ⑤ ㉔는 타인과의 공존을, ㉕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능성을 높이려고 본모습을 감춰야 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떠올리게 한다.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이방원의 숙청 정책으로 가족을 잃은 풀이와 담이는 각각 채윤과 소이라는 이름으로 궁에서 생활한다. 채윤은 아버지의 죽음이 이도(세종)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를 제거하려 하지만, 소이는 이도의 한글 창제를 돕는다. 소이와 채윤은 서로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 채윤의 계획을 소이와 이도가 알게 되고, 이도는 두 사람을 떠나보낸다.

[제 13 부]

S# 50. 은행나무 길(낮)

조금 앞서 걷는 채윤. 살짝 뒤에서 따라 걷는 소이. 행복한 표정의 채윤. 반면에 복잡한 표정의 소이에서 그 위로

이도: ㉠(흥분되고 떨려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E.*) 소이야!!

S# 51. 글자방(회상, 낮)

뚱뚱뚱뚱한 눈으로 보는 소이. 원가를 쓴다.

소이: (N.*) 드디어 중성자가 상형이 된 것이옵니까?

이도: (보면)

소이: (N.) 전하의 눈빛이....., 전하의 목소리가 그러하옵니다!

이도: (그 말에 더 긴장되는 듯) 네가 그리 말하니..... 오히려 말을 못 하겠구나! 어찌 그리 과인을 꺾뚫어 보는고? 못하겠다!

하면, 소이, 재촉하듯 종이를 이도 앞에 놓고 붓을 이도에게 올린다. 이도, 그런 소이를 보다가는 할 수 없이 붓을 잡는다.

이도: (그리려다가는 다시 소이 보며) 아니면..... 아니라고 바로 말하거라. ㉡아니다...... 아니라고 네가 쓰는 동안..... 내 심장이 터질지도 모르니....., 아니거든..... 그냥 바로 일어나 나가거라.

소이: (고개를 고덕하고는 뚫어져라 본다.)

이도: (그런 소이를 보며) 어차피 중성자는 발음 기관의 모양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하질 않았느냐? 해서..... 말이다...... 어차피 그럴 것이라면......

소이: (보는데)

이도: 자연의 원리, 우주 만물의 근원을 담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다.

소이:

이도: 아니....., 실은..... 내 마음을 담은 것이지......

소이: (빨리 얘기하라는 듯 종이를 이도 앞에 더 잘 놓아 주는데)

이도: (점을 찍으며) 천..... (점 밑에 一를 그으며) 지..... 신명 이시여...... (점 옆에 丨를 그으며) 백성을 굽어살펴 주시옵소서......

소이: (본다.)

이도: (그린 것을 가리키며) 하늘..... 땅..... 사람..... 삼재를 상형한 것이다. 이것으로..... 중성자의 원형을 삼아..... 아..... 으..... 이..... 로 쓴다면......

하는데..... 보던 소이, 이도가 그려 놓은 점, 一, 丨에 으, 이를 그려 네모 속에 점이 들어간 형태를 만든다. 보는 이도.

이도: 무엇이나...... 마치 하도를 보는 듯하구나.

그러고는 네모의 바깥쪽으로 점 하나씩을 그린다. 놀라운 눈으로 보는 이도.

이도: (소이가 점 하나씩을 찍어 완성하는 것을 보며) ㉢그래!! 아! 어! 오! 우!

그러고는 이도, 바로 소이의 붓을 뺏어 네모 바깥으로 또 선을 하나씩 더 그어 더 큰 네모를 만들고는 점을 두 개씩 찍는다.

이도: 이리하면! 야! 여! 요! 유! 가 되겠구나!! 좋구나!! 또한 무엇보다 쉽다!! 그래!! 내가 바라던 것이다!!

소이: (보며 자신도 좋은데)

[중략 부분의 줄거리] 소이는 이도가 자신에게 가장 위협적인 사람으로부터 한글의 정당성을 얻으려 한다는 그의 진심 어린 말을 회상하며, 다시 한글 창제 작업에 참여하기로 결심한다. 소이의 마음까지 알게 된 채윤은 분노가 더 커지고 이도를 제거하려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려 이도를 찾아간다.

S# 60. 글자방(밤)

경악한 표정의 이도와 무흠. 보면, 그 앞에 서 있는 소이.

이도: (놀란 얼굴) 어찌..... 돌아온 것이냐.....?

소이: (담담하게) 저의 일을 하러 왔습니다.

무흠:

이도: (단호하게) 떠나라 하지 않았느냐. 이젠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소이: 처음부터 저의 일이었습니다. 끝마칠 것입니다.

이도: (말없이 보는데)

소이: 또한, 이제 곧..... 두 번째 판관이 올 것입니다. (하며 이도 보는데)

놀란 무흠, 놀란 이도.

소이: (결연하게) 참고..... 기다리며..... 오직 인내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득한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S# 61. 민가 마당(밤)

옷 속에 단도를 양쪽으로 장착하는 채윤. 결심을 굳힌 듯 마당 한쪽에 세워 둔 칼을 들고, ㉣결연한 눈빛으로 걸어 나간다.

S# 62. 글자방(밤)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에 잠겨 있는 이도. 그 옆엔 무흠 있다.

무흠: 전하......

이도: (눈을 떠 무흠 보며)

무흠: 강채윤이 궁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다가는 말을 끊고 이도를 본다.)

이도: (생각이 복잡한 듯 보면)
 무흠: 나인 소이가 전하를 따라 궁으로 돌아왔으니, 현재 그자의 심정이 어떨지는 볼 보듯 뻔합니다. 소신 이…….
 이도: ㉠(O.L.*결심을 굳힌) 그자가 오는 길을 비워 주거라.
 무흠: (경악해서) 예……?
 이도: 광화문에서 근정전, 사정전에서 강녕전……, 그 사이의 내금 위, 별시위, 검사복을 모두 비워!
 무흠: (필사적으로) 아니 되옵니다!! 전하!!
 이도: (악마적인 미소 지으며, 담담하게) 두 번째 판관이 온다지 않느냐.
 무흠: ……전하…….
 이도: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고…… 설득한다 했으니…… 그 리하라는 것 아니겠느냐?
 무흠: ……
 이도: 나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자를 직접 설득하라는 것 아니겠느냐?
 - 이정명 원작, 김영현·박상연 각색, [뿌리 깊은 나무]
 *E . : effect(효과음)의 줄임말.
 *N . : narration(내레이션)의 줄임말.
 *O.L . : overlap(오버랩)의 줄임말.

36. 두 번째 판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소이’ 자신을 일컫는 말로서, 채윤의 의도가 타당하지 않다고 설득하여 그의 결심을 바꾸는 인물을 뜻한다.
- ② ‘소이’ 자신을 일컫는 말로서, 이도와 무흠 사이의 의견 대립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려 줄 인물을 뜻한다.
- ③ ‘채윤’을 가리키는 말로서, 소이와 이도 사이의 끈끄러운 관계가 왜 형성되었는지를 밝혀 줄 인물을 뜻한다.
- ④ ‘채윤’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도가 자신이 수행하는 한글 창제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인물을 뜻한다.
- ⑤ ‘무흠’을 지칭하는 말로서, 이도와 소이 사이에 형성된 갈등을 종재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 시키는 역할을 할 인물을 뜻한다.

37. ㉠~㉣을 영상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영상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의 목소리를 효과음으로 삽입하여, 인물의 과거 회상으로 장면이 전환될 것임을 알려 주어야겠어.
- ② ㉡: 새롭게 만든 글자에 대한 이도의 불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조바심이 잘 드러나는 어조로 대사를 처리하도록 안내해야겠어.
- ③ ㉢: 소이의 행동을 보며 놀라워하는 이도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소리를 높여 대사를 처리하도록 연출해야겠어.
- ④ ㉣: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채윤의 심리 상태를 부각하기 위해, 단호한 표정의 얼굴 연기를 담은 화면을 제시해야겠어.
- ⑤ ㉤: 동일한 공간에 함께 있는 인물들의 표정을 연결시켜, 상황에 대한 두 인물의 상반된 태도를 부각해야겠어.

38. 윗글의 ‘S# 51’은 <보기>의 내용을 각색한 것이다. ‘S# 51’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소이의 머릿속이 번개가 치듯 번쩍 밝아졌다. 소이는 앞에 놓인 세필을 들어 먹물을 찍었다. 그리고 반듯한 사각형 하나를 그렸다. 주상의 물 흐르는 듯한 강연은 계속되었다. “는 혀가 움츠러들고 소리가 깊으니 꿀의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다. — 는 혀가 조금 움츠 러들고 소리가 깊지도 않고 얕지도 않으니 꿀의 평평함은 땅을 본뜬 것이다. | 는 혀가 움츠러들 지 않고 소리가 열으니 꿀의 섬은 사람을 본뜬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천, 지, 인의 씨앗이 서로 모이고 흩어져 각기 다른 소리를 만들어 낸다.”

어느덧 소이 앞의 반듯한 사각형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안개 속처럼 흐릿하던 소리의 이치가 간단한 그림 위에 정리되었다. 주상은 다소곳이 눈을 내리깔고 있는 소이를 바라보았다.

“말을 하지 못하는 네 지력이 모든 상궁 나인들보다 나으니 앞으로 즐겨 너와 성운을 논하겠다.” 상궁 나인들이 눈길을 깔며 숙연해졌다.

- 이정명, [뿌리 깊은 나무]

- ① <보기>는 중심인물 이외의 주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S# 51은 두 명의 중심인물만으로 사건을 전개하여 핵심 사건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보기>에서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는 소이의 모습을 S# 51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한글 창제 과정에서 소이가 맡은 역할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보기>에서 물 흐르는 듯이 강연하는 주상의 모습은 S# 51에서 소이의 생각에 귀 기울이는 모습으로 변용됨으로써, 중성자 창제에 대한 이도의 신중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보기>는 주상이 일방적으로 강연하는 장면이 중심을 이루지만, S# 51은 이도와 소이 간의 상호 소통을 중심으로 장면을 구성하여 극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⑤ <보기>는 글자를 그리는 소이의 능동적인 행동을 중심으로 그려 내지만, S# 51은 이도의 지시에 따르는 소이의 수동적인 행동을 화면에 담아내어 이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39~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독일의 철학자 카시러는 ‘상징 형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예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상징 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징 형식을 만드는 능력인 ‘상징적 기능’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상징적 기능이란 인간의 의식이 갖고 있는 본래적인 정신적 능력으로, 이는 인간의 의식에 들어온 모든 특수한 내용을 다른 내용들 및 그것들 전체와의 관계망 속에 위치시키는 작용을 한다. 상징적 기능의 이러한 작용을 통해 인간 경험 속의 특수한 내용은 시·공간적으로 한정되어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 보편적 형식을 획득하게 되며, 이러한 보편적 형식을 토대로 인간은 의미 세계를 형성하고 세계를 바라보는 틀을 갖추게 되는데 이를 상징 형식이라고 한다.

상징 형식에는 신화, 언어, 예술, 종교, 과학 등이 있는데 상징 형식으로서의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화와 언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상징 형식으로서의 ‘신화’는 세계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통해 이해하여 자연 현상의 기원이나 의미를 초자연적 존재를 빌려 설명하는 이야기이며, 이를 토대로 인간은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 여기에는 인간의 정신 능력들 중 상상력의 역할이 중요하게 요구 된다. 또한 상징 형식으로서의 ‘언어’는 변화무쌍한 사물들의 세계를 고정불변의 성질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기호로 나타냄으로써 의미 세계를 형성하는 상징 형식으로, 여기에는 인간의 인식 능력의 역할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상징 형식으로서의 ‘예술’은 사물들의 내적 의미에 대해 ‘느낀다’는 점에서 신화와 유사하며, 그 느낌들을 물질적 매체, 선의 형태, 색채의 조화와 대비와 같은 예술 작품의 형식을 통해 드러낸다는 점에서 언어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술은 신화와 언어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는 상징 형식이며, 상상력과 인식 능력의 조화로운 역할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카시러는 예술은 일상적 경험을 재생하고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들의 내적 의미에 대해 느끼고 현실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용한 ‘볼 줄 안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예술가의 위상에 대해 설명하였는데, 일상적 사물들을 수천 번 접해도 그 내적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현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일반인에 비해, 예술가는 예술적 상상력을 통해 이를 느끼고 발견하는, 즉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예술가는 사물들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흙, 청동, 대리석과 같은 물질적 매체, 선의 형태, 색채의 조화와 대비와 같은 예술 작품의 형식을 통해 볼 수 있고 만져 볼 수 있는 것으로 작품을 구성하게 되며, 감상자는 이를 통해 예술가의 눈으로 사물들의 내적 의미를 느끼고 현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즉 예술에서 보이는 미는 사물들에 대한 예술가의 직관과 상상력이 작품의 형식으로 변형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예술 작품이 감상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이 형식의 구조, 균형, 질서라고 볼 수 있다.

39.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징 형식으로서의 신화와 언어
- ② 예술 작품의 내용과 형식 간의 관계
- ③ 인간이 지닌 상징적 기능의 개념과 역할
- ④ 상징 형식과 예술에 대한 카시러의 견해

⑤ 카시러와 다빈치가 바라본 예술가의 위상

4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정신적 능력인 상징적 기능은 상징 형식을 갖추게 하는 기초가 된다.
- ② 일반인은 작품 감상을 통해 예술가의 눈으로 사물들을 바라봐도 그 내적 의미를 느끼지 못 한다.
- ③ 상징 형식으로서의 신화는 느낌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며, 세계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 ④ 인간의 의식에 들어가는 특수한 내용은 상징적 기능에 의해 시·공간적 한정성을 벗어나 보편적 형식을 획득하게 된다.
- ⑤ 상징 형식으로서의 신화에서는 상상력의 역할이, 상징 형식으로서의 언어에서는 인간의 인식 능력의 역할이 중요하게 요구 된다.

4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카시러’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형식주의 예술론을 주장했던 벨과 프라이어는 예술 작품의 주제나 내용보다는 선·면·색·양감 등의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형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예술이란 일상적 경험의 재현이라는 목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작품 그 자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형식주의 예술론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벨과 프라이어의 인식이 예술과 현실을 구분 짓고, 예술을 공허한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본다며 비난하였다.

- ① 예술은 사물들에서 내적 의미를 느끼고 현실을 발견하는 것이므로, 형식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 ② 예술은 일상적 경험의 재현을 목적으로 하므로, 누구나 사물들 가운데서 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③ 예술 작품이 감상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형식의 구조와 균형, 질서이므로, 공허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형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 ④ 물질적 매체와 선의 형태, 색채의 조화와 대비 속에서 예술의 미가 나타나므로, 예술의 형식에 어떠한 의미도 담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 ⑤ 현실에 대한 예술가의 직관과 상상력이 작품의 형식을 통해 구성되므로, 형식에 주목하는 것이 예술과 현실을 구분 짓는 것은 아닙니다.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난해 사랑하는 딸을 잃고	去年喪愛女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 잃었소	今年喪愛子
서럽고도 서러운 ㉠광릉 땅이여	哀哀廣陵土
두 무덤 마주 보고 나란히 솟았구려	雙墳相對起
백양나무 가지 위 바람 쓸쓸히 불고	蕭蕭白楊風
도깨비 불빛만 무덤 위에 번뜩인다	鬼火明松楸
지전을 살라 너희 혼백 부르고	紙錢招汝魄
무덤 앞에 물*부어 ㉡제사 지내네	玄酒奠汝丘
㉢가없는 남매의 외로운 영혼	應知弟兄魂
밤마다 서로 어울려 노닐겠구려	夜夜相追遊
배 속에는 ㉣어린애 들었지만	縱有腹中孩
[A] 어떻게 무사히 기를 수 있을까	安可冀長成
하염없이 황대사*를 읊조리다 보니	浪吟黃臺詞
㉤통곡과 피눈물로 목이 메이네	血泣悲吞聲

- 허난설헌, [곡자(哭子)]

*물: 현주(玄酒)를 이룸. ‘현주’는 제사 때 술 대신 쓰는 맑은 찬물.

*황대사: 당나라 무후(武后)가 황자(皇子)를 모두 죽이는 것을 풍자한 노래. 이 시에서는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을 이룸.

(나) [앞부분의 줄거리] 난리 중에 부모와 헤어져 강물에 빠진 계월은 여공에게 구출되어 평국이라는 이름을 얻고 남장을 한 채 여공의 아들 보국과 함께 자란다. 성장한 두 사람은 각각 장원, 부장원으로 급제하고 대원수와 중군장으로 출전하여 난을 평정한다. 진맥을 받던 계월이 여자임이 밝혀지자 천자는 계월과 보국을 혼인하게 한다. 하지만 혼인 이후에 계월이 군령에 따라 보국을 엄하게 대하자 보국은 불평하며 계월을 멀리하고, 이에 계월은 여자로 태어난 것을 한스러워한다. 이때 천자에게 오왕과 초왕이 황성으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장계가 도착한다.

천자가 깜짝 놀라 조정의 모든 신하와 의논했다. 우승상 정영태가 말했다.

“이 도적은 좌승상 평국을 보내 막아야 합니다. 급히 평국을 부르십시오.”

천자가 듣고 지곳이 생각하다가 말했다. “평국이 전일에는 세상에 나왔기에 불렀지만, 지금은 규중에 머물러 있는 여자인지라 차마 불러낼 수 없도다. [B]어찌 전쟁터로 보내리오?”

모든 신하가 말했다. “평국이 지금 규중에 있으나, 이름이 조야에 있고 또한 작록을 거두지 않았으니, 어찌 규중에 있다 하여 거리끼겠습니까?”

천자가 마지못해 급히 평국을 불러냈다. 이때 평국이 규중에서 홀로 지내면서 날마다 시녀들과 함께 장기와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사관(辭官)이 와서 천자가 부르는 명령을 전하자, 평국이 깜짝 놀라, 급히 여자 옷을 벗고 조복으로 갈아입은 후에 사관을 따라 들어가 천자 앞에 엎드렸다. 천자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경이 규중에 머문 후로는 오래 보지 못하여 밤낮으로 보고 싶더니, 이제 경을 보니 매우 기쁘도다. 내가 덕이 없어 지금 오나라와 초나라 양국이 반역하여, 호주 북쪽 지방을 쳐서 항복을 받

고 남관을 해치고 황성을 침범한다고 하니, 경은 나아와 나라와 조정을 편안하게 지키도록 하라.”

평국이 엎드려 아뢰었다.

“신첩이 외람되게 폐하를 속이고 높은 공후(公侯) 작록을 영화롭게 지내기가 황공합니다. 신첩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시니, 신첩이 비록 어리석으나 힘을 다해 성은을 만분의 일이나 갚고자 합니다. 폐하는 근심치 마소서.”

천자가 매우 기뻐하며 즉시 천병만마(千兵萬馬)를 뽑아 모으도록 했다. 삼남원에 진을 치고 원수가 친히 붓을 잡아 보국에게 전령하기를, ‘적병이 급하니 중군은 급히 대령하여 군령을 어기지 말라.’ 했거늘, 보국이 전령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부모께 여쭙었다.

“계월이 또 소자를 중군으로 부리려 하니,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공이 말했다.

“전일에 너에게 무엇이냐 이르더냐? 계월을 괘시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 어찌 그르다 하리요? 국사가 매우 중하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여공이 보국에게 바빠 가라고 재촉했다.

보국이 할 수 없어 갑주를 갖추고 진중에 나아가 원수 앞에 엎드리니, 흥 원수가 분부했다.

“만일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군법을 시행할 것이다.”

보국이 두려워하며 중군 처소로 돌아와 명령이 내리기를 기다렸다. 흥 원수가 장수들에게 각각의 임무를 정하고 추구월 갑자일에 행군했다. 십일월 초일일에 남관에 당도하여 삼일 동안 군사를 머물게 하고, 즉시 떠나 오일에 천축산을 지나 영경루에 다다랐다. 적병이 평원광야에 진을 쳤는데, 군세기가 철통같았다.

원수가 적진을 대하여 진을 치고 명령했다. / “장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세워 두고 벨 것이다.”

호령이 서릿발 같았다. 모든 장수들과 군졸들이 두려워하며 어찌할 줄을 몰라 했다. 보국 또한 매우 조심 했다.

이튿날 원수가 중군에게 분부했다. / “오늘은 중군이 나가 싸우라.”

중군이 명령에 순종하여 말에 올라 삼척장검을 들고, 적진을 가리키며 외쳤다.

“나는 명나라 중군 대장 보국이다. 대원수의 명을 받아 너희 머리를 베려 하니, 너희는 바빠 나와 칼을 받으라.”

적장 운평이 이 소리 듣고 대로하여 말을 몰고 나와 싸웠다. 세 번을 채 겨루지도 못해서 보국의 칼이 빛나더니, 그 순간 운평의 머리가 말 아래로 떨어졌다. 적장 운경이 운평의 죽음을 보고, 분노를 내며 말을 몰아 달려들었다. 보국이 승리의 기세가 등등하여 장검을 높이 들고 싸웠다. 두어 차례 겨루기도 전에 보국이 칼을 날려 칼을 들고 있는 운경의 팔을 치니, 운경이 미처 손을 놀리지 못하고 칼을 든 채 말 아래로 떨어졌다. 보국이 운경의 머리를 베어 들고 본진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 적장 구덕지가 크게 노하여 장검을 높이 들고 말을 몰아 고태치며 달려들었고, 또 난데 없는 적병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다.

보국이 매우 다급하여 피하고자 했으나, 한순간에 적들이 함성을 지르며 보국을 천여 겹 에워쌌다. 사세가 위급해 보국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이때 원수가 장대에서 북을 치다가 보국의 위급함을 보고, 급히 말을 몰아 장검을 높이 들고 좌충우돌하여 적진을 헤치고 들어와 구덕지의 머리를 베어 들고 보국을 구해낸 후, 몸을 날려 적진 속을 헤집고 다녔다. 동에 번쩍하더니 어

느새 서쪽에 있는 적장을 베고, 남쪽으로 가는 듯하더니 어느새 북쪽에 있는 장수를 베고, 좌충우돌하여 적장 오십여 명과 군사 천여 명을 한 칼로 쓸어 버리고 본진으로 돌아왔다.

보국이 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하니, 원수가 보국을 꾸짖으며 조롱했다.

“[C]저러하고 평일에 남자라 칭하리요? 나를 업신여기더니 이제 도 그러할까?”

원수가 장대에 앉아 구덕지의 머리를 함에 넣어 황성으로 보냈다.

- 작자 미상, [홍계월전(洪桂月傳)]

***조야**: 조정과 민간을 통틀어 이르는 말.

4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대립적 소재를 활용하여, (나)는 대립되는 인물을 배치하여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가족의 부재를 활용하여, (나)는 가족 간 갈등을 활용하여 가족 해체의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 ③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장면을 전환하고 있다.
- ④ (가)는 배경 묘사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함축하고 있고, (나)는 장면 묘사를 통해 인물의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가)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자연 친화적 분위기를, (나)는 인물 간 대화를 통해 비장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43. [A]~[C]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 [C]와 달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A], [C]에는 기대했던 것이 충족되지 않은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③ [B], [C]는 청자가 요청하는 사안에 반대하는 화자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 ④ [A]와 달리 [B], [C]의 화자는 당시 관습적 인식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다.
- ⑤ [A], [B], [C] 모두 초점이 되는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곡자]는 작가 허난설헌의 삶을 드러낸 작품으로, 그녀의 서럽고 불행한 삶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허난설헌과 남편 김성립의 사이는 원만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 27세의 나이로 난설헌이 요절한 후, 3년 후에는 그의 남편도 임진왜란의 의병으로 싸우다 사망하였다. 후사 없이 부부가 사망하는 바람에 가족들이 양자를 들여 이들 부부의 대를 잇게 했다. 난설헌은 생전에 자식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과 회한, 부부간의 불화와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심정, 그리고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 등을 문학 작품을 통해 드러냈다고 한다.

- ① ㉠: 허난설헌의 딸과 아들이 묻힌 곳으로, 삶에서 느낀 그녀의 설움이 집약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 ② ㉡: 자식들의 넋을 위해 의식을 치르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자식을 먼저 보낸 허난설헌의 한스러운 삶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 일찍 죽은 남매를 가엾게 여기며 그들의 영혼을 애도하는 어머니로서의 회한이 드러나 있다.
- ④ ㉣: 부부에게 자식이 없어 양자를 들인 이야기를 통해 결국 허난설헌이 배 속의 아이까지 잃고 더 큰 상실감에 휩싸였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 자식의 죽음으로 인한 지극한 슬픔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5. (나)에 대한 <보기>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ㄱ. 홍계월은 남성 우월주의에 도전하는 새로운 여성이라고 할 수 있어. 기존 여성 영웅 소설에서는 여성 주인공이 투쟁의 주체로 활약하는 남성 주인공을 돕는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는데, [홍계월전]은 그런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지.

ㄴ. 홍계월을 여성으로서의 자각이 강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작품에서 홍계월이 여성의 권리 신장에 기여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어.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잘 실현된 작품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 같아.

- ① ㄱ: 홍계월은 여성임을 자각하면서도 그것을 현명하게 감추고 있어.
- ② ㄱ: 홍계월은 천자의 부름에 즉각 응함으로써 남성 우월주의를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 ③ ㄱ: 홍계월은 황제가 부르기 어려워할 만큼 탄탄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 ④ ㄴ: 홍계월은 여자 옷을 벗는 과정을 거치고서야 외부에 나와서 활약을 펼치고 있어.
- ⑤ ㄴ: 홍계월은 남성만이 영웅적 활약을 할 수 있다는 통념에 대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 5차 끝 -

[1~3]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지금부터 ‘SNS가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SNS의 영향력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 미치는 현 상황에서 SNS가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한다는 의견과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찬성 측 제1 토론자의 입론을 들어 보겠습니다.

찬성 1: SNS는 손쉽게 인맥을 형성하고 강화할 수 있게 해 주는 강력한 소통 수단입니다. 현대인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연락하기 힘들고, 다른 국가에서 발생하는 일들까지 신경 쓰며 함께 고민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 속에서 SNS는 많은 사람과 교류하게 해 주는 중요 매개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대인 기피증이 있는 환자, 소외 계층의 인간관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SNS 덕에 온라인이라는 제한 속에서도 친구들의 소식을 알 수 있고 안부를 물을 수 있으며, 위로와 지지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서로의 근황을 알고 있다면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에도 더 친밀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SNS를 통해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할 수 있음은 물론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서로를 챙기고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방편으로 SNS가 사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효용성을 선볼리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자: 반대 측 제2 토론자, 교차 신문해 주십시오.

반대 2: SNS에서 친구의 소식을 묻고 서로의 근황을 아는 것이 과연 인간관계를 풍요롭고, 더욱 친밀하게 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과도 쉽게 관계를 맺음으로써 피상적인 인간관계만 많이 형성되는 것 아닌가요?

찬성 1: 한편에서는 SNS의 인간관계가 ‘허상’에 가까운 관계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점이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해 주는 SNS의 장점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친한 관계의 경우 SNS가 특별히 관계를 증진해 주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잠깐의 시간만으로도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정보를 공유하고 안부를 묻으며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SNS를 활용하지 않았더라면 안부조차 묻기 어려운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며 그들과 연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NS는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효율적으로 형성하고 강화하며 확대해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해 주는 좋은 매개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 2: 친한 관계의 경우는 SNS가 관계 증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SNS는 결국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 아닌가요? 피상적인 인간관계와 무분별한 인간관계 확대는 결코 우리의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할 수 없습니다.

찬성 1: 특별히 인간관계를 증진시켜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인간관계만이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SNS상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보를 공유하며 때때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를 만드는 것도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반대 측 제1 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1: 저는 SNS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활용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풍요롭게’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SNS에서의 관계란 시·공간의 제약 없이 클릭 또는 터치로 만들어지는 손쉬운 관계이므로 언제든지 만들 수도 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A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400여 명의 응답자 중 54%가 SNS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간관계의 폭은 넓어졌지만 깊이는 얕아졌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찬성 측에서는 일반적으로 SNS가 현대인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전달되는 자신의 감정은 불특정 다수의 시선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감정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은 위로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냐에 따라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진실로 공감해 주는 한 사람의 위로에 더 큰 도움을 받습니다.

사회자: 찬성 측 제2 토론자 교차 신문해 주십시오.

찬성 2: 반대 측에서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셨는데 SNS로 인해 소통의 시·공간적인 제약이 없어져 온라인 인맥이 확장된 것은 사실 아닌가요?

반대 1: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고받는 내용은 어디를 갖고, 뭘 먹었고 하는 의미 없는 일상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SNS를 통한 인맥이 진정한 관계로 발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SNS 인간관계는 알고 오히려 SNS로 인한 스트레스는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2: 풍요로운 인간관계가 반드시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습니다. 또 SNS를 통한 인맥이 진정한 관계로 발전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반대 1: 자신의 생활에 대한 단순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인간관계가 확장되고 풍요로워졌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위 토론 참여자들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회자는 토론 주제 선정의 동기를 명확히 밝히며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사회자는 토론 참여자들의 의견 중 논제에 어긋난 부분을 짚어 주어 토론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③ 반대 측 제1 토론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전문 기관의 조사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 ④ 찬성 측 제2 토론자는 논의의 핵심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상대방 주장의 오류와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⑤ 찬성과 반대 측 토론자 모두 논제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사례로 들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2. [A] 부분을 고려할 때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찬성 측과 반대 측은 SNS에서 맺는 인간관계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는군.
- ② 찬성 측과 반대 측은 SNS에 의한 인간관계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지의 여부에 대해 서로 동의하지 못하고 있군.
- ③ 찬성 측과 반대 측은 SNS를 통해 맺어지는 ‘필요로운 인간관계’에 대한 정의 기준이 달라 서로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군.
- ④ 찬성 측과 반대 측은 SNS를 통해 일상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감해 주는 일이 외로움을 치유하는 방법으로서 효과가 있음에 동의하는군.
- ⑤ 찬성 측과 반대 측은 SNS에서 ‘인간의 감정이 전달되는 일’이 어려워 친한 관계를 제외하면 인간관계를 맺는 일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군.

3. 다음은 토론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료 1: SNS뿐만 아니라 IT 기술 발전으로 문자와 온라인 메신저 등 가상 세계에서 사람들을 이어 주는 매체가 늘어났다. 하지만 SNS와 같은 매체를 사용하는 십대와 성인들이 극도의 외로움을 느끼거나 우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자료 2: 현대인의 삶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바쁘게 돌아가며 행동반경의 규모 역시 커지고 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시간을 함께 보낼 여유를 갖기 어려운 현대인에게 SNS는 작고 소중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다. A모니터와 B서베이의 조사 결과 스마트폰 사용자의 49.9%가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 SNS를 사용한다고 했으며 그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자료 3: C 신문 기사에서 사람들이 온라인 메신저나 SNS 등 가상 세계의 인간관계에만 집중하고 그 결과 현실과 유리된 삶을 살고 있어 SNS가 현대인의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SNS와 현대인의 삶에 대해 연구한 D 연구팀은 이러한 악영향은 SNS 과몰입에 빠진 개인의 문제이거나 사용 미숙의 문제 때문이지 SNS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 ① 찬성 측 토론자는 ‘자료 2’를 활용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유지를 위해 SNS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② 찬성 측 토론자는 ‘자료 2’를 활용하여,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고려할 때 SNS는 현대인의 인간관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 ③ 찬성 측 토론자는 ‘자료 3’의 내용을 활용하여, 올바른 SNS의 활용은 인간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뿐더러 필요한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할 것이다.

④ 반대 측 토론자는 ‘자료 1’을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SNS가 현대인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대 근거로 사용할 것이다.

⑤ 반대 측 토론자는 ‘자료 3’을 활용하여, SNS 과몰입에 빠진 개인의 문제와 사용 미숙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한다면 SNS도 필요한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4~7] (가)는 경제반 학생이 학교 신문에 기고한 글이고, (나)는 (가)를 읽은 문예반 학생들의 토의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화수분 이야기

우리가 문학 시간에 배운 소설 ‘화수분’에 나오는 주인공 ‘화수분’은 평생 가난을 면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화수분은 아무리 돈을 빼내서 써도 계속해서 돈이 생겨나는 설화 속의 보물단지를 이른다. 설화의 내용은 대체로 가난하지만 착하게 사는 주인공이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화수분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게 되지만, 화수분의 실체를 알게 된 주인공 주변의 인물들이 정해진 것 이상을 얻으려고 탐욕을 부리게 되면서 화수분의 효능은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화수분과 같은 물건이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현대 경제체제에서 화폐가 그 가치를 가지는 것은 국가와 같은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신용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제조 원가가 200원 정도 되는 5만 원권 지폐를 5만 원의 가치를 가지는 재화와 교환할 수 있는 것은 화폐를 발행한 기관에 대한 신용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의 경제 체제를 신용 경제라고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화수분에서 화폐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것을 시장에 유통하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그뿐만 아니라 신용 없는 화폐가 시장에 유입됨으로 인해 화폐에 대한 신용이 떨어지게 된다. 통화량 증가나 화폐의 신용 하락은 화폐 가치의 하락, 즉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그럴 경우 부동산이나 금과 같은 자산에 투자가 몰리면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들은 돈이 부족한 경제 교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경제적으로 합당한 화수분 이야기에는 화수분에서 생겨난 화폐는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던 화폐가 옮겨 온 것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내가 만약 화수분에서 5만 원권을 꺼낸다면 이것은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온 셈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어디선가 계속해서 생겨난 것이라면 화수분은 위조지폐를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어진다.

(나)

지영: 다들 어제 학교 신문에 실린 경제반 친구의 글을 읽었지? 우리도 바람직한 화수분 이야기에 대해 토의해 보고, 토의 결과를 반영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

영훈: 화수분이라는 것이 비현실적인 소재이기는 하지만 경제반 친구의 말처럼 현실을 좀 더 정밀하게 반영하면 독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점에서 화수분에서 생겨난돈이 실은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꺼내 온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

강산: 화수분의 돈이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꺼내 온 것이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려면 화수분을 얻어 행복해하던 주인공이 자기가 쓴 돈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보게 된다는 내용도 추가되어야 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주인공은 돈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하게 될 텐데, 독자들에게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

영훈: 불편하기는 하지만 괜찮은 아이디어 같아. 돈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보면서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화수분을 통해 행복해하는 모습과 대비가 되면서 화수분을 통한 행복이 허황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거야.

병우: 독자들이 불편해하더라도 우리가 독자들에게 전하려는 주제의식에 따라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어. 그런데 나는 가장 불편하게 생각한 것이 화수분을 통해 얻은 돈이 불로 소득이라는 점이야. 불로 소득으로 행복을 얻은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고통도 있어야 할 것 같아. 주인공이 화수분을 버리고 진정한 화수분은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지영: 주제가 참신해서 좋아. 노동의 소중함이라는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서라면 주인공이 꼭 선량한 사람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 오히려 게으른 사람이 횡재를 해서 얻은 것이면 더 좋겠지? 화수분을 주인공이 스스로 버리고 열심히 일해서 행복을 얻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너희들은 어때?

모두: 좋은 생각이야.

4. (가)에 나타난 글쓰기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행복한 결말이 부각되는 새로운 이야기를 제시한다.
- ② 독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부에서 독자들에게 익숙한 내용을 제시한다.
- ③ 현대의 경제 체제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 ④ 화수분 이야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화수분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 ⑤ 화수분 이야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해 화수분이 현실에 존재할 때의 상황을 제시한다.

5. ㉠이 <보기>를 고쳐 쓴 것이라고 할 때, 고쳐 쓴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화수분에서 돈이 계속 생겨나고 그 돈을 쓰게 되면 세상에는 돈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화수분에서 돈을 꺼내서 쓰는 사람은 좋겠지만, 돈이 많아지면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 있다. 출처가 없는 돈이 계속 사용되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

- ① 첫 문단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설화의 내용을 보충한다.
- ② 일상적인 말을 사용하여 '신용 경제'의 작동 원리를 쉽게 설명한다.
- ③ 경제학적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화수분 설화'의 주제를 강조한다.
- ④ 경제학적 원리에 따라 서술하여 제목에서 말한 '경제학적 관점'을 부각한다.
- ⑤ 시간적 흐름에 따른 서술을 통해 '인플레이션'의 파급 효과를 일목요연하게 보여 준다.

6. [A]~[C]에 나타난 ㉠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의 전제에는 동의하지만 원래의 내용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② [A]에서는 ㉠가 독자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③ [B]에서는 ㉠의 전제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원래 화수분 이야기에 없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B]에서는 ㉠가 원래의 화수분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독자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⑤ [C]에서는 ㉠가 논리적으로 성립은 가능하나 원래의 화수분 이야기보다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7. (나)의 토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한 작문 노트이다. 토의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작문 노트

제목: 새롭게 쓰는 화수분 이야기

주제: 탐욕에 대한 경계와 노동의 소중함

내용구성

- 일하기를 싫어하는 주인공은 어느 날 우연히 화수분을 얻게 된다. ㉠
- 화수분에서 나온 돈으로 주인공은 행복한 생활을 누린다. ㉡
- 주인공은 화수분에서 꺼낸 돈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보게 된다. ㉢
- 돈이 사라져 불행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주인공은 괴로워한다. ㉣
- 주인공의 주변 사람들이 화수분의 존재를 알고 탐욕을 부리면서 화수분의 효능이 사라진다. ㉤
- 주인공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입금된 통장을 보며 웃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8~10] (가)는 (나)를 위해 찾은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현대 도시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급증하고 있다. 도시 속 주거 단지의 후미진 골목을 중심으로 야간에 발생하고 있는 범죄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도시 상황을 고려할 때 야간에 시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근에는 주거 단지 내에서 야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설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도시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없는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범죄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이 바로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로, 이는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을 뜻하는 말이다. 셉테드는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특정 지역의 방어를 강화하여 범죄자들에게 범행의 성공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인식시킴으로써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주거 공간 내의 환경을 개선하여 예견되는 미래의 높은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1980년대부터 유럽, 미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 환경에 맞게 셉테드가 추진되어 왔으며, 다양한 사례를 통하여 그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주거 지역, 편의점, 쇼핑몰과 쇼핑센터, 교육 기관, 관공서, 대중교통 수단의 역사와 주차 편의 구조물을 포함하여 다양한 장소를 대상으로 한 실증 연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공지된 셉테드 시스템이 범죄 발생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또한 신도시 계획과 설계 과정이나 지자체와 경찰의 파트너십 강화 사업 등에 셉테드 시스템이 적용되고 실천되는 상황을 볼 때 그 실효성이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다. 셉테드시스템은 건축 설계나 도시 계획을 통해 공간 환경에 방어적인 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 발생의 기회를 줄이는 종합적인 범죄 예방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안전감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외국의 실증적 연구 결과들을 보면 셉테드 시스템 적용이 범죄 및 불안감 해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1980년대 후반 런던의 에드먼턴, 타워햄리츠, 해머스미스 플럼 등 세 지역을 대상으로 가로 조명*을 밝게 적용할 경우에 범죄율이 낮아질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가로 조명으로 개선한 세 곳 모두에서 무질서와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두려움이 줄어들었고, 보행자의 도로 사용률도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는 범죄학자 패링턴 등이 브리스틀 등 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로 조명이 범죄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다.

*가로 조명(街路照明): 교통안전이나 미관(美觀) 따위를 도모하기 위하여 길가를 따라 설치해 놓은 조명.

(나)

*작문 과제: (가)를 바탕으로 ‘셉테드’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쓰기

*예상 독자: 같은 반 친구들

*주제: 셉테드를 통한 안전한 도시 환경 구축

현대 도시에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시의 야간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셉테드이다. 셉테드는 말 그대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을 의

미한다. 이는 범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특정 지역의 방어를 강화하여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들의 범죄 욕구를 억제하고, 주거 공간 내의 환경을 개선하여 예견되는 미래의 범죄 발생을 차단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에서 진행된 실증 연구들을 보면 셉테드는 건축 설계나 도시 계획 등 공간 환경의 범죄에 대한 방어적인 디자인을 통하여 범죄 발생의 기회를 줄이고, 주민들의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해소, 안전감 부여 등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범죄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 조명을 밝게 설치한 곳에서 범죄율이 낮아지고,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어 도로 사용률도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8. 필자가 (가)를 읽고 (나)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필자가 반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설명한 셉테드의 개념과 효과를 제시한다.
- ② (가)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련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제시한다.
- ③ (가)에서 설명한 해외 사례들의 연구 결과를 내용별로 분류하여 제시한다.
- ④ (가)에서 언급한 해외 사례와 우리나라 사례의 차이점을 분석하여 제시한다.
- ⑤ (가)에서 설명한 셉테드의 효과와 더불어 부작용 사례를 조사하여 제시한다.

9.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보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A시 교육청은 범죄 예방 환경 설계(이하 셉테드) 시범 학교 3개 교를 선정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시범 학교로 3개 교를 관리자의 추진 의지, 학교 안전 위험도 및 추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시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학교당 2,000만 원을 지원해 범죄 예방 환경 설계 기법을 적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3개 교는 한국 교육 개발원의 심층 진단 및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아 사각지대를 활용한 휴게 공간 및 야외용 벤치 설치, 노후 CCTV 교체·추가 설치, 운동장 또는 건물 내 비상벨·비상 전화 설치, 관찰 시야 확대를 위한 사각지대 조명 설치 등을 추진한다. B안전 총괄 과장은 “범죄 예방 환경 설계 기법을 활용한 시범 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주변 위험을 사전에 차단, 학교 폭력 및 주변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C뉴스, 2018. 3. 14. 기사 내용 중

- ① 작문 과제를 고려하여 A시 교육청에서 섹테드 시범 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해야겠어.
- ② 작문 과제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시도 교육청에서 예산 문제로 인해서 학교 폭력 예방과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섹테드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을 추가해야겠어.
- ③ 예산 독자를 고려하여 A시 교육청에서 섹테드 시범 학교에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 예산과 내용에 대해서 추가해야겠어.
- ④ 예산 독자가 반 친구들인 점을 감안하여 섹테드가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언급해야겠어.
- ⑤ 작문 주제를 고려하여 최근에 교육청 차원에서 도입되고 있는 섹테드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해야겠어.

10. 다음은 (나)를 점검하기 위해 작성한 질문 목록이다. 이에 따른 수정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점검을 위한 질문 목록	수정 계획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일관성이 있는가?	섹테드의 범죄 예방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수정이 불필요함. ①
설명 대상의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있는가?	핵심어인 섹테드의 원문을 괄호 안에 제시함. ②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어색한 문장은 없는가?	첫 번째 문단의 세 번째 문장에서 '...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하므로, 이를 '... 시스템이 필요하다.'로 수정해야 함. ③
글을 쓰기 위해서 활용한 자료의 출처와 관련된 문헌 정보를 밝혔는가?	해외에서 진행된 실증 연구의 구체적인 출처를 밝혀서 내용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④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 표현의 쓰임은 자연스러운가?	두 번째 문단에서 접속 표현 '그런데' 이후는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예를 들어'와 같은 접속 표현으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함. ⑤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의 표기법 차이는 여러 측면에서 드러나지만 특히 두드러진 것은 현대 국어와 달리 중세 국어는 ㉠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현대 국어의 경우 '한글맞춤법' 제1항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와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경우가 모두 존재하며 이 둘은 거의 대등한 자격을 가진다. 반면 중세 국어의 경우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경우는 예외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중세 국어 표기법의 특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하나는 이어 적기(연철)이다.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하면 앞 형태소의 자음을 다음 형태소의 초성으로 내려 적는 것이 이어 적기이다. 이러한 이어 적기는 연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어 적기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식으로 본다. 현대 국어의 경우 대체로 불규칙적인 경우가 아니면 이어 적기 대신 끊어 적기(분철)를 한다. 이것은 형태소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소리나는 대로 적는 방식이 아니고 어법에 맞도록 적는 방식이다. 이러한 표기법의 차이는 용언 어간 '먹-'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현대 국어는 '먹어, 먹으니'와 같이 끊어 적고 중세 국어는 '머거, 머그니'와 같이 이어 적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이어 적기 외에 중세 국어 표기법이 소리 나는 대로 적었음을 보여 주는 것은 음운 변동이 적용되는 것을 표기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들 수 있다. 중세 국어는 음절 종성에서 8개의 자음(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이 발음되었다. 현대 국어와 비교할 때 'ㅅ'이 종성에서 발음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그런데 이러한 발음을 표기에도 반영하여 종성에 표기되는 자음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대체로 8가지로 국한되었다. 가령 현대 국어라면 '높고, 높더라, 높다'로 표기할 것을 중세 국어에서는 '눔고, 눴더라, 눴다'로 표기한다. 이것은 종성에서의 발음을 표기에도 그대로 반영한 결과이다. 이외에 '논논(놀+논), 문노라(물+노라)'와 같은 예도 현대 국어와 달리 비음화라는 음운 변동을 표기에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현대 국어보다 중세 국어 표기법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향이 훨씬 강했음을 말해 준다.

11. 밑줄 친 ㉠~㉣ 중 ㉠의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불휘 ㉠기픈 남근 벱래 아니 뭇씨 ㉡곶 ㉢도코 여름 하느니
 ㉣ 식미 기픈 ㉤므른 ㄱㅁ래 아니 그출씨 내히 이러 벱래 가느니

[현대역]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움직이므로 꽃 좋고 열매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 그치므로 내(川)가 이루어져 바다로 가느니

- '용비어천가'

- ① ㉠ ② ㉡ ③ ㉢ ④ ㉣ ⑤ ㉤

12. (가)를 참고할 때 (나)의 활동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방식에 대립되는 방식이 ‘어법에 맞도록 적는’ 방식이다. 이어 적기 대신 끊어 적기를 하여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를 명확히 밝혀 적거나, 음운 변동이 적용되었더라도 그것을 반영하지 않아서 형태소의 기본형을 밝혀 적는 것이 곧 어법에 맞도록 적는 것이다.

(나) 다음은 용언 어간 ‘굽-’의 활용형을 제시한 것이다. 이 중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활용형과 어법에 맞도록 적은 활용형을 구분해 보자.

구우니, 굽고, 구운, 굽는, 구워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활용형 어법에 맞도록 적은 활용형

- | | | |
|---|-------------|-------------|
| ① | 구우니, 구운, 구워 | 굽고, 굽는 |
| ② | 구우니, 구운 | 굽고, 굽는, 구워 |
| ③ | 굽고, 구운, 굽는 | 구우니, 구워 |
| ④ | 구운, 구워 | 구우니, 굽고, 굽는 |
| ⑤ | 굽고, 굽는 | 구우니, 구운, 구워 |

13. <보기>의 대화에서 알 수 있는 ㉠~㉣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 ㉠저, 그쪽이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셨다면서요? 축하해요.
B: 네,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 계시던 분은 어디 가셨죠?
A: 아, 잠시 전화하신다고 나가셨어요. ㉢절때 보니 항상 같은 시간에 어머니께 전화 드리더라고요.
B: 효자시네요. 참, ㉣그쪽에서 저번에 많이 와 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A: 그래요? 다행이네요. 워낙 ㉤이쪽 사람들이 적극적이더라고요.

- ① ㉠은 인칭이나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다.
- ② ㉡은 인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 ③ ㉢은 과거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 ④ ㉣은 청자를 포함한 집단을 가리킨다.
- ⑤ ㉤은 화자와 화자를 포함한 집단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

14. <보기>를 읽고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자립성이 없어 관형어의 수식을 받지 않고는 문장에서 쓰이지 못하는 의존 명사는 격 조사와의 결합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제약에 따라, 의존 명사는 특정 격 조사와만 결합할 수 있어 특정 문장 성분으로만 쓰이는 것과 그러한 제약 없이 여러 문장 성분으로 두루 쓰이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령, 의존 명사 ‘바’는 여러 격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등 여러 문장 성분으로 두루 쓰일 수 있다.

- 주어: 내가 생각한 바가 이루어졌다.
- 목적어: 평소 느낀 바를 말해라.
- 서술어: 그것은 내가 바라던 바이다.
- 부사어: 내가 알던 바와 다르다.

특정 격 조사와만 결합할 수 있는 의존 명사는 주어로만 쓰이는 것, 서술어로만 쓰이는 것, 부사어로만 쓰이는 것 등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 ① 의존 명사 ‘뿐’은 ‘나는 열심히 공부할 뿐이다.’와 같이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
- ② 의존 명사 ‘수’는 ‘집에 갈 수 있다.’와 같이 부사어로 쓰일 수 있다.
- ③ 의존 명사 ‘것’은 여러 문장 성분으로 두루 쓰일 수 있다.
- ④ 의존 명사 ‘때문’은 목적어로 쓰일 수 없다.
- ⑤ 의존 명사 ‘줄’은 주어로 쓰일 수 없다.

15. <보기>의 ㉠~㉣은 안은문장의 예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 나는 언니가 빌려 온 책을 금방 다 읽었다.
- ㉡ 진영이가 그 선행의 주인공임이 밝혀졌다.
- ㉢ 아버지께서는 밤이 늦도록 안 들어오셨다.
- ㉣ 형이 나에게 “진수가 오늘 와.”라고 했다.
- ㉤ 우리 선생님은 성격이 아주 너그러우시다.

- ① ㉠의 안긴절은 명사 ‘책’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은 명사절 ‘진영이가 그 선행의 주인공임’을 안은 문장이다.
- ③ ㉢에서 안긴절의 주어는 안은문장의 주어와 같아서 생략되었다.
- ④ ㉣에서 안은문장의 주어인 ‘형’이 발화한 말이 그대로 인용되었다.
- ⑤ ㉤의 안긴절은 안은문장 속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존재에게 ‘도덕적 지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그 존재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를 진다는 뜻이다. 인간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 주체가 되고 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인간에게 법적인 지위가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 도덕적 지위도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반면에 길가에 있는 돌멩이에 도덕적 지위가 없다는 것 또한 상식이다. 그러나 도덕적 지위가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존재도 있는데, 동물의 경우가 그렇다.

돌멩이에는 도덕적 지위가 없다고 했지만 그 돌멩이가 누군가의 정원에 있는 희귀석이나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돌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길가에 있는 돌멩이와 달리 그런 돌멩이들을 발로 차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돌멩이가 직접 가지고 있는 도덕적 지위를 침해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돌멩이를 발로 참으로써 다른 사람, 예컨대 희귀 석의 소유주나 인류 공동의 소유물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도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돌멩이와 같은 사물은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동물은 길가의 돌멩이와는 어떤 식으로든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므로 동물에게는 길가의 돌멩이와 달리 어떤 식으로든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간접적인 것인가 직접적인 것인가는 논란이 된다. 동물에게는 간접적인 도덕적 지위만 있다고 주장하는 이론들을 살펴보자.

서양 근세의 철학자인 데카르트는 동물은 ‘자동인형’ 또는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가 볼 때 동물은 즐거움이나 아픔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는 동물이 고통을 느낄 때 몸부림치는 것이나 고통스러울 때 내는 소리가 태엽을 감은 자동인형이 움직이거나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와 같다고 주장했다. 데카르트가 동물을 자동인형과 같다고 간주했다고 하더라도 동물을 함부로 다루어도 된다는 결론이 꼭 나오는 것은 아니다. 누군가가 소유한 물건을 그의 허락 없이 훼손하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누군가가 소유한 동물을 함부로 다룬다면 그것 역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곧 데카르트는 동물이 사물처럼 간접적인 도덕적 지위만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데카르트의 주장은 우리의 상식과 어긋난다. 세상에는 주인 있는 동물보다 주인 없는 동물이 훨씬 많은데, 데카르트에 따르면 주인 없는 동물은 함부로 다루어도 되기 때문이다. 또 데카르트에 의하면 주인이 허락할 때는 개를 마음대로 발로 차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도 상식과 맞지 않는다.

서양 근세의 철학자인 칸트도 데카르트처럼 동물은 직접적인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유는 다르다. 그에 따르면 동물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까닭은 만약 그렇게 하면 그런 행동이 인간의 품성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이성 능력을 제외하고는 인간과 동물은 유사하므로, 동물에게 친절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할 것이고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잔인하게 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칸트의 생각은 동물이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더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시해 주기 때문에 데카르트에게 제시되었던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지구에 마지막 한 사람만 남았다고 가정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전혀 교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가상의 것이므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칸트가 말한 대로 정말로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면 잔인한 품성이 생기는지는 경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동물에게는 잔인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비롭거나 거꾸로 동물에게는 한없이 친절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잔인한 사람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A]

개를 이유 없이 발로 차는 행동은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다. 그와 같은 상식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개를 비롯한 동물에게는 어떤 식으로든 도덕적 지위가 있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동물에게 간접적인 도덕적 지위가 있다는 주장들은 모두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동물에게는 도덕적 지위가 아예 없다고 해야 하거나 아니면 도덕적 지위가 직접적으로 있다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개를 길가의 돌멩이처럼 취급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므로 결국 우리는 동물에게 직접적인 도덕적 지위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16.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사물은 도덕적 지위가 없는 것이었다가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
- ② 칸트는 데카르트와 달리 동물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③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친절하거나 모두에게 잔인한 사람은 있을 수 없다.
- ④ 데카르트는 동물은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고통을 느끼는 여부가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 ⑤ 도덕적 지위가 있는지 논란이 되는 존재를 함부로 다룬다면 도덕적 비난은 받아도 법적인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17. 윗글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보기>의 대상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한다고 할 때,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 < 보 기 > —

ㄱ. 희귀하지도 않고 고고학적 가치도 없는 길가의 주인 없는 돌멩이
ㄴ. 누군가의 정원에 있는 희귀석
ㄷ. 주인 있는 동물
ㄹ. 야생의 동물

	도덕적 지위 없음	간접적인 도덕적 지위	직접적인 도덕적 지위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ㄹ	ㄷ
④	ㄱ, ㄹ	ㄴ	ㄷ
⑤	ㄱ, ㄹ	ㄷ	ㄴ

18. [A]에서 사용된 논지 전개 방식이 아닌 것은?

- ① 상식에 부합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 ② 어떤 이론이 가상의 상황에까지 적용되는지 검토한다.
- ③ 경험적인 검토가 필요한 주장은 판단을 보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④ 비슷한 주장을 하는 두 이론을 비교하여 한 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 ⑤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없으면 다른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 기 >

A: 영준은 심심하여 주인 없는 고양이를 발로 찼다.
 B: 영준은 심심하여 자신의 이불을 발로 찼다.
 C: 영준은 지구에 남은 최후의 한 명의 사람으로 자신의 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 있다. 그는 심심하여 고양이를 발로 찼다.
 D: 진짜처럼 만든 가짜 고양이가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영준은 심심하여 그 고양이를 발로 찼다.

- ① 데카르트와 달리 칸트는 A의 영준의 행동이 옳지 않음을 설명할 수 있다.
- ② 데카르트와 달리 칸트는 C의 영준의 행동이 D의 영준의 행동보다 더 옳지 않음을 설명할 수 있다.
- ③ 칸트와 달리 데카르트는 B의 영준의 행동이 옳지 않음을 설명할 수 있다.
- ④ 데카르트나 칸트 모두 A의 영준의 행동이 B의 영준의 행동보다 옳지 않음을 설명할 수 있다.
- ⑤ 데카르트나 칸트 모두 A의 영준의 행동과 그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잔인한 행동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성립함을 입증해야 한다.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기본권으로서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의 헌법적 보장은 다수 가치로서의 법질서와 소수의 양심이 충돌할 경우, 개인의 윤리적 양심을 보호함으로써 인격의 정체성을 지켜 주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민주 국가의 법질서와 사회 질서는 국가 구성원 다수의 정치적 의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려는 소수의 양심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이러한 양심의 자유는 인간 내심(內心)의 자유로서 모든 자유의 근원적 성격을 지니는데 여기에서 양심은 일정한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기초하여 형성된 선과 악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을 말하며, 개인의 인격 형성과 관계없는 단순한 사유나 의견은 양심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양심은 내면 영역과 외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이에 따라 양심의 자유는 내면 영역에서의 ‘양심 형성의 자유’와 외부 영역에서의 ‘양심 표명의 자유’, ‘양심 실현의 자유’로 구분된다.

먼저 ‘양심 형성의 자유’란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강제를 받지 않고 양심을 형성하고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자유를 말한다. 올바른 양심 형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심의 주체가 자율적인 양심 형성을 위협하는 각종 영향력의 행사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한다. 국가가 특정한 양심이나 사상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강요하거나 양심상 결정에 위해가 되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은 양심 형성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된다. 양심상의 결정이 어떠한 종교관이나 세계관 또는 그 외의 가치 체계에 기초하고 있는가와 관계없이 모든 내용의 양심상의 결정은 양심 형성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양심 형성은 내심 영역의 자유로서 지극히 주관적 현상이고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양심 형성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실질적 의미가 적다.

‘양심 표명의 자유’는 형성된 양심을 방해받지 않고 표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양심 표명의 자유가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수의 생각만이 언제나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양심 표명의 자유에는 침묵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이는 형성된 양심을 타의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양심 실현의 자유’는 작위에 의한 것과 부작용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진다. 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는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를 말하고, 부작용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는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그런데 서로 다른 양심을 가진 자들이 각자의 양심을 실현하고자 하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적 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심 실현의 자유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조정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 양심상의 결정이 조정 과정에서 내용이 왜곡되거나 굴절되는 순간 이 결정은 더 이상 양심에 근거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양심상의 이유로 환경 침해자들의 출판물을 인쇄하기를 거부하는 근로자가 인쇄업무를 반으로 줄여 준다고 해서 거부 의사를 철회한다면 이는 더 이상 양심상의 결정이라고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는 인정되거나 인정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로 결정된다는 특수성을 지닌다.

20. 윗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양심의 자유는 어떤 하위 범주로 나누어지는가?
- ② 양심 실현의 자유는 어떤 이유로 제한될 수 있는가?
- ③ 국가에 의한 종교의 강제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 ④ 양심의 자유는 헌법의 어느 조항에 근거하여 보장되는가?
- ⑤ 올바른 양심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2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양심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근원적 성격을 지닌다.
- ② 양심 형성의 자유는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 ③ 모두가 각자의 양심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될 수도 있다.
- ④ 누구나 자신의 양심을 자유롭게 표명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⑤ 양심은 일시적이고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외부의 강제에 의해 형성된 진지한 윤리적 결정이다.

2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민법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손해 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관련된 사건에서 00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판결을 내리면서 갑이 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갑에게 ‘사죄 광고’를 명하였다. 여기에서 사죄 광고란 사과 내용이 담긴 글을 신문에 게재하도록 명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법원이 그 내용을 만들어 강제로 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00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갑은 민법 제764조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 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헌법 소원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헌법 재판소는 사죄 표시는 자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판단 될 때 가능한데,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본심에 없는 사과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 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 ① 00법원의 판결은 특정한 사상을 사실상 강요함으로써 양심상의 결정을 내리는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00법원의 판결은 형성된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침묵의 자유를 침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00법원의 판결은 다수의 생각이 언제나 타당하지만은 않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소수의 양심을 배려하고자 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④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죄를 하는 행위를 양심에 반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 여긴 것이겠군.
- ⑤ 헌법 재판소의 판결은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할 자유라 할지라도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군.

23. ㉠을 나타내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사가 양심상의 이유로 환자 정보를 노출하기를 거부할 때, 이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 ② 양심상의 이유로 전통 미술품의 판매를 거부할 때, 비용을 두 배로 지불하여 거래를 성사시킨다.
- ③ 연예인이 양심상의 이유로 특정 기업의 광고에 출연하는 것을 거부할 때, 목소리만 나오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한다.
- ④ 어떤 대상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을 양심상의 이유로 거부할 때, 서면으로 서약을 받고 구두로는 맹세하게 하지 않는다.
- ⑤ 기자가 양심상의 이유로 제보자를 노출하기를 거부할 때, 비밀을 지킬 것을 약속하고 제보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거북아 거북아 龜何龜何
 머리를 내어라 首其現也
 내어놓지 않으면 若不現也
 구워 먹으리 燔灼而喫也
 - 작자 미상, [구지가(龜旨歌)]

(나) 달이 어째서
 서방까지 가시겠습니까
 무량수불 전에
 보고의 말씀 빠짐없이 사뢰소서
 서원(誓願) 깊으신 부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두 손 곧추 모아
 원왕생*원왕생
 그리는 이 있다 사뢰소서
 아아, 이 몸 남겨 두고
 사십팔대원 이루실까
 - 광덕, [원왕생가(願往生歌)]

*원왕생: 부처의 구원을 받아 극락으로 가기를 바람.

2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여 청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화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에서는 대상의 심리가, (나)에서는 대상의 움직임이 묘사되고 있다.
- ⑤ (가)의 화자는 반응을 요구하는 대상을, (나)의 화자는 자신의 바람을 반복해 말하고 있다.

2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달’은 ‘무량수불’과 화자를 연결해 주는 매개체로 선택되었군.
- ② ‘서방’은 화자가 타의에 의해 떠난 그리운 공간을 의미하는 군.
- ③ ‘보고의 말씀’은 ‘왕생’을 그리는 사람이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겠군.
- ④ ‘두 손 곧추 모아’는 화자의 간절한 태도를 형상화하고 있군.
- ⑤ ‘그리는 이’와 ‘이 몸’은 동일한 존재를 가리키고 있군.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구지가] 와 [원왕생가] 는 모두 소원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여 불린 노래들이다. [구지가] 는 가락 국 시조의 탄생 신화에 전해지는 노래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에 따라 사람들이 임금의 도래를 기원하며 불렀다는 기록이 있어 집단적인 무가의 성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원왕생가]는 서방 정토로의 왕생을 아미타불에게 비는 내용을 담은 불교적 성격의 향가이다. 아미타불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염원을 품고, 아미타불을 의지하여 염불하는 모든 신도를 구제하여 극락정토에 태어나게 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48개의 맹세를 제시한 바 있다.

- ① (가)와 (나)의 화자가 호명하는 절대자들은 이들 작품의 불교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와 (나)에는 소원을 이루지 못해 괴로워하는 화자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군.
- ③ (가)의 소원은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나)의 소원은 개인 구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군.
- ④ (가)는 대상에 대한 호소를 통해, (나)는 대상에 대한 위협을 통해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군.
- ⑤ (가)는 외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나)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려 하고 있군.

[27~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집을 치면, 정화수 잔잔한 위에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의 신선한 우물집이었을레. 또한 윤이 나는 마루의, 그 끝에 평상의, 갈앉은 뜨락의, 물 냄새 ㉠창창한 그런 집이었을레. 서방님은 바람 같단들 어느 때고 바람은 어려 올 따름, 그 옆에 순순한 스러지는 물방울의 찬란한 춘향이 마음이 아니었을레.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 보았을까나.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흐느껴 물살 짓는 어깨가 얼마쯤 하였을까나.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은 그 어디 있을까마는, 산과 언덕들의 만 리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빛 임자가 아니었을까나.
 - 박재삼, [수정가(水晶歌)]

(나) 멀리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귀먹고 눈먼 당신은 추운 땅속을 헤매다
 누군가의 입가에서 잔잔한 웃음이 되려 하셨지요

부르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생각지 않아도, 꿈꾸지 않아도 당신은 옵니다
 당신이 올 때면 먼발치 마른 흙더미도 고개를 듭니다

당신은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를 벗고 싶어 몸부림하지만

내게서 당신이 떠나갈 때면

내 목은 갈라지고 실핏줄 터지고

내 눈, 내 귀, 거덜 난 몸뚱이 **갈가리 찢어지고**

나는 울고 싶고, 웃고 싶고, 토하고 싶고

벌컥벌컥 물사발 들이켜고 싶고 길길이 날뛰며

절편보다 희고 고운 당신을 앞앞이, 뺨아 낼 테지만

부서지고 무너지며 당신을 보낼 일 아득합니다

굳은 살가죽에 불 땡길 일 막막합니다

불탄 살가죽 뚫고 다시 태어날 일 꿈같습니다

지금 당신은 내 안에 있지만

나는 당신을 어떻게 보내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막만 한 손으로 뺏센 내 가슴 쥐어뜯으며 발 구르는 당신

- 이성복, [꽃 피는 시절]

27.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대조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상승 이미지를 지닌 시어를 통해 역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대상을 호명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른 대상의 변화 과정을 구체화하고 있다.

28. <보기>를 통해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선생님: ‘창창하다’는 많은 동음이의어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시인은 여기에 한자를 표기하지 않았습니니다. 이는 해석의 여러 갈래 길을 열어 둔 것으로, 독자는 나름의 상상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 ‘창창하다’는 표현의 대상은 ‘물 냄새’인데, 이 후각적 이미지는 다음의 다양한 사전적 의미와 결합하여 시적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창창하다¹ (惘惘--) [형용사] 갈 길을 잃어 갈팡질팡하고 마음이 아득하다.

*창창하다² (槍槍--) [형용사] 몹시 서럽고 슬프다.

*창창하다³ (滄滄--) [형용사] 매우 차다.

*창창하다⁴ (瑯瑯--) [형용사] 옥이나 악기가 울리는 것처럼 소리가 맑고 또랑또랑하다.

*창창하다⁵ (蒼蒼--) [형용사]

1. 바다, 하늘, 호수 따위가 매우 푸르다.

2. 나무나 숲이 질푸르게 무성하다.

① 창창하다¹의 의미에 주목하면, ‘정화수’는 간절하게 비는 행위를 암시하여 서방님의 부재로 인해 춘향이 느꼈을 막막하고 아득한 심정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군.

② 창창하다²의 의미에 주목하면, ‘갈아은 뜨락’의 ‘물’은 이별로 인한 춘향의 서러움과 슬픔을 환기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군.

③ 창창하다³의 의미에 주목하면, ‘스러지는 물방울’은 ‘바람’ 같은 서방님 때문에 춘향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한의 감정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군.

④ 창창하다⁴의 의미에 주목하면, ‘아침마다 새로 생기는 물방울’이 한 방울씩 모여서 만드는 ‘신 선한 우물집’의 심상은 맑고 순수한 춘향의 마음 상태와 연결되는 표현으로 볼 수 있군.

⑤ 창창하다⁵의 의미에 주목하면, 질푸름과 무성함으로 구체화되는 ‘물 냄새’는 춘향의 지극하고 변함없는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으로 볼 수 있군.

29. <보기>를 통해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가)는 이 도령에 대한 춘향의 간절한 사랑과 그리움을 담은 작품으로, 춘향의 마음을 다양한 자연의 심상과 연결시켜 표현하고 있다. (나)는 꽃을 띄우는 과정을 ‘나’와 ‘당신’의 사랑과 이별의 과정에 빗대어 그려 내고 있다. 특히 재회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드러내고 있는 (가)와 달리, (나)는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을 감당하는 화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① (가)에서 ‘푸른 산 언덕들’은 ‘일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과 연결되어, 춘향의 사랑이 자연의 풍경과 조응을 이루어 시적 의미를 형성하도록 하고 있군.

② (가)에서 ‘흐느껴 물살 짓는’ 어깨의 움직임은 ‘만리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춘향의 시선과 연결되어, 독자가 춘향을 ‘수정빛 임자’로 여기는 화자의 생각에 공감하게 하고 있군.

③ (나)에서 당신이 ‘부르지 않아도’, ‘생각지 않아도’ 오는 존재라는 사실에서, 당신과의 이별은 화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도래할 필연적인 사건임을 떠올릴 수 있군.

④ (나)의 ‘목은 갈라지고 실핏줄 터지고’ 온몸이 ‘갈가리 찢어지’는 고통은, 개화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아픔을 구체화하여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군.

⑤ (나)의 ‘조막만 한 손으로 뺏센 내 가슴 쥐어뜯으며 발 구르는 당신’의 모습은, ‘나’와의 이별을 거부하려는 의지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군.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도는 문자보다 앞서 만들어진 시각 언어로 선, 형, 색 등과 같은 기본 요소를 회화와 공유하고 있다. 중국의 문자학 서적 [설문해자]에 그림을 뜻하는 ‘畫(화)’가 경계 또는 밭의 네 경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지도는 회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특히 고지도에는 이러한 회화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고지도는 대략 조선 후기까지 그려진 지도들을 의미하는데, 현전하는 고지도는 대부분 조선 시대에 제작된 것이며, 그 종류는 세계 지도, 조선 전도, 수도 한양을 나타낸 도성도, 지방 행정 구역을 나타낸 군현도, 산성을 나타낸 산성도 등이 있다. 이 중 세계 지도나 조선 전도 등 규모가 큰 지역을 단순화해 표현한 소축척 지도는 경물의 형상을 주로 선과 도형 위주로 표현해 지도적 추상화의 수준이 높은도 면식 지도가 많았던 반면, 도성도, 군현도, 산성도 등의 대축척 지도는 대상 지역의 자연, 인문 지리적 환경을 회화적 요소를 활용해 형상화한 회화식 지도가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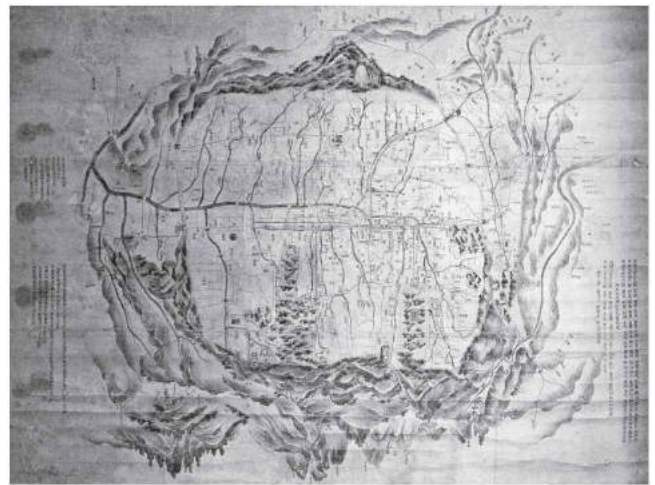
회화식 지도는 실경(實景)을 바탕으로 한 산수화풍의 유행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데, 특히 18세기 무렵의 지도들은 지역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는 지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회화적 기법을 동원함으로써 예술적 아름다움을 겸비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지도의 회화적 특성으로 먼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시점이다. 동양의 산수화는 고정된 위치에서 하나의 시점으로 대상을 묘사하는 단일 시점의 초점 투시보다 한 폭의 그림 속에도 여러 개의 초점을 가진 사방 시점의 산점 투시를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 산점 투시란 화가가 고정된 시야의 제약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위치에서 상이한 시야로 사물을 관찰해 대상의 상하좌우를 그릴 수 있는 표현법을 말한다. 조선 시대 회화식 지도에서는 일부 요소에서 산점 투시가 확인된다. 특히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고을을 나타낸 지도는 한 장의 지도라도 주변 산이 각기 다른 초점으로 표현되었기에 사방에서 자연스레 지도를 열람할 수 있었는데, 열람자의 시각적 편의를 고려해 관련 지명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표기된 경우도 있었다.

축척과 표현 방식에서도 지도의 회화적 특성이 드러난다. 축척은 지표에서의 실제 거리를 지도에서 줄인 비율을 말한다. 진경 산수화에서는 대상이 동일한 비율로 축소되어 그려지지 않고 작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을 확대한 차별적 축척이 적용되었는데, 회화식 지도의 경우 주로 군현도나 도성도에 표현된 인문 지리적 요소들에서 이러한 방식을 찾을 수 있다. 군현도에서는 읍치*가 주변 지역에 비해 대축척으로 확대되어 그려지는 일이 많았다. 도성도의 경우는 도성의 외부가 내부에 비해 소축척으로 그려졌는데, 이는 소우 주적 공간으로 표현되는 도성 내부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었다. 군현도 등에 나타난 객사나 관청의 경우,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보관하는 객사 건물은 지붕의 모양을 뚜렷하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문에 그려진 태극 문양까지 세밀하게 묘사하기도 했다. 지역의 대표적 경관 역시 마찬가지로, 1872년 제작된 [남원 지도]에서는 소설 [춘향전]에 등장하는 광한루와 오작교가 다른 경관에 비해 확대되어 표현되기도 하였다.

회화식 지도에서 산수화의 표현 기법은 주로 산수로 대표되는 자연 지리적 요소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산수화에서는 다양한 준법(技法)을 사용해 산의 입체감을 표현하였는데, 준법이란 산악 등의 굴곡이나 음영을 그리는 표현 기법을 의미한다. 진경 산수화에서는 흠산을 표현하기 위해, 가로로 찍는 작은 점인 미점(米

點)을 활용한 미점법이나 마(麻) 섬유를 풀어 늘어놓은 듯한 선을 반복하여 그린 피마준이 사용되었다. 화강암질의 바위산을 그릴 때는 적묵법이나 부벽준이 사용되었는데, 적묵법은 먹이 마른 자리 위에 다시 먹칠해 쌓아 올리는 준법이며, 부벽준은 갈필*을 사용하여 도끼로 장작을 내리친 듯한 느낌을 주는 준법이다. 이러한 진경 산수화의 준법은 주로 대축척 지도에서 산의 묘사에 활용되었다.

규장각 소장 [도성도]는 조선 시대 도성과 그 주변을 표현한 회화식 지도이다. 도성 주변의 산과 도성의 성곽이 사방을 향해 바깥으로 펼쳐진 구도이며, ㉠지도 전체의 남북 방향을 바꾸어 도성 북쪽의 삼각산을 지도의 아래쪽에, 도성 남쪽의 목역산을 지도의 위쪽에 배치한 점이 특이하다. 주변의 산은 산수화풍을 반영해 섬세하게 묘사되어 미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데, 흠산인 목역산은 미점법과 피마준으로, 삼각산의 암 봉은 부벽준으로 묘사되었다. 이 지도는 사대문 안과 밖의 축척이 각기 달리 적용되어 사대문 내부가 매우 자세히 파악된다. 광화문은 ‘구 광화문’이라 기록되어 있고, 경복궁은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된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이 지도는 경복궁 재건 이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기록학적 특성을 지닌다. 이렇게 미적 요소를 반영한 지도는 감상화로도 손색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지도 제작에 전문적 화원이 참여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도성도』(규장각 소장)

회화식 지도는 대개 도면식 지도와 비교해 지도로서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반면, 묘사하는 대상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화식 지도는 보는 이가 쉽게 지역을 파악할 수 있게 돕고, 제작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생생히 부각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고지도의 회화적 특성 속에는 제작 시점의 생생한 국토 공간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도 제작자와 지도 제작을 주관한 당대인의 사상이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다.

*읍치: 고을의 중심 공간으로, 관아가 있던 곳.

*갈필: 서예나 동양화에서, 붓에 먹물을 슬쩍 스친 듯이 문혀서 쓰거나 그리는 기법.

30. 윗글의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중심 화제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② 화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소개하고, 절충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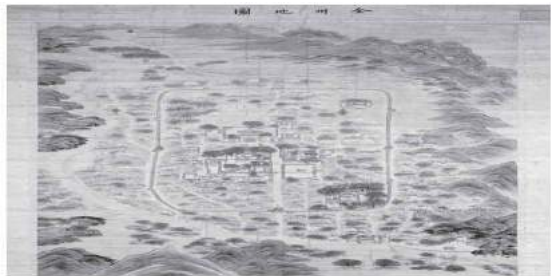
- ③ 일반적인 통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역사적 사실을 활용하여 대상의 변천 과정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⑤ 특정 대상이 지닌 단점을 언급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도면식 지도는 일반적으로 회화식 지도보다 지도로서의 정확성이 우수하다.
- ② 회화식 지도는 선과 도형으로 경물의 형상을 표현해 도면식 지도보다 지도적 추상화의 수준이 높다.
- ③ 지도에 인문 지리적 요소들을 표현할 때 차별적 축척을 활용한다면 제작자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다.
- ④ 회화적 기법을 반영한 지도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동시에 미적인 요소를 반영한 경우도 있었다.
- ⑤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지역을 표현한 지도에서는 자연, 인문 지리적 환경을 회화적 요소를 활용해 형상화한 경우가 많았다.

3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전주 지도』(규정각 소장)

규정각 소장 ㉠ [전주 지도]는 전주부를 나타낸 군현도이다. 산지는 고정된 위치에서 하나의 시점으로 표현되었으며, 하나의 관찰 지점을 기준으로 가까운 산은 크게, 먼 산은 작게 그리는 원근법이 사용되었다. 음성 바깥의 산세 묘사에는 진경 산수화의 준법이 활용되었는데, 지도 좌측 하단의 토산 묘사에는 피마준, 지도 우측 하단의 산에는 미정법, 지도 우측 상단의 산에는 적목법이 사용되었다. 음성 외부는 내부보다 소축척으로 그려져 음성 안과 밖의 축척이 각기 다르다. 성의 안팎에 만개한 봄꽃은 계절적 특징을 보여 주며, 1734년 전라 감사 조현명이 음성의 사대문을 개축하며 새로 만든 웅성*의 모습과 전주의 수령인 전주 부윤의 행차로 보이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기록화적 요소도 드러난다. [전주 지도]는 지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산수화풍을 반영한 음성 주변의 산 묘사로 감상 화로도 손색이 없는 회화식 지도이다.

*웅성: 성문을 보호하고 성을 지키기 위해 큰 성문 밖에 쌓은 작은 성.

- ① 산의 굴곡이나 음영을 그리는 표현 기법으로 보면, 지도 우측 하단의 산은 흑산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산수화풍을 반영해 감상화로도 손색이 없었다는 점에서 전문적 화원이 지도 제작 과정에 참여했을 수 있겠군.
- ③ 새로 만들어진 웅성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에서 제작 시점의 국토 공간의 모습이 지도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군.
- ④ 조선 전체를 나타낸 도면식 지도에 비해 규모가 작은 지역을 나타낸 지도로, 산지의 표현에 산점 투시가 활용되어 산수화의 특징을 지니고 있겠군.
- ⑤ 음성 안과 밖의 축척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제작자가 차별적 축척을 활용해 음성 외부에 비해 음성 내부를 확대하여 표현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군.

33. <보기>를 참고하여,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규정각 소장 [도성도]는 수도 한양을 그린 당대의 다른 지도들과 비교할 때, 지도에서의 방위 배치가 다르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당시 궁궐은 도성 내에서 목역산 방향을 정면으로 대하고 있어, 임금은 목역산을 마주하며 도성과 그 주변을 직접 조망할 수 있었는데, 이 지도는 임금이 정사(政事)를 보는 곳에 어람*용으로 걸렸던 것으로 파악된다.

* 어람: '임금이 봄'을 높여 이르던 말.

- ① 지도를 열람하는 사람의 실제 시각에서 도성과 그 주변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 ② 도성 내에서 조망할 수 없는 산지의 모습만을 부각해 주변을 더 자세히 보여 주기 위해
- ③ 다양한 준법을 활용하여 임금이 산과 성곽의 상하좌우 모습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
- ④ 도성을 표현한 당대 지도들의 보편적 제작 관습에 따라 산지의 위치를 실제와 다르게 그리기 위해
- ⑤ 주변 산을 여러 초점으로 표현해 임금이 관련 지명을 다양한 방향에서 쉽게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앞부분의 줄거리] 원봉은 자신의 주관으로 연 바자회의 수입금을 유용했다는 이유로 위기에 처해 있다. 원봉이 청년회 사람들에게 산돼지라고 조롱받는 가운데 자신들과 반목하는 세력과 맞서려는 차혁은 원봉의 과실을 덮어 주고자 한다.

최원봉: 똥칠 아니라 더한 칠이라도 나는 내 양심대로 칠하고 나설 수밖에.

[A] 차혁: 왜 고따우로만 되어 가니? 내 말 좀 들어 보라. 접 때 불신임안이 통과 못된 것은 즉 네게 대한 사실상의 신임이라고 나는 보고 있다. 왜 그런고 하니 설령 이번 바자에서 회계상의 축이 생긴 것이 과실이라고 해 놓고라도 네게 대해서는 회를 위해 신임한다는 증명이 아니겠니? 정치에서 과실은 죄인이라는 금언을 사실로 부인해 버린 이 자리 이 처지가 아니니? 그런데 너는 일시의 감정, 사소한 생각으로 고만 소인이 되어 버리려고 하니?

[B] 최원봉: 소인 아니라 더 작은 난쟁이가 된다고 치욕 될 것은 없다. 나는 아무리 일을 위한다기로 내 과실을 숨기거나 남에게 부당한 사과를 하기는 싫다. 나는 내 과실을 과실대로 그이들 앞에 가서 자복하겠다. 승리를 얻은 장군 이상으로 벼찬 자신을 가지고 사죄하겠다. 이것이 좀 넉넉한 짓이겠니? 그러나 나는 남에게 연민(憐愍)이라든지 동정을 얻으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다. 내가 내 결점을 알면 그 동시에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속 시원하게 발표하고 호소 아니 하는 못 견딘다.

차혁: 그것이 무슨 되지 못한 망나니 사상이야. 그것도 니체식*이니?

최원봉: 나도 그전에는 너와 뜻이 맞고 또 너와 같이 일해 나갔지만 이제는 못 하겠다. 너희들이 나의 재능과 손을 빌려주고 내 과실을 용서해 준다는 그런 더러운 동정은 내게 똥보다도 더럽게 생각된다. 나는 내 뜻대로 일하려면 그 전에 먼저 같이 일할 원 사회를 적진으로 몰아낸 뒤에 일이 되겠다.

차혁: (노한 소리로) 그래서 회도 그만두고 조소와 이간을 맞아들여서 모도 뉘범벅을 만들겠다고 말이구나.

최원봉: (또한 노한 소리로) 왜 너희들은 나 아니면 상무 간사 될 사람 없어 그러니? 그리 장언대어*하는 네가 되어 일해 보려느냐. 그러면 설마 나 같은 산돼지보다 나를 테지.

[C] 차혁: (일어서며) 점점 추락해 오는구나. 잘되어 간다. 산돼지나 되었으면 잡아먹기나 하지만 너는 그것도 못되는 소인이야.

[D] 최원봉: 소인, 소인? 너희들은 얼마나 위대한 대인이니? 이 에고이즘*에 철저한 놈들. (달려들 듯이) 일을 위해서는 위선까지 용서해야 한다고? 그것이 너희들 주의로구나. 더러운

차혁: 더 지껄이지 마라. 공연히 내 집도 아닌데 네 집에서 싸워서 그런 체면이 있겠니?

최원봉: 흥, 너 싸워 볼 테냐? 목 베인 항우*겠지?

차혁: 항우가 되면 그래도 박물관에나 가지고 가면 값이 된다. 너는 산돼지야! 어금니밖에 못 쓰는 산돼지.

최원봉: (달려들며) 이 위선자, 내 어금니한테 좀 배워 보라.

[E] 최영순: (쫓아 나오며) 오빠! 왜 이래요? 무슨 되지 못한 쌍들이예요. 이게 무슨 무식한 짓들이예요. (혁에게)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오빠는 보통적 감정이 아니니까 보통 적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차혁: 네 생각에는 모도가 네 눈 아래로 보이는 게지? 기실 못난 짐승이야.

최원봉: 짐승? 산돼지라고 바로 대령.

최영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선생님이 그런 소리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오빠는 지금 병인과 마찬가지로요. 참으세요.

최원봉: (영순을 내갈기며) ㉠너까지 날 산돼지 대접을 하려 드니?

차혁: (영순을 막아 주며) 너 이걸 또 무슨 못난 짓이야. 애, 고만두자. 내가 잘못했다. 네가 회를 그만두든 네 주의대로 해라.

최원봉: ㉡ (억지로 참고 마루 끝으로 나온다.) 모도가 되지 못한 같은 무리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니?

차혁: (영순에게) 울지 마십시오. 일어나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나는 가겠습니다. 공연히 쓸데없는 짓을 해서 미안합니다.

최원봉: 너 같은 것 다시 내 집에 왔다가는 쟁강이 부질러 놓는다.

차혁: 나는 가겠네. 맘대로 하게. 다시 오래도 나 걸은 못난이가 무슨 체면으로 오겠나? 자네 어머니 오시거든 이런 위선자 하나 내쫓았다고 자랑이나 해두게. 그리고 어머니 안심하시라고 하게.

최영순: 더 있다가 가세요, 네 선생님. 저녁 다 됐어요. 잡숫고 가세요.

차혁: (내려와서 신을 신으며) 다음에 다시 뵙지요. 공연히 마음만 상해 드려서 미안합니다.

최영순: 천만에. ㉢(눈물을 닦고 문밖까지 전송해 주며) 틈나면 또 오세요. 저도 틈나는 대로 또 가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돌아와서 주저앉은 원봉이 옆에 앉으며 한참 말없다가) 오빠! (달려들어 붙들고 느껴 운다. ㉣점점 황혼이 되어 온다.)

최원봉: (얼굴 밑에 와 닿는 영순의 머리 위예다가 입을 파묻고) 내가 잘못했나 부다. 우지 말아, 우지 말아. 내가 잘못했다. 생각이 부족했다. 그 애를 그렇게 돌려보내지 않을 걸.

최영순: (울음 섞인 말로) 괜찮아요. 내일쯤 내가 가서 사과할 터이예요.

최원봉: 여간 말해서 마음이 돌려지겠니. 한번 이렇게 오해하고 간 이상에는.

최영순: ㉤(얼굴을 들며) 오해가 무슨 오해예요.

최원봉: 입때껏 어머니가 자기를 너한테서 떼하려고 애쓰든 것을 눈치채고 있지 않았니? 그러던 판이니까 지금도 혹시 내가 그 뜻으로 자기와 다툼 줄로만 알고 갔을 게다.

최영순: 설마 그렇게야 생각했을라구요.

최원봉: 물결같이 변하는 젊은 사람의 마음속을 누가 아니. 아까 무엇이라고 하고 가드니. 위선자 하나 내쫓았다고. 어머니에게 자랑이나 허라구 허지 않든? 그리고 어머니 안심하시게 하라구 당부하고 나가지 않든? 아마 불려도 다시는 아니 올 듯싶다.

최영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저녁에 가 볼 테예요. 그러는 것이 낫지 않아요.

- 김우진, [산돼지]

*니체식: 철학자 니체의 사상. 여기서는 허무주의.

*장언대어(壯言大語): 의기양양해서 장담하고 큰소리를 침.

*에고이즘(egoism): 이기주의.

*목 베인 항우: 고집 세우는 사람. 유방과 패권을 다투다가 포위 되어 목을 베어 자살한 고사에서 유래.

(나) “아버지는 너무 지치셨다.”

어머니가 말했다.

“알겠니? 이젠 아버지를 믿지 마라. 너희들이 아버지 대신 일해야 한다.”

어머니가 울었다. 어머니는 인쇄소 제본 공장에 나가 접지 일을 했다. 고무 골무를 끼고 인쇄물을 접었다. 나는 겁이 났다. 나는 인쇄소 공무부 조역으로 출발했다. 땀을 흘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명희는 나를 만나 주지 않았다. 아주 쌀쌀했다. 영호와 영희도 몇 달 간격을 두고 학교를 그만두었다. 마음이 차라리 편해졌다. 우리를 해치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보호를 받고 있었다. 남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들이 일정한 구역 안에서 보호를 받듯이 우리도 이질 집단으로서 보호를 받았다. 나는 우리가 이 구역 안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조역·공목·악물·해판의 과정을 거쳐 정판에서 일했다. 영호는 인쇄에서 일했다. 나는 우리가 한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싫었다. 영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영호는 먼저 철공소 조수로 들어가 잔심부름을 했다. 가구 공장에서 일했다. 그 공장에 가 일하는 영호를 보았다. **뽕안 톱밥 먼지와 소음** 속에서 있는 작은 영호를 보고 나는 그만 두라고 했다. 인쇄 공장의 소음도 무서운 것이었으나 그곳에는 톱밥 먼지가 없었다. 우리는 죽어라 하고 일했다. 우리의 팔뚝은 공장 안에서 굵어 갔다. 영희는 그때 큰길가 슈퍼마켓 한쪽에 자리 잡은 빵집에서 일했다. 우리가 고맙게 생각한 것은 환경이 깨끗하다는 것 하나뿐이었다. 영희는 하늘색 빵집 제복을 입고 일했다. 영호와 나는 유리창 밖에서 영희가 일하는 것을 보았다. 영희는 예뻐다. 사람들은 영희가 난쟁이의 딸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 공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부를 하지 않고는 우리 구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세상은 **공부를 한 자와 못 한자**로 너무나 엄격하게 나누어져 있었다. 끔찍할 정도로 미개한 사회였다. 우리가 **학교 안에서 배운 것**과는 정반대로 움직였다. 나는 무슨 책이든 손에 잡히는 대로 읽었다. 정판에서 식자로 올라간 다음에는 일을 하다 말고 원고를 읽는 버릇까지 생겼다. 동생들에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판을 들고 가 몇 벌씩 교정쇄를 내기도 했다. 영호와 영희는 나의 말을 잘 들었다. 내가 가져다준 교정쇄를 동생들은 열심히 읽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노력으로 읽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고입 검정고시를 거쳐 방송 통신 고교에 입학했다.

(중략)

그해 겨울을 아버지는 방 안에서 났다. 나는 배를 끌어내 말뚝에다 매었다. 날이 추워지자 울안으로 끌어 들였다. 그날 밤 방죽이 얼었다.

밤에 명희 어머니가 또 왔다.

“영희 엄마.”

명희 어머니가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입주권이 자꾸 올라요. 아침에 십칠만원 했던게 십팔만 오천 원으로 뛰었어요. 우리는 괜히 먼저 팔아 가지고 손해만 봤어요.”

“저런!”

“만 오천 원이나!”

어머니는 낮에 떼어 놓았던 알루미늄 표찰을 종이로 썼다. 그것을 철거 계고장과 함께 옷장 안에 넣었다.

“영희야.”

어머니가 불렀다.

“아버지 어디 가셨니?”

“모르겠어요.”

“영호야.”

“아까 아무 말씀 없이 나가셨어요.”

“영희야, 큰오빠는 어디 있니?”

“방에 있어요.”

“아버지가 어딜 가셨을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불안해졌다.

“애들아, 아버지를 찾아봐라.”

나는 아버지가 **놓고 나간 책**을 읽고 있었다. 그것은 「일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이었다. 영희는 온종일 팬지꽃 앞에 앉아 줄 끊어진 기타를 쳤다. ‘최후의 시장’에서 사 온 기타였다. 내가 방송 통신 고교의 강의를 받기 위해 라디오를 사러 갈 때 영희가 따라왔었다. 쓸 만한 라디오가 있었다. 그런데, 영희가 먼지 속에 놓인 기타를 들어 통겨 보는 것이었다. 영희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기타를 쳤다. 긴 머리에 반쯤 가려진 옆얼굴이 아주 예뻐다. 영희가 치는 기타 소리는 영희에게 아주 잘 어울렸다. 나는 먼저 골랐던 라디오를 살 수 없었다. 좀 더 싼 것으로 바꾸면서 영희가 든 **기타**를 가리켰다. 그 라디오가 고장이 나고 기타는 줄이 하나 끊어졌다. 줄 끊어진 기타를 영희는 쳤다.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일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아버지는 개천 건너 주택가에 사는 젊은이에게서 빌렸다. 그의 이름은 지섭이었다. 지섭은 밝고 깨끗한 주택가 삼층집에서 살았다. 지섭은 그 집 가정 교사였다.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지섭이 하는 말을 나는 들었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왜?”

아버지가 물었다.

지섭은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하긴!”

- 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3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인물 간의 대결 양상을 통해 사건 전개 방향을 예고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인물의 중재 과정을 초점화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가치관이 상이한 인물 간 갈등이 해소되는 상황을 그려 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서술자의 개입과 논평을 통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인물에 대한 비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가)는 비유적 표현으로, (나)는 외적인 모습으로 인물을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인물이 놓여 있는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35.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의 등장인물들은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에 있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그 갈등의 한가운데에는 자신의 잘못을 이유로 ‘회’(청년회)에서 공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최원봉의 소극적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이는 인물의 도덕적인 결벽증과 그로 인한 무기력함으로 나타난다. 최원봉과 달리 ‘회’의 한계와 상황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장하는 차혁은 현실주의자의 면모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차혁과 연인 관계인 최영순은 차혁에게 동조하지만 오빠와 연인 사이에서 두 사람의 대결을 바라지 않는다.

- ① [A]: 차혁이 최원봉의 대응 방식을 두고 ‘일시의 감정, 사소한 생각’과 같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최원봉을 비판하는 것에서, 공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최원봉에 대한 차혁의 현실주의적인 충고를 확인할 수 있군.
- ② [B]: 최원봉이 자신의 업무상 과실을 남들에게 속 시원히 ‘발표하고 호소’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에서, 도덕적 결벽증 때문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려 하는 고집스러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군.
- ③ [C]: 차혁이 ‘산돼지’와 ‘소인’에 빗대어 최원봉의 부정적인 면모를 냉소하고 있는 것에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회’의 상황보다는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최원봉에 대한 차혁의 실망감을 엿볼 수 있군.
- ④ [D]: ‘회’의 ‘일’을 위해 잘못된 행동을 감싸주려는 차혁의 호의를 위선으로 간주하며 상대를 비꼬는 모습에서, 공적인 책임을 더 이상 떠맡지 않으려고 하는 최원봉의 소극적인 상황 인식을 엿볼 수 있군.
- ⑤ [E]: 최원봉과 차혁의 싸움을 ‘무식한 짓’으로 치부하며 두 인물을 함께 책망하는 모습에서, 대결 국면을 원만히 해결하기에는 두 사람의 심리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여기는 최영순의 균형 잡힌 판단을 엿볼 수 있군.

36. ㉠~㉣을 무대에서 상연하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차혁에게 달려들 때 이상으로 격앙된 어조로 말하도록 연기를 지도하여, 다툼을 말리려는 최영순의 말도 자신을 힐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흥분이 고조된 인물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야겠어.
- ② ㉡: 마루 안쪽과 끝 사이의 거리감이 나타날 수 있도록 무대를 구성하여, 몸싸움으로 치달고 있는 긴장된 상황에서 흥분한 감정을 억누르려는 인물의 심리를 공간의 이동을 통해 보여 주어야겠어.
- ③ ㉢: 전송을 마칠 때까지 표정과 자세를 추스르는 동작을 반복하도록 연기를 지도하여, 자신의 감정도 미처 수습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혁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나타내려는 인물의 심리를 부각해야겠어.
- ④ ㉣: 무대 조명의 밝기를 차차 줄여 가며 조명의 빛깔도 바뀌어 주어, 시간이 오래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물들의 걱정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임을 시각적으로 강조해야겠어.
- ⑤ ㉤: 의혹에 찬 표정으로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하도록 연기를 지도하여, 최원봉이 후회의 말을 할 정도로 염려하는 차혁의 오해가 무엇인지 확인하려는 인물의 태도를 나타내야겠어.

37. (나)의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땀을 흘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남들보다 늦게 깨닫게 된 것이 ‘보이지 않는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 ② 영희가 예쁘다는 사실을 들어 ‘난쟁이의 딸’임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편견을 자신이 ‘학교 안에서 배운 것’과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세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조리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③ ‘공부를 한 자와 못 한자’에 대한 지나친 사회적 차별을 인식했기 때문에 ‘우리 구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영희가 일하는 곳의 깨끗한 환경에 대해 고마워하고 영희에게 ‘기타’를 사주려고 자신은 싸구려 ‘라디오’를 선택하고 있다.
- ⑤ 생계 능력을 잃은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며 일상을 영위하는지 짐작해 보려고 아버지가 ‘놓고 나간 책’을 읽어 보고 있다.

38.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나)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던 1970년대 사회의 실상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이 당시 도시 들은 경제의 발전과 인구의 유입 등으로 인해 확대일로에 있었다. 경제적·행정적 목적 등에 따라 공간이 구획되어 있던 도시는 그 확장 과정에서 중심부와 주변부로 재편되었고, 하층민들은 점차 주변부로 내몰리게 되었으며, 끝내 그들의 거주 공간조차 재개발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집이 주거 본래의 가치보다는 투기의 대상으로 간주되면서 도시 주변의 빈민들은 인간적인 삶에서 완전히 소외되었고, 끝내 경제적 이익을 좇는 일부 계층의 욕망 실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였다. 작가는 가난한 삶이나마 지켜 내고자 노력하는 ‘난쟁이’ 가족의 모습을 통해 산업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 빈민의 비극적인 현실을 고발하는 동시에, 이들을 억압하는 산업 사회의 이원적인 계층 구조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상상력을 보여 주려 했다.

- ① 아버지를 대신해 일터에 나선 ‘나’와 형제들과 어머니의 모습에서, 산업화가 진전되는 현실에서 경제적 능력의 부족 때문에 도시의 주변부로 밀려나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난쟁이’ 가족의 궁핍한 현실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가구 공장의 ‘뽀얀 톱밥 먼지와 소음’ 속에서 일하는 영호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는 ‘나’의 모습에서, 가난 때문에 어린 나이에 열악한 환경 속의 노동에 내몰리는 도시 빈민의 현실에 대한 작가의 연민의 시선을 떠올릴 수 있군.
- ③ 일을 하지 않고 ‘방 안’에서 겨울을 난 아버지가 밝고 깨끗한 주택가의 지섭과 교류하는 모습에서, 주변부와 중심부 간의 소통을 통해 억압적인 계층 구조에서 벗어나 인간적 삶을 회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아버지의 낙관적인 태도를 떠올릴 수 있군.
- ④ 입주권의 값이 오른다는 이웃의 말을 듣고 ‘알루미늄 표찰’과 ‘철거 계고장’을 소중히 다루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주변부의 삶이나마 자신의 터전을 지켜 내기 위해 애쓰는 어머니의 눈물 나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아버지의 물음에 대해 ‘이 땅’은 ‘죽은 땅’이라고 설파하는 지섭의 대답에서, 경제적 이익을 좇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인간이 더 이상 욕망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이상적인 현실을 실현하려면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군.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남궁두는 과거를 보아 문명을 떨치자 자신의 재주만 믿고 고을 수령에게 예를 다하지 않아 미움을 산다. 첩과 당질이 정을 통하는 것을 본 남궁두는 두 사람을 죽이고 붙잡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나, 아내의 도움으로 탈옥하게 된다. 그 후 이곳저곳을 떠돌던 남궁두는 치상산에 들어가 장로의 가르침에 따라 도사의 선술을 연마한다.

(가) 장로는 곧바로 삼재경(三才鏡)*을 벽에 걸고 칠성경(七星劍)* 두 개를 양편에 세우고는 우보(禹步)로 걸으며 주문을 외우면서 남궁두가 마귀를 물리치고 도(道)를 이루기를 빌었다.

단련한 지 거의 여섯 달 만에 단전(丹田)이 가득 채워져 마치 금빛이 배꼽 아래에서 나오는 듯했다. 남궁 두는 그의 도가 이루어지려 함을 기뻐하여 급히 이루고자 하니, 선천(先天)의 마음이 갑자기 흔들리는 것을 억제할 수 없어서 후천(後天)의 마음에 불이 붙고, 그 불길이 위로 올라가 이환(泥丸)*을 태우자 고향을 지르며 방에서 뛰쳐나왔다. 장로가 지팡이로써 그의 머리를 치며 말했다.

“아! 도가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급히 남궁두를 편안히 앉게 하여서 기(氣)를 내리니, 기는 비록 수그러졌으나 마음이 아직 두근거리서 온 종일 진정되지 않았다. 장로는 탄식하며 말했다.

“세상에 드문 한 사람을 만나서 가르침에 성심껏 하지 않은 바가 없었거늘, 업보(業報)가 가로막음을 제 거하지 못해서 끝내 실패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대의 운명일 뿐이네. 내 힘으로 어떻게 하겠나.”

이내 기운을 회복시키는 차를 마시게 한 지 7일 만에야 마음이 비로소 편안해지고 기가 위로 치받쳐 오르지 않았다. 장로가 말했다.

“그대는 비록 신단(神丹)인 신태(神胎)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지상선(地上仙)은 될 수 있을 것이며, 조금 더 자기 감정을 억제하고 수양만 한다면 팔백 년은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네. 그대의 운명에는 아들을 두 도록 되어 있었으나 정자가 나오는 구멍이 꼭 막혔으니 약을 먹고 트이도록 하세나.”

그러면서 붉은 오동나무 열매처럼 생긴 환약 두 알을 꺼내 주며 삼키도록 했다.

(중략)

선생은 비록 다시 가업을 일으켰으나 스승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끝까지 조금도 게으르지 않았다. 해남을 떠나 용담 지역에 있는 깊은 산골짜기를 골라 숨어 살았는데, 치상산이 가까운 것으로 보아 다시금 선사 만나기를 바라는 계획이었으리라. 수십 년 동안 죽대 뿌리와 솔잎을 채취하여 먹으니 몸이 날이 갈수록 더욱 건강해지고 수염도 희지 않고 걸음걸이도 마치 나는 듯하였다.

(나) 만력(萬曆)무신년(1608) 가을 나는 공주에서 파직을 당하고 부안에서 살았다. 선생이 고부로부터 도 보로 나의 객사(客舍)를 찾아왔다. 그리하여 네 경(經)의 오묘한 뜻을 나에게 전해 주시고, 또 그분이 선사를 만났던 전말을 상세히 이야기함이 위와 같았다.

선생의 나이는 그해에 여든셋이었으나 얼굴은 마치 마흔에닐곱 살 된 사람과 같았고, 보고 듣는 능력이 조금도 쇠약하지 않았고, 눈초리가 깊었고 머리털이 검었으며, 빨리 걷는 것이 마치 여윈

학(鶴)과 같았다. 더러는 며칠씩을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며 [참동계] 나 [황정경] 을 외기에 그치지 않았는데, 그때마다 가르쳐 타일렀다.

“남몰래 험악한 일을 하지 말며, ‘귀신이 없다’고도 말하지 말게. 착한 일을 행하여 덕을 쌓고, 욕심을 끊고 마음을 단련한다면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르는 것을 곧 이룰 수 있으며, 난새와 학이 멀지 않은 앞날에 내려와서 맞아 줄 것이네.”

나는 선생이 마시고 먹는 것, 또 먹고 쉬는 것이 보통 사람과 똑같음을 보고서 괴이하게 여겼더니, 선생이 말했다.

“내가 처음에는 신선이 되어 날아서 하늘로 오르리라 여겼는데 빨리 이루려다 결국 이루지 못하고 말았네. 우리 스승님께서 이미 지상선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셨으니, 부지런히 수련한다면 팔백년이야 기필 할 수 있을 것이네. 요즘 산중이 자못 한가하고 적막하여 속세로 내려왔으나 아는 사람 하나도 없을뿐더러, 가는 곳마다 젊은이들이 나의 늙고 누추함을 멸시하니, 인간의 재미라고는 전혀 없네. 사람이 오래도록 살고자 하는 것은 본래 기쁜 일을 누리기 위함이거늘, 그러나 쓸쓸하고 기쁜 일이라고는 전혀 없으니 내가 무엇 때문에 오래 살기를 바라리오? 그러므로 속세의 음식을 금하지 않고 아들을 안고 손자를 껴안고 희롱하면서 여생을 보내다 자연의 변화를 따라 죽음으로 돌아가 하늘이 주신 운명에 따르려네. 그대야말로 선재(仙才)와 도골(道骨)이 있으니 힘써 행하고 게으르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진선(眞仙)이 되는 것이야 그대에게 어찌 먼일이겠는가? 우리 스승께서 일찍이 내게 ‘참을성 있다’고 하셨는데 참아 내지 못 하고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인(忍)’이란 한 글자는 선가(仙家)의 오묘한 비결인 만큼 그대 또한 삼가 지녀 잃지 말기를 바라네.”

그는 수심 일을 머물다가 옷을 떨치며 떠나 버렸다. 이때 사람들은 ‘그가 용담으로 다시 갔다’고 하였다.

나는 말한다.

[A] 전해 오는 말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교는 숭상했어도 도교는 숭상하지 않았다’고 한다. 신라 시대로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몇천 년이 지났으나 한 사람도 득도하여 신선이 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해서, 과연 전해 오는 말이 징험되는 것인가? 그러나 내가 보았던 남궁 선생으로 말한다면 다르다 하겠다.

- 허균, [남궁 선생전(南宮先生傳)]

- *삼재경: 천(天), 지(地), 인(人)을 비추는 거울.
- *칠성검: 북두칠성이 새겨져 있는 칼.
- *우보: 북두성을 걸어서 그 정기(正氣)를 취하여 마신다고 하는, 일종의 걷는 방법으로 도교 술법의 하나. 우(禹)임금이 창시했다고 전해짐.
- *이환: 도가(道家)에서 말하는 삼단전(三丹田)의 하나인 상단전(上丹田)을 가리키는 말로, 뇌(腦)를 지칭함.
- *만력: 중국 명나라 신종(神宗)의 연호.

39.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 제시된 행적과 관련하여 (나)에서는 인물의 말을 통해 그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가)는 전지적 시점에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나)는 1인칭 시점에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③ (가)에는 (나)의 서술자가 전해들은 이야기가 제시되어 있으며, (나)에는 (가)에 제시된 이야기를 알게 된 내력이 제시되어 있다.
- ④ (나)에서는 (가)의 주인공의 말을 인용하고 서술자의 말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주인공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 ⑤ (나)에서는 (가)에서 전개된 사건의 양상을 정리하고 그와 관련하여 주인공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상징적 소재로 암시하고 있다.

40. 윗글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로는 남궁두를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다.
- ② 장로는 남궁두가 자식을 낳아 기르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다.
- ③ 장로는 운명에 따라 남궁두가 도를 이루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그에 대비했다.
- ④ 남궁두는 오래 사는 데 뜻을 두지 않고 보통 사람처럼 살겠다고 다짐했다.
- ⑤ 남궁두는 도를 이루기 위해 애쓰던 과정을 돌아보고 욕념을 끊지 못했던 것을 후회했다.

41. [A]의 기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주인공의 심리적 정황을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사건 전개 속도를 빠르게 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시대적 배경을 제시하여 사건의 인과성을 높여 주고 있다.
- ④ 작가의 생각을 제시하여 주인공의 비범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인물에 대한 다양한 평을 소개하여 서술자의 평을 뒷받침하고 있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남궁 선생전]은 전(傳)이 소설화된 전계 소설로 볼 수 있는 작품이다. 전계 소설은 역사적 실존 인물에 관심을 갖고 그 행적을 기록하는 열전의 서술 전통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잔존한, '나름대로 근거 있는 역사적 사실에 바탕한 허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의 행적을 기록하고 교훈적인 내용이나 비판을 덧붙이는 글인 전은 개괄적인 서술을 그 특징으로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에 비해 전계 소설은 대화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인물의 내면을 묘사해 드러낸다. 특히 이것은 사건을 입체적으로 전개하고 입전된 인물의 개성을 뚜렷이 부각하는 효과를 거두는 데 기여한다. 그리고 전계 소설은 경험적 사실을 바탕으로 일정 정도 허구화를 가미하고 있지만,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서술 태도에 의해 실기적(實記的)인 성격 또한 지니고 있다. 이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을 중시하는 전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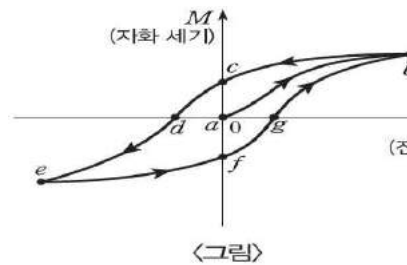
- ① '도'를 급히 이루고자 한 남궁두의 내면을 묘사하고 그에 대한 장로의 반응을 제시한 것은 인물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에 대한 비판을 덧붙이는 전의 서술 전통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이환'이 타는 고통으로 방에서 뛰쳐나온 남궁두를 장로가 지팡이로 머리를 치면서 탄식하며 한 말은 사건 전개에 구체성을 더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③ '지상선'은 될 수 있다며 수양을 하면 팔백 년을 살 수 있다고 장로가 남궁두에게 해준 말은 작품에 일정 정도 허구화가 가미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④ 남궁두가 작가를 찾아왔을 때의 시간적 배경과 그 당시 작가가 살고 있던 지명을 언급한 것은 작품의 실기적 성격을 나타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⑤ 작가가 자신의 집에서 본 남궁두의 모습과 행동을 제시하고 남궁두로부터 들은 말을 인용해 제시한 것은 남궁두의 입전이 경험적 사실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물은 여러 수단을 이용해 생존에 알맞은 환경을 찾아 이동하는데, 박테리아도 예외는 아니다. 1975년 미국의 블레이크모어는 자기장을 따라 움직이는 '주자성(走磁性)'이 있는 박테리아를 발견했다. 주자성 박테리아는 대부분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을 띠어 산소 농도가 높은 수면을 피해 호수나 바다 밑 침전물에 서식한다. 이들은 지면의 자기장을 감지해 수면 아래의 지면에 위치한 침전물을 향해 유영할 수 있는데, 이 들이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몸속에 '마그네토솜(magnetosome)'이라는 특수한 세포 내 소기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마그네토솜은 35~120nm* 정도의 자석 결정을 생성하는 소기관으로, 단백질 복합체가 자석 결정을 둘러싼 형태이다. 마그네토솜은 박테리아가 섭취한 먹이를 바탕으로 마그네타이트(Fe₃O₄) 또는 그레자이트(Fe₃S₄)로 이루어진 균일한 자석 결정을 생성한다. 자석 결정 한 개가 지닌 자기력은 아주 작지만, 주자성 박테리아 내부에는 자석 결정 여럿이 N극, S극의 인력에 의해 사슬 형태를 이루어 하나의 긴 자석처럼 큰 자기력을 갖게 된다. 주자성 박테리아는 이 자석 결정을 나침반으로 삼아 자신들의 서식지를 감지하고, 운동 기관인 편모를 회전하는 방법으로 해당 방향으로 움직인다. 북반구와 남반구의 지면에서 감지되는 자기장은 서로 반대이므로, 수중의 주자성 박테리아들은 북반구에서 지면의 자북극*을, 남반구에서 지면의 자남극을 지향한다.

주자성 박테리아에서 얻어낸 마그네토솜 자석 결정은 인위적으로 합성한 자석 결정에 비해 여러 장점을 지녀 의학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①'발열 치료 시스템'은 이러한 사례 중 하나이다. 마그네토솜 자석 결정은 매우 작아 세포 내에 침투하기가 용이한데, 마그네토솜 자석 결정에 암세포를 찾아가는 표적 물질을 코팅하면 자석 결정이 암세포에 침투할 수 있다. 암세포는 정상 세포에 비해 열에 약한 경우가 많아 암세포에 침투한 자석 결정을 체외에서 자기장을 이용해 발열시키면 암세포를 소멸시킬 수 있다.



체외의 자기장에 의해 체내의 자석 결정이 발열하는 현상은 '자기 이력 현상'과 관련된다. 자기 이력 현상은 외부에서 가하던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성체가 자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현상을 말한다. 자성체란 자기장에 의해 자화되는 물질을 가리키는데, 전자석이나 영구 자석은 철, 니켈, 코발트처럼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강자성체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림>은 전류의 세기에 따른 자화 세기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자기 이력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성체인 코일에 도선 코일을 감고 코일에 일정 방향으로 전류를 흘리면 코일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 이때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는데,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코일 주변의 자기장이 강해지고, 이에 따라 자성체의 자화 세기가 커진다. 외부 자기장이 어느 정도 강해지면 자성체의 자화 세기는 포화점 b에 이르러 전류를 더 세게 흘려도 커지지 않는다. 이때 전류를 0으로 줄여도 자성체는 c만큼의 자화 세기를 지니는데, 이는 자성체가 영구 자석이 되었음을 뜻한다. 자성체에 남아 있는 자화 세기를 '잔류 자기'라 하는데, 잔류 자기를 제거하려면 코일에 전류를 이전의 역방향으로 흘려야 한다. 이 역방향 전류의 세기를 d만큼 증가시키면 자화 세기는 0이 되고, 전류를 더 세게 흘리면 자성체의 자화 세기가 반대쪽으로 커져 포화점 e에 이른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전류의 세기에 따른 자화 세기는 <그림>과 같이 변화하는데, 자화의 과정과 관련된 이러한 경로를 나타낸 폐곡선을 '자기 이력 곡선(hysteresis loop)'이라 한다.

외부 코일에 일정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 자성체의 자화 세기가 포화점 b에 이르렀을 때, <그림>과 같이 코일에 역방향의 전류를 흘리는 과정을 반복하면, 자성체의 자화 세기는 처음의 포화상태와 동일하게 복구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전기 에너지는 열에너지로 전환되어 자성체의 온도를 높이는데, 이때 사용

된 에너지의 양은 <그림>의 b-c-d-e-f-g 점에 이르는 자기 이력 곡선의 내부 면적과 비례한다. 자화의 과정과 관련해 발생하는 열은 에너지 손실의 일종인데, 이러한 손실을 ‘자기 이력 손실(hysteresis loss)’이라 한다. 마그네토솜 자석 결정을 활용한 발열 치료는 이렇게 자화의 과정과 관련해 발생하는 열을 활용한 것이다.

발열 치료에는 발열량이 풍부한 자성체나, 정밀한 온도 조절이 가능한 자성체를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마그네토솜 자석 결정 한 개에서 발생하는 열은 매우 작지만, 암세포 속에는 이 자석 결정이 다량으로 침투할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한 부위에 충분한 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정밀한 온도 조절을 위해 발열체의 크기, 형태의 균일성이 필수인데, 마그네토솜 자석 결정은 이를 충족시켜 발열 치료에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하다. 현재 주자성 박테리아의 마그네토솜 자석 결정을 활용한 발열 치료 시스템은 새로운 암 치료 수단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 * nm: 나노미터, 1nm=1/109m.
- * 자북극: 자침이 가리키는 북쪽 끝.
- * 자화: 자기장 안의 물체가 자기를 띠는 현상.

43. 밑글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마그네토솜 자석 결정을 이루는 성분
- ② 혐기성 박테리아가 암세포에 침투하는 원리
- ③ 매우 작은 마그네토솜 자석 결정으로 큰 자기력을 얻는 방법
- ④ 발열 치료 과정에서 마그네토솜 자석 결정을 활용할 때의 장점
- ⑤ 북반구와 남반구의 주자성 박테리아가 지향하는 극이 반대인 이유

44. 밑글의 ㉠과 <보기>의 ㉡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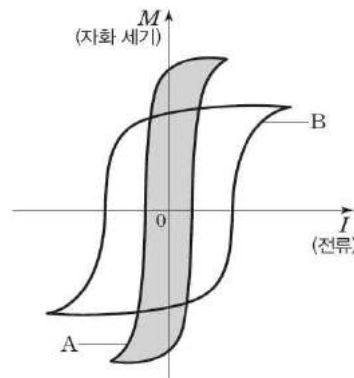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질병 치료를 위해 치료 약물은 정제*나 주사제의 형태로 몸에 투여된다. 약물은 우리 몸에 흡수된 후, 주로 혈액을 통해 전신을 순환하다가 필요한 부위에 작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양보다 많은 양이 투여된다. 그런데 치료 약물로 코팅한 마그네토솜 자석 결정을 인체에 투여한 후, 외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위에만 자기장을 집중해 만들어 주면, 자기장을 향해 움직이는 마그네토솜 자석 결정을 통해 적절한 양의 약물을 필요 부위에만 전달할 수 있어 ㉡ 새로운 약물 전달 시스템이 가능해진다. 약물 과다 섭취를 줄이는 데 마그네토솜 자석 결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 정제: 가루나 결정성 약을 뭉쳐서 동글게 만든 약제.

- ① ㉠과 달리 ㉡은 주자성 박테리아에서 마그네토솜 자석 결정을 추출해야 한다.
- ② ㉠과 달리 ㉠은 주자성 박테리아의 운동 기관을 질병 치료에 활용하고 있다.
- ③ ㉠과 ㉡은 모두 치료가 필요한 부위에 외부에서 자기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 ④ ㉠과 ㉡은 모두 질병 부위를 치료할 약물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실제로 활용될 수 있다.
- ⑤ ㉠과 ㉡은 모두 마그네토솜 자석 결정에 표적이 되는 부위를 찾아가는 물질을 코팅해야 한다.

45. 밑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옆의 그림은 종류가 다른 두 자성체 A와 B의 자기 이력 곡선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자성체는 고유의 자기 이력 곡선을 지니고 있는데, 영구 자석의 재료는 전자석의 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자력이 큰 강철을, 전자석의 재료는 영구 자석의 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자력이 작고 자기 이력 곡선의 내부 면적이 좁은 연철을 활용한다. 보자력이란 자성체 자화 세기가 0이 되도록 하기 위한 자기장의 세기이다. 일반적으로 자기 이력 곡선의 내부 면적이 클수록 보자력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원리는 변압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변압기의 경우 자성체인 내부의 코어는 열로 손실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료로 만들어져야 효율적이다.

- ① 변압기의 경우 내부 코어의 재료로 자성체 B보다 자성체 A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겠군.
- ② A가 B보다 잔류 자기를 제거하기 위해 전류를 더 세게 흘려야 하는 자성체라 할 수 있겠군.
- ③ B가 A보다 보자력이 크기 때문에 영구 자석의 재료로 활용하기에 더 적합한 자성체라 할 수 있겠군.
- ④ B가 A보다 자화 세기를 포화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전류를 더 세게 흘려야 하는 자성체라 할 수 있겠군.
- 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마그네토솜 자석 결정의 자기 이력 곡선이 자성체 B와 같다면 자성체 A와 같은 경우보다 암세포에 대한 발열 치료에 더 효과적이겠군.

- 6차 끝 -